제27호 / 2006 · 9 · 1

시대의 논리

민족연구 27

조정남 편

교 양 사 회

발 행 처 : 교양사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95
영동빌딩507호

편 집 인 : 조정남(☎010-4716-3616)

발 행 일 : 2006년 9월 1일
등록번호 : 서울 바 03304 / 등록일자 2004.3.3

ISSN 1229-2796 / 값 15,000원

27
2006
Autumn

시대의 흐름 민족연구

특 집 중앙아시아의 민족과 정치

6 〈민족문제〉 **중앙아시아의 정치와 민족문제** – 이태욱
20 **중앙아시아의 민족주의 운동** – 오재완
41 〈정치체제〉 **중앙아시아의 정치체제** – 김인성
69 〈개별민족〉 **우즈베키스탄의 민족문제** – 성동기
83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라우샨벡 압사따로브
91 〈종교문제〉 **중앙아시아의 종교갈등** – 김혜림
114 〈환경문제〉 **중앙아시아의 환경문제** – 박창규
131 〈자 료〉 **중앙아시아의 역사** – 정려정 / 김재원

논 단
150 **실크로드의 생성과 발전 및 쇠퇴** - 박주식
167 **역대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 최종호

기획연재 – 민족과 문학 3
183 **언어에 대한 자각과 민족의 발견** - 여태천

Minjok Yeonku

Vol. 27

CONTENTS

Politics and Ethnic Problem in Central Asia --- 6
Lee, Tae Wook (Researcher in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Nationalist Movement in Central Asia --- 20
Oh, Jae Wan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in Institute for Peace Studies, Korea University)

Political System in Central Asia --- 41
Kim, In Sung (Lecturer, Korea University)

Ethnic Conflict in Uzbekistan --- 69
Sung, Dong-Ki(Foreign Language University in Pusan)

Ethnic Consciousness in Kazakhstan --- 83
Raushanbek Absattarov (Professor, Kazakhstan National University)

Religious Conflict in Central Asia --- 91
Kim, Hye Lim (Researcher in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Environmental Problems in Central Asia --- 114
Park, Chang gyu (Researcher in Institute for study on Russia and CIS, Korea Univercity)

The Silk Road's Formation, Development and Declination --- 150
Park, Joo Sik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in Institute for Peace Studies, Korea University)

Overseas Korea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s --- 167
Choi, Jong Ho (Korea University)

The Awakening against a Language and Discovery of the Nation --- 183
Yeo, tae-chon (Lecturer, Korea University)

특집 중앙아시아의 민족과 정치

〈민족문제〉 **중앙아시아의 정치와 민족문제** – 이태욱

중앙아시아의 민족주의 운동 – 오재완

〈정치체제〉 **중앙아시아의 정치체제** – 김인성

〈개별민족〉 **우즈베키스탄의 민족문제** – 성동기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라우샨벡 압사따로브

〈종교문제〉 **중앙아시아의 종교갈등** – 김혜림

〈환경문제〉 **중앙아시아의 환경문제** – 박창규

〈자　　료〉 **중앙아시아의 역사** – 정려정 / 김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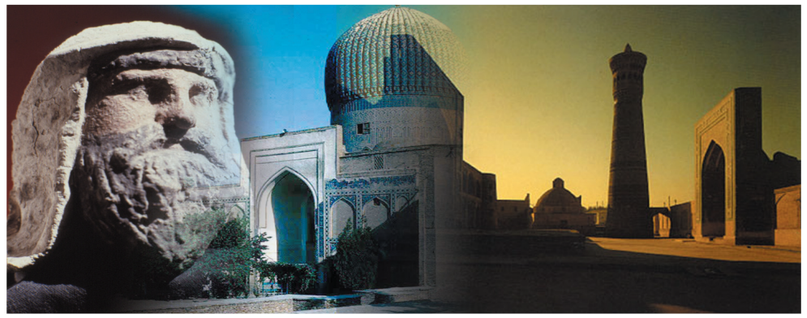
특 집

민족문제

중앙아시아의 정치와 민족문제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이 태 욱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likkor@hanmail.net



서 론

1991년 12월 31일 소비에트연방의 공식적 해체이후 이를 구성하고 있던 15개 공화국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나름대로의 생존수단을 찾기 위해 극심한 혼란기를 겪고 있다.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에 속했던 5개 공화국 역시 마찬가지 상황을 겪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자립적 경제구조의 미비로 인한 국민생활의 피폐와 자민족 우선주의의 추진으로 인한 민족간의 갈등 그리고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에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런 정치적 독립에 따르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구소련시절 연방의 구성부분으로서 그 위상과 경제적 잠재력이 서방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음이 다시 부각되면서 이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과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

중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민족형성 및 고대사의 과정으로 적지 않은 관계를 맺었던 지역이지만, 구소련 체제하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연구 및 접근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소련 해체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앙아시아라는 개념은 전통적인 지리적 개념[2]에서 보았을 때 西투르키스탄에 한정되는 5개의 옛 소비에트 공화국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는 소련학계에 정착된 극히 축소된 개념으로서, 서구의 학계에 의해 편리하다는 이유로 소비에트 중앙아시아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3] 이 글에서도 중앙아시아의 개념은 위 5개 공화국지역에 한정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제한적 인식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 접근할 때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발전가능성과 함께 복잡한 민족구성에 따른 민족적 갈등과 이에 따른 정치사회적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라 하겠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과거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던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곳으로, 오래전부터 많은 민족이 뒤섞여 살고 있는 곳이다. 한반도의 약 18배에 달하는 399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 중앙아시아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주요 민족만 해도 터키계의 카자흐 · 키스키스 · 우즈베크 · 투르크멘 · 위구르 등의 민족,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란계 주민인 타지크 민족, 그리고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러시아 · 우크라이나 · 독일 민족이 섞여 살고 있다.[4] 여기에다 약 30만이상의 한인과 기타 소수민족을 더하면 이곳은 과연 '민족의 전시장' 이라고 불러도 좋은 지역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를 행함에 있어서 민족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정치적 · 경제적 체제의 재편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민족간의 재통합과 분리라는 문제는 지역적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개관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던 중앙아시아 지역은 특히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상업도시가 크게 번성하였다. 이 지역의 중요성을 깨달은 중국을 비롯하여 이란계 민족 · 흉노족 · 돌궐족 등이 중앙아시아를 지배하에

1) 홍성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경제 진입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14권 2호.
2) 중앙아시아는 東투르키스탄과 西투르키스탄 · 티벳 · 몽골 지방으로 나누어지며 東투르키스탄은 중국의 산장웨이우얼 자치구, 西투르키스탄은 아랄해를 중심으로 하는 투르크메니스탄 · 우즈베키스탄 · 타지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 카자흐스탄의 5개 공화국을 포함한다.(자료출처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야후 코리아(http://kr.yahoo.com)에서 재인용).
3) 최한우, 『중앙아시아학 입문』 (서울: 도서출판 펴내기, 1997), 3쪽.
4) 이정옥, "중앙아시아 한인가족 구조의 변화," 한국사회사학회.,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6), 134쪽.

두고 번성하였으며, 9세기부터는 위구르족이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면서 이 지역의 투르크 민족화가 진행되었다. 13~15세기에 몽골의 지배하에 놓였던 중앙아시아는 이후 현재의 우즈베크족 · 카자흐족 등이 정착하게 되었다.

러시아가 중앙아시로 진출한 것은 1855년 크리미아 전쟁 이후의 일이다. 1556년 이반 뇌세(이반4세)가 아스트라한을 점령하면서 중앙아시아로의 진출을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19세기 중엽에 접어들면서 러시아의 진출은 매우 노골적이고 급진적인 것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서쪽 영토의 추가 확보에 잇달아 실패한 상태에서 새로운 활로로서 중앙아시아를 선택 하였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러시아의 실추된 위신을 세워주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서간의 교통 요충로를 점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업적 이익을 함께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821년 키르기스스탄을 정벌한 러시아는 1868년 우즈베키스탄을 병합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이미 1735년부터 러시아의 요새가 건설되어 있었고, 경제적 결속이 강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1917년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러시아의 정치적 · 경제적 지배를 받는 상태였다.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미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머지 공화국은 차례로 소비에트연방의 구성 공화국이 되었다.[5]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 중 타지키스탄만이 유일한 이란계 민족국가이고 나머지 4개는 투르크계 민족국가인데, 이곳에 등장한 5개 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탄생되었다. 소련에 의해 탄생된 중앙아시아 국가는 의도적으로 다민족적 구성을 갖게 되었다. 즉, 국경선 자체가 소련 체제하에서 다민족적 구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러진 것이다.[6]

소련은 이 지역에서 투르크계 민족을 중심으로 자민족 우선주의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러시아인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구성으로 중앙아시아의 공화국을 출범시켰으며, 러시아어의 공용화와 이슬람의 무력화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인 측면과 종속적인 경제구조의 건설 등 제도적인 측면을 통해 러시아인 우월주의를 확고히 진행시키면서 연방의 결속력을 강화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소련의 역사는 러시아의 소수민족 합병이 그들을 위한 최선이었다는 관점에서 기록되었으며, 민족주의를 적대시하고 러시아 민족과의 연합을 행운으로 여기도록 하였다.

중앙아시아 각 공화국에서 직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책임이 있는 자리에는 모두 러시아인을 배치하였고, 각국의 상업시설은 철저히 러시아의 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

5) 1920년 출범 당시의 카자흐스탄은 현재의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는 4개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존재하였으며, 이후 1926년에 키르기스스탄이 별도의 공화국으로 재편성되었다.

6) 박명규, "중앙아시아 한인의 집합적 정체성과 그 변화," 한국사회사학회,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6), 24쪽.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의 경쟁은 이들의 민족문제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제 중앙아시아는 중요한 선택의 길에 섰다.

여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이를테면,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면화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는 면화가 러시아로 보내진 뒤 완성품으로 가공되어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역수입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처럼 소련체제는 각국의 민족적 상이성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것을 법적 · 제도적 장치를 통해 통제하였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100여 개 이상의 민족범주에 반드시 속해 있었고 여권을 비롯한 공식적인 문서에 소속민족이 기재[7]되는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스탈린이 집권한 1930년대에는 한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다민족화 하기도 하였다. 즉, 소련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인 이외의 민족이 압도적 다수가 되는 상황을 막는 방식으로 러시아 중심의 결속력과 중앙집권성을 강화하려 했던 것이다.

74년 동안의 소련체제를 겪으면서, 철저히 러시아인들의 의도에 의해 지배를 받았던 중앙아시아는 1991년 연방의 해체와 함께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속속 독립을 선언한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에서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의도적으로 행해졌던 다민족화 정책을 극복하고 새롭게 민족을 재통합하려는 작업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비록 CIS[8]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벌이

〈표-1〉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 개황

	인구(천명)	수 도	공용어	1인당 총생산($)	주요산업
카자흐스탄	15,388	아스타나	카자흐어	1,350	에너지, 광업
우즈베키스탄	24,449	타슈켄트	우즈베크어	1,020	면화, 광업
타지키스탄	6,213	두샨베	타지크어	330	공업, 광업
키르기스스탄	4,761	비슈케크	키르기스어	480	농업, 광업
투르크메니스탄	4,721	아스하바트	투르크멘어	640	광업, 중공업

*인구통계 1999년 현재, 1인당 총생산은 1997년 현재.
출처: 『두산세계대백과사전』, 야후코리아세어 재인용(http://kr.yahoo.com).
최한우, 위의 책.

7) 박명규, 위의 글, 23쪽.
8)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구소련의 해체 이후, 과거 소련을 구성했던 국가들이 결성한 느슨한 형태의 국가 공동체. 1991년 12월21일 카자흐스탄의 당시 수도 알마아타에서 창립 총회가 열렸으며, 현재 구소련 15개 공화국 중 발트3국을 제외한 12개국이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동하고 있다.

〈표-2〉 1989년 현재,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의 민족구성

국 명	총인구(천명)	러시아인(천명)	자민족비율(%)	러시아인비율(%)
카 자 흐 스 탄	16,464	6,228	40	37.8
우즈베키스탄	19,810	1,653	71	8.3
타 지 키 스 탄	5,093	388	62	7.6
키르기스스탄	4,258	917	52	21.5
투르크메니스탄	3,523	334	72	9.4

*출처: Leon Gudkov, "The Disintegration of the USSR and Russian in the Republics," *The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Vol. 9, No. 1 / 김인성, "러시아의 구소련지역 러시아인 정책," 『민족연구』 제5호에서 재인용 및 재구성.

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경제 · 안보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 내부적으로는 자민족 우선주의 정책으로 급속히 회귀한 것이다.

<표-1>에 나타나는 것처럼, 중앙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석유나 금속, 천연가스, 광물 등 원료를 수출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발달한 산업이 없다. 이는 구소련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종속적 경제구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 각국은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강력한 권위주의 정권이 성립되어, 1991년 이 지역 국가들이 독립한 이래 10년 이상 장기집권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국가들이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언어와 종교 등에 걸친 민족문화의 복원이었다. 우선 중앙아시아 각국은 그동안 러시아어에 가려져 있던 자민족 언어를 공식어언로 단독지정하거나 러시아어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에서 민족언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현재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은 모두 법률로 공식언어를 자민족 언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만이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9] 이는 급진적 민족주의 정권이 들어선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그간 현지어의 학습을 등한시했던 러시아인들 혹은 소수민족들은 독립 이후 급속히 공직이나 전문직에서 밀려나고, 이 자리를 자민족 출신들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민족적 역차별 현상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던 러시아인들은 빠른 속도로 러시아로 돌아가고 있으며, 한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도 소비에트 연방의 창건 이전에 자신들이 정착하고 있던 지역으로서의 귀환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1991년 연방붕괴 이후에 러시아인들의 역이민 현상은 각국마다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9) 1993년 1월28일 채택된 카자흐스탄의 독립헌법에는 공용어를 카자흐어로, 다민족간 의사소통 언어로 러시아어를 각각 지정하였다. 김대성, "소련 해체 이후 강대국의 對중앙아시아 지역 패권주의정책과 국제질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9권 제1호.

〈표-3〉 1989년~98년 사이
중앙아시아 러시아인들의 역이민 추세

국 명	역이민 비율(%)	역이민 인원(명)
카 자 흐 스 탄	16.2	1백만
우즈베키스탄	24.6	46만
타 지 키 스 탄	55.3	21만5천
키르기스스탄	23	21만
투르크메니스탄	24.4	8만2천

*출처: 김인성, "러시아의 구소련지역 러시아인 정책,"
『민족연구』 제5호.

공식언어의 교체는 곧 자민족 우선주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였다. 과거 고위직이나 주요 기술직을 독점하고 있던 러시아인들과 전문직과 공직에 진출해 있던 소수민족들은 공식언어로 새롭게 지정된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등을 모른다는 이유로 이런 자리에서 밀려나야 했고, 다른 소수민족과는 달리 돌아갈 곳이 있는 러시아인들의 유출현상을 이처럼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간의 새로운 갈등양상과 재편과정을 보여주는 계량적 자료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989년 이후 1998년까지 러시아인들의 역이민 양상은 <표-3>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3>에서 나타나듯이,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러시아인들의 유출현상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단지 규모나 속도 면에서 각국이 처한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언어문제와 더불어 중앙아시아의 민족갈등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종교이다. 정교를 신봉했던 러시아인과는 달리 중앙아시아 민족은 7세기 이래로 이슬람을 신봉하고 있다. 또한 현재도 중앙아시아국가들의 인구 중 90%가 이슬람을 신봉하는 투르크계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제정러시아에 복속 당한 이후에 중앙아시아 각 도시에는 러시아정교 사원이 들어서고 이슬람에 대한 공식적인 숭배가 금지되었으며, 공산혁명이 일어난 이후에는 모든 종교시설이 박물관이나 관청 건물로 사용되고 종교의 자유가 말살되었다.[10] 때문에 중앙아시아인에게 있어서 이슬람 신앙을 되찾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 회복이 아니라 민족적인 문화와 자존심을 함께 되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는 소련해체 후의 새로운 민족국가체제의 수립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급속한 러시아인 유출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이 종교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새뮤얼 헌팅턴이 지적하였듯이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의 하나인 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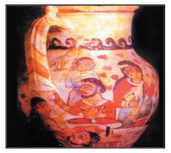
10) 공산혁명으로 중앙아시아를 장악한 볼세비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는 잠재적인 대결 사상인 이슬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1927년 이후 이슬람식의 모든 전통 법정과 종교교육 등이 금지되었으며, 근대적인 교육시스템과 러시아어 문자교육이 이루어졌다. 김대성, 위의 글, 참조.

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1989년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의 영향은 인근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지로 번지기 시작했다. 타지키스탄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들과의 오랜 내전을 겪으면서 극도의 혼란과 피폐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러시아인을 비롯한 타민족에게 행해진 무자비환 테러를 겪으면서 1989년 당시에 비해 무려 55.3%의 러시아인이 역외로 탈출하는 사태를 맞았다. 타지키스탄의 정부와 이슬람 반군 세력의 충돌은 1997년 6월 27일, 당시 라흐모노프 타지키스탄 대통령과 압둘라 누리 반군 지도자간의 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듯 보였지만, 이후에도 각 지역에서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높은 러시아인 비율로 인해 공용어 교체 정책이나 이슬람 회귀 등에서 한 발자국 늦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경우 상대적으로 러시아인들의 유출속도가 느림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인들이 유출되는 것은 곧 타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쳐 소수민족이 연쇄적으로 중앙아시아를 탈출하여 러시아 등지로 주거지를 옮기게 하는 효과를 발하기도 한다.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인과 기타 소수민족이 유출하는 것은 중앙아시아 각국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목생활을 해왔고, 민족적인 습성상 교육열이나 노동생산성 등에서 우수하지 않았던 중앙아시아 민족에 비해 러시아인이나 기타 소수민족은 우수한 교육배경과 기술, 지식 등을 보유한 채 각국의 전문직이나 고위직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과거 소련시절 중앙아시아 각국의 공산당 서기장은 상징적으로 자민족 출신이 맡고 있었지만 기타 주요 직책은 러시아인이나 기타 소수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독립 이후 충분한 인적자원이 없는 상황하에서, 자민족 우선주의 원칙을 내세워 이들을 교체하다보니 행정적 · 기술적 공백과 함께 심각한 부작용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스탈린 시절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이 일궈놓은 협동농장(꼴호즈)의 책임자가 우즈베크인으로 교체되고, 이름이나 소유권마저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상당한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비교적 온건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키르기스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기술력과 우수한 지식을 보유한 러시아인 및 기타 소수민족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민족적 차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11)]

11) 카자흐스탄의 경우 1991년 채택된 시민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불허하나, 국가간의 조약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두었다. 키르기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러시아에 종속적인 경제구조 때문에, 러시아 기술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국적 인정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민족갈등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종교이다. 정교를 신봉했던 러시아인들과는 달리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7세기 이래로 이슬람을 신봉하고 있었다.

현재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은 모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공산당의 엘리트 계층이 그대로 정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국가에 권위주의 정권이 장기집권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사회개혁은 어려운 실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거대한 유전과 천연가스전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파무라트 니야조프 현 대통령이 1994년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의 임기를 10년 이상 연장하고 총 높이가 84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동상을 세우기도 하였다.[12]

정부의 부패와 함께 중앙아시아의 효율적 정치 · 경제개혁으로 방해하는 것이 이 지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의 횡포이다. 풍부한 부존자원의 개발을 노린 미국 등 외국계 기업이 중앙아시아 각국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진출하면서, 이 지역에는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13] 실제로 1998년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 알마아타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UN 대표자 회의에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정착 단계인 중앙아시아에서 다국적 기업의 부정부패를 지적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14] 중앙아시아가 처해 있는 현재와 같은 혼탁함은 사회적 질서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각국의 중앙정부가 민족문제에까지 신경을 쓸 여력을 잃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등 슬라브계 민족공화국과는 달리 중앙아시아 국가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민족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한우의 지적을 정리해 보면 민족적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는 서구적 가치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중앙아시아인들이 가진 반러시아 감정이며, 둘째로는 반러시아 감정이 기독교와 이슬람간의 종교적 분쟁으로 연결되는 것, 마지막으로는 러시아 · 우크라이나 등 슬라브계 공화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구소련의종속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는 일이다.[15] 중앙아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결국 소련 시절에 받았던

12) 조선일보, 1997년 5월 29일.
13) 1994년 카자흐스탄의 침켄트 지역에서 면화류직물의 톤당 가격이 800~900달러 선이었는데, 현지에 진출한 난국기업들이 면화거래를 위해 농림부 관리나 농장 및 목화공장의 관리인, 철도역 관리공무원이나 기관사들이 지불해야 했던 뇌물과 같은 부수적 비용은 톤당 가격의 약 3분의1 수준이나 되는 것이었다. Zabaikhan Abdildin, "Central Asia and Northeast Asian : The New Relation," *MAJOR POWER AND FUTURE SECURITY*, 1995, 참조.
14) 조선일보, 1998년 3월 10일.
15) 최한우, "구소련 해체 후 중앙아시아 현상과 한인 정체성 문제," 한국사회사학회, 『중앙아시아 한인의 의식과 생활』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6). 199~200쪽.

민족적 차별에 따른 피해의식과 왜곡된 사회경제적 구조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그 동안 살펴본 중앙아시아의 포괄적인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역내 핵심국가라고 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를 통해 중앙아시아지역의 민족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친러시아 · 친서구적 정책을 꾸준히 취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초기부터 철저하고 급속한 자민족 우선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좋은 비교가 될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의 12.2%를 차지하는 272만 4900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자민족의 구성 비율이 40%선에 그치고 있으며, 기술력을 보유한 러시아인이 38%를 차지하면서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급진적인 자민족 우선주의 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18세기부터 러시아의 사실상 보호 하에 있었으며, 현재는 카자흐인과 러시아인을 비롯하여 약 120여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이렇게 복잡한 민족구성을 가지게 된 것은 세계 제2차대전 당시 스탈린이 충성심이 약하다고 생각된 소수민족들을 이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기 때문이다. 한국과는 1992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998년 수도를 알마아타에서 아스타나로 옮겼다. 카자흐스탄은 2백억 배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원유와 구리, 아연 등의 풍부한 지하자원, 구소련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바이누르 우주기지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본과 기술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IMF와 세계은행 등 서방측의 권고대로 사유화 정책과 개방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미 전략적으로 중요한 80% 이상의 카자흐스탄 기업이 서방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기도 하다.[16] 1990년 4월 카자흐스탄 대통령으로 선출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는 10년 이상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독립 초기부터 서방 및 러시아 측과 꾸준히 좋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민족정책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다른 중앙아시아 공화국과

16) 홍성원,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경제 진입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슬라브학보』 제14권 제2호, 참조.

는 달리 매우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카자흐인들이 러시아인들에 대한 반감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들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8세기부터 카자흐에 요새를 건설하고 진출해 있었던 러시아인은 소련의 성립 이후 러시아인을 비롯한 슬라브족을 비슬라브계 민족집단 속으로 이주시키는 재배치 정책을 사용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으로도 러시아인을 비롯한 많은 소수민족들이 유입되었다. 자민족 비율이 과반수가 넘지 못한 상황에서 카자흐인들은 이슬람 민족주의 저항운동, 즉 비스마치운동을 전개하게 되었고 이를 진압 당하는 과정에서 많은 카자흐인이 살해 되었다.[17] 뿌리깊은 반러시아 민족 감정은 1986년 2월 16일,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카자흐스탄 공산당 제1서기였던 카자흐인 쿠나예프를 해임하고, 러시아인 겐나디 콜빈을 그 후임자로 기용하면서 격렬한 시위로 분출되었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이 극단적인 반러시아 정책을 취할 수 없었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전체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인을 무시할 수 없었고, 자민족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지하자원과 약간의 농업 이외에는 뚜렷한 산업이 없을 만큼 러시아에 종속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다, 내륙국가이기 때문에 외부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선린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석유나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수송하려면 서방의 투자가 절실한 것이고, 러시아 등을 통한 송유관의 건설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독립국가를 구성하면서 국가의 성격을 정교분리의 세속주의로 규정함으로서, 서구 지향적 이슬람 국가를 표방한 것이다. 이러한 친러시아적 · 친서구적 정책의 추진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로 1991년 이후 카자흐스탄에 대한 서방 기업들의 투자액은 17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액을 기록하는 것에 속한다.[19]

하지만 카자흐스탄이 앞으로도 이러한 친러시아 · 친서구적 경향을 유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사실 카자흐스탄의 엄청난 지하자원을 놓고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 등의 서구국가들이 러시아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국내 사정 때문에 구소련 시절에 비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17) 비스마치 운동은 1918년부터 1928년까지 전개되었고, 민족운동, 계급투쟁, 전통수호 운동 등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비스마치 운동의 진압 이후, 소비에트 정부는 1922년 회교종단의 토지를 반환하고 공식적인 이슬람 의식을 허가하는 등 회유책을 폈지만, 통제력을 회복한 이후에는 다시 이러한 것들이 모두 금지되었다. 김형주, "소련 해체 이후 강대국의 對중앙아시아 지역패권주의 정책과 국제질서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9권 제1호, 참조.

18) 최한우, 위의 책, 329~330쪽.

19)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96~1997.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 1997 / 홍성원, 위의 글, 참조.

대폭 줄이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곧바로 러시아의 영향력 상실과 이에 따른 자민족 우선주의 강화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1936년 정식으로 소비에트의 연방공화국이 된 이후, 카자흐스탄은 다른 중앙아시아 공화국들과 마찬가지로, UN 등 모든 국제무대에서 고립되어 소련의 구성원으로 묶여 있었으며, 이러한 고립화 정책이 현재 카자흐스탄이 다시 국제사회로 복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20]

심리적으로 러시아인에 대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카자흐인으로서는 안보문야 이외에는 직접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러시아보다 점차 서구국가에 대한 접근 속도를 높여 나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다른 국가에 비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탈피하여 독립적 자주노선을 확고히 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전망이다. 즉, 아직까지의 카자흐스탄은 하나의 독립적 국가가 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하나의 독립적 민족으로 자리 잡기에는 주변 환경의 제약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이 1991년 12월 20일 채택한 새로운 시민법에서 원칙적으로는 이중국적을 불허하면서도 국가간의 협약에 의해서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남겨 놓았다는 것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따라서 극단적인 자민족 우선주의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앞서 살펴본 카자흐스탄에 비해서는 훨씬 강도 높은 자민족 우선주의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중부에 위치하며 44만 7400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갖은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최대의 금 매장국이자 세계 2위의 면화 생산국이기도 할 만큼 부존자원이 풍부하다. 카리모프 이슬람 현 대통령이 이끄는 인민민주당(People' s Democratic Party)은 공산당을 모체로 창당하여, 독립 이후 계속하여 집권하고 있는데,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권위주의 정권의 성격을 띠고 있다. 18세기 후반부터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으며, 10월 혁명 이후 부하라와히바 한국이 소비에트군에 패배하면서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1924년 10월 27일 정식으로소비에트 연방의 우즈베크공화국이 되었다가 1991년 8월 31일 독립선언을 하였으며, 한국과는 1992년 1월 29일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21]

우즈베키스탄은 인종구성에 있어서 카자흐스탄과는 달리 러시아인이 적고 70% 이상을 보유한 우즈베크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적 갈등문제를 잠시 보류한 채 국가주도의 경제건설에 뛰어들 여건을 가지고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새로운 독립국가에 대항하던 민족주의 운동과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을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진압하였다. 전통적으로 10%에 못 미치는 러시아인 비율 때문에 구소

20) 김형주, 위의 글, 참조.
21) 駐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uzbekis.htm.

서구의 투자를 유치하여 자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국내적으로는 민족간의 갈등을 완화시켜 진정한 하나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련 공화국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1989년 우즈베크어를 교육언어로 지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언어적으로 가장 적게 러시아어의 영향권에 있던 국가로서 그들의 언어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다.[22] 1991년에는 '국어의 공용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모든 공식문서에서 우즈베크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소련체제하에서 가장 확실한 문화정책의 하나였다는 것을 볼 때, 우즈베키스탄은 언어를 매개로 한 인종적 갈등과 정치화를 확실히 진행시키고 있다고 하겠다.[23]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7월 2일 채택한 시민법에 따라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24]

또 90% 이상의 자민족이 이슬람을 신봉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러시아정교도인 러시아인과 이슬람인 우즈베크인 사이에 사회적 교류나 결혼 등은 극히 드물었다. 이는 독립 이후 공공연한 적대감의 표시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25] 우즈베크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 중에서 이처럼 가장 먼저 독자노선을 개척하고, 반러시아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는 민족적인 구성 비율 못지않게 카리모프 대통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여 진다. 미국인과 우즈베크인 사이에서 태어난 부인을 두고 있는 카리모프는 우즈베크공산당 제1서기였던 시절부터 소련 지도층의 무능함과 소련의 행정적 공백 및 기능적 이상을 예견하고 이를 비판하였다. 또한 구소련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 있던 공장들을 해체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옮긴 것은 이 지역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안정된 산업 기반을 갖추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26] 중앙아시아 전체에 위치한 230여 개의 이슬람 사원 중 70%가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이 중앙아시아 이슬람의 본산지임을 말해 주기도 한다.[27] 또한 역사의 재구성 작업을 통해 우즈베크 역사의 인물과 사상을 부각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

22) 최한우, 위의 책, 361쪽.
23) 박명규, 위의 글, 참조.
24)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 중에서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이중국적을 불허함으로써 러시아인들의 대량 유출 사태을 경험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1993년 12월 러시아와 의 쌍무협정을 통해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 역시 이중국적 허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간 협약에 의해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25) 최한우, 위의 책, 374쪽.
26) Al Risa Balaman, "소련 해체 후 강대국의 對중앙아시아 지역패권주의 정책과 국제질서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종교와 민족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제19권 제1호, 참조.
27) 위의 글, 참조.

살펴본 바대로 우즈베키스탄의 민족구성과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 경제적 안정성, 종교적 편향성 등은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 가운데 가장 독자적으로 반러시아 노선을 구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민족주의적 갈등에 있어서 보다 일방적으로 자민족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할 수 있었던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민족문제를 정리하고, 과거 사실상의 식민지배국으로 군림하였던 러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이 같은 독단적인 태도와 이슬람에 대한 편중현상을 서구 국가들의 투자를 받는 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은 1996년 현재 이전 소련시절 수준의 82% 규모까지 경제가 회복되는 빠른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28]

우즈베키스탄의 이와 같은 모습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민족갈등 문제를 단기간 내에 안정시킨 국가가 다른 분야에서도 안정을 되찾는데 앞서나가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슬람과 우즈베크 언어를 축으로 하는 민족문제를 자민족 우선주의 원칙 하에서 빠르게 해결함으로써 관주도의 국가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29] 또한 타지키스탄과는 달리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로 이를 대처함으로써 국가적 안정을 빨리 이뤄냈다고 하겠다.

결 론

민족 범주가 권력자원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으며, 어쩌면 이것은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자체가 처해 있는 딜레마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소련의 정체성이 소멸되고 새로운 정치 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는 기반으로 인종적 범주가 선정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30] 하지만 세계화의 새로운 환경에서는 더 이상 한 국가의 국민이 단일한 문화를 공유하기도, 단일의 언어적 통일을 기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더욱 단일의 충성 대상을 가진 충성 공동체가 되기란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음은 이제 한 두 나라의 예외적인 경우만은 아니게 되었다.[31]

---

28) 홍성원, 위의 글, 참조.
29) 1997년 현재 우즈베키스탄이 달성한 경제적 성과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채택한 자유방임주의적 정책에 비해 국가개입 정책이 더 효과적인 성장을 이룩하게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30) 박명규, 위의 글, 참조.

중앙아시아의 각국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소련 체제하에서 국가적인 독립성과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뒤늦게 그것을 회복하려는 이들의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이와 같은 민족이란 문제를 가지고 국가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 이들이 공통적으로 풀고 넘어가야 할 숙제이다. 중앙아시아의 각국이 새로운 독립국가 혹은 독립민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애를 쓰는 동안, 이들이 가지고 있던 러시아에 대한 막연한 반감은 서구 국가들이 자신들의 환경과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착취하는 것을 방관하게 만들었다. 중앙아시아에서 늘어난 마약관련 범죄와 허약한 치안, 안보 문제 등은 다시 이들로 하여금 결집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상하이 협력조직(SOS)이다.[32] 중앙아시아는 일방적으로 서구에 끌려가는 자신들의 위치를 보완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보와 미국의 견제를 위해 이 기구를 설립한 것이다. 특히 이 지역에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한 러시아는 새로운 외교 독트린의 발표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강력히 보호하고, 독립적 외교정책을 펴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33]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경쟁은 이들의 민족문제에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제 중앙아시아는 중요한 선택의 길에 섰다. 서구의 투자를 유치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내적으로는 민족간의 갈등을 완화시켜 진정한 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소련 체제 74년이 남긴 인위적 다미족성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21세기의 신흥 독립국으로 나가는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적 과제이다.

---

31) 조정남, "현대국가와 다문화주의," 『민족연구』 제6호, 8쪽.

32)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4개국(투르크메니스탄 제외)이 결성한 협력기구. 이 기구는 지역 안보와 테러리즘, 극단주의, 분리주의와의 투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련 해체 이후 중국과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이 모여 군축과 신뢰구축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1996년 상하이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며, 매년 각국을 돌며 회담을 개최하다 2001년 6월15일 다시 상하이에서 우즈베키스탄을 6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33) Ivanov I.S., "Perspektiv' i Sotrudnichestva na Sovermennoi Etape," *Mezdunarodnaya Zizn' i* No. 1, 참조.

중앙아시아의 민족주의 운동*

오 재 완 (고려대 평화연구소연구 부교수)
suyoung873@hanmail.net

서 론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 지역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무대에서 구소 무슬림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는 이슬람세계와 구 공산세계 간의 교착지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1]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구소 무슬림 지역의 독립을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동의 확대, 즉 이슬람 세력의 확대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독립국가로서의 새로운 지위에 적응해야 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들은 새로운 정치구조의 수립, 자립 경제의 건설, 새로운 국가 정체성의 모색 등으로 요약된다.[2] 이러한 핵심적인 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아시

* "이 논문은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현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2-072-BS2071).

1) 연구의 초점은 구소 중앙아시아 신생독립공화국 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맞춰져 있지만, Caucasus 지역, 남부 러시아의 회교도 거주지역과 터키계 거주지역, 서부 중국 및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의 북부 지역 등과 같은 주변지역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아 국가들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핵심적인 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중앙아시아의 민족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립 후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발전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는 따라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민족주의가 수행한 역사적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중앙아시아 민족주의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논쟁은 1990년대에 러시아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국가란 만들어지는 것' 이라는 가설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소비에트 국가가 소비에트 변방지역에서 비(非) 러시아인들의 국가를 만들어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Ronald Grigor Suny, Yuri Slezkine, Francine Hirsch 등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3)]

그들은 국가가 주도하여 민족을 형성시킨 가장 좋은 예로써 중앙아시아 지역의 독립공화국들을 들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러시아에 의한 식민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어떠한 민족기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족의식도 결여하고 있었다. 그러던 이 지역이 1924년 소비에트 통치아래 몇 개의 민족공화국으로 나뉘어 지고, 그 후 거의 70년 동안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은 소련체제의 변두리 국가에서 민족주의 정권 아래 독립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면, 소연방체제의 언저리 국가들로 탄생한 중앙아시아의 민족공화국들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완성된 민족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은 중앙아시아 근대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 문제를 규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는 19세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되는 지역 내부의 사정과 국제정치적 맥락을 살펴보고 주요 세력들의 역할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4)]

중앙아시아 민족 정체성의 기원

냉전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족분쟁의 역사적 기원을 규명한

2) 1990년대에 출판된 연구의 대부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공산주의로부터 자본주의로 이행(transition)하는 현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근대사에 관한 개관을 제공해 주는 단행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Ronald Grigor Suny, *The Revenge of the Past : Nationalism, Revolution,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Yuri Slezkine, "The USSR as a Communist Apartment, or How a Socialist State Promoted Ethnic Particularism," *Slavic Review* 53 (Summer 1994), 414-52; Francine Hirsch, "The Soviet Union as a Work-in-Progress: Ethnographers and the Category *Nationality* in the 1926, 1937,and 1939 Censuses," *Slavic Review* 56 (Summer 1997), 251-78.

4)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탈소(脫蘇) 독립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 및 지역내부의 민족분쟁과 그것이 중앙아시아 지역 및 국제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서도 출발한다.

다는 견지에서 민족 정체성 문제는 다음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제정 러시아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민족정체성이 형성되고 강화되는 소비에트 정권 수립 이전의 시기에 대한 연구이며, 두 번째는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민족정체성이 변형되고 쇠퇴하는 과정에 관한 것이며, 끝으로는 냉전 종식 이후 이 지역에서 민족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민족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로 나누어진다.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논문에서는 20세기를 전후로 한 시기, 즉 제정 러시아 말기와 소비에트 정권수립 초기에 걸쳐 전개되었던 중앙아시아 민족주의 운동을 <그 역사와 국제정치적 동학>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 장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전개된 민족주의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그 성격에 관한 학계의 논쟁을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새로운 자료와 해석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와 포스트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에서 민족형성의 과정을 분석한 학자들 가운데 올리버 로이(Oliver Roy)와 폴 게오르그 가이스(Paul Grorg Geiss)가 단연 대표적인 연구자들이다. 그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소비에트 체제 아래에서 언저리에 머물러 있던 초라한 민족공화국에서 현재의 독립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배경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5] 그들은 소비에트 국가(soviet state)가 중앙아시아에서 민족(nationhood)을 만들어준 일차적인 기관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설에 입각하여 그들은 거의 70년간에 걸친 소비에트 통치 아래에서 이 지역에서 민족이념과 관습이 어떻게 뿌리내리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현재의 중앙아시아의 민족성과 소비에트 시절의 기원들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로이와 가이스의 연구들은 그러나 오래된 2차 자료를 단순 편집한 작업의 결과라는 지적과 함께 최근의 새로운 연구 동향들에 의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소비에트 역사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는 여러 측면에서 대조되는 수정주의적 역사 해석이 지난 199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수정주의 사관의 대두는 소련의 비 러시아 민족들의 민족성 발전의 역사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이루어졌다. 그것은 소련 해체 이후 소련 국립문서보관소의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행운을 갖게 된 신진학

5) Oliver Roy, *The New Central Asia: The Creation of Nations* (London: I.B. Tauris, 2000); Paul Georg Geiss, *Nation-making in Cental Asia,* European University Studies, Series 31(Poiltical Science), Vol. 269 (Frnkfurt am Main: Peter Lang, 1995).

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새로운 세대의 학자들은 이전에는 열람할 수 없었던 문서보관소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소비에트라는 다민족 국가의 작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에 소비에트의 민족정책과 소비에트 중앙아시아에 대한 학위논문과 단행본들이 주로 미국 대학들에서 활발하게 출간되기 시작했다.[6)]

소비에트 역사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는 여러 측면에서 대조되는 수정주의적 역사 해석이 지난 199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신진학자들의 새로운 연구결과들은 로이와 가이스의 일부 결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제국 말 및 소비에트 초기에 민족 정체성의 진화, 중앙아시아에서 민족공화국들을 창설하는 과정, 그리고 소련 안에서 중심-주변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그러면, 전통적 해석과 수정주주의 해석에 입각한 중앙아시아 민족주의의 기원과 그 특징은 각각 어떻게 다르게 이해되는가를 살펴보자.

전통주의적 해석

전통적 해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즉, 소비에트 지배 이전에 중앙아시아에서 민족성이라는 개념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중앙아시아의 여러 종족 집단들은 특정한 영토를 차지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른 종족들과 섞여서 살았다. 또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국가들은 그 정통성을 종족 연대감에 근거하기 보다는 왕조적 및 종교적 요인에 두었다. 따라서 종족 연대감 보다는 부족 형태의 연대감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소비에트정권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국가를 제조하는 강력한 기관이었으며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등과 같은 국가들을 새로이 창설했다는 것이다.

---

6) 국립문서보관소의 자료에 근거한 최근의 연구로서 대표적인 연구자와 연구결과들은 주로 박사학위 청구자들과 그들의 학위논문들이다. Terry Martin, "An Affirmative Action Empire: Ethnicity and the Soviet State, 1923-38" ; Francine Hirsch, "Empire of Nations: Colonial Technologies and the Making of the Soviet Union,1917-1939" ; Peter A. Blitstein, "Stalin' s Nations: Soviet Nationality Policy between Planning and Primodialism, 1936-1953" ; Jeremy Smith, *The Bolsheviks and the National Question, 1917-23* (New York: St. Martin' s Press, 1999); Shoshana Keller, "The Struggle Against Islam in Uzbekistan, 1921-1941: Policy, Bureaucracy, and Reality" ; Paula A. Michaels, "Shamans and Surgeons: The Politics of Health Care in Soviet Kazakhstan, 1928-41" ; Douglas Northrop, Uzbek Women and the Veil: Gender and Power in Stalinist Central Asia" ; Adrienne Lynn Edgar, "The Creation of Soviet Turkmenistan,1924-1938" ; Adeeb Khalid, *The Politics of Muslim Cultural Reform: Jadidism in Central Asi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Oliver Roy의 견해[7]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국가에 대한 대중적 충성과 욕구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소비에트가 법령으로 국경선을 획정하고, 국명을 정하고, 그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주고, 종족집단을 규정해주고, 심지어 언어까지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완전히 <소비에트 인공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소비에트는 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국가들을 만들어 주려고 그토록 노력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로이는 이 지역 주민들이 범투르크 또는 범이슬람 단일체로 통일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 지역을 분할지배하려는 모스크바 정권의 전략적인 행동의 결과였다고 대답한다. 소비에트 정권의 이러한 민족정책은 제정 러시아의 민족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었다는 해석이다. 주지하다시피 제정 러시아의 민족정책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범 이슬람(pan-Islam) 및 범 투르크주의(pan-Turkism)가 결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족 정체성과 지방어의 분리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그 인공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에트 시대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으며 그것은 1991년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민족국가는 이 지역에서 국가구조로서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가 되었다. 그러면,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인공적 민족에서 실재적 민족으로 얼마만큼 변환되었을까?

로이에 따르면, 소비에트 제도들이 민족(nationhood)의 행정적, 문화적 및 정치적 형태(또는 기질)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중앙아시아에서 순수한 민족의식을 생성시켜 주었다는 것이다. 신생공화국의 존재 자체가 중앙아시아 인민들의 영토화와 종족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앙아시아 엘리트들과 주민들은 소비에트에 의해 도입된 민족 제도와 관행들을 활용하거나 자신들의 문화적 및 사회적 규범에 맞춰 그것들을 변용시켰다. 로이의 설명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의 정치 및 사회생활이 지금까지도 혈연 및 종교적 연대집단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집단들은 소비에트 통치 아래에서 소비에트 행정구획에 따라 영토화되고 재조직되었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서 집단농장들은 종족 및 종교집단에 따라 형성되었다. 소비에트에 의한 "민족 만들기"(nation-making)가 보여 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체화(totalization)에 대한 소비에트의 집착이다. 소련만이 식민지에서 인위적으로 민족을 만들었던 유일한 식민세력은 아니었다. 소련의 민족정책은

7) 로이의 견해는 다음의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Oliver Roy, *The New Central Asia : The Creation of Nations* (London: I.B. Tauris, 2000).

그러나 서유럽국가들의 식민지 민족정책과 비교하면 훨씬 더 야심적이었다. 소련은 중앙아시아에서 나라를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언어, 민족사, 민족음악과 민족문학까지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민족주의 신념체계의 작동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비에트가 만들어준 민족적 제도들에 의해 모습을 갖춘 형태와 관습을 통해서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따라서 민족문화를 창달시키려는 중앙아시아 지식인들의 노력은 허약하고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이처럼 허약한 민족문화와 이데올로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민족들은 오늘날까지도 뚜렷한 민족적 상징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Paul Georg Geiss의 주장[8]

중앙아시아 민족성의 기원에 관한 가이스의 주장은 로이의 견해와 대체로 유사하다. 그는 중앙아시아 민족들이 인공적인 것이며 심지어 비역사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중앙아시아의 어떠한 민족도 종족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카자크 민족만이 진짜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투르크멘은 국경선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이며, 타지크민족은 완전히 인공적인 민족이라는 것이다.

소비에트에 의해 만들어진 공화국들은 그러나 민족의식이 등장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었다. 특히, 토착화(Korenizatsiia) 정책에 의해 형성된 민족 엘리트들은 모스크바의 주구노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민족의 대표로 행세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소비에트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국가는 사회변혁을 주도하며 민족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국가주도에 의한 교육, 도시화, 매스컴의 발달을 통해 각 공화국의 시민들은 점차적으로 자신들의 동포들과 연결되었으며, 공화국 제도들과 토착어 학교를 통한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통해 대중의식이 형성되었다. 외부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적 구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착민들에 의해 활용되고 전환되었으며, 전통적인 부족적 사회구조는 소비에트 시대에 꾸준히 강화되었다. 오늘날 중앙아시아 독립 민족국가의 출범 이후에도 그것들은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8) 가이스의 견해는 다음의 책에서 발췌한 것이다. Paul Georg Geiss, *Nation-making in Cental Asia*, European University Studies, Series 31(Poiltical Science), Vol. 269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95).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9]

양자의 연구범위, 초점 및 주장은 매우 비슷하다. 중앙아시아의 민족이념은 외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 그것은 복잡한 민족적 구성에 비추어 잘 맞지도 않는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에서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소비에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민족제도들은 민족의식을 형성시켜 주었다. 소비에트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제도들은 토착주민들에 의해 재활용되고 수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하위민족적 또는 부족적 구조가 현재의 민족국가에서도 계속 중요하다는 것이다.

양자는 그러나 중요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로이는 소비에트의 모든 움직임 뒤에는 회교도들을 통제하려는 일관된 결의가 있었다고 본다. 반면에, 가이스는 볼쉐비키 전술의 미봉적 성격, 소비에트 동기의 복합성, 모스크바와 지역세력 간의 상호작용 등을 강조한다. 가이스도 소비에트에 의한 <민족 만들기> 작업이 범투르크주의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교도 통일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대응인 것으로 파악한다. 가이스는 그러나 소비에트가 이 지역에 도착하기 이전에 투르키스탄 내부에는 유목민과 정주민간의 분리, 그리고 언어 및 종교집단간의 분리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또한 소비에트 민족정책은 비 러시아 주민들의 근대화와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전략적 고려에 의해서도 추진되었다고 덧붙인다.

수정주의적 해석

신진학자들의 수정주의 역사해석은 "모든 민족들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로이와 가이스의 전통적인 가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중앙아시아에서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어떤 분석개념에 입각하여 설명할 것인가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그들은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imagined communities) 개념을 원용하여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 민족들도 발명, 정의 및 협상이라는 지속적인 과정에 따라 만들어지는 <상상의 공동체>로서 파악한다.[10] 그들은 따라서 중앙아시아 민족만 독특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민족이라는

9) 이 부분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Oliver Roy, *The New Central Asia: The Creation of Nations* (London: I.B. Tauris, 2000); Paul Georg Geiss, *Nation-making in Cental Asia,* European University Studies, Series 31(Poiltical Science), Vol. 269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95).

10)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London and New York: Verso, 1983).

전통적인 견해는 냉전시대의 허구적 주장이었다고 비판한다.[11]

수정주의 학자들이 제기하는 두 번째 문제는 민족 형성의 주체에 관한 것이다. 수정주의 신진학자들은 중앙아시아 민족형성 과정에서 토착 지식인들이 수행했던 역할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일부 토착 지식인들이 이미 제정 러시아 말기에 언어와 생활양식의 차이에 기초하여 근대적인 민족 정체성의 맹아적 의식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12] 러시아 식민주의자들의 종족적인 차별에 의해 각성하기 시작한 토착 지식인들은 오토만제국과 회교권 세계의 다른 곳에서 발흥한 민족주의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이른바 자디드(jadid)로 알려진 중앙아시아의 개혁가들은 로이가 주장하는 것처럼 범투르크주의자들은 아니었다. 20세기 초 그들은 본질적으로 초기 우즈벡 민족의 일원으로서 언어적 및 영토적으로 투르키스탄의 정체성을 주창하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소비에트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민족공화국의 기초가 되었던 민족 정체성을 중앙아시아 인민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비에트는 단지 이미 존재했던 민족적 분할을 기초로 하여 그것을 제도화시켰던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중앙아시아에서의 국가창설과 민족형성의 동기와 배경에 관한 것이다. 수정주의자들은 중앙아시아에서 민족의 구획은 이 지역을 분할통치하려는 소비에트의 악의적인 동기에 따른 소행이 아니라 소비에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편의적인 선택이었다고 해석한다. 반면에 로이 등과 같이 전통적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소련이 국경선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획정하고 또 일부 영토는 엉뚱하게 다른 공화국에 편입시킴으로써 중앙아시아 민족공화국들이 결코 독립된 국가로서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분할통치론' 에 입각하여 중앙아시아 민족공화국의 경계선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은 오랫동안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990년대 중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소련의 1920년대 민족정책에 대한 신진학자들의 연구들은 전통적 해석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선다.[13] 그들은 소비에트에 의한 "민족 만들어주기"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근거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소비에트의 민족정책은 비단 중앙아시아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련 전역에 걸쳐 진행된 소비에트 프로젝트(Soviet project)의 본질적인

11) 전통주의 사관에 입각한 서방의 학자들이나 귀화한 학자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다고 믿었으며, 또 소련이 실제로 존재했던 범 투르크 민족 또는 범 투르키스탄 민족을 파괴시켰다고 소련의 행위를 비난했다.

12) Adeeb Khalid, *op.cit*., pp. 243-49, 252-53.

13) Helene Carrere d' Encausse, *The Great Challenge: Nationalities and the Bolshevik State, 1917-1930* (New York and London: Holmes and Meier, 1992), pp. 177-78; Walker Connor, *The National Question in Marxist-Leninist Theory and Strate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ch. 9; Seymour Becker, "National Consciousness and Politics of the Bukharan Conciliar People' s Republic," in Edward Allworth, *The Nationality Question in Soviet Central Asia,* (New York: Praeger, 1973), p.166.

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소련 지도자들은 근대화되고 소비에트화 되기를 원하는 모든 후진(後進) 인민들에게 '민족의 자주 독립적 지위' (nationhood)는 필수적인 발전단계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민족공화국과 지역의 창설이 러시아 식민주의와 강대국 쇼비니즘의 오랜 압제를 받아왔던 비 러시아 주민들의 소비에트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를 얻게 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14]

그러면, 영토획정 과정에서 토착세력들의 참여와 반응은 어떠했는가? 소비에트 정권은 소비에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민족정책을 추진했다. 소비에트 정권의 지도자들은 민족정책이 변방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들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옳았다. 실제로 토착엘리트들은 소비에트에 의한 민족공화국의 창설을 환영했다.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멘과 카자크와 같은 유목민 부족집단들은 투르키스탄의 경계를 획정하고 지배하려는 우즈베크의 야심을 경계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분리된 민족공화국과 민족어를 만들자는 소련의 제안을 선선히 받아들였던 것이다. 토착세력들의 이러한 반응은 오랜 역사를 지닌 지역 및 종족 분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히바 한국(Khivan Khanate)에서 유목민인 투르크멘과 정주민인 우즈벡 사이의 불화이다.[15]

중앙아시아에서 민족영토는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하여 매우 부자연스럽게 획정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영토의 창설이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 영토획정은 토착 민족주의 세력들과 민족 공산주의자들, 지방의 러시아 관리들 그리고 모스크바의 지도부들이 얽혀서 벌였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였다.[16] 먼저 지역 엘리트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인구학적 및 경제적 기준에 입각하여 신생공화국의 경계선을 그리고 모스크바의 재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경계선 획정은 극단적으로 주민들이 섞여 살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인구학적 현실을 존중했으며, 민족원칙과 경제원칙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시 할 것인가를 둘러싼 제도적 갈등을 극복해야 했으며, 또한 미래의 민족공화국들의 원주민 대표자들에 의한 영토다툼을 처리해야만 하는 상충되는 명제들이 충돌한 결과였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경계선이 겉보기에 비합리적인 것같이 보이지만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17]

---

14) Slezkine, "The USSR as a Communal Apartment," pp. 418-21; Martin, "An Affirmative Action Empire," pp. 19-28; Jeremy Smith, "The Origins of Soviet National Autonomy," *Revolutionary Russia* 10:2 (December 1997), pp. 71-73.

15) Adrienne Lynn Edgar, "Nationality Policy and Nationality Identity: The Turkmen Soviet Socialist Republic, 1924-29," *Journal of Central Asian Studies* 1:2 (Spring-Summer 1997), pp. 2-20; Daniel E. Schafer, "Origins of the Tatar-Bashkir Boder,1920-1922," *Journal of Central Asian Studies* 1:1 (Fall-Winter 1996), pp. 2-15.

16) Smith, *The Bolsheviks and the National Question*, chs. 3-4; Daniel Schafer, "Local Politics and the Birth of Bashkortostan," in Ronald G. Suny and Terry Martin *A State of Nations: Empire and Naion-Making in the Age of Lenin and Stalin*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 165-90.

중앙아시아 민족주의 운동의 전개

영토획정은 토착 민족주의 세력들과 민족 공산주의자들, 지방의 러시아 관리들 그리고 모스크바의 지도부들이 얽혀서 벌였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였다.

중앙아시아에서의 민족주의 운동의 기원과 성격,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둘러싼 이상의 논쟁을 염두에 두고서 중앙아시아 민족주의 운동의 역사적 전개를 제정 러시아의 식민정책에 대항하여 일어난 '안디잔 저항' (Andijan Resistance) 운동을 제1절에서, 1905년 러시아의 시민혁명의 와중에서 무슬림 개혁운동의 형태로 전개된 자디드 운동(Jadid Movement)을 제2절에서, 끝으로 볼쉐비키 혁명후 소비에트 정권수립에 대항하여 전개된 반소 저항운동으로서 바스마치 운동(Basmachi Movement)을 제3절에서 차례로 살펴보고 그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반식민주의 저항운동: '안디잔 저항'

배경

주지하다시피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은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제정 러시아는 크림전쟁(1853-1856)에서의 패배로 인하여 상처받은 러시아인들의 민족적 자긍심과 군사적 명예를 회복하고 상업적 특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정복에 박차를 가했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에는 영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견제한다는 지정학적 동기도 크게 작용했다. 당시 대영제국은 중동과 인도지역을 장악하는 데에 성공하고 그 여세를 몰아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표시했다.[18)]

영국과 러시아가 지배권을 다투고 있던 당시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세 개의 정치세력들이 분열되어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사마르칸트 지역의 부하라 한국, 우무 데리야강 하류에 위치한 히바 한국, 페르가나 지역의 코칸드 한국 등 3개의 한국이 정립(鼎立)하고 있었다. 이들 3개의 한국들은 통합되지 못한 채 상호불신하고 반목 대립하였다. 더욱이 이들은 동일한 투르크 민족이라는 종족 정체성을 결여한 채 요무트, 살러,

17) Hirsch, "Empire of Nations," pp. 44-55; Smith, The Bolsheviks and the National Question, pp. 68-69; Edgar, "Creation of Soviet Turkmenistan," ch. 2.
18)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부산: 부산외국어대학 출판부, 2001년 2판), 160쪽.

테케와 같은 부족성에서 그 정체성을 추구했다. 이러한 민족 정체성의 결핍은 러시아의 침략을 불러오는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으며 또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19)]

저항운동의 전개와 역사적 의미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은 러시아의 팽창야욕과 중앙아시아 토착세력의 분열과 무능력의 결과였다.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은 1876년 코칸드 한국의 정복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후 트랜스 카스피아 철도의 건설에 따라 러시아인들의 중앙아시아로의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식민정책도 본격화되었다. 그에 따라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위한 경제적 수탈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경제적 수탈과 민족차별 그리고 종교적 억압으로 특징되는 러시아의 식민통치는 이 지역의 이슬람교도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무슬림의 저항운동은 1885년에 처음으로 페르가나에서, 1892년에는 타쉬켄트를 중심으로 하여 러시아의 강점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의 형태로 시작되어 1895년에는 보다 광범위한 규모로 발전하였다. 이슬람교도의 저항운동은 이 지역에서 가장 널리 퍼져있는 수니파의 수피형제단들을 대표하는 무하마드 알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었다. 그는 타쉬켄트와 사마르칸드 지역주민의 지위향상과 부하라, 코칸드 및 히바한국들의 진정한 부활을 주장하면서 무슬림 봉기를 주도했다. 이 저항운동은 흔히 '안디잔 저항' (Andijan Resistance)으로 부른다.[20)]

'안디잔 저항' 운동은 전통적인 종교특권층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이들의 저항운동은 러시아의 무력에 의해 초기에 진압되었다. 무하마드 알리와 그의 추종자들(546명)은 모두 처형당했다. 따라서 저항운동은 일반대중에게까지 확산되지 못한 채 조기에 사산되고 말았다. 이처럼 안디잔 저항운동은 구체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많은 희생을 치르게 했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최초의 저항운동으로서 그 전통은 10월 혁명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볼쉐비키 혁명 후 이 지역이 신생 소비에트 정권에 편입되자 이에 저항하여 발생했던 바스마치 운동은, 바로 안디잔 저항운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었다.[21)]

---

19)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복은 알렉산드르 2세(1855-1881) 재위 때인 1865년에서 1876년 코칸드 한국의 정복으로 완결되었다. 앞의 책, 161쪽.
20) 봉기의 중심지역이 안디잔이었기 때문이다.
21) 앞의 책, 162-3쪽.

이슬람 사회개혁 자디드 운동(the Jadid Movement)

배경

자디드 운동은 원래 크롬-타타르 사람인 이스마일 베이 가스피랄리(1851-1914)에 의해 이슬람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1883년에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1905년 시민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 운동은 중앙아시아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러시아의 시민혁명에 고무된 청년 이슬람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운동이 본격적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자디드(jadid)란 용어가 원래 "새로운 방법"이란 뜻에서 유래했던 바, 자디드 운동은 전통 무슬림 신학교의 교과과정과 가르침을 포함하는 모든 방법을 개혁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운동을 추진하던 개혁주의자들은 세속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인들을 통합할 수 있는 범 투르크어의 창조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운동은 나중에는 전반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22)]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자디드 운동이 대두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첫 번째 요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의 패배이다. 러시아의 패전에 뒤이어 발생한 시민혁명은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에게 민족주의의 구현 가능성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둘째, 1908년 오토만터키 제국에서 발생한 청년 터키당의 혁명이다. 청년 터키당의 헌정회복운동과 절대군주제에 대한 항거는,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었다.

셋째, 20세기 초 중근동에서의 민족주의의 확산이다. 당시 중근동지역에는 범이슬람운동가인 아프가니의 노력으로 이슬람을 구심체로 해서 서구제국주의에 항거하는 민족주의 운동이 팽배해져 있었다.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의 확산은 피압박민족이었던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에게 개혁과 근대화 운동으로의 각성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23)]

특히, 러시아어의 중앙아시아 유입은 각 민족내의 그룹을 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선 여러 분야의 엘리트 사이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언어를 부차적으로 사용하는 그룹들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러는 가운데 러시아어에 능통한 것

22) 앞의 책, 169쪽.
23) 앞의 책, 170쪽.

은 교육과 문화, 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에는 러시아적이고 서구적인 문화를 추종하면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러시아화 또는 서구화 추세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 이슬람을 전파하려는 민족주의 운동이 소연방에 포함되기 직전과 직후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자디드(Jadid)운동이었다.

개혁운동의 세 가지 흐름

개혁운동은 세 그룹에 의해 주도되었다.

첫 번째는 볼가-타타르 사람인 마르자니(1815-1889)가 영도했던 이슬람 개혁주의 그룹이다. 이들은 종교교육제도의 개혁을 통해 이슬람 보수주의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이슬람의 전통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을 경멸하고 쿠란에 있는 인간의 권리를 강력히 옹호했다.

두 번째 그룹은 타타르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1905년 이전부터 이스탄불, 카이로 등지로 유학을 다녀 온 사람들로서 중앙아시아 이슬람 사회의 개혁과 정치적 부흥에 헌신했다. 이들은 1910년에 '청년교육위원회' 라는 비밀조직을 결성해서 대중들에게 개혁사상을 전파시켰다. 이들은 또한 '청년 부하라 당'과 '청년 히바 당' 을 결성해서 개혁운동을 추진해 나갔다. 이들은 중앙아시아 지역 무슬림의 오랜 전통인 수장제도(아미르 제도)를 부정하고 이슬람 성직자 기구를 혁파하는 민주적 사회개혁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는 민족어의 창조를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았던 그룹이다. 볼가-타타르 사람인 압둘 카이움 나시리는 대중언어에 기초해서 타타르 문자를 필두로 해서 아제리 문자, 카작 문자 등을 창제하였다. 당시 중앙아시아 이슬람교도들은 아랍어, 페르시아어, 차가타이계 투르크어를 신학교에서 배웠다. 이러한 언어교육은 부유한 일부 계층에만 한정되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다수의 일반대중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개혁운동을 지도하는 지식인들은 대중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창제하여 대중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사회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민족어를 창안하기 위해 노력했다.

요컨대, <새로운 방식> 운동은 한편에서는 이슬람 종교개혁을, 다른 한편에서는 이슬람 사회의 민주개혁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문명개화를 통해서 러시아 식민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는 무슬림 자결주의를 실현하려는

개혁운동으로서 중앙아시아 민족주의 운동의 제2단계를 구성한다.

개혁, 개화 그리고 민족자의식의 성장

자디드 운동은 초기에는 친 소비에트적 성향을 띠기도 했다.[24] 그러나 개혁운동은 나중에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의 민족의식을 자각시키면서 반 소비에트 저항운동으로까지 발전되었다.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디드 운동은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까닭에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따라서 자디드 운동은 범민족 운동으로까지 성장하지 못한 미완성의 개혁운동이 되고 말았다. 이런 내재적 한계에 더하여 소련의 강력한 민족정책으로 말미암아 자디드 운동은 소멸되고 마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디드 운동은 중앙아시아인들의 정치적 및 민족적 자의식을 각성시켜 주었으며 훗날 소비에트 정권의 탄압에 맞서 전개되는 바스마치 운동(The Basmachi Movement)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디드 운동의 정신적인 전통과 교훈은 1990년대 소련해체와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민족국가에서 민족주의가 재등장하는 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소 민족해방 바스마치 운동(The Basmachi Movement)

중앙아시아의 소비에트 체제로 편입

사실상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중앙아시아의 5개 공화국들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이후 차례로 소비에트 연방의 구성 공화국으로 편입되었다. 소련의 중앙지도부의 민족정책으로 인하여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은 인위적으로 다민족국가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소비에트 중앙정권은 러시아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각 공화국의 행정관료 및 중요한 직책에 모두 러시아인들을 배치시켰다.[25]

모스크바 중앙정권의 민족정책은 한편으로 러시아어의 공용화와 이슬람의 무력화를 핵심사항으로 하는 문화정책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이 지역에 종속적인 경제구

24) 이슬람 보수주의자(Qadimist)들은 자디드 운동이 러시아의 식민정책을 돕고 있다는 이유로 자디스트들을 비난하였다. 앞의 책, 169쪽.

25) 제12차 공산당 대회에서 채택된 소비에트 권력의 토착화 정책은 각 민족의 지위에 따라 정책 내용이 상이했던 것처럼 민족간 평등의 정착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지방 공산당 요원을 지방자체 내에서 충원하는 토착화 정책은 이후 이 지역의 민족주의 운동 엘리트들을 사전에 형성시켜 주는 기반으로서 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1937~1938년 사이에 스탈린에 의해 거의 대부분 숙청되었다.

조를 건설하는 경제정책과 함께 추진되었다.[26] 혁명 직후 이슬람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취했었던 레닌은 소비에트의 영향력이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지역에까지 확대되자, 이슬람법과 관습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탄압의 강도를 높여갔다. 이슬람 사원 재산을 압수함으로써 이슬람 교단의 재정적 자립을 붕괴시키고 이슬람 교육을 막기 위해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내용의 수업을 금지시켰다.[27]

소비에트 중앙정권의 중앙아시아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중앙아시아 토착사회의 근간을 뿌리 채 뽑아버리고 새로운 소비에트 체제를 이 지역에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제란 각국의 민족적 상이성을 철저히 인정하는 외양을 띠었지만 러시아 민족이 다양한 법적 및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다민족 구성국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식민체제에 불과했다.

약탈적 저항에서 군사적 대항으로의 전환 그리고 대단원의 종국

중앙아시아 농민들은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몇 차례에 걸쳐 발생한 기근으로 인해 유랑민이 되었다. 유랑 농민들은 생활고를 해결할 목적으로 러시아인들을 상대로 약탈을 자행하게 되었다. 이 유랑 농민들이 바로 바스마치(Basmachi, 투르크어로 약탈자, 무법자)가 되었던 것이다. 초기(1905~1917년)의 바스마치들에 의한 약탈행위는 소비에트 정부의 경제적 수탈과 이 지역에서 발생한 기근에서 비롯된 비조직적인 저항운동의 모습을 띠었다.[28]

약탈적 성격의 저항운동을 벌였던 바스마치들은, 1918년 소비에트 정부에 의해 코칸드 자치정부가 해산당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소비에트 지배에서 독립하려는 민족해방운동의 성격을 띠는 반소 저항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자치정부 구성에 실패한 일부 무슬림 지식인들은 민족자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바스마치 그룹들과 연대하여 본격적인 반 소비에트 무력저항을 조직화하기 시작하였다. 1918년 이후에 결성된 바스마치 조직들은 그러나 각 부족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여 통일조직을 결성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따라서 바스마치 조직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반 소비에트 무력투쟁을 개별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바스마치 운동이 초기의 약탈적 저항운동의 성격에서 벗어나 점차 민족해방과 독립을 지향하는 본격적인 반 소비에트 운동으로 전환하게 되는 과정은 크게 두 시기로

---

26) 각 공화국의 산업시설은 러시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디자인되었다.
27) 레닌의 뒤를 이은 스탈린은 모든 종교를 말살하는 종교정책에 따라 많은 이슬람 사원과 학교를 폐쇄하고 거의 대부분의 성직자들을 추방시켰다.
28) 우덕찬, 위의 책, 171-2쪽.

나뉘어 진다. 첫 번째 시기는 이르가쉬 벡과 마다민 벡이 중심이 되어 적군(赤軍)의 무자비한 공격으로부터 코칸드 자치정부를 방어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바스마치들을 지도하던 때였다. 이 시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바스마치 그룹들은 초기의 약탈행위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무력저항운동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르가쉬 벡은 보수적 무슬림으로서 복고주의 입장에서 바스마치 운동을 이끌었다. 그의 목표는 소비에트 군을 무력으로 철퇴시킨 후 자신의 추종자들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부족장제도를 부활시키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범투르크주의(Pan-Turkism)를 바스마치운동에 접목시키려던 오스만제국의 요구를 거절했다. 한편, 마다민 벡은 이르가쉬 벡보다 젊은 소장파 지도자로서 자유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조직에 젊은 지식인들을 흡수하고 무슬림 사회의 근대적 개혁을 추구하였다.

바스마치 운동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토착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소비에트의 압제에 항거해서 전개한 강력한 반식민주의, 민족해방운동이었다.

두 번째 시기는 엔베르 파샤의 등장으로 시작된다.[29] 그는 바스마치 운동에 무슬림 민족주의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고자 노력했다. 그의 궁극적 목표는 분산된 바스마치 조직들을 통합하여 강력한 반 소비에트 저항조직으로 발전시켜 중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무슬림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중앙아시아인을 위한 중앙아시아"라는 슬로건 아래 중앙아시아 무슬림 국가의 건설을 주창했다. 그는 이러한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1921년 10월 부하라에 도착하여 분산되어 있던 바스마치 조직을 규합하여 실질적인 바스마치 통합군을 지휘하였다. 탁월한 군사적 영도력을 발휘한 엔베르 파샤는 이전에는 바스마치 조직에 적대적이었던 개혁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 성직자들도 그를 소비에트체제로부터 무슬림을 해방시키는 전쟁을 수행하는 이슬람의 구세주로 간주하였다.

엔베르 파샤는 소련군과의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하면서 1922년 4월에는 무슬림군 총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정부의 첩자에 의한 바스마치 지도자들의 암살과 1922년 6월부터 시작된 소비에트 군의 강력한 역공과 같은 해 7월 모스크바와 카불 사이의 협정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자원병들의 귀향, 이브라힘 벡과의 패권다툼

29) 엔베르 파샤는 오스만제국의 제3군 사령관, 청년 터키당 집권기의 전쟁성 장관을 역임했던 인물로서 제1차대전 후 패전국의 전범으로 몰려 1919년 전승국 주도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언도받았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1920년대 초 알리 베이라는 가명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들어와 바스마치 운동을 이끌었다.

등 외우내란의 와중에서 엔베르 파샤는 1922년 말 사망하였다. 엔베르 파샤 사망 이후 이브라힘 벡이 페르가나 중부지역의 바스마치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반 소비에트 저항운동을 지도했지만, 이미 분열되어 약화된 바스마치 운동은 1927년에 들어와서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파국의 정치적 동학과 역사적 유산

바스마치 운동은 초기(1905~1917)의 약탈적이고 비조직적인 저항운동으로 출발하여 후기(1918~1927)의 정치적이고 조직적이며 군사적인 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하다가 곧 파국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한편의 대서사시에 다름 아니었다. 바스마치 운동은 기치로 내세웠던 목적, 즉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로 끝난 운동이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실패 원인은 먼저, 바스마치 조직들을 완전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치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엔베르 파샤와 이브라힘 벡이 군사적 연합을 결성하지 못했던 것도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군사적인 측면에서 소비에트군의 강력한 화력 앞에 바스마치 전사들의 전력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셋째, 1905년 이슬람 개혁주의자들에 의한 자디드 운동 이후 비롯된 개혁주의자들과 전통주의자들 사이의 극심한 세력다툼은 대 소비에트 저항운동의 통합을 가로막은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끝으로 제1차대전 이후 형성된 신 국제질서 속에서 중동국가들은 바스마치 운동이 성공할 경우 또다시 대두될 수 있는 범투르크주의의 확산을 경계했기 때문에 이 지역 무슬림들의 저항운동에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30)]

바스마치 운동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토착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소비에트의 압제에 항거해서 전개한 강력한 반식민주의, 민족해방운동이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종합과 몇 가지 추론

민족주의의 부활은 축복 · 저주?

중앙아시아 민족주의의 역사적 기원과 성격에 대한 필자의 관심은 중앙아시아 5개

30) 우덕찬, 위의 책, 175-6쪽.

국가들의 독립 이후의 정치발전의 현황과 변화방향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이들 국가들은 새로운 정치구조의 수립, 자립 경제의 건설, 새로운 국가 정체성의 모색이라는 독립국가로서의 핵심적인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풀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이 분출하고 있다. 여기서 중앙아시아의 민족주의는 부활하여 어떤 의미에서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립 후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발전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수행하는 실제 역할과 기능은 각자의 원래의 소원에 비추어 볼 때 누구에게는 축복으로, 또 다른 누구에게는 저주로 나타나는 이른바 '판도라의 상자' 와 같은 것이다. 이 논문에서 중앙아시아 민족주의의 역사적 기원과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은 따라서 '판도라의 상자' 를 살짝 엿보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한편의 비극적 역사드라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제기되는 민족 정체성이라는 문제는 다음의 세 시기로 나뉘어 분석된다. 첫 번째는 제정 러시아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민족정체성이 형성되고 강화되는 소비에트 정권 수립 이전의 시기이며, 두 번째는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 민족정체성이 변형되고 쇠퇴하는 과정이며, 끝으로는 냉전 종식 이후 이 지역에서 민족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민족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로 나누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의 초기를 분석범위로 하여 이 시기의 중앙아시아의 민족주의 운동을 다시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성격과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민족주의 운동은 제정 러시아의 식민정책에 대항하여 일어난 '안디잔 저항' (Andijan Resistance) 운동에서 반 식민주의의 성격을, 1905년 러시아의 시민혁명의 와중에서 무슬림 개혁운동의 형태로 전개된 '자디드 운동' (Jadid Movement)을 통해서 민족자의식의 개화를, 끝으로 '바스마치 운동' (Basmachi Movement)을 통해서 볼쉐비키 혁명 후 소비에트 정권수립에 대항하는 민족해방 및 독립운동의 편린을 보여준다.

'안디잔 저항' 운동은 전통적인 종교특권층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던 까닭에 일반대중에게 확산되지 못한 채 조산되고 말았다. <새로운 방식> 운동은 한편에서는 이슬람 종교개혁을, 다른 한편에서는 이슬람 사회의 민주개혁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문명개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슬림 자결주의를 실현하려는 개혁운동이었다. 자디드 운동은 그러나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까닭에 인구

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수준, 즉 범민족 운동으로까지 성장하지 못한 채 결국 미완성의 개혁운동으로 그치고 말았다. 새로운 식민체제로의 편입에 다름 아닌 소비에트 화에 저항하는 바스마치 운동은, 초기의 약탈적이고 비조직적인 저항운동으로 출발하여 후기의 정치적이고 조직적이며 군사적인 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하다가 곧 파국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말았다.

중앙아시아에서의 민족주의 운동의 역사는 한편의 드라마이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판치는 국제정치의 냉혹성과, 분열과 대립으로 점철되는 역내 세력간의 권력투쟁과, 소비에트 프로젝트를 전일적으로 집행하려는 소비에트 중앙정치의 편집성이 빚어낸 한편의 역사 드라마이다.

새로운 자료와 해석

중앙아시아 민족주의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논쟁은 1990년대에 러시아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국가란 만들어지는 것' 이라는 가설을 둘러싸고 재연(再燃)되었다. 올리버 로이(Oliver Roy)와 폴 게오르그 가이스(Paul Georg Geiss)는 소비에트 국가(soviet state)가 중앙아시아에서 민족(nationhood)을 만들어준 일차적인 기관이었으며, 거의 70년간에 걸친 소비에트 통치 아래에서 민족이념과 관습이 뿌리내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해석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다른 한편, 소련 해체 이후 소련 국립문서보관소의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행운을 갖게 된 신진학자들은 소비에트라는 다민족 국가의 작동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그 결과를 1990년대 중반에 집중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신진학자들의 새로운 연구결과들은 로이와 가이스의 일부 결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들은 제국 말 및 소비에트 초기에 민족 정체성의 진화, 중앙아시아에서 민족공화국들이 창설되는 과정, 그리고 소련 안에서 중심-주변관계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바꾸어 놓기 시작한다. 이른바 소비에트 역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이 바로 그것이다.

신진학자들은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분석개념을 재검토하는 작업부터 착수한다. 그들은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 (imagined communities) 개념을 원용하여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 민족들도 발명, 정의 및 협상이라는 지속적인 과정에 따라 만들어지는 <상상의 공동체>로서 파악한다. 그들은 중앙아시아 민족만 독특하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민족이라는 로이와 가이스의 전통적인 견해는 냉전시대의 허구적 주장을 투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수정주의 학자들은 민족정체성 형성의 주체문제와 관련해서 토착 지식인들의 역

할을 중시한다. 토착지식인들은 러시아 식민주의자들의 종족적인 차별에 의해 각성되었건, 또는 오토만제국과 회교권 세계의 다른 곳에서 발흥한 민족주의에 의해 자극되었건, 이른바 '신식주의자' (Jadidists)로 알려진 중앙아시아의 개혁가들의 영향을 받았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민족 정체성을 발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소비에트 당국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민족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되었던 민족적 분할을 기초로 하여 그것을 제도화시켰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국가창설과 민족형성의 동기와 배경에 관하여 수정주의 학자들은 이 지역을 분할통치하려는 소비에트의 악의적인 동기에 따른 소행(전통주의 학자들의 해석)이 아니라 소비에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편의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소비에트에 의한 '민족 만들어주기'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근거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소비에트의 민족정책은 소련 전역에 걸쳐 진행된 소비에트 프로젝트(Soviet project)의 본질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소련 지도자들은 근대화되기를 원하는 모든 후진(後進) 인민들에게 '민족의 자주 독립적 지위' (nationhood)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인 발전단계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민족공화국의 창설은 러시아 식민주의의 오랜 압제를 받아왔던 비 러시아 주민들로부터 소비에트 프로젝트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반대급부로 얻게 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정주의 학자들은 중앙아시아에서 민족영토가 매우 부자연스럽게 획정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에트 당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영토획정은 토착 민족주의 세력들과 민족 공산주의자들, 지방의 러시아 관리들 그리고 모스크바의 지도부들이 얽혀서 벌였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였다고 본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경계선이 겉보기에 비합리적인 것같이 보이지만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소비에트 시대의 중앙아시아 역사 해석과 유동성

소비에트 시기 중앙아시아 민족공화국들의 경계선이 중앙아시아인들의 의지에 반해서 모스크바에 의해 일방적으로 획정되었다는 믿음은 소련이 본질적으로 전체주의적이라는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20년대 및 1930년대 중앙아시아에서 전개된 모든 정책과 개혁들은 모스크바가 발의하여 위로부터 강제되었으며, 경계선이 그어지고, 언어가 창조되며, 관련된 주민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가운데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주장들은 역사적 사실과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전적으로 틀린 주장이라고 단정내릴 수는 없지만 정확하지 못한 것만은 틀림없다.

지난 30년간에 걸친 소련에 대한 수정주의 역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소련 시민들은 소비에트 제도와 규범을 형성시키는데 참여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러시아의 심장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변방지역에서도 사실이었다. 민족 구획은 모스크바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민족문화의 창조도 외부 정복자들에 의해 강제된 외래적인 프로젝트라고만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엘리트들은 모스크바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민족문화의 소극적인 수혜자가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표준화된 민족어를 창조하고, 민족문학을 생산하며, 민요를 수집하는 등 전반적으로 민족주의적 지식인들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들은 1930년대 스탈린 대숙청 시기에 거의 소멸되었다.

특히, 1920년대 말 소비에트 정권이 회교도들을 분할통치하려는 또 다른 방법으로 중앙아시아 언어들 사이의 차이를 확대시키기 위해 투르크 자모를 강제로 라틴어화 시켰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사실 라틴어화 주장은 실제로는 투르크 공화국들, 특히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상당히 주저한 끝에 중앙아시아 소비에트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졌던 것이다.[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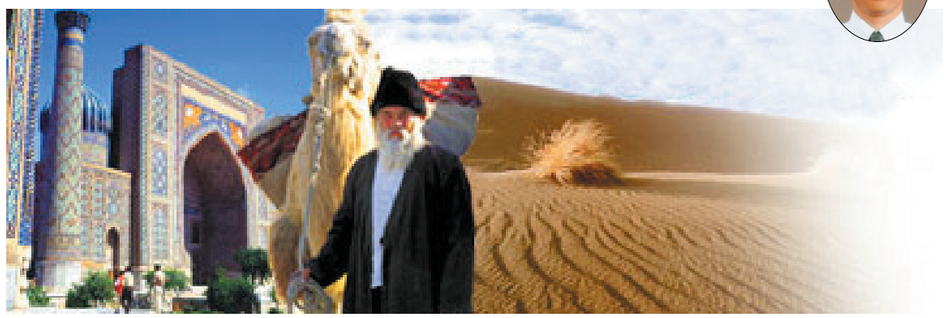
이처럼 중앙아시아에서의 민족, 국가, 그리고 민족 정체성의 역사적 기원과 성격에 관한 대조적인 해석은 소련 역사 및 중앙아시아 역사에 관한 연구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매우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2]

---

31) Martin, "An Affirmative Action Empire," pp. 792-814; Edgar, "Creation of Soviet Turkmenistan," ch. 8.
32) Adrienne Lynn Edgar, *Kritika : Explorations in Russian and Eurasian History* 3(1): pp. 182-90, Winter 2002.

중앙아시아의 정치체제

김 인 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kis980117@yahoo.co.kr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스탈린 시기에 강제이주된 고려인 수십만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경제교류의 증가와 새로운 카스피해 유전의 발견, 그리고 국제적인 분쟁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과의 인접성 등으로 인해 한층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학계의 관심은 고려인 문제나 국제정치적인 이슈에 집중되어 왔으며, 특히 카스피해 석유와 이 지역패권을 둘러싼 제반 이슈들이 분석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지역 정치의 내적인 다이내믹스에 대해서는 별반 알려진 것이 없다. 이 지역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인 패권경쟁의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내적인 정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중앙아시아의 정치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자는 두 개의 세부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중앙아시아 각국 정치제도의 분

석이다. 각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지역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제도에 대해 분석하되, 이들 체제가 강력한 대통령제에 기초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회제의 성격도 일부 띠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슈가트와 캐리의 '대통령 - 의회제' 개념을 분석에 도입할 것이다. 분석에 있어 이 개념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대통령과 의회, 수상 사이의 권력관계가 부각됨으로써 중앙아시아 정치제도에서 드러나는 막강한 대통령 권한에 대한 설명이 용이하다는 데 있다. 둘째는 실제에 있어서의 중앙아시아 각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분석이다. 국가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제도들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의 고안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또한 정치지도자의 권력이나 사회구성원들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 제도적 틀이 허용하지 않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즉, 한편에서는 특정한 정치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 맥락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행위자들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중앙아시아 정치체제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 경제적인 요인들을 분석한 후, 이 지역 정치행위자들의 행태와 이들 간의 권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지역 정치체제를 규정하는 핵심요인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 국가 정치체제의 제도적 특징

중앙아시아 정치체제 성립의 배경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체제는 의회제 성격이 가미된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에 기반하고 있다.[1] 이는 역사적으로 이 지역에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국가건설의 경험이 부재한 반면, 유목민으로서의 전통과 사회주의의 경험으로 인해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부각된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이 지역에 혼합형의 강력한 대통령제가 형성된 보다 직접적인 이유로는 구소련 말기에 형성된 정치제도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카와 개방정책(글라스노스트)은 정치제도의 개혁을 수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당제, 의회제, 비밀투표제, 복수후보제 등의 민주적 절차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 제도 도입의 이면에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

1) 투르크메니스탄이 유일한 예외로서 순수 대통령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해야만 하는 정치적 계산이 존재하고 있었다. 페레스트로이카 후반기에 고르바초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세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첫째는 개혁저항세력이자 이미 세력이 약해지고 있던 공산당을 대신하는 통치권력의 확보이고, 둘째는 소비에트민족공화국에서 분출하는 분리주의적 민족주의이었으며, 마지막으로는 경제위기의 심화와 정치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심화된 국민들의 불만의 고조를 들 수 있다.

명목상 의회(소비에트)를 최고권력기관으로 인정하면서 실제, 당비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던 구소련의 전통과 의회와 집권정당 그리고 행정부의 권력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고르바초프는 급격히 약화된 공산당을 대신할 국가기구로서 소비에트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라는 레닌 시절의 구호를 다시 부각시키는 한편, 다당제와 복수후보제, 비밀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산당의 독점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대신 최고회의와 인민대의원대회로 구성되는 소비에트의 정상화를 시도하였다. 한편 고르바초프 스스로는 겸직규정에 따라 소비에트 의장과 공산당 서기직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일련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의 위기관리능력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1990년 3월 인민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제를 신설하였으며, 소비에트 의장이 대통령직을 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고르바초프는 소련 초유의 대통령이 되었다. 구소련의 민주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개인권력의 강화를 위한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고르바초프 일인지배체제를 확립하였다. 간단히 말해서 고르바초프는 당서기장과 의회(최고회의)의장, 그리고 대통령을 겸함으로써 당권과 입법권, 그리고 행정권을 모두 관할하는 전대미문의 권력자가 되었다.

1991년 '신연방조약' 의 체결 시도가 8월의 보수쿠데타에 의해 무산됨으로써 구소련의 소비에트민족공화국들은 실질적인 독립을 획득하였으나 중앙아시아의 다른 소비에트민족공화국들은 국가체제를 수립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소연방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개별 민족주의의 중심축으로 역할하며 독립을 추구하거나 준비해온 집단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공산당 고위간부들이 개별 공화국의 국가건설 담당자로 자연스럽게 부각되었다.

명목상으로는 의회(소비에트)를 최고권력기관으로 인정하면서 실제로는 당비서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던 구소련의 전통과 의회와 집권정당 그리고 행정부의 권

력을 제도적으로 일개인에게 융합시켰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의 정치개혁 경험은 각 민족공화국들의 정치제도를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제도에 의회제의 성격을 반영하여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의회를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대통령의 권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중앙아시아 각국의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이들이 국가 내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위치이다.[2] 주목할 점은 이들 국가의 정치체제는 많은 점에서 프랑스 5공화국을 참고하였다는 사실이다. 구소련 말기의 정치제도를 이어받으면서도 민주주의적 정당성은 서구국가인 프랑스로부터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며, 헌법에서 사용하는 문장들 역시 프랑스 5공화국의 문헌들을 많이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하여 드골은 베이유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집행권한은 국가의 수반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국가수반은 제세력 위에 위치해야 하고, …… 중대한 혼란이 존재하는 경우 선거에 부쳐 주권자의 결정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상황을 넘어서 중재자로서 행동해야 한다. 국가수반은 조국이 위기에 처하는 경우, 국가의 독립성 및 프랑스가 체결한 제조약의 수호자로서의 임무를 지녀야 한다."[3]

중앙아시아 각국 대통령의 위상은 드골의 베이유 선언을 많이 닮아있다. 카자흐스탄 헌법 제40조는 대통령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최고위직무수행자로서 국가 대내외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국내와 외교관계에 있어 카자흐스탄을 대표한다. 2. 공화국 대통령은 국민의 일체성과 국가권력, 헌법의 굳건함, 인간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상징이자 보장자이다. 3. 공화국 대통령은 모든 국가권력기관의 조화로운 기능과 인민에 대한 권력기구들의 책임성을 제공한다."

드골의 언급은 프랑스 4공화국에서와 같은 정치적 혼란시기에 대통령이 중재자로서 역할하고 위기상황에서 국가의 독립성을 국제적으로 표명하고 국제조약을 준수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정치적 혼란 혹은 위기상황' 과 결부되어 있다. 반면에 중앙아시아 각국 대통령의 위상에서는 '혼란' 이나 '위기' 상황에 관련된 언급은

2) 이러한 점은 러시아 정치체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3) 샤를르 드골, 「베이유 선언」, 아렌드 라이파아트 엮음, 『내각제와 대통령제』, 조해경 역, 이진출판사, 1999, 175쪽.

삭제되어 있다. 또한 각국헌법이 삼권분립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위는 삼권분립을 뛰어넘어 삼권의 상위에 존재하는 초월적 지위로 묘사되고 있다. 후에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의회의 권한에 대한 대통령의 간섭을 제도적으로 용인하거나, 삼부를 넘어서는 최고권력기관을 설치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합법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의 위상이 단지 상징적인 언술에 그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카자흐스탄 헌법에 나타난 대통령의 위상관련 규정은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헌법에서도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의 정치체제가 강력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여 의회제의 성격을 일부 가미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의 대통령들은 대통령제가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테면, 수상을 비롯한 검찰총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은행총재, 감사원장, 외교관 등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안 상정권, 대통령 명령 발포권, 의회해산권(타지키스탄 제외), 법률안 비토권, 각료회의 주재권, 비상조치권, 파병권, 국민투표 회부권, 군통수권, 사면권 등의 권한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대통령이 법률안을 상정할 수 없으나, 대신 행정부로 하여금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권한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 국가의 정치체제에 권위주의적 속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권한들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특히 의회제를 일부 가미한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보유하는 권한들이다. 의회제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도 이러한 권한들은 대체적으로 대통령에 부여되어 있다. 예외가 되는 권한은 법률안 상정권과 의회해산권이다. 미국과 같은 순수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법률안 상정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들을 통하여 실질적인 법률안 상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 상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실상 대통령은 행정부를 통하여 자유롭게 법률을 입안할 수 있다. 한편 의회해산권은 의회제의 수상이나 내각에게 고유한 권한이지만, 이른바 '준대통령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로 불리는 혼합형 체제에서도 흔히 대통령의 권한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국가 대통령들의 강력한 권한에 대한 논의는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들을 나열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대한 논의는 삼권분립의 균형, 특히 대통령, 행정부와 의회간의 권력관계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실제에 있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 지를 고찰함으로써만 가능하다.

대통령과 행정부, 의회간 권력구도의 제도적 세팅

제도적으로 파악했을 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혼합형 체제로 분류할 수 있다. 슈가트와 캐리의 대통령제 구분에 따르면, 순수대통령제 이외에도 '수상 - 대통령제(premier - presidential regime)' 와 '대통령 - 의회제(president - parliamentary regime)' 가 존재한다. 수상 - 대통령제에서 수상과 각료들의 해임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며, 내각해산시 정부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의회이다. 한편 대통령 - 의회제에서는 내각해산권이 대통령과 의회 공동의 권한이며, 내각해산시 대통령이 다시 행정부를 구성한다. 내각의 구성과 해산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을 보유한다.[4)]

일단 염두에 둘 점은 중앙아시아 5개국은 모두 대통령제이지만 순수한 대통령제는 없다는 사실이다. 순수대통령제는 엄격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반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이 중첩되는 일은 없다. 이를 테면 대통령은 법안상정권을 갖지 않으며, 의회를 해산할 권리도 보유하지 않는다. 또한 행정부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의회가 행정부의 구성이나 해산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다만 의회가 대통령 탄핵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순수내각제에서는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거나 불신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내각은 의회해산권을 가진다.

중앙아시아에서는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수상임명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앙아시아 5개국은 대통령제에 의회제의 성격이 가미된 혼합형 정치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준대통령제(혹은 이원집정부제)의 두 가지 형태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슈가트 - 캐리의 수상 - 대통령제와 대통령 - 의회제의 개념에 부합하는 국가는 키르기즈스탄과 카자흐스탄 두 국가뿐이다. 먼저 중앙아시아에는 수상 -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다. 키르기즈스탄과 카자흐스탄은 대통령 - 의회제의 성격을 띠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순수대통령제에 가깝다. 이는 나머지 세 국가의 의회가 내각불신임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치제도의 차이를 국가별로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4) M. S. Shugart & J. M. Carey, *Presidents and assemblies : constitutional design and electoral dynamics*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92), p. 23.
5) 이하의 내용은 중앙아시아 5개국의 러시아어판 헌법을 정리한 것임.

1. 키르기즈스탄[5)]

대통령은 두 가지 경우에 의회해산권을 발동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이 지명한 수상후보를 의회가 세 차례 거부하거나, 둘째, 의회가 3개월 이내에 두 차례 수상불신임을 결의한 경우이다. 이 때 대통령은 의회의 결정을 수용하거나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즉 의회해산권과 수상불신임권은 대통령과 의회 양자 사이의 권력견제의 제도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키르기즈스탄의 정치체제는 대통령 - 의회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키르기즈스탄의 대통령 - 의회제는 제도적으로 대통령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자신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의회 스스로의 결정으로 대통령에게 1년 기한으로 입법권을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의회해산시 대통령은 입법권을 보유한다. 다만 대통령은 직접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준하는 대통령령을 발포함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한다. 신생 러시아 초기에 의회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옐친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포하여 의회의 입법권을 우회한데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제도화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대통령령의 존재 자체가 실질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키르기즈스탄의 경우는 이를 헌법상에 명문화시켰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2.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과 제도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취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제가 보다 더 권위주의적이다. 대통령은 세 가지 경우에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첫째, 내각불신임시, 둘째, 수상임명동의를 두 차례 거부할 경우, 마지막으로 의회의 상원과 하원 사이에서 혹은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해결불가능한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주목할 점은 내각불신임은 의회가 아닌 행정부에서 먼저 절차를 개시한다는 사실이다. 행정부는 자신이 제출한 법률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양원합동회의에 행정부 신임여부를 제의하며, 의회는 48시간 내에 신임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면 대통령은 내각을 해체하거나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만일 의회가 내각불신임에 실패할 경우 행정부의 법률안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의회의 내각불신임권한은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견제의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편으로 변질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게다가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심각한 견해 차이가 존재할 경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은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더하여 대통령의 발의에 의해서 양원에서 각각 2/3이상의 의원이 찬성할 경우 대통령은 법률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은 상원의원 39명 중 7명을 임명하며, 상원의장후보의 지명권도 보유한다.

3.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을 갖지 않으며 의회에는 내각불신임권이 없다. 다만 의회는 스스로의 결의에 의해 자진해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타지키스탄의 정치제도는 대통령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만 의회가 수상임명을 승인할 권한을 보유하며, 대통령이 법안 발의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회제의 성격이 가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지적할 점은 하원의원의 1/4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사실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이 상원의원 일부를 임명할 권한을 행사하는 반면에, 타지키스탄의 대통령은 입법과정에 주도적인 권한을 가진 하원의원을 직접 임명한다. 이는 타지키스탄의 대통령이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의 대통령들에 비해 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4. 우즈베키스탄

의회에 내각불신임권이 없다는 점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체제는 대통령 - 의회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가지지만 제도적으로 내각불신임과 결부되지 않는다. 의회해산권은 세 가지 경우에 행사된다. 첫째, 의회 내의 의견불일치로 의회의 기능이 중지되는 경우, 둘째, 의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을 채택하는 경우, 셋째, 상원과 하원간의 의견 불일치로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대통령은 의회해산권 이외에도 법안발의권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는 수상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우즈베키스탄 정치체제가 일부 의회제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대통령은 상원의원 16명에 대한 임명권과 상원의장후보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지역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향유하고 있다.

5. 투르크메니스탄

의회가 수상임명이나 내각의 해산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통령이 법안발의권과 의회해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의회제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정치체제에 의회제의 성격을 도입했다고 하기보다는 그저 단순히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제도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할크 마슬라하티(인민회의)'의 존재이다. 인민회의는 다른 국가들의 상원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의회(메질리스)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인민회의는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이 지역 국가 정치체제는 공통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고 의회 보다 우위의 혹은 압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정되고 있다. 인민회의는 2,5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기구이다. 인민회의에는 대통령과 의원, 최고재판소장, 최고민사재판소장, 검찰총장, 장관, 기타 지방행정수반들 및 부족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6] 즉 중앙정치권과 지방정치권의 핵심인사들 모두가 인민회의의 구성원들이다.

인민회의의 주요 권한으로는 헌법제정 및 개정, 국가발전방향 결정, 조약비준, 전쟁선포, 대통령 탄핵결의 등이 있다. 즉 인민회의는 일반적으로는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에 속하는 주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인민회의는 1년에 한 번 이상 소집되는 비상설기관이었으나,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하여 상설기관으로 바뀌고, 국가주요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부서들로 구성되는 의장실을 신설함으로써 사실상의 의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할크 마슬라하티는 헌법상 인민권력의 최고대표기관이며, 이 기관의 존재로 인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크게 축소되어 있다. 중요한 정책결정은 실제로 이 기관을 통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할크 마슬라하티의 의장직은 대통령 혹은 투표에 의해 구성원 중 1인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의장직을 담당하고 있다. 2003년에는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현직 대통령이 인민회의 종신의장이자 의회최고지도자의 직책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대통령은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인민회의의 권력을 한 몸에 지니게 되었다. 이로써 고르바초프가 집권 말기에 행했던 정치적 성취를 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도 달성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고르바초프는 제도적인 권력집중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치적 무능력을 보임으로써 결국 국가의 몰락과 정치권력의 상실을 맛보았다면, 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권력은 제도적으로도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강고해 보이며, 더 오래 지속될 것 같다는 사실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인 차원에 있어 그 내용은 국가들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국가는 준대통령제의 개념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정치체제를 형성해온 반면, 다른 국가들은 의회제의 성격을 일부 가미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내용의 상이함에

6) 2003년 개정헌법에는 의회의 의원들이 할크 마슬라하티의 구성원에서 제외되었다.

도 불구하고 이 지역 국가 정치체제는 공통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헌법을 통해 본 중앙아시아 국가의 정치체제의 성격은 의회에 비해 우위의 혹은 압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정치체제 형성과정과 내용

민족주의와 정치체제

중앙아시아 국가형성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이 지역 국가들이 한결같이 다민족국가라는 점이다. 독립 당시 이 지역에서 명목민족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가 없었다는 사실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이 때문에 명목민족이 어떠한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권력을 행사할 것인지, 그리고 여타의 소수민족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어떠한 입지를 차지해야 하는 지는 이 지역의 정치지도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주요과제 중의 하나였다.

이 지역 국가들의 민족문제는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지는 않다.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슬라브 민족들이 있는가 하면, 구소련의 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온 민족들이 존재하고, 또한 이 지역의 토착소수민족들도 존재한다. 특히 민족갈등의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는 카자흐스탄의 북부와 페르가나 계곡을 들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북부 영토는 러시아와의 국경선과 길게 맞닿아 있으며, 러시아인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러시아인들은 신생 카자흐스탄 정부에게는 커다란 골칫거리였다. 비록 커다란 소요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인들에 대한 차별정책이 이 지역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족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또 하나의 지역은 페르가나 계곡이다. 이 계곡에는 타지크인들과 우즈벡인, 그리고 키르기즈인들이 혼재하여 거주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계곡이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즈스탄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민족간 분쟁의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계곡이나 이 계곡을 끼고 있는 3개국에서 발생한 분쟁의 여파가 이 계곡을 통하여 인접국

〈표-1〉 중앙아시아 국가의 자민족 비율 (단위: %)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989년	52	40	62	71	72
최근(연도)	64.6(1999)	53.4(1999)	79.9(1999)	80(1996)	85(2003)

으로 전파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이 지역의 민족문제가 관용이나 상호인정에 기반하여 해결되어 온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 지역의 정치지도자들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의 충성심에 끊임없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 지역의 지도자들은 구소련 말기의 분리주의운동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자신들 스스로가 분리주의적 추세에 힘입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이 지역 정치지도자들은 자국 내의 소수민족들이 기회만 있으면 분리독립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갖게 되었다. 둘째,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민족에 기반하고 있으나 명목민족이 절대적인 다수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소수민족들에 대한 관용정책을 펼 수 있는 자신감이 별로 많지 않다.[7)]

이 때문에 중앙아시아 각국은 독립과 함께 명목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각국은 명목민족언어에 법률적으로 공식언어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며, 대통령을 위시한 공직자의 조건으로 명목민족언어의 구사능력을 명시하였다.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만이 공용어로서 러시아어를 인정하고, 최고위직을 제외한 공직 진출의 길도 열어놓았다. 이러한 사실이 비명목민족인 러시아인들의 실질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테면 1994년 3월에 실시된 카자흐스탄 총선은 카자흐인에게 유리하게 치우친 정치적 불평등의 극명한 한 예를 보여준다. 총 177의석 중 42석이 선거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되었다. 700명 이상의 후보가 나머지 135석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카자흐 선거관리 위원회는 러시아 민족주의 성향인 200명의 후보자들을 지역선거에서 배제했다. 선거전의 조작 결과 유권자의 수가 러시아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28명의 러시아인들만이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다. 카자흐인은 566명이 총선에 출마하였다. 선거 결과 카자흐인이 의석의 60%를 차지한 반면, 러시아인은 겨우 28%를 차지하였을 뿐이다.[8)] 동화를 선택하기보다는 자민족이 명목민족인 국가로의 이주를 선택하는 이들도 상당수이다. 이를 테면 1989년에서 1993년 사이에만 카자흐스탄을 떠난 러시아인은 26만7천명에 달한다.[9)]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에서 국가체제의 존립이나 정부구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격한 민족갈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는 되도록 민족분쟁이 촉발되지 않도록 일종의

7) 유사한 사례는 발트3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인들의 비율이 높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가 자국거주 러시아인들에 대해 강도 높은 차별정책을 구사한 반면, 러시아와 연해있지 않으며, 러시아인의 비율도 낮은 리투아니아는 상당히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 바 있다.
8) 문명식, "러시아인과 카자흐스탄의 민족문제," 『러시아지역연구』 제3호, 181쪽.
9) 앞의 글, 174쪽.

유화정책을 펴면서도, 소수민족이 이민을 유발하고, 해외거주 자민족의 유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 지역국가들의 타민족정책에는 이와 유사한 이중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테면, 한편으로는 이중국적제도를 거부하면서도,[10] 다른 한편으로는 1991~1992년에 채택된 시민법을 통해 법률의 채택 시점에 각국에 영구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였다.[11]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의 자민족 비율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수민족들이 동화보다는 자민족국가로의 이주를 선택한 때문이다. 정치참여에 있어서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카자흐스탄에서의 의원선거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식적으로는 소수민족들의 정치참여를 허용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이들의 정치참여를 되도록 제한하여 소수민족들이 정치세력화하는 것은 방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인 밀집지역의 지방행정장에는 카자흐인을 임명하면서도, 부행정장에는 러시아인들을 임명함으로써 민족적 반감을 무마시키고 있다.[12] 즉,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부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소수민족들이 사회 · 정치의 전면에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일정정도의 융화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민족갈등이 표면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둘째, 중앙아시아의 독립이 분리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정치지도자들이 각국 명목민족들의 정치적인 구심점을 형성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각국마다 차이는 있지만 구소련 말기 러시아에서처럼 지도자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지지가 결집된 사례가 중앙아시아에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 지역 국가들은 민족주의적인 레토릭은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민족주의 세력의 압력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구소련의 최고위관료들이 이 지역의 정치지도자로 부각되었고, 이들은 오히려 민족주의 집단들이 정치세력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봉쇄하면서, 민족주의를 자신의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아 개인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실제에 있어 명목민족의 지위강화는 극히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따름이다. 공식언어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가 아닌 한에는 법을 실행할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소수민족들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에 따라 자민족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급진적 민족주의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감소

10) 투르크메니스탄이 유일하게 1993년 12월에 러시아와 이중국적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지만, 2003년 헌법에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한 바 있다.
11) 키르기즈스탄이 유일한 예외로서 5년 이상의 영구거주와 공식언어구사능력, 적법한 생계수단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시민권을 부여한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논문 참조: 김인성, "구소련의 러시아인들", 『민족연구』 제5호.
12) Anna Matveeva, "Democratization, Legitimacy and Political Change in Central Asia," *International Affairs*, Vol. 75, No. 1, p. 28.

하였으며, 타지키스탄의 내전을 예외로 한다면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된 적은 없다.

셋째, 중앙아시아의 민족주의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민족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하는 이슬람주의의 동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슬람의 정치세력화는 철저히 봉쇄되고 있으며, 반정부세력이나 비판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종교에 기반한 정당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이슬람부흥당이 존재하는 타지키스탄이 유일하지만, 이 정당마저도 정부의 강력한 견제와 탄압에 노출되어 있다. 2004년 1월, 타지키스탄의 대표적인 야당인 이슬람부흥당 부대표가 법정에서 16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타지키스탄 내전 당시 무장범죄단체구성, 불법무기소지, 국경무단횡단, 중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였으며, 일각에서는 타지키스탄 대통령 라흐모노프가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13)]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종교집단으로는 히즈브 우트 - 타흐리르(이슬람해방당)과 우즈베키스탄이슬람운동당이 있다. 이슬람운동당은 탈리반 및 알카에다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에 의해 테러단체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슬람해방당은 단체의 이름과는 달리 과격한 종교단체가 아니라 교리의 전파에 주목적을 둔 온건한 단체로 알려져 있으나 각국 정부의 끊임없는 박해에 시달리고 있다.[14)] 이를테면 투르크메니스탄의 종교지도자 이바둘라흐는 니야조프의 개인숭배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표명하다가 2003년 사제장직을 박탈당하고 22년형을 언도받았으며, 우즈베키스탄의 종교지도자 에숀후쟈예프는 불법무기소지와 납치, 극단주의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2004년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15)]

경제와 정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초기부터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 지역에 수립된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가 국민들로부터의 암묵적인 혹은 적극적인 동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정책의 성공과 이에 기반한 복지혜택의 제공은 정권의 안정적 유지와 크게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는 농업과 특히 천연자원에 크게 의존적이다. 2차 산업은 시설의 낙후로 인해 또한 구소련 시기의 지역별 분업시스템으로 인해 독자적인 생존이

13) "Islamic Party Official Jailed,"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4, No. 3.
14) "Radical Islam in Central Asia: New Reports and Familiar Questions,"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4, No. 10.
15) "Repression to the Extreme,"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4, No. 40.

〈표-2〉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 및 천연자원 현황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인 구	5,146,281(2005)	15,185,844	7,163,506(2005)	26,851,195	4,952,081(2005)
G D P	21억6,700만 달러	294억 달러	20억7,300만 달러	97억2천만 달러	122억8백만 달러
1인당 GDP	424 달러	1,970 달러	328 달러	375 달러	2,468 달러
석유 매장량	NA	26 billion bbl	NA	297 million bbl	
석유 생산량	2,000 bbl/day	1.2millionbbl/day	250 bbl/day	143,300 bbl/day	162,500 bbl/day
석유 수출량	NA	890,000 bbl/day	NA	NA	NA
가스 매장량	NA	1.8 trillion cu m	NA	937.3million cu m	1.43 million cu m
가스 생산량	16 million cu m	11.6 billion cu m	50 million cu m	63.1 million cu m	58.57million cu m
가스 수출량	0	11.01 billion cu m	0	17.9 million cu m	43.5 million cu m

* 석유와 가스관련 통계치는 CIA 2005년판 *World Fact Book*을 참고하였음.
* GDP는 중앙아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웹사이트 참조.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는 천연자원의 보유와 생산능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석유와 가스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부유한 국가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반면 인구가 많은 탓에 국민소득이 낮으며,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에너지자원은 국내소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탓에 중앙아시아에서도 가장 빈국에 속한다.

<표-2>에서 나타나는 바에 따르면 정치체제의 안정성 혹은 민주화의 정도와 경제수준과의 상관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이 지역국가들 중에서 민주적인 절차의 측면에서 가장 수준이 높다고 일컬어지는 키르기즈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경제수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민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을 향유하고 있다.

염두에 둘 점은 이 지역 국가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경우라 할지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각각 2,468달러와 1,970달러에 그치고 있어 서구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경제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격차가 상당히 큰 이 지역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수준과 정치발전과의 상관성이 극히 미약하며, 정치체제가 한결같이 권위주의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는 점은 해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구소련식의 노멘클라투라 체제와 천연자원의존형 경제의 결합이 중앙아시아의 사회와 정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천연자원과 관련된 산업은 그 속성상 상당한 수준의 자본 투자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

라서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의 경제적인 부는 이 자원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통제능력을 보유한 소수의 경제엘리트에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구소련식의 철저한 위계질서에 기반한 노멘클라투라체제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는 온정주의(paternalism)와 후견주의(clientelism)에 의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인 기반이 되어야 할 중간계층의 형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각한 빈부격차의 발생으로 국민들 대다수는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중앙아시아의 부국인 카자흐스탄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1997년 국제적십자사의 발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국민의 73%가 정부가 정한 월간 최저생계비 50달러 이하의 극빈층을 형성하고 있다.[16)]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소수엘리트에게 경제적인 자원이 집중되고 부의 재분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국가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정치적 차이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국가에서는 소수엘리트에게 경제적인 자원이 집중되고 부의 재분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국가의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정치적 차이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들은 정치체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기 보다는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내정치지형의 형성 및 내용

신생독립국가로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제도의 공백상태였다. 이 지역 국가들은 장기간의 독립투쟁의 역사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근대국가형성의 경험도 없다. 소비에트시기에 이 지역 공화국들은 자치권을 가지기는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단순히 실행에 옮기는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 정치와 경제 체제 전반에 걸친 소비에트식 노멘클라투라체제가 가지는 권위로 인해 소비에트 민족공화국들은 국가경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거의 습득하지 못하였다. 형식적으로 존재했던 자치권을 실질적인 국가권력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이들 신생국들에게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새로운 국가체제형성의 어려움은 폭력적인 유혈사태로 나타나기도 하

16) Anna Matveeva, *op. cit.*, p. 39.
17) Таджикистан поднимается из руин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http://www.un.org/russian/events/tenstories/print.asp?storyID=600)

였다. 1991년에 시작된 타지키스탄의 내전은 5만 이상의 사망자와 120만 이상의 난민을 초래한 끝에 1997년이 되어서야 종결되었다.[17] 비교적 최근인 2005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안디쟌에서 수백명이 사망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같은 해 키르기즈스탄에서 발생한 이른바 '튤립혁명' 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주목할 점은 사회 ·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격변이 발생할 징후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키르기즈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권력구도를 장기간 유지해 오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권력균형이 뒤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

중앙아시아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학자들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은 '연성권위주의' 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경성권위주의' 로 분류하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18] 그나마 가장 민주적인 국가는 키르기즈스탄이며, 그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순서이다. 아래에서는 중앙아시아 권위주의의 내용을 살펴보고, 키르기즈스탄에서 발생한 튤립혁명이 과연 이 지역 다른 국가들의 정치체제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아시아의 권위주의 정치체제

키르기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각국의 정치는 대체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이 지역의 정치지도자들은 제도를 뛰어넘어서 잠재적인 정치적 반대세력 혹은 견제세력들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이 지역의 국가체제에서 대통령과 의회와의 관계는 제도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대통령과 의회와의 권력관계가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달을 경우 정치적 불안정을 노정하게 되며, 심각한 경우에는 국정의 전반적인 마비까지 초래할 수 도 있다. 1993년 후반 러시아에서 발생했던 무력에 의한 의회강제해산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정당인 '카자흐스탄 국민회의당' 과 구공산당 성원에 의해 조직된 '사회당' 등

18) Yilmaz Bingol, "Nationalism and Democracy in Post - Communist Central Asia," *Asian Ethnicity*, Vol. 5, No. 1, p.49.

은 모두 친대통령 성향을 띠고 있다. 1993년과 1994년도에 대통령과 의회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정치적 불안정의 징후가 나타난 바 있었지만, 두 차례의 의회해산을 거친 후 정국의 불안정요인은 제거되었다. 1993년의 13대 최고회의는 자진해산의 형태로 해산되었으며, 1994년의 14대 최고회의의 해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94년 총선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의회의 활동을 중지함으로써 이루어졌다.[19] 1995년 국민투표를 통하여 개정된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의회 - 대통령간 갈등에서 대통령이 승리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정치도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이 집권초반부터 친대통령정당과 의회의 장악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인민민주당은 구 공산당 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20] 1994~95년 의회선거에서 총 250석 중 189석을 차지하여 대통령은 의회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역시 대통령이 의회를 통제하고 있다. 2005년 타지키스탄의 의회선거에서 여당인 타지크인민민주당이 63석 중 49석을 장악하였다. 여기에 친정부성향의 공산당이 3석을 차지하였고, 야당인 이슬람부흥당은 2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무소속 의원은 6명이었으며, 3곳의 선거구에서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무소속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여당에 가입하거나 친여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은 60명의 의원 중 58명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의회장악은 통제를 넘어 완전한 지배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독립 초기에 구축되었다. 헌법상 투르크메니스탄의 의회제는 단원제를 선택하고 있고, 메질리스(의회)가 존재하지만 실제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 대통령이 할크 마슬라하티(인민회의)를 통하여 행정권과 입법권을 동시에 행사하기 때문이다. 할크 마슬라하티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고위관리들과 지역대표 및 부족대표 등 2,507명으로 구성된 방대한 기구이다. 할크 마슬라하티는 헌법개정, 헌법관련법안, 국가발전방향의 결정, 조약비준, 전쟁선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상원에 해당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헌법상 메질리스에게 부여된 입법권까지도 행사하고 있다. 국가통치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모두 할크 마슬라하티의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나 의회에서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2003년 헌법개정에 따라 할크 마슬라하티가 상설기구가 됨에 따라 의회는 유명무실한 정치제도로 전락했다.

둘째, 중앙아시아의 정치지도자들은 선거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

19) 장원창, "포스트공산주의 사회의 정치체제 변화: 카자흐스탄의 대의제도 형성과 문제점," 『한국동북아논총』 제7집, 61쪽.
20) 김대성, "소련해체 이후 강대국의 대 중앙아시아 지역패권주의 정책과 국제질서," 『한국중동학회논총』 2집 19호, 1998, 39쪽.

며, 잠재적 경쟁자들을 정치무대에서 제외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은 예외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은 대통령선거나 의회선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대통령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는 행정부 고위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니야조프 대통령은 자주 행정부를 교체하는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선거과정에 대한 정치지도자들의 통제양상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언론에 대한 간섭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고,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을 처음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이러저러한 이유로 후보등록을 받아주지 않으며, 유권자명단 작성이나 개표과정에서도 부정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테면,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에서는 러시아인들의 의회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들의 후보등록을 방해하였으며, 언론에 대한 통제를 넘어서 대통령의 큰딸과 사위가 최대의 언론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민주주의 선거였던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카리모프의 승리는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언론매체들이 카리모프를 지속적으로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투표 후에도 카리모프를 찍은 투표용지가 중복 집계되거나 위조 투표용지가 제작되기도 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유력한 후보였던 살리흐가 31%를 득표하였다는 발표가 있은지 1시간 후, 12.6%로 정정발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개표과정에도 상당한 비리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21] 2005년의 타지키스탄 의회선거 과정에서도 상당한 부정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많은 야당 인사들이 후보 등록을 거부당하였으며, 민주당의 대표인 이스칸다로프는 테러와의 관련성을 이유로 체포되었다.[22] 이와 관련하여 150명의 감시인단을 파견했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선거부정이 발생했으며, 관료들이 선거운동을 통제하고 언론에 대한 간섭이 자행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23] 한편, 타지키스탄 대권후보이자 전직 내무장관인 타지키스탄민주당대표 야크브 살리모프는 내전 당시 테러행위와 불법무기소지의 혐의로 2005년 4월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15년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24]

세 번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반체제정당이나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억제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반체제활동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특히 반체제인사들을 이슬람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이들을 정치무대에서

21) 앞의 글, 37쪽.
22) "Doubts Raised about Fairness of Upcoming Tajik Election,"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5, No. 2.
23) "After Ruling Party Victory in Tajikistan, What Next?"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5, No. 8.
24) "Tajik Opposition Leader Brought Home to Face Charges, Ex - interior Minister Imprisoned for 15 Years,"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5, No. 16.

배제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군사정권시절 반공법을 앞세워 반체제인사들을 탄압했던 관행과 많이 닮아있다.

이슬람과 결부된 반체제인사의 탄압은 키르기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모두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법의 개정이나 신설을 통해 반체제인사에 대한 탄압을 합법화시키는 작업이 각국에서 진행중이다. 이를테면 2005년 2월 극단주의 활동 억제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5월 카자흐스탄 의회는 언론 및 비정부단체, 그리고 종교단체등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 중에는 종교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통제의 강화가 주내용을 이루고 있다. 명분상으로는 외국종교교리의 확대에 반대하고 역사적 가치들을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종교단체의 등록요건을 강화시키고,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더욱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띠고 있다.[25] 타지키스탄에서는 2005년 한 해 동안 99명의 히즈브 우트 - 타흐리트 멤버가 체포되었으며 38명에게는 중형이 언도되었다. 90년대 중반들어 중앙아시아에 등장한 이 정당인사들은 그들의 활동이 평화로우며 단지 이슬람국가건설이 목표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는 한결같이 이들을 극단주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고 있다.[26]

몇몇의 경우에는 암살에 의해 반대파 정치인들을 제거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이를테면, 2005년 11월,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부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증거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전직 비상사태위원회 의장 누르카딜로프가 암살당했으며, 2006년 2월에는 대통령의 딸 나자르바예바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전직 장관이자 러시아 대사였던 야당인사 사르센바예프와 측근 2명이 살해되었다. 그는 카자흐스탄의 미등록 야당인 나기즈 아크 (빛나는 진실의 길)의 부대표였다. 야당인사들은 대통령의 딸과 사위가 이 사건에 결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27] 두 사건 모두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누르카딜로프는 머리와 가슴에 각각 한 방과 두 방의 총을 맞고 사망하였으나, 경찰은 그가 자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사르센바예프의 암살에 나자르바예바와 그의 남편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사건의 배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2005년 5월 13일에 발생한 안디죤 사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강권통치를 입증한 사건이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발표에 따르면 안디죤 사태를 야기한 폭도

25) "Religious Faithful in Kazakhstan Face Greater Scrutiny in Name of Security,"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5, No. 20.
26) "Hizb ut - Tahrir' s Call for Islamic State Find Support,"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6, No.2.
27) "Kazakh Opposition Blames Regime for Sarsenbaev' s Death,"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6, No. 6.

들은 해외에서 훈련받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로서 이들은 이슬람 구호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지의 목격자들과 외국 기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국제기구들의 현지조사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실상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백 명이 사망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안디쟌에서 진행된 23명의 사업가들에 대한 공판이었다. 이들은 히즈브 우트 - 타흐리르와 연루된 이슬람 테러활동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실제 목적은 이들 재산의 몰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체포에 항의하던 시위대가 관공서와 시내의 광장을 점거하고, 교도소까지 난입하는 상황으로 발전함에 따라 군대가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기 시작하였다. 사태가 진압된 뒤, 테러가담혐의로 수백 명을 체포하고 수십 명을 사형에 처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28)]

권위주의적 개인지배체제의 공고화

중앙아시아 국가의 정치체제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1인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1인 지배체제의 면모는 이 지역 대통령들의 임기가 사실상 종신이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유일한 예외는 키르기즈스탄으로 2005년 '튤립혁명' 에 의해 대통령이 사임한 바 있다. 혁명에 의해 정권이 교체된 키르기즈스탄을 포함하여 중앙아시아에서는 대통령선거에 의해 새로운 인물이 최고정치지도자로 등장한 적이 없으며, 키르기즈스탄을 예외로 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선거에 의해 경질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인지배체제의 형성과 관련하여 가장 독보적인 존재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니야조프이다. 최초의 헌법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삼선이 금지된 5년이었으나 1995년 국민투표를 통해서 2002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은 후, 1999년에는 할크 마슬라하티(인민회의)의 결정에 따라 니야조프는 종신대통령이 되었고, 2003년에는 할크 마슬라하티의 종신의장에 취임하였다. 니야조프의 개인지배체제의 공고화는 제도적인 차원을 떠나서 개인숭배의 양상까지 띠고 있다. 그는 2000년에는 스스로에게 사파르무라트 투르크멘바쉬(투르크멘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칭호를 부여하였으며, '니야조프 달력' 을 만들고 이슬람 경전에 자신의 시를 덧붙인 "루흐나마(성스러운 책)" 를 새 경전으로 제시하는 등 우상화 정책을 펴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족의회의 결정에 따라 1995년 4월 29일

28) " Fifth Uzbek Andijon Detainee Talks to RFE/RL from Prison,"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6, No. 17.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91.2%, 찬성 95.5%의 압도적 다수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시켰다.[29] 신헌법에 의해 1999년 대통령에 당선된 나자르바예프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조기선거형태로 치러진 2005년 12월 선거에 출마하여 유권자 75%의 투표율과 91%의 득표로 7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현재 65세인 나자르바예프의 나이를 고려할 때, 2012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은 없으며 후계자를 물색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는 그의 장녀인 나자르바예바가 가장 유력한 후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2003년 10월, 카자흐스탄에 아사르(상호협력)당이 구성되었으며 전당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장녀 다리가 나자르바예바를 당대표로 추대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나자르바예바가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30]

정치와 경제에 있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권력구조가 정착되었으며, 이 지역의 정치·경제 엘리트들로 구성되는 네트워크가 조만간 붕괴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2003년 6월, 타지키스탄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중앙선관위의 발표에 따르면 96.39%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여 93.13%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31] 총 56개항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상 2003년 헌법개정은 타지키스탄 대통령 라흐모노프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대통령 임기를 7년 중임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미 1999년 5년에서 7년으로 임기가 연장된 바 있는 라흐모노프는 임기가 만료되는 2006년부터 14년간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32] 한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임기 역시 2002년 1월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91%의 찬성으로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다.[33]

튤립혁명과 중앙아시아 정치체제 변화가능성

키르기즈스탄의 전직대통령 아카예프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관료출신이 아니

29) 김대성, 앞의 글, 20쪽.
30) "Kazakh President' s Daughter Elected to the Head New Political Party,"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3, No. 37.
31) "Amendment to Tajik Constitution Approved by a Landslide,"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3, No.22.
32) "Opposition Resigned to Government Victory in Tajik Referendum,"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3, No. 21.

며, 독립초기부터 민주화와 시장경제의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달리 키르기즈스탄의 반체제단체결성은 허용되어 왔으며, 이들 집단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도 이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의 키르기즈스탄의 정치적 상황을 평가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이 국가를 '민주주의의 섬(island of democracy)'이라 표현하였으며, 미국무성 차관 탈보트는 키르기즈스탄의 대통령 아스카르 아카예프를 '키르기즈스탄의 토마스 제퍼슨'이라 부르기로 하였다.[34] 실제로 키르기즈스탄의 정치정당들과 언론은 상당한 정도의 자유를 구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정치적인 이슈들은 키르기즈스탄이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노정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유력한 야권 인사이자 차기 대선후보인 펠릭스 쿨로프와 다니야르 우세노프가 2000년 의회선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각각 선거에 패배하거나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다.[35] 펠릭스 쿨로프는 2000년에 체포되었다. 2001년 법원은 그를 권력남용으로 7년형을 선고하였고, 2002년에는 횡령죄를 적용하여 다시 10년형을 추가하였다. 그가 체포된 실제 이유는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그가 유력한 후보라는 것이 정설이다. 한편 그는 2001년 반체제정당인 아르 - 나미스(존엄)당을 설립하였으며, 전당대회를 통하여 당대표로 추대되었다.[36]

서구의 관측통들은 2000년 의회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법률위반, 개표조작, 언론에 대한 탄압, 주요 후보의 배제' 등 민주주의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37] 특히 2000년 아카예프의 대통령 당선은 절차상 헌법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키르기즈스탄 헌법이 대통령의 삼선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2월, 키르기즈스탄의 헌법을 개정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75.5%의 투표자가 헌법개정에 찬성하였다.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키르기즈스탄 의회는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바뀌며, 부분적으로 실시되던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게는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한편, 대통령의 임기를 2005년까지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별도의 문항에서 투표자의 78.7%

33) "Uzbek Referendum Proposals approved by a Landslide,"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2, No. 5.
34) Yilmaz Bingol, *op. cit.*, p. 49.
35) Joseph F. Fletcher, Boris Sergeyev, "Islam and Intolerance in Central Asia: The Case of Kyrgyzstan," *Europe - Asia Studies*, Vol. 54, No. 2, p. 252.
36) "Can Kulov Unite Opposition from Behind Bars?"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5, No.1.
37) Yilmaz Bingol, *op. cit.*, p.51.

가 찬성하였다고 발표되었다.[38]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아카예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두 번째 임기가 만료되는 2005년 10월에 대통령직을 물러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었지만, 2005년 의회선거부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튤립혁명' 에 의해 대통령직을 박탈당하였다.

키르기즈스탄에 발생한 '튤립혁명' 의 직접적인 발생원인과 그 경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5년 3월 13일에 실시된 2차 투표의 결과는 여당의 압승이었다. 야당은 도합 10%의 의석을 차지하였을 뿐이다. 대통령은 관료들을 통하여 선거과정을 잘 통제하였고, 언론에의 개입을 통하여 선거부정과 관련된 사태를 축소시키면서 극단주의자들에게 소요의 책임을 전가하였다. 한편 1월부터 시작된 부정선거항의시위는 현직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뚜렷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였으며 조직력도 갖추지 못하였다.[39] 명백한 야당지도자에 대한 지지와 그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시위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이나 그루지야의 '장미혁명' 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시위는 2005년 4월 20일 지방도시 오쉬와 잘랄 - 아바드에서 먼저 발생하였으며, 24일에는 수도 비쉬케크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하였고, 경찰의 소극적인 진압 속에서 시위대는 대통령의 관저로 몰려들어갔다. 아카예프 대통령은 피신하였고, 반체제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였다.[40]

튤립혁명의 전모는 불투명하지만 의회선거와 대통령의 권위주의화가 중요한 원인이었음은 분명하다. 2005년 키르기즈스탄의 의회선거가 아카예프 대통령의 통제 속에서 치러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선거에서는 대통령 아카예프 딸과 아들, 그리고 두 명의 처제가 입후보하였다. 여기에 더해서 수상의 아들 및 대통령 최측근인사의 아들과 사위도 후보자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거구에서 대체적으로 가장 강력한 후보들이었으며, 유력한 경쟁자들은 선거에서 배제되었다. 이를테면 선관위는 아카예프의 딸 아카예바의 경쟁후보였던 마리포프의 거주등록이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의 후보등록을 거부하였다.[41] 게다가 아카예프 대통령 자신과 친인척들에 의한 부정축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키르기즈스탄 전직 대통령 아카예프가 약 180개의 사업체 및 기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

38) "Kyrgyz President Scores Landslide Victory in Referendum,"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3, No. 6.
39) "The Failure of Managed Democracy in Kyrgyzstan,"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5, No. 13.
40) Ibid.
41) "For Kyrgyz President, Parliamentary Elections are a Family Affair,"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5, No.2.

났으며, 이 기업체들은 거의가 아카예프의 부인을 비롯한 친척들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42]

튤립혁명으로 인해 2000년 이후 급격히 진행되던 키르기즈스탄의 권위주의화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혁명이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지는 못하였으며, 오히려 정치적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혁명은 지도자나 지도적인 단체가 부재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반체제집단들은 극도로 분열되어 있었다. 아카예프 정권 당시 반대통령 인사에 대한 탄압이 있기는 했지만, 야당에 대한 전반적인 탄압이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의 의지나 권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으나, 키르기즈스탄 정당들은 정치권력에 도전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때문일 수도 있다. 쿨로프의 아르 - 나미스당 이외에 전직 수상인 쿠르만베크 바키예프가 이끄는 키르기즈스탄인민운동이 중요한 야당으로 부각되었으나, 쿨로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대통령에 대항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게다가 키르기즈스탄에는 40여개의 군소정당들이 존재한다. 2005년 초에 범야권의 단합을 촉구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지만 일치된 의견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43] 반체제 정당들의 의견의 불일치는 튤립혁명 이후의 정치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대통령과 의회, 수상 사이의 권력구도가 균형점을 찾지 못하고 상당한 정도의 불안정을 보이고 있다. 권력간 균열은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대통령과 수상간 갈등이 중첩된 양상을 띠고 있다. 대통령과 의회간의 갈등은 감정적인 양상마저 띠고 있다. 이를테면 키르기즈 하원의장은 대통령에 대해 '수치스럽다' 느니 혹은 '개'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44] 의회는 정부의 정책을 인준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최고재판소장 등의 임명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의 국정이나 인사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바키예프 대통령과 쿨로프 수상 사이의 갈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부패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다. 쿨로프 수상은 조직범죄가 정부고위층과 깊이 연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바키예프는 그러한 발언이 국가의 불안정과 새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쿨로프를 비난하고 있다.[45]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에서 발생한 시민혁명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사한 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 바 있으며, 실제로 키르기즈스탄에서 '튤립혁

---

42) "Legal Battle Heats up Over Former Kyrgyz President' s Finaces,"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5, No. 21.
43) "Fragmented Kyrgyz Opposition Up Against Entrenched Interests,"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5, No.1.
44) "Week at a Glance(6 - 12 February),"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6, No. 6.
45) "Kyrgyzstan: Hardball Politics with No Winners," *Central Asia Report*, RFE - RL, Vol. 6, No. 7.

명' 이 발생하자 논자들의 관심은 이 지역 다른 국가들로 혁명이 전파될 가능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반한다면 혁명의 가능성은 극히 적다. 첫째, 이 지역 국가의 국민들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질서와 안정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구소련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민족국가형성을 위한 어떠한 대안도 가지지 못한 채 그 당시 각국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권력 구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일한 예외가 키르기즈스탄이었다. 게다가 키르기즈스탄은 혁명 이후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불안정을 노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혁명의 발생에 대해 이 지역 국민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둘째, 보다 중요한 요인은 중앙아시아 국가의 권위주의체제는 이미 공고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정치와 경제에 있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권력구조가 정착되었으며, 이 지역의 정치 · 경제 엘리트들로 구성되는 네트워크가 조만간 붕괴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게다가 반체제집단들과 반체제인사들은 정치무대에서 모두 배제되었고, 이들을 구심점으로 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 론

중앙아시아 각국의 정치체제는 고유의 정치이슈들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제도와 정치행태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특징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강한 대통령제와 권위주의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다.

첫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독립과 함께 채택했던 정치제도는 모두 구소련 말기의 제도적 세팅에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이 때 채택된 제도는 각국 정치체제의 발전경로를 결정하였다. 고르바초프의 정치개혁은 의회가 행정부보다 대표성을 더 많이 가지면서도, 입법권과 행정권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일견 모순되는 결과를 낳았다. 독립 당시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에게 고르바초프의 정치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을 제공하였다. 의회에 대표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당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무마시킬 수 있었고, 의회제적인 요소들을 대통령제에 가미함으로써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통제를 가능케 할 수 있었다. 이후 대통령의 권력이 공고화됨에 따라 개헌과 국민투표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의회의 역할은 더욱 약화되었고, 개인지배체제는 더욱 강화되어 갔다.

둘째, 이 지역 국가들의 민족주의는 정치체제의 형성에 있어 정치지도자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레토릭 이외에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다. 명목민족이 압도

적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다민족국가로서 신속하게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국은 자민족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민족적 정책성을 강화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데는 소극적이며, 더 나아가서는 민족주의의 분출을 최대한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다. 언어법과 같은 자민족화 정책을 위한 중요한 제도들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규제방안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 지역 민족주의의 핵심인 이슬람주의는 테러리즘과 결부시켜 억압되고 있다. 이는 독립 당시 민족적 구심점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정권을 장악한 이 지역 정치지도자들이 민족주의 단체가 새로운 대안으로서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 지역에서 경제수준과 정치의 발전정도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부유한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강도 높은 권위주의가 실현되고 있으며, 빈국 중 하나인 키르기즈스탄이 형식상 그리고 내용상 상대적으로 가장 민주적인 국가이다. 천연자원에 의존적인 경제구조가 권위주의체제의 형성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대규모의 투자와 설비가 필요한 석유산업의 특성상 경제자원은 소수의 엘리트가 독점하고 있으며, 그 정점에는 대통령이 위치하고 있다.

넷째, 중앙아시아 국가의 정치집단들은 대부분 독립 초기에 무력화되었으며, 이 지역 정치지도자들은 야당이나 야당인사들의 정치참여를 최소한의 수준에 묶어놓는데 성공해 왔다. 일부 국가에서 독립초기에 대통령과 의회와의 갈등관계가 표면화되기도 했으나 1990년대 중반에는 모든 국가의 대통령들이 의회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였다.

다섯째, 키르기즈스탄의 '튤립혁명' 이 인접국가로 전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키르기즈스탄에서 대통령의 의회나 야당에 대한 통제 수준은 낮은 편이다. 아카예프 정권이 권위주의적인 속성을 뚜렷이 드러냈던 2000년 이후에도 반체제정당이나 집단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반체제정치집단들은 무력화된 상태이며, 혁명을 주도할 만한 정치적 구심점의 역할을 할 만한 능력이 부재하다. 게다가 혁명 이후 키르기즈스탄의 정치는 불안정을 노정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국민들이 질서와 안정을 희생해가면서까지 혁명에 나설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부록〉 헌법을 통해 본 중앙아시아 각국의 정치제도

내 용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독립일자		1991.10.27	1991.8.31	1991.12.16	1991.9.9	1991.9.1
헌법채택년도(개정년도)		1992(1995, 2003)	1993(1996, 2003)	1993(1995, 1999)	1994(1999, 2003)	1992(1993, 2002)
국가공식어		투르크멘어	키르기즈어	카자흐어	타직어	우즈벡어
공용어		×	×	러시아어	러시아어	×
종교단체 정부간섭금지조항		○	○	○	○	○
국가최고대표기관		인민회의(할크 마슬라하티)	의회(죠고르쿠 케네쉬)	의회	의회(마질리시 올리)	의회(올리 마질리스)
의회구성방식		단원제(메질리스) 50명 * 사실상의 양원제 – '인민회의'가 상원 역할	양원제 상원 – 인민대표자회의 70명 하원 – 입법회의 35명	양원제(2005) 상원 – 세나트 39명 하원 – 마질리스 77명	양원제 상원 – 마질리시 밀리 33명 하원 – 마질리시 나모얀다곤 63명	양원제 상원 – 상원(세나트) 100명 하원 – 입법원 120명
대통령과 행정부, 의회 관계	대통령의 의원임명권	×	×	상원의원 7명 상원의장후보 지명	하원의원 1/4	상원의원 16명 상원의장후보 지명
	의회의 대통령탄핵권	×(탄핵권은 인민회의 보유)	○	○	○	×
	대통령의 의회해산권	○	○	○	×	○
	법안발의권 소재 (순서 – 헌법상)	대통령, 의원, 행정부	유권자 3만 이상, 대통령, 양원 의원, 행정부, 최고재판소, 최고중재재판소	양원 의원, 행정부	양원 의원, 대통령, 행정부, 고르노-바다흐샨스카야 오블라스찌 의회	대통령, 카랄팍스탄 공화국, 하원의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최고재판소, 최고민사재판소, 검찰총장
	대통령의 법안비토권	○	○	○	○	○
	의회의 수상임명승인권	×	○	○	○	○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	○	○	×	×
	법률에 준하는 대통령령발포권	○(대통령은 의회의 양도에 의해 법률제정권 보유)	○	○(대통령은 의회의 양도에 의해 법률제정권 보유)	×	×
대통령	위상	국가원수, 행정부수반, 공화국최고위인물, 국가독립과 영토의 일체성, 헌법과 국제규약준수의 보장자	국가원수, 공화국최고위인물, 국민의 일체성과 국가권력의 상징이자 헌법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자	국가원수, 국민의 일체성과 국가권력, 헌법의 존엄성, 인간과 시민의 자유와 상징이자 보장자	국가원수, 행정부수반, 헌법과 자유, 인권, 독립, 영토일체성의 보장자	국가원수, 행정부수반, 내각의장(2002년 삭제), 시민의 자유와 권리, 헌법 및 법률의 보장자
	후보 조건	40세 이상	국가공식어 구사 35세 이상 65세 이하 15년 이상 영구거주 유권자 5만 이상 추천	국가공식어 구사 40세 이상(1995) 15년 이상 영구거주(1995)	국가공식어 구사 35세 이상 10년 이상 영구거주 유권자 5% 이상 추천	국가공식어 구사 35세 이상 10년 이상 영구거주

내 용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임기	5년 중임, 2002년까지 임기 보장(1995년 국민투표), 종신대통령 (1999년 인민회의 결정)	5년 중임	7년 중임(1999)	7년(1999) 7년 중임(2003)	5년 중임 7년 중임(2002)
특 기 사 항	인민회의(halq maslahaty) 약 2,507명		종교기반 정당 불허 의원소환제(유권자 과반수)			
	구성	대통령, 최고재판소장, 최고민사재판소장, 검찰총장, 장관, 기타 지방행정수장 및 부족대표들				
	권한	헌법제정 및 개정, 국민투표 지정, 국가발전방향 결정, 조약비준, 전쟁선포,				
	기타	대통령-인민회의 종신 의장(2003년 관련법) 대통령-의회최고지도자				

〈부록〉
※ ○ - '있음', × - '없음'
* 괄호의 숫자는 헌법개정년도임

우즈베키스탄의 민족문제

성 동 기 (부산외국어대학)
tassdk@hanmail.net

서론

구소련 붕괴 후 중앙아시아 지역은 잠재적 분쟁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원인으로 민족문제, 국경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 중심에는 우즈베키스탄이 존재했었다. 이미 개혁과 개방 시기에 수자원의 갈등과 민족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중앙아시아의 페르가나 지방에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우즈벡인들과 여타 민족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었다.[1] 그러나 2005년 5월 발생한 안디잔사태 이전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외부의 우려와 같은 민족, 국경문제로 인한 충돌은 오히려 발생하지 않았다. 위 사건의 발단조차 민족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에 불안을 조성하는 위협세력으로 간주되었던 이슬람과의 충돌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즈벡정부의 강력한 철권통치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인을 제공하는 세력들이 철저하게 탄압되었기 때문에 민족간 갈등으로 인한 불만의 표출은 사전에 차단되어 왔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중

1) 대표적인 사건은 다음과 같다. 1989년도 우즈베키스탄내 페르가나 지방에 우즈벡인과 메스케티안인의 충돌. 100여명 사망. 1000여명 부상. 700 가옥 전소. 1990년 키르기스스탄내 페르가나지방(오쉬주)에 우즈벡인과 키르기스인 충돌. 200여명 사망. 1000여명 부상.

앙에 존재하는 최대인구를 가진 국가이다. 극단적으로 중앙아시아의 평화는 우즈베키스탄의 역할에 의해서 좌우된다. 만약 우즈베키스탄에서 내란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당사국들과 외부국가들이 우즈베키스탄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안디잔 사태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정권의 무자비한 무력진압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이 지지를 표명한 것은 이슬람원리주의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확대가 가져올 중앙아시아 전체의 불안을 두려워해서 나타난 결과이다.[2] 따라서 이러한 지정학적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우즈벡 집권세력은 최대한 국내 정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게다가 강대국들이 우즈베키스탄의 안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탄압의 강도를 높여가도 정권자체의 입지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이 국익과 상반되는, 원칙이 무시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외부세력의 지지를 통한 시민혁명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3]

본 연구는 존재하는 우즈베키스탄내 민족갈등이 상술한 환경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족갈등의 원인과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다각도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구소련 붕괴 후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는 정책적 관점에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서 정책의 평가와 이에 따른 사회문제 그리고 소수민족이 받는 피해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생국으로 독립한지 15년이 지난 지금 민족갈등의 상황은 보다 복잡하게 변화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한층 더 사실관계의 다면적 분석이 요구되며,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정치-사회안정의 최대변수라는 가정에서 기존에 분쟁의 요인으로 주목되었던 민족갈등을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내부의 민족갈등

민족주의 정책으로 인한 민족갈등의 현재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은 민족주의를 국가발전의 이데올로기

2) 안디잔 사태를 통해 발생한 난민들이 키르기스스탄 국경으로 도망갔다. 이는 사건의 확대를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라도 할 수 있다.

3) 미국 NGO와 러시아의 지지로 인해 성공한 레몬혁명은 키르기스스탄의 야당세력이 이미 아카예프 전 대통령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할 만큼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의 지원으로 안정적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어떤 외부세력이 비록 반정부활동을 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 대항했던 야당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안정적인 정권교체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로 간주하고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현재 상반될 정도로 뚜렷하게 정책의 승패가 나뉘어져 나타난다. 비록 민족주의의 성공 여부를 가리는 요인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더라도 초기 정책의 수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민족주의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정책의 경우 중앙아시아 5개국은 독립 후 헌법상에 주류민족어를 국어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어와 공용어로 정책이 반전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탈러시아의 목적으로 문자개혁까지 이끌어냈다.[4] 반대로 민족주의가 국가발전의 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의 정책 실패국가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반면에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부정적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에너지자원 개발과 더불어 더 없는 경제적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은 시민혁명을 통해 정치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반면에 우즈베키스탄은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퇴보되고 있다.[5] 우즈베키스탄 역시 민족주의 정책의 성공과 더불어 국가발전 역시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으나 민족주의 정책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발전의 정도는 결과적으로 민족주의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민족주의 정책의 성공과 국가발전 역시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으나 민족주의 정책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발전의 정도는 결국 민족주의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정치-사회적 갈등

우즈베키스탄의 민족갈등은 민족주의로 인한 정치-사회적 갈등에서 나타난다. 먼저 정치적 갈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견제장치의 부재 - 현재 우즈베키스탄 국회인 올리 마질리스(Oliy Majilis)의

4) 카자흐스탄은 1992년 헌법초안에서 러시아에 부여된 민족간 소통어 법적지위에 대해 조항을 없앴는데 1993년 실제로 채택된 카자흐스탄의 헌법에는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유신, "카자흐스탄의 단일국가언어정책," 『민족연구』 13호, 196쪽. 키르기스스탄은 헌법개정을 통해 러시아어의 공용화를 선포하였다.(KYRGYZSTAN DAILY DIGEST. 2001. 10. 22.)

5) 비록 카자흐스탄의 경제호황이 민족주의 정책 실패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개발계획, 외국인 투자유치 등과 관련해서 판단해 보면,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주의로 인한 민족갈등이 사회적 불안정으로 연결된다고 외국인이 인식하게 되면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는데 민족주의는 장애요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우즈베키스탄보다 비교적 유연한 민족주의 정책이 에너지 개발과 더불어 외국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6년간 중앙아시아 총 외국인 직접투자액의 80%가 카자흐스탄에 집중된 것은 이를 대변해 준다.

〈표-1〉 중앙아시아 각국의 민족분포(%)

국 명	주류민족	러시아인	기타소수민족	조사년도
우즈베키스탄	80%	5.5%	14.5%	1996
카 자 흐 스 탄	53.4%	30%	16.6%	1999
키르기스스탄	64.9%	12.5%	22.6%	1999
타 지 키 스 탄	79.9%	1.1%	19%	2000
투르크메니스탄	85%	4%	11%	2003

* 출처: CIA, *World Fact Book* (CIA, 2006).

국회의원은 총 84명이다. 이 중에서 민족별 분포를 살펴보면, 우즈벡인 89%, 나머지 11%는 소수민족들이다.[6] 우즈베키스탄의 전체인구에서 주류민족인 우즈벡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다.[7] 이러한 환경에서 국회의원의 민족별 구성은 적정한 것 같다. 그러나 실질적인 야당이 없다는 현재의 정치 구조속에서 국가의 정책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 게다가 11%에 불과한 소수민족 의원들이 자신의 민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자체가 민족주의에 의한 희생양인 것이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의 경우도 상원의원 중에서 소수민족들은 없으며, 하원 역시 총 77석 가운데 58석이 카자흐인이고 나머지 19석은 러시아인이다.[8]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야당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9]

우즈베키스탄은 카리모프 대통령과 가족들의 부패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는 일은 없었다. 언론매체는 검열과정을 통해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정치권에서도 반정부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를 삼가하고 있다. 따라서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소수민족들은 정책적 변화를 통한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수민족들의 권익 보호는 그들의 모국에서 우즈벡정부와 대외적인 접촉을 통해 어느 정도

6) Press-Servi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http://2004.press-service.uz/eng/pressa_eng/pressa_eng78.htm). 이 외에도 여성의원이 전체의 15%를 차지한다. 그러나 소수민족 출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는 듯하다.

7) CIA, *World Fact Book* (CIA, 2006). 여기서 러시아인이 5.5%를 차지한다. 그러나 조사년도가 1996년이기 때문에 현재 우즈벡인의 비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8) EURASIA DAILY MONITOR. Vol 1. Issue 113. October 26. 2004(http://www.jamestown.org/publications_details.php?volume_id=401&issue_id= 3119&article_id =2368746). 게다가 2004년 10월 당시 정부내각에 소수민족은 한 명도 없었다.

9) 카자흐스탄 수상 Imanghaliy Tasmagambetov는 국회에서 1996년 당시 Tengiz 유전의 20%를 판매한 금액 중에서 대략 10억 달러 정도가 스위스은행에 예금되어 있다는 것을 감추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외적으로 예금당사자는 카자흐스탄 대통령 나자르바예프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집권세력의 부패에 대해 국내에서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 참조. Roman Kupchinsky. "KAZAKH CORRUPTION" , Radio Free Europe, Newsline, 9, may 2002. Vol. 2 (http://ww w.rferl.org/2002/05/18-090502.asp).

전달하고 있다.[10)]

둘째, 정치활동의 제약 - 우즈베키스탄의 독재정치 구조로 인해 소수민족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독립 후 표면적으로 주류민족과 소수민족간에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법적 장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즈벡정부의 소수민족 보호와 소수민족문화 포용책과 관련된 법규는 헌법 5조 18항과 1996년 11월 13일에 공포된 제399호 우즈벡정부령이 있다. 전자는 우즈베키스탄 내 소수민족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에는 각각의 소수민족이 민족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법적인 소수민족의 신분보장과 이들의 문화유지에 대한 법적인 장치를 구축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정도를 벗어나는 소수민족들의 정치세력화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장치는 주류민족에게는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소수민족들에게는 정치활동의 제약을 통해 정치적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류민족과 소수민족간의 충돌을

〈표-2〉 우즈베키스탄 민족분포(%)

국 명	우즈벡	러시아	타직	타타르	카자흐	키르기스	고려인	기 타
카라칼팍스탄자치주(139)	32.3	1.6		0.7	26.3	0.1	0.8	카라칼팍인(32.1)
타쉬켄트(210)	44.2	3.4		6.3	1.5		2.1	유태인(2.1)
안디잔주(199)	85	3.9		2.9		4.2		위구르
부하라부(131)	85.4	4.0	4.0	1.8	1.6			
지작주(87)	81.8	2.8	2.5	1.8	6.4	2.4		
나보이주(73)	63.3	13.5	1.3	2.6	11.5			
나망간주(17)	85.1	1.9	8.8	1.0		1.1	0.3	크림타타르(0.8)
사마르칸트주(243)	76	5.3	9.7	3.3	0.33		0.4	
시르다리요주(62)	62	10	7.8	3.2	3.8		2.3	
수르한다리요주(153)	79.9	2.7	13.3	1.2	0.3			
타쉬켄트주(224)	50.2	14.6	4.2	5	12.4		3.6	유태인(5)
페르가나주(244)	83.6	4.9	5.5	1.8		2.1		
호레즘주(119)	95	1.2		0.8	1.4		0.6	
카시카다리요주(191)	87.7							

* 출처: 우즈베키스탄 백과사전. 타쉬켄트. 1997. 1995년도 통계자료.
주: 각각의 주(州)에 나타난 수치는 인구(만 단위)/빈칸은 존재를 의미하며 정확한 % 부재.

10) 예를 들면, 한국-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에서 고려인에 관한 언급은 이를 대변해 준다. 특히 러시아 민족주의자 지리노프스키는 재외 러시아인의 차별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곤 했다.

엄격한 법적장치로 막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정책은 실제로 당사자들인 소수민족들에게 직접인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명목상 민족문화협회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활동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은 없으며 단지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단체가 운영되도록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모국의 지원에 의존하던지 아니면 민족 구성원들의 후원금으로 유지해야만 존속이 가능한 것이다.[11] 무엇보다도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이 각 민족의 문화협회가 가지는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인구 구성비로 인한 갈등 - 우즈베키스탄의 사회문제를 통한 민족갈등의 기본적인 원인은 전체 인구에서 우즈벡인 80%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아래 표에서 우즈베키스탄 각주에 존재하는 민족간 분포를 살펴보면 현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소수민족들은 수도인 타쉬켄트와 인근의 타쉬켄트주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지배민족이자 인종적으로 이질적인 러시아인들은 타쉬켄트, 타쉬켄트주 그리고 타쉬켄트에서 2시간정도 떨어진 나보이주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반대로 호레즘주에는 95%가 우즈벡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민족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이유는 러시아인의 경우 20세기 초기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 당시 기술자와 군인 출신들이 타쉬켄트에 정착하여 상주하였기 때문이며, 고려인의 경우에는 강제이주 시기에 배치된 집단농장의 대부분이 타쉬켄트주에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립 이후 소수민족들은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 타쉬켄트와 인근으로 재이주를 단행하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인구분포가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구구성비의 차이가 어떠한 민족갈등을 야기하는 것인가?

우선 우즈벡인이 대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소수민족들이 직업선택을 하는데 수적으로 불리함을 가지게 된다. 개인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8:2 혹은 9:1로 경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타쉬켄트의 경우는 대략 절반정도 주류민족과 소수민족이 분포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지방보다는 유리하며, 특히 외국인기업과 외국투자가 수도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폭넓다.[12] 결국 사회활동에 제약이 되는 인구구성비는 민족갈등에 기본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둘째, 언어적 갈등 - 우즈베키스탄은 민족주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는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언어민족주의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는데 있다. 우즈베키

11) 고려인문화협회는 한국정부,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기업의 지원과 고려인의 모금으로 유지되고 있다.
12) 실제로 타쉬켄트 거주 외국인 기업에서 활동하는 민족들을 살펴보면 그 비율이 비슷하다.

스탄은 우즈벡어를 국어로 규정하고 기존의 문서에 존재했던 러시아어를 없애 버렸다. 게다가 1993년 문자개혁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고 2005년 9월부터 라틴문자를 사용하고 있다.[13] 그러나 이러한 언어정책은 사회적으로 적지 않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소수민족들 대부분이 러시아어에 능통해 있어 모든 문서의 우즈벡어화는 소수민족들과 약간의 우즈벡인들에게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라틴문자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은 우즈벡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4] 보다 근본적인 사회문제는 직업과 승진에 있어서 우즈벡어가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소수민족들은 대부분 우즈벡어를 능통하게 구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 당연히 우즈벡인들이 아직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즈벡어 학습자료와 공간이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소수민족들 가운데 타쉬켄트에 거주하는 기성세대들은 우즈벡인 기성세대들과 시대적 동질감을 가지기 때문에 러시아어로 대화를 해도 마치 러시아인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기분을 가진다. 그러나 지방과 민족간 유년세대들 사이에서는 언어장벽이 나타난다. 우즈벡 유년세대들은 러시아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러시아어만 구사하는 소수민족 유년세대들 역시 우즈벡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15] 비록 필요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10여년이 지나면 사회의 중추를 담당할 차세대들간에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이처럼 언어갈등을 통한 사회문제는 우즈베키스탄의 불안요소들 중에서 우선시 되는 항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즈벡정부가 소수민족들을 위한 우즈벡어 교재 발간과 학습 장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극단적인 정책보다는 장기간의 유연한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16]

경제적 갈등

앞에서 언급한 정치-사회적 갈등은 소수민족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반대로 우즈벡인에게는 주류민족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13) 1989. 10. 21. 우즈벡어를 국어로 하는 법령공포. 이 후 1993. 9. 2. 우즈벡어를 라틴문자로 전환하는 법령 공포. 1995. 5. 6. 세부규칙 공포. 1996. 8. 31부터 부분적 시험하여 2005. 9. 1부터 실행.
14) 현재 중학생들은 끼릴문자를 읽지 못한다. 이들은 라틴문자로만 수업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성세대는 라틴문자 읽기에 어려움을 가진다. 오히려 영어에 익숙한 외국인들이 잘 읽는다.
15) 현재 초중고에 재학중인 우즈벡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개혁과 개방시기에 태어난 현재의 20대 초중반 우즈벡인들 중에서도 러시아어 구사력이 초보수준에 거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즈벡 대학생들의 경우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한다.
16) 현재 발간된 우즈벡어 교재는 초급 수준에 거치기 때문에 보다 계획적인 교재 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적 갈등은 주류민족 대부분과 소수민족 모두에게 심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상황은 현재 왜곡된 경제구조와 부패로 인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경우 경제호황을 통해 Post BRICs 국가로 분류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과 같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였다. 그러나 점진적 경제개발정책으로 왜곡된 경제시스템인 불태환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외국투자자들이 진출을 관망하고 있다.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원유는 확인 매장량이 약 6억배럴에 달하며 171개 유전 · 가스전이 발견되었으며, 천연가스는 추정 매장량이 5.5조㎥이며 세계 10위 생산국이다. 특히 면화는 세계 5위 생산국이며 세계 2위 수출국이다.[17)]

이러한 자원보유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낙후되는 원인은 상술한 견제장치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구체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환율과 불태환의 폐단 - 우즈베키스탄은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자원 개발에 앞서 기존의 주요 수출품인 면화에 경제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작황의 정도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좌우되었다. 결국 만성적인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우즈벡정부는 임시방편적으로 이중환율과 불태환정책을 고수하게 되었다. 비록 외국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염두에 두고서 진출하였으나 왜곡된 시스템으로 인해 철수를 단행하였다. 특히 이중환율은 집권세력에 의해 악용되었다. 예를 들면, 왜곡된 자본주의 시스템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중환율과 불태환 정책이다. 이는 만성적인 외환보유고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집권세력의 안일한 정책과 이를 악용하는데 보다 큰 심각성을 가진다. 예를 들면, 집권세력은 특권을 이용해서 은행에서 공식환율로 달러를 산다. 그리고 암시장에서 달러를

〈표-3〉 우즈베키스탄 광물 현황

광 종	단 위	우즈벡(A)	세계(B)	A/B(%)	세계순위
석 탄	백만톤	4,000	984,211	0.4	19
금	톤	5,300	49,800	10.6	5
몰 리 브 텐	천톤	60	8,600	0.7	11
텅 스 텐	천톤	20	3,200	0.6	12
우 라 늄	천톤	65.62	2,619.31	2.5	10

* 출처: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2006.

17) 우즈베키스탄 주요 경제 통계. GDP(2003년): $90억, 무역(2003년): $56.6억(수출 $31.3억, 수입 $22.1억), 무역수지(2003년): $9.2억 흑자, 주요 수출품(2003년): 원면, 천연가스, 금, 주요 수입품(2003년): 기계류, 석료품, GDP기준 산업구조(2002년): 농림업(26.1%), 제조((16.6%), 건설업(9.6%), 교통 · 통신(6.2%), 무역(8.7%), 기타(32.8%), 경제 성장률(2002년): 4.2%, 외채(2002년): $ 50억, 소비자 물가 상승률(2002년) : 22.0%, 외환 보유고(2002년): $ 6.4억 (추정치).

우즈벡인들은 수세기를 걸치는 동안 이민족의 침략과 정복을 당하면서 외부민족과의 민족동화과정을 거쳐 순수한 민족의 개념을 잃어 버렸다.

팔아 다시 숨을 은행에서 달러를 사들인다. 은행에서 달러를 사는 숨의 액수는 암시장에서 달러를 팔아 숨을 사는 액수의 차액은 1998~9년도에 3배가 되었다.[18] 이러한 행태는 부패의 정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IMF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의 조치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환을 가능하게 하는 차관 도입이 무산되었으며 급기야 2001년 4월 IMF사무실이 철수하였다.[19] 그러나 현재 이중환율은 사라졌으나 아직 개방적 체제를 도입하지 못해 불태환이 고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집권세력 내부의 불투명성이 인위적인 국가경제 시스템의 왜곡을 양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자원배분의 갈등 - 우즈베키스탄 소수민족들은 자원배분에 대한 기대는 포기할 정도로 우즈벡인들이 집중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우즈벡인 중에서도 집권세력이 다수를 독점하고 있다. 특히 카리모프 대통령의 고향인 사마르칸트씨족과 지역파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주요 천연자원을 독점하여 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측근의 씨족에게 천연가스와 금의 채광산업을 맡기고 있다. 그런데 면화의 지배구조는 상황이 다르다. 면화는 우즈베키스탄 전 국토에 걸쳐 수확되고 있다. 카리모프는 각 지역의 목화 마피아를 통제하기 위해 과거 소비에트 중앙정부가 사용하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각 지역 면화 수확물을 싼값으로 구입하여 외국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다. 지방 파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불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현재까지 각 지방의 면화 생산을 그들이 거의 반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요 수입원으로 괜찮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왜곡된 경제구조로 인해 외국의 자본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진출한 기업들조차도 철수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우즈벡인과 소수민족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게다가 집권세력 일부가 국가의 자원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일반 시민으로서 우즈벡인이나 소수민족들은 동일하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업을 하고자 직장을 떠난 사람들은 주류민족과 소수민족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가

18) Kathleen Collins, *Clans, Pacts, and Economic Policymaking in Central Asia*.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Asian Political Economy in an Age of Globalization, Tuck School of Business, Dartmouth College, Hanover, NH, May 2002), pp. 10-11.
19) UZBEKISTAN DAILY DIGEST. 13. 12. 2000.

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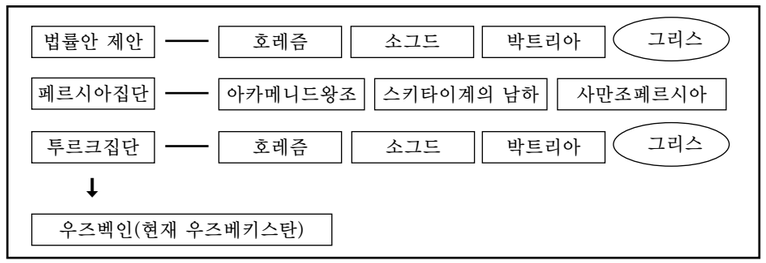
셋째, 낮은 임금에 대한 갈등 - 우즈베키스탄의 민족갈등의 기본적인 원인은 상술한 바와 같이 인구구성비에 의해 나타난다고 했다. 소수민족들은 구직과정에서 겪게 되는 주류민족과의 열등한 경쟁 그리고 우즈벡어 구사라는 장애요인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다. 비록 직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낮은 임금과 한직에 머물게 되어 직장생활에서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우즈벡인들 역시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로 인해 소수민족들이 직업상 차별받는다는 내용과 상반되는 것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한 경제생활의 어려움은 일부 집권층을 제외하면 공통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즈벡인과 소수민족들은 더 나은 직장과 일자리를 찾아 현직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나고 있다. 특히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일하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장사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소수민족들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우즈벡어를 구사하여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대가가 그들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국어를 습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대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임금이나 안정이 보장된다면 당연히 국어를 습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결국 우즈벡인과 소수민족들은 제3의 장소에서 다시금 경쟁을 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의 본질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주의는 주변국과는 달리 급진적이고 정치적 논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인해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는 다민족다문화를 사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민족 중심의 민족주의라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우즈베키스탄의 민족형성 역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투르크계 한 부족인 우즈벡이 과연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집단인지 분석해 보아야 한다. 초기 중앙아시아 원주민과 우즈벡 집단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 이 지역의 원주민은 수세기를 걸치는 동안에 이민족의 침략과 정복을 당하면서 외부민족과의 민족동화과정을 거쳐 순수한 민족의 개념을 잃어 버렸다. 따라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우즈벡인들은 이러한 민족동화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초기 중앙아시아 원주민과 현재 우즈벡인과의 관계는 명확한 개념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우즈벡인과 우즈벡족도 구별해야만 한다.

첫째, 우즈벡족 혹은 '우즈벡'이라고 불리운 집단 - 현재 우즈벡인의 민족동화 과정에 마지막으로 참여한 하나의 집단에 불과하다. 15세기에 우즈벡족이라고 불리운

우즈베키스탄 민족형성과정의 개요



투르크계 집단이 현재의 우즈베키스탄으로 남하하여 러시아의 지배이전까지 이 지역을 통치하였던 것이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국명은 어디서 출발한 것인가? - 남하한 우즈벡족이 현재의 중앙아시아를 통치하면서 내분을 겪게 되었고 우즈벡 3칸국이 독립적으로 건국되었다. 이 후부터 중앙아시아는 3국간의 분열과 전쟁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러시아제국주의는 이러한 분열의 상황을 통해 어렵지 않게 식민지 지배를 할 수 있었다. 1924년 소비에트정부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민족분포에 따라 국경을 그을 것이라고 결의하였다. 원인은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민족봉기를 소멸시키는데 있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지역을 제외한 동투르키스탄 영토는 우즈벡족이 지배한 영토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우즈벡 사회주의 공화국(Uzbek SSR)이 현재 우즈베키스탄을 영토에 탄생하였다. 이때, 중앙아시아 지역에 칸을 비롯한 지배계층은 우즈벡족이었고, 실질적인 통치영역도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영토에 미쳤기 때문에 '우즈벡' 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중앙아시아 4개국의 국가명칭 역시 당시 그 지역의 지배민족 명칭에서 기원한다.

일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벡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는 우즈벡족이 지배집단으로 살았던 지역으로 고쳐서 사용해야 한다. 현재 우즈벡인들은 우즈벡족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우즈벡족은 우즈벡인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 1924년 당시 국명이 '우즈벡사회주의공화국'이 되면서 우즈벡족과 관련이 없는 집단들이 거세게 반발하였다. 자신들의 민족정체성과 우즈벡과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20] 이는 지배집단인 우즈벡족을 제외하면 나머지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에도 현재와 같이 80%가 넘는 우즈벡족이 존재했다면 반발이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지금의 80%가 넘는 우즈벡인들은 우즈벡족이 아니다.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다. 이 중에서 우

즈벡족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소비에트의 민족정책으로 독자적 민족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 체념적으로 살기 때문이다.[21)]

이처럼 역사적 사실관계가 이해가 되면 우즈베키스탄의 민족주의가 얼마나 정치적 논리에 입각한 것인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카리모프 대통령은 해외순방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어만 구사한다. 만약 우즈벡어를 사용하면 2차적으로 영어통역을 통해 방문국가의 언어로 3차 통역해야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통용어인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에서 대통령이 외국을 다니며 우즈벡어를 사용하지 않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것을 소수민족들이 본다면 어떠한 느낌을 가지게 될 지는 자명하다.

소수민족의 갈등

우즈베키스탄의 소수민족들은 구소련 붕괴와 체제전환기를 통해 자신들의 환경이 급변함을 느끼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과 상관없는 직업선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 기성세대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자의반타의반으로 이직을 하고 있지만 20대와 30대의 경우 이직과 실직은 앞으로의 소수민족 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다준다. 왜냐하면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자연히 그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즈벡인들보다 높았던 이들의 대학교 진학률은 예전보다 떨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고학력 선호도가 점차 뿌리를 내릴 이곳에서 학력저하는 갈수록 직장의 선택 폭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보다 큰 문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둘째, 생활하기 힘든 임금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 대부분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이다. 물론 현재 이들은 전직에 있을 때 보다 많은 돈은 번다고 한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혼란기를 지나고 안정기에 접어들면 별문제는 없지만 다시금 혼란기를 맞는다면 이들의 경제는 파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자식의 장래에 대해 사업가를 원하는 소수민족 기성세대는 많지 않다.

셋째, 소수민족들의 단결력이 갈수록 약해진다 - 도시생활의 특성과 젊은 세대의

---

20) Donald S Carlisle, "Soviet Uzbekistan: State and N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Beatrice F. Manz, *Central Asia in Historical Perspective* (Westview Press, 1994), p. 115.

21) 소비에트의 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개별 집단의 외부적 표출이 금기시된 상황에서 이들이 스스로의 독자적 정체성을 버리고 동화되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투르크계 민족의 다양한 집단들은 결국 같은 민족계열이기 때문에 우즈벡, 카자흐, 키르기즈로 흡수되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앙아시아 각국은 국명에 나타나는 집단이 대표적 주류민족으로 인식된 것이다.

국제결혼 증가로 인해 응집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소수민족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단체의 활동이 사실상 와해되고 있다. 게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던 기성세대가 사라지는 현재 소수민족들의 정체성 문제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수민족들이 가지는 갈등은 정치, 경제가 낙후된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신의 정체성 문제보다는 당장의 생활에 집중해야만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즈벡정부의 민족주의 정책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만약 우즈베키스탄이 정상적인 사회구조를 가진다면 상술했듯이 우즈벡어 학습을 과거 러시아어 습득하듯이 배울 것이다.

결론

우즈베키스탄의 민족갈등과 잠재적인 충돌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수민족이 아닌 정책결정자인 우즈벡정부의 정책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물론 고착화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주변국들의 교훈을 통해 정책의 수정을 해야만 할 것이다.

첫째, 다민족 다문화국가로서의 정체성확립 - 강력한 민족주의를 성공한 우즈베키스탄은 경제발전의 실패를 맞아야 했으며, 민족주의를 실패한 카자흐스탄은 오히려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정책의 강도에 있다. 시급한 명제인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카자흐스탄은 탈식민지라는 정치적 부분을 과감하게 도려내었다. 현 상황에서 우선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으로 인식한 실용주의적 선택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민족주의 확립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인식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처럼 다민족다문화 정책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연한 언어정책 - 위의 개념을 수용한다면 복잡한 언어정책 역시 개선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무엇보다도 우즈벡어의 개발에 투자를 해야만 한다. 적당한 교재도 없이 소수민족들에게 우즈벡어를 배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발이 발생할 것이다. 언급한 것처럼, 유년세대간의 언어소통이 막혀 버린 현재의 정책은 장기적인 불안감을 증폭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즈벡어를 강제로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당근정책을 통한 유도에 중점을 두고 교재개발을 병행한다면 소수민족들의 움직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탈식민지화정책 - 유사한 내용이지만 현재의 집권 세력이 구공산당 세력이라면 미래의 차세대는 소비에트와 공산주의를 체험하지 못한 독립세대가 될 것이다. 불과 10여년만 지나면 이들이 국가의 중추세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형

태의 국가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에는 익숙하지만 선진적인 민주주의 역시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방향은 전망하기 어렵지만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거 체제의 잔재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신세대들은 이슬람을 자유롭게 믿는 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동의 이슬람과 같은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처럼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다민족 국가의 모습과 스위스처럼 독일어와의 공용화를 통한 모습을 벤치마킹할 때,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는 보장될 것이다.

특집

개별민족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

라우샨벡 압사따로브

(철학박사, 카자흐스탄국립대학 교수)

민족적 자각의 본질과 왜곡

민족적 자각의 문제는 민족관계와 에스닉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술문헌과 정기출판물을 보면 "민족적 자각"에 대한 개념 정의들이 서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본인의 관점으로 보건대 이러한 차이는 첫째로 이 개념의 의미하는 바의 복잡성, 둘째로 이 개념이 학자들의 시야에서 오랫동안 벗어나 있었던 점, 셋째로 만족적 자각이 민족의식과 동일시 된 점, 넷째로 이 개념에 대한 잘못된 강조점의 배치와 심지어는 민족적 자각의 본질에 대한 조악한 왜곡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먼저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의 변증법을 분석하기에 앞서 "민족적 자각"이 표상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자체적 특성과 내용에 따르면 민족적 자각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현상이다. 그 안에는 그 민족의 정신적 발전의 내용과 수준과 특성이 특징지어지며 민족의 사회적 존재에 대한 전체성이 반영된다. 이는 객관적으

로 현존하는 민족생활에 깃들인 민족적 요소들의 주관적 형식이다. 민족의식은 예를 들자면, 카자흐민족이나 다른 민족들에게 별도로 그 표상으로 발생되지 않고 민족사회의 집단의식에서 생겨나며, 각기 다른 이유로 존재하는 각 개인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민족적 자각은 종들의 현존하는 민족의식의 구성부분이고 핵심이다. 그 자각은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구체적 민족집단을 자각의 대상으로 삼고 그 집단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위치와 역할을 자각의 대상으로 삼는다. 예를 들면 카자흐민족은 민족적 자각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의 교육, 각성, 공통적 성격의 이해, "자기의 것"과 "다른 이의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과 "그들에게 있는 것"의 차이와 관련하여 주요한 형상으로 정착되었다. 사실의 실제적 상황은 민족적 자작 안과 각 개인의 "나" 안에서 굴절되면서 진실 되거나 왜곡된 반응을 보일 것이다. 비과학적 기술과 민족주의적, 쇼비니즘적 감정에서 자유로우며 전인간적이고 진실한 국제주의적인 것으로 출현한 자각만이 진실한 민족적 관심을 반영한다.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은 지금 때를 만나 매우 역동적이며 가변적이다. 그들의 민족적 자각은 그들 자신에 대해 표상된 민족의 체계로서 그들의 고유한 본질에 대한 본질적 인식이다. 카자흐스탄인 들의 민족적 자각은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필자의 관점으로는 그 구조적 요소에 민족 소속에의 각성, 자민족의 훌륭한 전토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발전과 인간적 진보에 대한 그들의 기여, 민족적 전형, 그리고 영토, 문화, 언어, 역사적 과거, 민족적 관심,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 대한 표상과 관련된 것 같다.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은 이와 같이 민족적 불가분성의 성격묘사에 대한 사회 · 경제적 영토 · 문화적 민족 언어적 총체의 표현과 반영이고, 사회진보의 과거와 현재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민족적 각성과 평가이며, 또한 자기 민족과 똑같이 다른 민족과 카자흐스탄인 이라는 각성과 자민족에게 그렇듯이 다른 민족에게로도 향하는 카자흐스탄인의 인간관계의 총체를 표현하고 반영한 민족적 존재의 각성이다.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에는 저인간적 · 국제적 특성과 이에 상응하는 민주적 제도의 본성이 강화된다. 민족적 자각은 전인간적 가치를 풍성하게 해주면서 인간화 된다. 데 · 크쉬베꼬브(D · Kshibekov) 교수가 '민족적 자각의 급속한 성장은 합리적 과정' 이라고 기술한 것은 정당한 지적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낙후되어 있던 카자흐스탄의 변경에 매우 적합한 언급이다.

이제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은 어떤 연유로 성장했는가?' 란 질문이 제기된다.

카자흐스탄에는 강제이주의 탄압을 받아 들어온 12개의 "적성"민족이 150만이나 되었고, 다른 나라에서 카자흐스탄 처녀지개발을 위해 "징집"되어 온 수만 130만이나 되었다.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사회의 혁신과 과학기술의 혁명이 일어나는 조건에서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부흥과 사회적 진보를 향한 강력한 경향이 자리한다. 민족생활의 확립과 혁신과 발전을 위해 질적으로 새로운 기초가 형성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인 들의 사회정치적 적극성의 고양, 현재적 조건에서 민족적 자각의 정치화, 자민족의 역사적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과 표상의 혁신, 민족적 관심의 역할과 의미의 각성과 인정, 이와 같은 요소들은 민족적 독자성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할 길과 수단을 찾도록 강요한다.

내부적 통합과 규합의 과정, 우리나라 다수 민족 및 소수민족 모두에게 고유한 민족 내부의 통일을 강화하는 것도 역시 그들의 민족적 자각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전카자흐스탄적 의식의 형성에 따라 우리나라 내의 모든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밖에 특정 극단주의자들의 민족적 관심의 모순과 부정적 현상, 충돌은 민족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자민족의 민족성과 문제점을 보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열"시키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어떤 사회적 결과가 민족적 자각을 부단히 성장시킬 것인가?' 란 질문이 제기된다. 민족적 자각은 민족간에 소외와 긴장성을 유발시켜 민족간에 충돌을 가져오고 민족주의와 쇼비니즘을 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민족적 자각의 발전이 민족간 친선과 단결을 강화시키는 도정으로 향할 것인가?

사회 · 심리적 현상을 고려해 보면, 긍정적 요소가 부정적 요소를 품을 가능성이 있는 민족적 자각의 성장이 논리적으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에서 자기문화와 역사적 과거에 대해서 카자흐적인 것을 현저하게 과장하는 것은 자기 역사와 민족생활제도의 이념화를 야기하고, 어떤 민족이 자기민족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카자흐인 및 다른 민족들의 기여를 과소평가하도록 만든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체첸민족의 민족적 자각의 성장은 민족적 불손, 거만, 민족적 적의, 인내심 부족 기타 부정적 현상을 동반하고 있다. 1986년 12월 알마아타[1]라는 새로운 장소와 카자흐스탄의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민족간 충돌은 민족적 자각이 왜곡된 현상의 가시적인 실례이다.

1)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큰 도시 이름으로서 1997년까지 카자흐스탄의 수도였다. 인구는 150만이 넘는다.

자기비판의 부족과 과학성의 결핍은 자주 과장된 민족적 요소나 과장된 "국제주의적-세계주의적" 요소로 유도하거나, 민족적이고 전사회적인 정신적 가치를 축소하는 러이아화로, 고유한 가능성의 과대평가로, 자만의 극단적 비대화로 유도한다. 예를 들어 자기 고유의 업적에 대해 멈추지 않고 찬양을 해댄 것은 "골로쉐킨"과 "콜빈" 통치기의 특성이었다.[2] 민족 정치의 과학적 원칙을 위반하고 민족간 친선과 애국주의 교육의 허용을 위반하는 경우에 민족적 자각의 결핍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민족적 자각에 있어서 민족적, 전인간적인 것들이 변증법적으로 결합된 올바른 발전으로 주의력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민족의 정신적 가치와 전통인 역사에 자긍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카자흐스탄인들의 민족적 자각이 급격한 "국제주의화"로 지향된 것은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게 된다. 그것은 사실상 선수를 치려는 시도였고, 민족간 관계에서 시간과 자연스런 과정을 추월하려는 시도였으며, 게다가 민족적 자각의 "국제주의화"가 모두에게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서 민족적 차이을 왜곡시키는 규격의 통일로 이해되었다.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민족의 기회주의적 중립주의 기분은 민족적 자각의 "국제주의화"와 같은 형식이 실질적으로 빈번하며 곧바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이해하면서 발생한다. 현실이 보여주고 있듯이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생활에서 "국제주의화"가 촉진되는 경향은 민족적 요소의 위축과 축소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적 자각의 사실 자체의 왜곡과 그 자각의 핵심적인 사회 · 실리적 성분인 민족적 자긍심까지도 축소시켰다. 예를 들어 민족적 관심의 왜곡, 학문적 성취의 비합리적인 이용, 여러 지역이 환경재앙에 노출토록 만든 카자흐스탄 자연자원의 강력한 기초다지기, 중앙관청에서 기울이는 관심의 절대화 등은 카자흐스탄 민족의 자각에 소외감과 슬픔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측면 또는 다른 측면의 사실성이 민족적 관심과 접촉될 때 민족적 자각은 그것들에게 고양된 감정적 관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영토에 40년간 거대한 규모의 핵실험이 있었고 그것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왜곡되었다. 그러나 단호한 결정을 내린 핵 실험자들의 거리낌없는 행위가 카자흐민족의 민족감정을 다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예를 든다면 잘 알려졌다시피 유일한 지하자원의 보고를 갖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본질적으로 그 보고를 이용할 권리를 갖지 못한 굴욕적인 식민지적 상태에 있었다. 카자흐스탄은[3] 자국 산업의 7%만 관리했을 뿐이다.

---

2) 골로쉐킨과 콜빈은 각각 1930년대와 구소련 말기에 카자흐스탄을 통치했던 러시아인 카자흐스탄 공산당서기장이었다. 골로쉐킨 치세에는 카자흐스탄에 대기근이 생겨 기아로 다수의 카자흐인들이 사망했고 다수의 카자흐인이 조국을 등지고 주변국가로 떠났다. 콜빈은 고르바쵸프 치세에 카자흐스탄공산당서기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이에 대해 카자흐인들이 반발해 저항한 것이 1986년 12월 대중시위로 이어졌다. 이는 페레스트로카 이후 구소련 최초의 민족운동으로 기록된다.

전권을 쥔 중앙 모스크바의 부와 관청들이 카자흐스탄의 사회 · 경제적 발전의 필요성과 환경 · 문화 · 전통의 특성을 무시한 채 다른 나라의 침략자처럼 카자흐스탄의 민족적 부를 탈취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인간의 운명에 대한 범죄적인 관료적 무관심은 단지 북쪽지역 강줄기를 돌리거나 한 방향으로 흐르게 했고 카자흐스탄에 단일문화만 발전시키며 광대한 카자흐스탄 영토의 핵 실험장을 바꾸는 것과 같은 "세기의 계획"만 탄생시킬 수 있었다.

더욱이 카자흐스탄에는 강제이주의 탄압을 받아 들어온 12개의 "적성" 민족이 150만이나 되었고 다른 나라에서 카자흐스탄 처녀지개발을 위해 "징집" 되어 온 수만 130만이나 되었다. 이는 모두 민족간 관계에 충돌을 가져왔고 지역 민족정치를 평가절하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둔감, 무관심, 불공정의 각성 등이 사회 · 심리적 결과로 나타났다.

"카자흐민족주의" 각성과 평가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과 민족감정은 아주 쉽게 상처받는다. 심지어 그것은 다른 민족들의 조심성 없는 무의식적 농담으로도 상처받고 그 결과는 통상 부정적으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1986년 12월 알마아타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대중매체에서는 그 현상이 "꾸나예브" 공식화로 표현되었으나 카자흐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카자흐민족감정을 자극할 수 없는 "카자흐민족주의"로 표현되었다.[4] 카자흐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카자흐민족주의" 공식화는 근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모든 카자흐민족에게 모욕적인 평가였음을 전적으로 공정한다. 여기에 필자가 부언한다면 이는 카자흐민족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 사는 모든 다민족에게도 모욕적인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개방과 민주주의를 유발시킨 위원회는 모두 해체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평가와 결론은 낡고 교조적이며 제왕적인 위치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은 이렇게 대중매체에 다시 불붙여 기름을 부었다. 모스크바가 콜빈을 당의 "특사"로 임명하여 카자흐민족의 민족적 덕성과 감정이 상처를 입었을 때 분노와 격분과 자연스런 반항이 일어나 건 당연했다.

구체적인 민족 일원의 탁월한 창조성과 정신적 생활의 현상이 되는 역사와 문화와 학문에 종사하는 일부 사람들의 일방적 조명은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행위

3) 소비에트시대.
4) 위에서 언급했듯이 1986년 고르바쵸프는 카자흐인인 꾸나예브 카자흐스탄 공산당서기장을 해임하고 러시아인인 콜빈을 새 서기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카자흐인들이 반발해 일어난 민족간 충돌사건이 1986년 12월 사건이다.

를 왜곡하여 촉진시켰다. 이런 현상은 까비로바 엠.엔(Kabipova M.N)의 저작 "새미레치예의 토착인 위구르"에서 두드러진다.[5] 저자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위구르민족의 역사와 유수프 발라사군, 마흐무드 까슈가리, 알리쉐르 나보이, 술탄 바부르 같은 탁월한 위인들의 전기를 곡해했다. 이른 위구르 민족과 다른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을 왜곡하는 것이다.

역사의 연구와 예술 및 문학 작품이 건전한 민족적 자긍심을 유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 의미만을 갖는 결론, 극단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오직 긍정적인 요소만 조명하는 것, 예를 들면 특별히 두드러진 역사적 사건이나 자기 지역의 위인이나 역사적 페이지의 퇴보적이고 복고적인 절대화를 두드러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카자크[6]의 대장 로씨야 예르마크(Rossiya Ermak)의 외형을 뚜렷한 러시아 쇼비니스트들의 모든 결점이 천성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잔혹한 식민지 착취자, 유혈적 압제자, 도둑 및 약탈자로 그려서는 안 된다. 카자흐민족은 오랫동안 도시와 농촌의 명칭에서 그 이름[7]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전수받았고 "고마운 후손들로부터"조각으로 새겨지고 기념대에 세워져 기억을 존경하도록 강요받았다.[8] 차르주의는 카자흐민족 사이에서 종족간, 부족간 불화를 모든 측면에서 격화시켰다. 차르주의는 카자흐 스텝에서 러시아 식민정치의 모퉁이 돌[9]중 하나였다.

이런 정치는 소비에트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카자흐스탄 종족과 부족들의 분열은 과거 카자흐민족에게 많은 불행의 원인을 제공했다. 카자흐민족의 부족간 적대의식은 암 질환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질병은 카자흐민족의 단결의 강화로 치료된다.

케네사르 카시모브, 무스타파 초카예브, 알리한 부케이하노브 등과 같은 카자흐민족 활동가들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태도는 사회의 혁신을 가능케 했다. 역사적 활동가들의 역할과 활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표준적인 전형을 세운 다음 오직 월의 현시대적 위치에만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배격되어야 한다. 그 시대에 역사가 그들에게 내세웠던 엄격한 조건과 냉혹한 틀의 구체적, 역사적 문맥을 전측면에서 고려하지 않고서 그 인물의 활동을 올바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역사적 인물의 운명의 모순적이고 복잡한 성격이 생겨나오고 따라서 그 활동가들에게서 오직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의 한 측면만을 찾는 무익함이 나온다.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의식의 혁신은 민족적 자각이 민족주의나 쇼비니즘적인 것

---

5) 카자흐스탄의 구수도 알마아타를 포함한 카자흐스탄의 동남부 지역을 세미레치예라고 부른다. 세미레치예란 일곱 개의 강이라는 뜻으로써 천산산맥에서 발원한 일곱 개의 강이 카자흐스탄 동남부 지역을 지나고 있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6) 카자흐가 아닌 카자크임.
7) 러시아식.
8) 즉 250여 년 전부터 시작된 카자흐스탄의 러시아화로 인해 카자흐스탄 고유의 지명들이 러시아식 이름으로 대체된 것을 말한다.
9) 중요한 수단을 의미함.

으로 변형되지 않고 애국주의가 민족주의나 쇼비니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시킬 것을 요한다. 민족적 비관주의, "초국제주의", "만쿠르티즘"[10] 과 같은 현상은 객관적인 민족적, 전민족적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비록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순진하게도 비관주의자가 국제주의자와 애국주의자가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민족적 비관주의자를 키운다. 그러나 비관주의자로부터 국제주의자와 애국주의자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전인간적 가치를 창조할 능력이 없는 얼빠진 세계주의자 · 냉소주의자 · 반애국주의자 · 만쿠르트들이 자주 형성된다.

독립국가 카자흐스탄은 민족적 자각의 성장과 발전이란 구체적인 민족의 생활능력을 보장하고 그 민족의 사회적 · 역사적 기억과 민족적 독자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소비에트정권의 거의 첫 해부터 민족적 자각의 모든 현상과 공식적으로 수용되는 의견에 반하여 진행되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에 관한 언급은 진실한 국제주의와 민족간 친선의 "모범"이라고 선전하는 소비에트 나라에 징벌원인을 제공하여 그런 언급을 하는 이들은 민족주의자로 정죄를 받고 가장 엄한 징벌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고안된 민족주의에 카자흐민족의 지식인들은 세대를 이어가며 고통을 겪었다.

민족의 사회적 의식의 정적 구조에 "굳어진 고리"로 나타나는 민족적 자각은 동시에 언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민족 언어를 발전시키는 것은 민족적 자각현상의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다.

민족적 자각의 성장과 발전

독립국가 카자흐스탄에서 언어에 관한 문제는 민주적 기초 위에서 해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제의 수단으로 10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출판물로는 1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각 민족들마다 고유의 문화와 언어가 발전되고 있다. 민족언어의 자유로운 발전 없이는 민족적 자각의 성장과 민족의 상호 풍요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언어는 인식활동과 사람간의 교제의 주요수단인 것이다. 사회의 혁신과 재형성은 모든 민족 언어의 강력한 발전을 촉진시킨다. 예를 들어 사회의 재형성 이전에는 모든 측면에서 카자흐 언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다. 사회의 혁신은 카자흐스탄 내의 카자흐민족과 다른 민족들이 자기 언어와 민족을 자유롭게 발전

10) 소련에서 카자흐민족을 우민화시킨 데서 나온 말로서 '무지몽매주의' 쯤으로 이해하면 된다.

시킬 수 있는 완전한 공간을 열었다. 독창적이고 풍부한 카자흐어는 오늘날 카자흐스탄 영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들려오고 있다. 그런데 소비에트 정부시기에 카자흐민족의 언어생활에 첨예하고 병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축적되었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어는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 차별을 받았다. 언어학자들의 자료에 따르면 약 40%의 카자흐인이 모국어를 모르거나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가장 큰 도시 알마티에서는 90%의 청소년들이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적 비판은 카자흐스탄의 다른 도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밖에도 중앙과 지방의 모든 관청에서도 카자흐어가 사무용 언어로 사용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205개의 구역 중에서 사실상 23개의 구역만이(공식적으로는 38개 구역) 사무처리를 모국어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엇이 유발되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그 결과 인구비율로 전 세계 3천여 민족 중 70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카자흐민족의 언어는 자기의 역사적 고향에서 사회생활로부터의 소멸과 축출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카자흐어가 사회생활의 사용가능한 50개의 영역 중에서 단지 10개의 영역에서만 수용되고 있음은 각 진실한 사람의 가슴에 커다란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모든 뒤틀림은 민족의 문화, 출판, 학문, 교육, 민족적 자각의 발전을 저하시키는 곳으로 인도했다. 이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언어에 관한 법률과 카자흐어 및 다른 민족 언어 발전계획의 연구는 커다란 정치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현재 민족적 자각으로부터 첫 민족적인 계획과 함께 통일된 전인간적인 계획이 도출된다. 20세기 후반 학문적 · 기술적 진보의 영향 아래서 많은 현상들이 이러한 인간성의 이해 속으로 흘러들어 갔다. 특히 신기술, 새로운 에너지원, 자동화, 로봇화, 신소재의 현 세기에 인간성과 연결된 수단의 발전이란 점차적으로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현대 과학기술혁명의 업적이 집중된, 그리고 인간문명을 여러 번 말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와 다른 무기들의 현존은 지구상 모든 민족운명의 상호의존과 상호연결성을 각성하도록 이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민족적 자각이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에스닉적 통일성과 이와 유사한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각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적 자각의 성장과 발전이란 구체적인 민족의 생활능력을 보장하고 그 민족의 사회적 · 역사적 기억과 민족적 독자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민족적 자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친근한 가정 속으로 각기 다른 민족 일원의 통일을 촉진시키고 사회의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번역 : 김병학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특 집

종교문제

중앙아시아의 종교 갈등

김 혜 림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thecourt@hanmail.net

위대한 게임의 시작, 중앙아시아 5개국

1843년 독일의 훔볼트에 의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리적 개념 설정이 이루어졌다.[1] 그는 동서로 카스피해에서 서부 만주 흥안령까지 남북으로는 알타이 산맥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기준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내륙아시아라는 개념 역시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중앙아시아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의 지정학적 의미에서는 구소련 붕괴 이후의 이지역의 일반적인 5개의 신생국들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을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로 지칭한다.

역사적으로 중앙아시아는 유럽-아시아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3천년 이

1) 최한우,『중앙 아시아학 입문』(서울: 펴내기, 1997).

상 다양한 민족들의 이동로 구실을 해왔으며, 고대 세계의 위대한 문명들, 즉 페르시아 문명, 그리스 문명, 중국 문명, 이슬람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이 지역은 유럽과 남아시아의 사이, 중동과 서시베리아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과 재난, 제국 흥망의 극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그만큼 오랫동안 거대 열강들의 경쟁무대이기도 했는데, 19세기에 이 지역에서는 "위대한 게임"(Great Game)이라고 일컬어지는 영-러 간의 패권다툼이 펼쳐졌고, 패권다툼 결과 중앙아시아는 현재와 같은 지리적 국경선이 확정되었다.

러시아는 18세기 초부터 지금의 카자흐스탄의 북부와 동부 지방을 병합하면서 중앙아시아권 지역으로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에 착수해서, 1860년대 중반까지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했다. 20세기 초에 이 지역은 소련의 완전한 식민지가 되어 '철의 장막' 속에서 원료를 공급하고 상품을 소비하는 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반면에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남부와 아프가니스탄을 그 영향권 안에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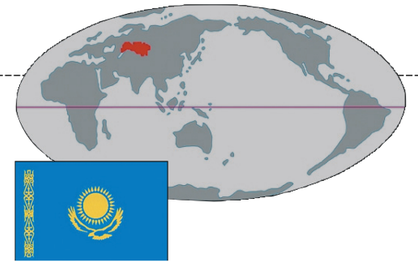
이상에서 언급한 요인들, 강대국들의 세력이 교차하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특히, 석유 ·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말미암아 중앙아시아가 인접 국가들이나 강대국, 다국적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21세기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더욱이 중앙아시아의 사태 진전에 따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이란, 터키 등의 국익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국들은 이 지역 신생독립국가들의 대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 · 외교적 수단, 문화교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패권게임을 끊임없이 지속해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소련 붕괴 이후 강대국들의 이익이 교차하는 전략적 지점으로 떠오른 중앙아시아의 역사적 배경과 현 상황을 살펴보고, 이 지역을 둘러싼 민족과 정치 갈등

의 한 단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중앙아시아 5개국 개황

카자흐스탄



위치 : 중앙아시아 북부
면적 : 272만 4900km
인구 : 약 1500만명(2003)
수도 : 아스타나
정체 : 공화제
공용어 : 카자흐어
통화 : 텡게(Tenge)
1인당 국민 총생산 : 1350달러
인구구성 : 카자흐인(53.4%) 러시아인(30%) 우크라이나(3.7%) 독일인(2.4%)
타타르인(1.7%) 우즈벡인(2.5%) 한인(0.6%)

카자흐스탄의 주 민족의 기원은 15세기 몽골제국의 킵차크 한국의 붕괴 시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킵차크 붕괴 이후 그 일족인 샤이바 니이 집안의 아불 하일한이 우즈벡족을 이끌고 서투르키스탄에 침입하여 샤이바니 왕국을 세웠고, 이 때 일부 집단이 분리해서 카자흐스탄의 중부와 남동부의 세미레체 지방에서 독립하였는데, 이들을 카자흐 족이라 불렀다. 카자흐족의 기본 생활은 유목이었으며 종교는 수니파의 이슬람이었으나 기본적으로는 유목민의 관습법을 중시하였다. 17, 18세기를 거치며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카자흐스탄은 점점 귀속되어 갔으며, 1850년 카자흐 대부분이 러시아에 정복되었다. 20세기 들어 카자흐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자치정부가 설립되었고, 1925년 드디어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되었다. 1936년에는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고, 1991년 소련 붕괴 후 독립하였다.

독립 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꾸준한 시장 경제화 정책의 추진으로 2000년부터는 연 9%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 2004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이유로 야권에서 카자흐민주세력을 결성하여 여권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안정 속에 점진적인 민주화를 천명하고, 2005년 2월 싱가폴과 한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지속적인 민주화 천명을 제시하게 된다.

카자흐스탄에는 중요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설되어 있다. 석유매장량은 약 250

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쿠웨이트의 보유량보다 많은 수준이다. 생산량은 구소련 전체 생산량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카스피해 부근이 주요 석유매장지역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외에도 구리, 철광석 · 석탄 · 아연 · 망간 등이 다양하게 매장되어 있고, 매장량 또한 풍부하여 천연자원 채굴의 중요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제강 · 제철 산업 시설이 건설되었는데, 이는 거의 모든 도시에서 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구소련 당시 밀재배 2위에 해당하는 곡창지대며,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양털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세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및 중국과 접해 있으며 과거 소연방의 유산인 거대한 핵 군수공장이 있기에 美외교정책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된 이후 카자흐-미국의 관계는 핵문제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2] 카자흐스탄은 미국의 주도[3]하에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비준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에도 가입하였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인 나자르바예프는 "카자흐스탄은 결코 핵강국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세미팔란틴스크 지역에서 거의 500여회의 핵무기 실험이 실시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고생하는 가운데 핵무기 보유를 원치 않는 카자흐스탄의 참뜻이 이해되어야 한다" 고 언급했다.

1992년 타슈켄트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미국 등 5개국이 서명한 집단안보조약(Treaty on Collective Security)은 러시아-카자흐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의 체결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긴급한 상황에 미군을 투입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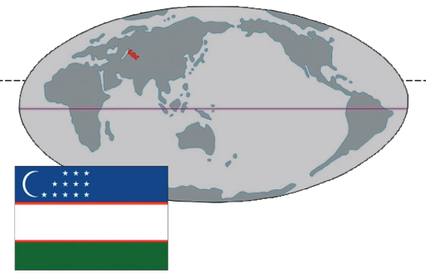
당시 미 국방장관 페리는 "우리가 카자흐스탄과 관련해 일어나는 어떤 문제로 기인해 전쟁을 하게 되리라는 어떤 보장도 없다" 라고 말했다. 소연방의 붕괴로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와 더불어 핵보유국 4강에 오름으로써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과제가 되었으며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은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과 러시아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위협적인 핵카드를 사용하여 정치적 게임을 시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이 지역의 非핵확산화 노력

2) 사실 핵문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간의 주요 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3) 1994년 2월 14일 클린턴과 나자르바예프는 '카자흐스탄-미합중국간의 민주적 동반자 관계' 라는 헌장에 서명하였다.

에 열중하던 미국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왜냐하면 주변국들의 잇따른 핵보유에 카자흐스탄의 비핵화는 카자흐 국가안보에 허점을 드러내는 꼴이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는 3천년 이상 다양한 민족들의 이동로 구실을 해왔으며, 고대 세계의 위대한 문명들, 즉 페르시아 문명, 그리스 문명, 중국 문명, 이슬람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우즈베키스탄



위치 : 중앙아시아 중부
면적 : 44만 7400km
인구 : 약 2500만명(2003)
수도 : 타슈켄트
정체 : 공화제
공용어 : 우즈베크어
통화 : 숨(Sum)
1인당 국민 총생산 : 550달러
인구구성 : 우즈벡인(71.4%) 러시아인(8.3%) 타지크인(4.7%) 카자흐인(24.1%) 타타르인(2.4%) 한인(1.0%)

우즈베키스탄은 4000년 전에 청동기 문화가 출현한 지역이며, 고대 페르시아 · 알렉산더 대왕 등의 침공을 받기도 하였다. 탈라스 전투 이후 이슬람화가 시작되었으며, 11세기에는 셀주크투르크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13세기 몽골의 침략을 받아 차카타이 한국의 지배 하에 들어갔으며, 16세기까지 티무르의 일부로 계속 지배되었다. 16세기 이후 부하라 · 히바 및 코칸트 한국이 건국되고 여러 부족의 정착화가 진행되었다. 19세기 들어와 러시아는 1868년에 부하라 한국, 73년에 히바 한국, 76년에 코칸트 한국을 병합하여 이 지역을 복속하게 된다.

1924년 우즈벡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고, 25년에 소련연방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1929년에 타지키스탄이 분리되어 나갔지만, 36년에는 러시아로부터 카라갈파키야 자치 공화국이 편입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 민족주의 운동과 이슬람 부흥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소련 붕괴와 맞물려 1991년 독립을 가져왔다. 그러나 독립 이후 카리모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은 계속되고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은 자신의 통치방식과 중앙통제식 경제개혁 정책을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취임이후 부통령제 폐지 · 지방행정기관장의 임명권 귀속 등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민족주의에 입각한 세속주의 국가(secular state)를 건설한다는 기치 하에 여사한 이슬람 운동을 억압하고 야당에 대한 탄압과 자신의 통치방식에 도전하는 세력을 과감히 제거하는 등 권위주의 통치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이슬람 운동 억압에 따라 이슬람 반군의 테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도 민주화의 앞길이 순탄치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석유 · 천연가스 · 금 등의 천연자원 매장량이 풍부하다. 금생산량으로는 구소련 시절 제 2의 생산 국가였으며, 천연가스 생산량 역시 구소련 내 5퍼센트를 담당하였다. 석유 매장 지역 또한, 차례로 발굴되어 개발을 기다리고 있어서, 외자유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 밖에 은 · 구리 · 아연 · 텅스텐 자원 등이 생산되나 아직 미개발 상황이라 생산규모는 크지 않다. 전반적인 산업구조는 면화중심의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나, 식량자급도는 크지 않아 식량 대외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우즈벡 지역에 대한 구소련의 원료공급 특화지역으로서의 산업개발에 기인한 결과로서, 구소련 시절 농산물 가공이나 비료 생산 등의 농업에 산업이 편중되었고, 그에 따라 공업화 수준이 그다지 높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정세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정 중앙부에 위치하고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중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도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다.[4] 과거 티무르제국 같이 번성했던 왕조의 수도였던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며 빠르게 급부상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카자흐스탄이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인종적 구성상 러시아인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親러적 성향을 버리지 못함에 따라 미국으로서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눈을 돌리기 쉬웠다. 이리하여 초기 카자흐 중심의 중앙아시아 외교정책은 우즈베키스탄으로까지 힘을 쏟는 다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원리주의에 대항하는 최전선 국가라는 사실을 서구에 인

4) 사실상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지역적 패권 국가로 등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약 2천 5백만 명에 달하는 큰 인구를 가졌으며 무엇보다 카자흐스탄에 비해 인구적 동질성이 높다는 것이 중요하다. 브레진스키,『거대한 체스판』, 김명섭 옮김, 서울: 삼인, 2000, 173쪽.

식시킴으로써 경제적 및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인구와 풍부한 에너지 개발 가능성을 자랑하는 우즈베키스탄을 이슬람 원리주의를 차단하고 지역 안정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로 여기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미군을 주둔시킨 국가가 됨으로서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은 대러시아 견제용 카드로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안보를 위한 경찰국가로서 우즈베키스탄을 내세우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인권탄압과 민주주의 이행 속도 등 몇 가지 이슈가 세계 언론의 부정적인 비판을 불러일으키면서 양국 간의 우호적인 외교관계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카리모프 정권은 인권탄압을 완화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오히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외세의 개입에 대해 '국내정치 안정' 을 해칠 뿐이라고 주장한다.[5)]

우즈베키스탄의 국내 정세 안정을 대가로 묵인해오던 인권탄압이 그 정도를 넘어섬에 따라 미국의 대응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정권은 최근에 우즈베키스탄에 주둔중인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다.[6)] 그러나 미국이 "민주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해당국들을 적당히 압박하는 지렛대로 사용하되 점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왜냐하면 미국은 옛 소련 땅이었던 이 지역 국가들에서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 이 지역 정부들이 러시아와 중국 쪽으로 돌아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미군은 9 · 11 동시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부터 우즈베크와의 합의에 따라 하나바드 기지에 주둔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작전의 병참 · 급유 기지로 활용해 왔다. 중앙아시아의 주요 미군 기지인 이곳에는 현재 미군 특수부대원 800여명이 주둔 중이며 AC-130 공격기, 공격용 헬기 등이 배치돼 있다. 우즈베크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이었으나, 지난 5월 우즈베크 정부군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 해 수 백 명이 숨진 '안디잔 사태' 이후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졌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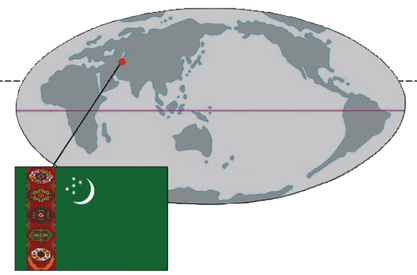
---

5) 우즈베키스탄 의회 의원들 중의 96%가 카리모프의 PDP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로 판단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형식적인 의회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소추를 할 수 없도록 헌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에게는 의회해산권도 가지고 있다.

6) 라이스 미국무부장관은 '미군 등 주둔군 거점 확보'를 목적으로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섰는데 9 · 11 동시테러 이후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었다가 최근 자국 내 미군기지 철수를 요구하는 등 관계가 껄끄러워진 우즈베키스탄은 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터넷 참조. 〈라이스, '미군 주둔 등 거점 확보' 중앙아시아 순방〉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7) 인터넷 기사 참조. 한겨레신문. 〈미국, 중앙아시아 미군기지 유지 비상〉〈우즈베키스탄 미 기지 6개월내 철수 요구〉
(http://www.hani.co.kr/kisa/section-004001000/2005/07/004001000200507261906792.html)
(http://www.hani.co.kr/kisa/section-004001000/2005/07/004001000200507312040986.html)

투르크메니스탄



위치 : 중앙 아시아 서남부
면적 : 48만 8100km
인구 : 약 486만명(2003)
수도 : 아스바하트
정체 : 공화제
공용어 : 투르크멘어
통화 : 마나트(Manat)
1인당 국민 총생산 : 950달러
인구구성 : 투르크멘인 (85%), 러시아인(7%), 우즈벡인(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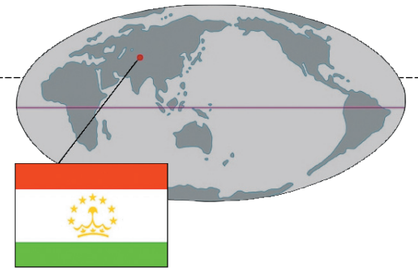
5세기 이후 투르크족이 중앙아시아의 서부로 이주해 와 정착하면서, 이 지역이 페르시아인 거주지에서 서서히 투르크계 부족의 거주지로 변모해 갔다. 9세기경 이후 투르크계의 한 부족 집단인 오우즈족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이슬람으로 개종하였는데, 이때부터 투르크멘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13세기 몽골의 지배를 받았으며, 15-17세기 남부는 페르시아의 지배 하에, 북부는 히바와 부하라 한국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된다. 여러 저항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다시 제정 러시아군에 의해 서서히 점령당하였으며, 볼세비키 혁명 때는 영국군의 비호 하에 독립정부가 수립되나 영국군의 철수와 동시에 다시 붉은 군대에 의해 점령당하여, 1924년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창설된다. 반종교운동과 정치 운동으로 많은 지식인 투옥 · 살해되었는데, 구소련 붕괴와 함께 90년 8월에 독립을 선언하게 된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주변국들과 비슷하게 독재정을 경험하는 중이다. 니야조프 대통령은 99년 의회에서 임기 제한을 두지 않는 종신 대통령을 선포하였고, 투르크멘 민주당의 일당독재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95년 유엔에서 영구중립국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의 민주화 요구를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포석인 셈이었다. 2003년 유엔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권침해 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2005년 10월 니야조프 대통령은 2009년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요망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의회는 만장일치로 거부하여 독재체제가 견고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처럼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석유는 구소련 시절 석유생산 3위 지역이었으며, 전 세계 매장량의 10퍼센트 가까이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는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대규모 가스관을 건설하여 공급하고 있다.

참고로 이 공사에는 현대건설이 참여하여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그 외에 면사 수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면방직 · 견직물 · 피혁 가공 등의 가공업이 여러 도시에 발달해 있다

타지키스탄



위치 : 중앙 아시아
면적 : 14만 3100km
인구 : 약 653만명(2003)
수도 : 두샨베
정체 : 공화제
공용어 : 타지크어
통화 : 소모니 (Somoni)
1인당 국민 총생산 : 180달러
인구구성 : 타지크인(65%), 우즈벡인(25%), 러시아인(4%)

타지크인은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에 제국에 속한 후 알렉산더 대왕에 정복당하였고, 7세기에는 투르크에 정복되면서 투르크인에 의해 타지크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9세기 말에 사만왕조에 잠시 귀속이 되었고, 타지크인 역시 몽골의 침략을 피해 갈수 없어 칭기즈칸의 군대에 점령되었고 곧이어 티무르제국의 지배 하에 들어갔다. 16세기에 들어서 부하라 한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타지크인들은 이란으로부터 멀어졌고 종파도 시아파에서 순니파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19세기 후반 이 지역의 대부분은 러시아에 복속되었고, 붉은 혁명 이후 타지키스탄은 투르키스탄 자치국과 부하라인민사회국으로 양분되었으나 24년 통합되어 우즈벡 공화국에 속해 있다가, 29년 독립하여 소련 연방에 가입하게 된다. 이후 91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련 연방 해체 후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은 독립 후 공산당과 이슬람 부흥당이 대립하면서 92년 심각한 내전에 직면하게 된다. 13만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발생시킨 이 내전은 타지키스탄 내부의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 세력 신장을 두려워한 우즈벡, 그리고 독립 후의 공산당을 지원하였던 러시아가 원인이 되었다. 이 두 국가의 지원을 받은 공산당과 이슬람 반군이 92년부터 97년까지의 5년 간의 치열한 내전을 벌였던 것이다. 내전은 97년 러시아와 유엔의 중재 등으로 종식되고, 이후 국민화합위원회가 결성되어 외형적으로 평온함을 유지해오고 있다. 99년에 기존의 라흐마노프 대통령이 7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하였고, 2000년 총선도 평화적으로 치러졌다. 미국의 아프간 폭격으로 인

해 탈레반과 이슬람근본주의가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 라흐마노프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데 한 몫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하자원으로는 석유 · 석탄 · 납 · 아연 등이 산출되고 있으며, 수출품목으로는 면화 생산이 많아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다. 그러나 91년 이후 농촌으로의 인구 집중으로 수자원공급에 어려움이 있었고, 최근 관개 재배관리의 불충분과 내전으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비관개지역에서는 단섬유 아마가 재배되며, 서부의 파미르고원에는 감자가 재배되고 있다. 그 외 목화재배에 관련된 화학비료 농업과 목화 가공용의 제사 직기, 면실 착유기등의 기계 제조업, 농 · 축산물 등의 식품가공업이 발달하였다.

정세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과거 이 지역의 대부역할을 해왔던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이슬람 원리주의 종주국인 이란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이슬람주의의 확산을 차단하여 지역평화와 안보를 도모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타지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의 외교전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지역이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이슬람화 및 정치화되어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실제로 타지크인들이 이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란이 그곳에서 이슬람혁명을 모의하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란과 미국의 입장을 둘 다 듣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 진다. 러시아와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 단순히 '이슬람 원리주의의 확산방지'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은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 구소련 시대의 유산을 안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억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란의 정책이 반미적 성향을 보인다고 해서 곧 친러적 경향을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선택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고 또 그만큼 이 지역들에서의 패권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느낄 것 같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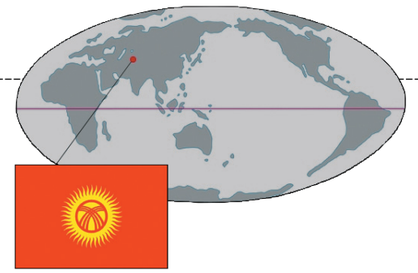
얼마전 있었던 타지키스탄 내전으로 인해 수많은 타지키스탄 국민들[9)]은 인근지역 특히,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등지로 탈출하였다. 이는 타지키스탄이 구소련

8) "러시아의 이슬람교도는 인구 전체의 약 13%에 달하고, 이들이 독자적인 종교적 · 정치적 정체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필연적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겪게 될 딜레마와 중첩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브레진스키, 위의 책, 177쪽. 딜레마란 "러시아는 이 지역을 봉쇄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너무 약하고, 배타적으로 개발하기에는 너무나 빈곤하다" 라는 것을 말한다.

9) 이에 브레진스키는 동북부의 국경을 따라 존재하는 타지크인들의 분포는 지역적 안정을 '좀먹는' 변수로 보고 있다.

국가 12개 국가 중 10위에 해당하는 원조를 받는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타지키스탄의 내전과 국내정세 안정에 미국이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사실 타지키스탄의 내전은 과거 소련군이 계속적으로 주둔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 되었다.

키르기스스탄



위치 : 중앙 아시아 동북부
면적 : 19만 9945km
인구 : 약 500만명(2003)
수도 : 비슈케크
정체 : 공화제
공용어 : 키르기스어
통화 : 솜(Som)
1인당 국민 총생산 : 280달러
인구구성 : 키르기스인(60.8%), 러시아인(15.3%), 우즈벡인(14.3%), 우크라이나인(1.5%)

정세

최근 '레몬혁명'[10]이 일어났던 키르기스스탄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의 영도 하에 중앙아시아 내의 신생독립국 중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로 지목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1인 독재 권력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짐작이 가능하다.

키르기스인은 예니세이강 상류유역의 삼림지역에 살던 수렵민족으로 기록에 나타난다. 기원전에는 흉노에 복속되었으며 7세기에는 돌궐제국의 지배 하에 있었다. 그 후 위구르의 지배를 받았으나, 840년 위구르를 공략, 멸망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역시 13세기 몽골의 침략을 받았고, 몽골 멸망 이후에는 몽골계인 오이라트족의 지배를 받았다. 16세기 중에는 강성해져 타슈켄트를 점령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일부가 남서의 세미체레 지방으로 이동하였고, 18세기에는 청의 지배 하에서 다시 텐산산맥의 북측과 페르가나 협곡의 현재의 거주지로 이동하였다. 19세기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저

10) 최근 15년간 독재 권력을 휘두르던 아카예프 대통령은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분노한 국민들의 시위에 국외로 망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기술자 출신의 바키예프 신임 대통령은 친러적 성향의 아카예프 대통령을 내쫓아 미국의 지지를 얻었으나 레몬혁명 이후에는 親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참조〈'레몬혁명' 주역 키르기스 대통령 당선〉〈키르기스스탄 '레몬혁명 불길'〉(http://www.hani.co.kr/section-007100004/2005/07/007100004200507111944176.html)
(http://www.hani.co.kr/section-007000000/2005/03/007000000200503211758222.html)

항이 시작되었지만 1876년 키르기스인들은 러시아에 종속되었고, 1차대전 때는 러시아의 징집령에 저항하여 대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1926년 키르기스자치공화국이 되었다가 36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으로 승격되어 소련연방에 편입되었고, 91년에 신생독립국가를 선포하였다.

독립 후 여러 민족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정당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는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독립 전 타지키스탄인과의 국경충돌, 90년 우즈벡인들과의 대립 등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인과의 충돌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다. 경제 ·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러시아와의 연계성이 크고, 러시아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도 그다지 크지 않아서 급격한 충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으로는 아카에프 대통령이 2005년 부정선거로 의심을 받은 총선결과 후 혁명이 발발하여 사임하였고, 총리로 재직해 있다가 야당 당수가 되었던 바키에프가 2005년 7월 임기 5년의 대통령에 당선되는 시기를 거치고 있다.

지하자원으로는 석유 · 석탄 · 금 · 수은 · 우라늄 · 주석 · 텅스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철금속 · 광물 수출이 총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은과 안티몬은 구소련 시절 주요한 군수산업 재료로 이용되었던 광물이다. 이 밖에 건축 재료인 화강암 · 대리석 · 이회토 · 황토 등도 많이 생산된다. 그러나 석유와 천연가스는 오히려 주변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주산업은 농업인데, 수수와 밀 사탕무와 면화 등이 생산된다. 그중 구소련 생산량 5위였던 이쉭킬 호반의 양귀비등이 특산물로 유명하다. 공업은 2차대전 중 많은 공장들이 이전해오며 발전해가기 시작했는데, 비철금속의 선광과 견직 · 면방직물의 공장, 면실유공장, 농기계공장 등의 섬유 및 식품공업 부문이 발전해 왔다.

중앙아시아 민족과 정치

민족-테러리즘

역사적으로 투르크, 위구르, 몽골 등 유목민족들의 활동무대가 되었던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11]는 청과 러시아 등 주변의 강대국들의 세력 확장기 때 그들의 영토로 각각 편입 되었다. 그 가운데 청에게 복속된 곳이 오늘날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新疆維

11) 이 지역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들로는 19세기 서구 사학계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쓰기 시작하며 오늘날 이 지역의 5개국을 가리키는 용어인 '중앙아시아', 일본과 중국 학계에서 한정적으로 쓰이면서 중국 이북의 유목민족의 활동무대만을 가리키는 '북아시아', 그리고 가장 넓은 개념으로서 북아시아는 물론, 티벳과 신장 자치구 및 중앙아시아 5개국까지를 포괄하는 '내륙아시아' 등이 있다.

吾爾自治區)이고, 러시아의 영토로 편입되어 후에는 소련의 일부가 된 지역이 중앙아시아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두 지역은 비록 국가 경계가 놓여져 있기는 하지만 유사한 배경, 특히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역사적 경험들로 인해 연계 가능성이 있었다.[12] 이런 잠재성은 적어도 중앙아시아 지역이 소련의 일부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소련이 해체되고 이 지역에 독립적인 공화국들이 성립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즉 줄곧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던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을 저항운동의 후방기지로 삼으면서 투쟁의 강도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중앙아시아가 정치적 · 경제적 ·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이 오랜 기간 소련이라는 '철의 장막'에 가려져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신장지역에서의 독립요구를 하며 신장 자치구와 중앙아시아에 걸쳐있는 일련의 세력과 9.11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조직 등을 통틀어서 이른바 민족분열세력, 국제 테러리즘세력, 극단적인 종교세력 등의 "세 가지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창궐하는' 세 가지 세력을 중앙아시아에서 몰아내어 중국 서북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히 중앙아시아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13]

경제 문제

오늘날의 중앙아시아에선 본래 육로를 통한 동서교류 시절, 실크로드를 통한 중개무역으로 쌓은 막대한 부는 찾아볼 수 없지만, 면화 생산량이 상당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황금을 비롯한 각종 유색금속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중앙아시아와의 관계 설정에 따라선 대부분 남동 해안지대에만 치우친 중국의 경제 개발 정책을 반전하여 극히 낙후된 서북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킬 새로운 산업 원료 및 에너지 자원의 공급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

12) 이슬람교를 한자어로 회교(回敎)로 번역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 신장지역의 회족(回族, 후이족)은 주로 투르크족이 입양하여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된 중국인의 자손이거나, 14~15세기에 중국 북서부에 정착한 투르크계 이슬람교도와 중국 이슬람교도가 결혼해 낳은 자손이다. 회족은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으로 개종했으나 외모나 언어, 문화적 특징 등은 중국의 한족과 흡사하여 현지의 몽골 · 투르크계 유목민들과는 구분이 된다. 『후이족』,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3) 쉬티에빙 편저, 김옥준 역주, 『21세기 중국과 세계』, (대구: 중문, 2003), 187쪽. 위의 세 세력은 1999년 8월, "상하이 5국 제4차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비슈케크 성명에서 이른바 '3대 악'으로 규정되었다. 박병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성립의 기원 -「상하이 5국」에서「상하이 협력기구」로," 『중국학연구』 33호, 187쪽, 523쪽.

또한 중앙아시아 5개국을 통틀어 약 5천 5백만 이상의 인구가 거주한 데 비해서 경제 상태는 낙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경제적 우위를 선점할 경우엔 막대한 시장을 손쉽게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낙후의 가장 큰 원인은 과거 소련 시절, 이 지역이 자기 완결성을 가지는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보다는 소련의 공업지대에 원료를 공급하는 역할만을 맡는 철저한 주변부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건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경제적 상황은 중국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외부세력에게 있어서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이 외부세력들의 쟁탈대상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14)]

외교 및 군사적 주도권

1991년 소련 붕괴와 이에 따른 독립으로부터 적어도 2005년 초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소련에서 독립을 하였음에도 대개 선거를 통해 다시금 집권한 구 공산당 출신의 정치가가 일당 독재 권력을 구축하거나 언론과 정당정치에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형식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구가해왔다. 하지만 신생국가인 중앙아시아 5개국은 대외적 위상은 허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은 물론 터키와 이란 같이 주변의 국가들까지도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시키고자 했다. 물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이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한 때 소련의 영토였다는 기억 때문에 자신의 전략적인 후방이라 여기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단히 긴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곳의 5개국은 모두 러시아와 개별적으로 양자간 군사안보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이 지역의 여러 국가들에 러시아 군이 주둔하거나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며, 심지어 국경 수비를 러시아 군이 대신 맡아주기도 한다. 이 정도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서로를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나토의 '동진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평화로운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고위층 인사를 자주 파견하며 가능하면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해내려고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90년대에는 산발적인 형태였으나 9.11 사태 이후엔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명목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영공 진입과 공군기지 이용 등의 일부 군사적 권한을 얻어내면서 가속도를 얻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목적은 단순히 이 지역에서 정치 및 군사적으로 러시아의 (그리고 암묵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을 걷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 지역이 면하고 있는 카스피해와 그 주변의 에너지

14) 쉬티에빙, 위의 책, 185쪽.

자원을 안정적으로 얻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우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소련 해체 이후 독립을 선언할 때 빠르게 독립을 승인하면서 수교를 맺으면서 친선을 맺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본래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하고, 미국이 점차적으로 손을 뻗혀오자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미국이나 러시아 가운데 한 쪽과 손을 잡을 필요를 느끼게 된 것이다. 이 때 미국보다는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앙아시아에서 보조를 맞추어 미국의 영향력 강화에 맞서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는 계산 하에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며, 현재 그 도정에 있는 것이 국제기구인 SCO, 즉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이다.

중앙아시아 갈등의 쟁점 –'종교'

생활 이슬람의 정의

유럽과 서남아시아, 중동과 시베리아를 이어주는 중앙아시아는 세계 문명의 발상지이자, 동서 문명의 가교로서의 지정학적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약 15~20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 · 경제적 ·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이 오랜 기간 소련이라는 '철의 장막' 에 가려져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1991년 12월 소련의 공식적인 해체는 이후 세계의 정치 · 경제적 질서와 이념적 대립구도에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70년에 걸친 세월동안 소련이라는 단일 체제에 묶여있던 나라들이 하나의 독립국으로 세계무대에 등장하면서, 과연 이들 국가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최근의 관심을 그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중앙아시아 신생 독립국들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갈등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종교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지역은 5천 5백만(2002년 기준)에 달하는 무슬림의 거주지이자 이슬람 문명의 본원으로서의 문명적 가치,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아프리카를 포함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여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의 공포로 자리 잡았던 오스만 제국의 희미한 추억인 범투르크 민족주의에 대한 경계, 즉 터키에 대한 경계, 또한 과거 구소련이 방치하고 철수한 카자흐스탄의 핵무기의 군사적 위험성

에 대한 위협 등, 국제적으로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9.11 테러 이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미국의 아프간 공격이 시작된 후 더욱 첨예해졌다.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지리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 종교적 동질성에 의해 이슬람 원리주의자로 대표되는 테러 세력들의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아프간 전쟁 이후, 더욱 적극적이 된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정세는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결국 현재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와 미국 · 중국 · 터키 · 이란 · 유럽 등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무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구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등장한 중앙아시아 5개국은 소비에트 체제를 경험한 '이슬람 문화'를 지닌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미국의 9.11 사태 이후 발발한 아프카니스탄과 미국의 전쟁 당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미국의 공격 행위를 비난했던 것과는 달리, 중앙아시아의 국가들 역시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쟁 기지 역할을 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던졌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물론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지원 약속이 큰 몫을 한 것도 사실이나,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중동과는 '다른 성격'의 이슬람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된다.

이슬람 문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차도르를 쓴 여인, 기도 시간을 알리는 사원의 스피커 소리 등을 접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러시아 정교회의 교회 건물이나 루터회 혹은 기타 다른 종파 교회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중동이나 아프카니스탄이 스스로를 '이슬람 국가'임을 내세우고 있는데 반해서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은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내세운다. 이와 같은 차이점을 학자들은 '생활 이슬람'이라고 명명한다. 생활 이슬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활의 규범이 되어주는 이슬람'인 것이다.

즉, 중앙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종교적인 역할보다는 생활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쉽게 이해하려면 한국에서의 유교 역할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한국인들은 유교식 절차에 따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고, 많은 생활 규범을 유교적인 바탕에 두고 있는 유교 문화권에 속하지만, 자신의 종교가 '유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이와 비슷한 현상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이슬람 문화에서도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는 자신들은 '모슬렘'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알라를 믿고 있지는 않다는 모순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날 수 있는데, 이들은 이슬람을 종교 보다는 자신들의 전통 문화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모슬렘들은 식사 후에는 신에게 반드시

감사기도를 드리고, 차를 운전하다가도 사원이나 무덤을 보게 되면 핸들을 놓고 기도의 행위를 하며, 금식 기간에는 금식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이는 종교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에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 이슬람' 의 전통은 소비에트 체제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에서 10월 혁명이 발생했을 당시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의 식민지였는데, 혁명을 계기로 이슬람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세력과 소비에트 체제를 형성하려는 세력의 대결이 벌어졌었다. 이슬람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세력은 광범위한 지역을 점령하며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들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소비에트 중앙정부는 급진 이슬람 세력은 탄압하면서 전통 이슬람 민족 문화는 보존한다는 이중정책을 취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이중정책은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나브루스(새해가 시작되는 날)나 하이드(한 달 동안의 금식 후의 축제) 같은 이슬람 축제를 전통문화의 부흥이라는 명목 아래 부활시켰고, 이슬람 사원의 재건축이나 성지 순례의 참여를 정부 주도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을 '와하비' 라고 부르며 경계하고 있으며,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와하비' 라는 명목 아래 처벌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정책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러한 견제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이 큰 역할을 하였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은 잘 살던 국가가 이슬람 급진주의자의 장악으로 순식간에 후진국으로 바뀌었으며, 인권을 무시하고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위험한 나라로 비춰졌던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급진주의자들이 언제 자신들의 국가마저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한 미국과의 전쟁에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의 편을 들었던 것이다.

한편, 중앙아시아 이슬람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매우 미신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통 이슬람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이 지역의 이슬람 문화가 매우 이단적이라면서 불만을 토론하고는 한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전통 이슬람 지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점치는 행위를 매우 좋아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거리에는 새나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점을 보거나 손금이나 별자리를 보아주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이들 앞에는 항상 손님들이 줄을 서 있는 형편이다. 또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유명한 점쟁이들을 찾아가는데, 이들을 만나려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한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만나기가 힘들다고 한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치는 행위가 공식적인 의료 활동의 영역에까지 미친다. 알마티의 한 민간 병원은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집시들이나 점쟁이들이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환자를 받아 점을 쳐서 무슨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내고 처방이나 치료활동까지 하

고 있다. 이들 민간요법 의사들은 2년에 한 번씩 신통력에 대한 자격시험을 치러 의사 자격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로 병원은 항상 붐빈다고 한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또한 주술적인 의미를 지닌 부적을 지니기를 좋아한다. 상점에 가면 벼락 맞은 뽕나무나 대추나무로 만든 목걸이를 파는데, 자신이 소원하는 것에 따르는 코란의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을 구입해서 항상 지니고 다닌다. 이러한 부적은 종이로 된 것도 있으며, 때로는 자신이 태어난 연도의 돈을 행운을 위해 지니고 있는 사람도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이와 같이 '특이한' 이슬람 문화라고 해서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이 종교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에 비해서는 무척이나 적은 확률의 사람들이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 중 하루 다섯 번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매우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종교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장례식이나 할례, 혹은 결혼이나 탄생 같은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슬람 사제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성지순례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고대로부터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기독교, 불교 등 고대 세계의 거대 종교들이 꽃을 피웠었고, 결국은 이슬람교가 정착을 하여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토착 샤머니즘에 고대 종교들의 색채가 다양하게 녹아들었고, 소비에트 체제를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소위 '이단적인' 이슬람의 모습을 띄고는 있지만, '이슬람 문화' 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전통 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배경으로 이해될 것이다.

이제는 소련에서 분리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지역과 러시아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소연방 해체 후 등장한 새로운 15개의 독립국들은 다양한 형태로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15] 슬라브족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여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미래를 준비해나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유럽적 특성이 강하여 이미 이전부터 독립적인 모습을 보였던 발트 3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과 달리,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소연방의 해체로 인한 독립이라는 것은 내부적 준비단계를 거치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건에 가까웠다고 생각한다. 1991년 12월의 소연방의 해체 직전 이에 관한 논의를 위해 이루어졌던 민스크 회동에는 단지 러시아 · 우크라이나 · 벨로루시 등 슬라브 삼국 정상들 간의 모임이었고, 이는 이들 5개국의 연방 해체의 논의로부터 어느 정도 배제되어 있었음을 잘 나타내주는 사건이다. 이에 자극받은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이예프 대통령은 "슬라브인들은 자신들끼리만 만났고, 이제 무슬림들 역시 따로 만날 것이다. …이하 중략… 우리는 아시아 연방을 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15) 이문영,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관계의 역사와 전망," 『평화연구』 2003, 217쪽.

소비에트 체제를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소위 '이단적인' 이슬람의 모습을 띄고는 있지만, '이슬람 문화'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전통 문화를 이루는 중요한 배경으로 이해될 것이다.

또한 A. 파나린, 보리스 루머 등은 중앙아시아 지역은 외부의 도움과 원조 없이는 지역적 안정성과 번영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중앙아시아가 지닌 역사적 변방성, 개별의 독립 국가로 존재하기보다는 연합체의 일원으로 존재했던 점 등을 들고 있다. 물론 이런 생각들에 이들 5개국이 동의할 것 같지는 않으나, 이 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가 매우 높음은 이미 언급한바 있으며 더군다나 러시아의 영토 일부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이들 5개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곧 수세기에 걸친 러시아化를 극복하는 것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제정 러시아와 소비에트시기에 걸쳐 계획적으로 고착화된 러시아 의존형 경제구조의 개혁이 시급한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현재와 미래가 과거와 현재에 걸쳐서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러시아와 별개의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으며,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기본적인 외교 노선과 그것들이 현실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면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며 어렴풋이나마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맥락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관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관계는 오랜 기간에 걸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러시아의 외교 노선의 파악을 위해 제정 러시아와 소련 시기의 외교 노선을 알아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정 러시아 시기에는 이 지역에 대한 영토 정복과 개종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특히 이반 4세는 무자비한 반 이슬람 정책을 시도하여 수많은 무슬림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축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억압을 제정 러시아 시기의 일반적 지배 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이며, 오히려 이 시기까지는 비교적 이슬람과 그 문화에 기반한 중앙아시아 고유의 전통과 문화가 근근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 예로, 18세기 후반의 예카테리나 2세는 러시아 지배 식민지의 곳곳에서 이슬람교도의 경제적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었다. 또한 反이슬람적 규제의 철폐, 투르크 계 카잔 타타르 상인들의 상업 활동을 보장하는 조약 수립 등을 통해, 이 기간에 유목민들 사이에서 이슬람교가 널리 전파되고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혁명과 테러리스

트에 대한 뿌리 깊은 공포심을 지울 수 없었던 알렉산드르 3세가 즉위한 이후, 이런 흐름은 변화하게 된다. 매우 보수적인 반동정치로 일관했던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러시아 우월주의와 러시아 정교 우선주의를 원칙으로 삼았다. 이것은 제정 러시아 마지막 황제인 니콜라이 2세의 통치 초반까지도 유지되었다.[16] 그러나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채 20년도 되지 못하며, 1905년 종교 자유 칙령이 발표되면서 다시금 온건한 태도를 취하게 되고, 강제 개종 당했던 대다수의 투르크 계 무슬림들은 이슬람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것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까지 이어졌다.[17]

통치자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제정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해당 국가의 종교와 문화, 관습 및 자치권을 상당히 인정하려는 유화적인 입장이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자국의 이익의 충실한 추구라는 대전제를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정 러시아기의 상당한 기간 동안은 - 특히 소비에트 시기와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통한 러시아화를 시도하거나, 러시아 정교에 기반한 기독교 문화를 강제로 주입시키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도된 것은 경제적 요인에 의한 러시아인의 이주와 정착, 그에 따른 개발과 일련의 후속 조치들을 통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간의 경제적 상호관계의 설정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제정 러시아 시대의 사람들이 유독 관용정신이 강해서 이슬람에게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다. 우선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인종적 · 종교적 이질성이 매우 두드러졌고 따라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동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치와 자유를 보장함으로 러시아의 영토로서 유지되는 정도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다는 가정이다. 혹은 이 지역의 가치가 러시아에게는 사활을 걸만큼 높지 않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가정의 유의미성은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 혹은 발트 3국에 대한 태도와의 비교를 통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1917년의 혁명을 통해 수립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권은 이념적 공동체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으며 이런 연유에서 대 중앙아시아 정책에 있어서도 질적인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물론 이 시기에도 지도자 혹은 국내외 정치 상황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강/온의 양면성을 파악할 수 있지만, 당시 소련의 정치 지도자들의 심각하게 고민했던 문제인 '사회주의 이념의 수출과 영구혁명의 이론의 절충으로서의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수립에서 야기되는 다민족 공존의 현실'은 연방 내

16) 최소영, "소비에트 정권과 반이슬람 정책의 변화," 『외대사학』, 2000, 215쪽.
17) 최한우,위의 책, 160쪽.

부의 이념적 결속과 단결을 우선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념적 결속과 단결이라는 기본 전제를 이해한다면, 이후의 정책들에 대한 이해가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무슬림들에게는 혁명의 성공은 곧 러시아로부터의 독립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것을 그들의 착각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는 것은, 러시아 제국 내 모든 민족의 독립과 정치적 자결권을 인정한 레닌의 4월 테제(1917)와 같은 해 11월에 선포된 "러시아와 동방의 모든 이슬람교도에게" 라는 선언 - 제정 러시아의 종교적 민족적 탄압은 그릇된 것이며, 무슬림들의 관습과 민족적 · 문화적 제도는 불가침의 것이다 - 은 중앙아시아만이 아닌 모든 식민지 소수민족들에게 커다란 기대와 희망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런 불가능한 결합 -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공존 - 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었음은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은가? 단적으로 말해서 볼셰비즘은 무신론을 지지한다. 그들이 인정한 것은 '이슬람 민족주의' 였지 '이슬람이라는 종교' 가 아니었음을 인지해야 한다.

1918~1922년간에 걸친 바스마치 저항운동[18]은 바로 이 결합이 이제는 종말에 다다랐음을 나타내주는 사건이었다. 이 무력 저항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중앙아시아의 공화국들은 차례로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 · 흡수되었다. 1924년 부하라와 히바 한국이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같은 해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이 분리되었고 1926년에는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타지키스탄이, 1936년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키르기스스탄이 분리되어 소연방에 흡수되었다. 이로써 중앙아시아 5개국의 소연방 편입과정은 완성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위적인 국경의 설정으로 인해 바스마치 저항운동의 진원지였던 페르가나 계곡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3개국으로 분할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소연방 해체 후 지역 국가 간의 분쟁의 씨앗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스탈린의 러시아화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일국 사회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러시아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강력한 중앙집권화(혹은 일인권력집중체제)와 보다 계획적인 러시아화 정책을 펼친 인물이 스탈린이다. 그는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자민족 우선주의가 발생할 것을 우려,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러시아인을 포함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각 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이것은 공화국 내의 동질성을 약화시켰으며,[19] 1937년 극동지역 거주 한인 17만 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것[20] 역시 같은 맥락이다.

18) 이것과 관련해서는 김경문, "구소련의 중앙아시아 강점과 무슬림 저항 운동: 바스마치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4; 송재우, "중앙아시아 지역국가의 이슬람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외대 대학원 석사논문, 1995 등을 참조할 것.

또한 스탈린은 노골적인 종교말살 정책을 펼쳤다. 1920년대 2만 5천에서 3만에 이르렀던 이슬람 사원은 1940년대에 겨우 천여 개로 줄었으며 4만 7천에 달하던 이슬람 성직자 중 살아남은 사람은 채 2천명도 되지 않았다. '이슬람 민족주의' 에서 이슬람을 제거당한 중앙 아시아인들은 그들의 문화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박탈당하였으며, 다른 이슬람과의 연대의 고리를 잃게 되었다. 1929년에는 아랍어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1930년대에 들어서는 아예 러시아의 키릴 알파벳으로 대체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모든 국가에서 러시아어가 공용어가 되도록 하였다.

경제 부분에서도 러시아 의존 형 산업구조의 심화가 두드러졌는데, 물론 거대한 규모의 산업화와 근대화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거의 100%에 달하던 문맹률이 낮아지고 공중보건이 향상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애써 감추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의 경제 정책의 기본 원칙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 속에서 만들어졌다. 즉 러시아에 대한 원료 공급지이자 상품의 소비자라는 위치,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에 부여했던 바로 그 모습이며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을 소유한 것은 자국인들이 아닌 이주 러시아인들이었다. 이것은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2002년 당시를 기준으로 5개의 중앙아시아 공화국의 대통령들이 한 결 같이 과거 소련 지역 공산당 서기장이나 고위관료 출신이었다는 점으로, 이 시기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체성은 심하게 훼손되었으며, 경제적 종속구조가 더욱 고착화되면서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중앙아시아 각축전의 전망

결국 여러 정치-경제 위기들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경제적 관계 개선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러시아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연대라는 다소 모순되는 듯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지형상의 거리로 인해 반러시아 성향이 가장 강하고 1996년의 상하이 안보 동맹에도 불참하였던 우즈베키스탄이 2000년 11월 민스크에서 마침내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의사를 밝힌 것이

19)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타지키스탄을 인위적으로 분리한 결과, 현재 각각의 공화국 내 페르시아계 타지크 인과 투르크계 우즈벡인간의 갈등과 긴장이 중요한 분쟁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20) 그러나 소연방 해체 후, 러시아화 되었고 러시아 어를 사용하며 각국 내에서 사회적 기반을 소유하고 있던 이들 한인 3 · 4세들의 사회적 위치는 급격히 하락, 급기야는 원 거주지로의 재이주 현상이 나타났다.

다. 이슬람 원리주의자와 테러에 대한 전세계적인 우려의 시각과 목소리는 이 지역에서 드러난 실질적 위협 요소[21]와 맞물려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던 것이다.

국경부근의 민족 분쟁 문제는 지금은 잠잠해도 언젠가 터질 수도 있는 요인을 함축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의 예처럼 이슬람주의의 부활은 러시아 ·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들 5개국 내부적으로도 달갑지 않은 문제가 될 것이다. 즉 중앙아시아 각 국가들은 양국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인도와 이란 가입시 그 시너지 효과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미국이 최근 밀리고 있는 듯한 양상을 뒤집기 위해 적극적 개입을 하게 된다면 각국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강대국 간의 세력 각축장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중국 서북부 소수민족이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열망을 무한정 억누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향후 이 지역에서의 갈등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므로 이 지역의 정세 예측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쉽지는 않다. 키르기스스탄의 예처럼 미국이 혁명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시민혁명이 아닌 절차적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며 안정적으로도 변화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반면, 이 지역의 안정을 바라는 강대국들의 바램과 자신들의 독재 체제를 견고히 유지하고픈 집권자의 바람이 맞물려 당분간 일일 독재 체제가 유지될 여러 가능성들이 공존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천연자원의 황금 땅으로 부상한 중앙아시아의 각종 전략적 가치와 그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는 그 비예측성을 한껏 부추기고 있다. 워낙 여러 지역의 이익들이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고,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전망이 쉽지 않은 것이다. 특히,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종교 갈등의 측면에서, X축을 70년 동안의 공산주의 사상에 내재했던 유물론 사상과 공산주의 붕괴로 생겨난 주변 인적 상황으로 놓고, Y축에 해당하는 순수 이슬람에서 이탈하여 생긴 중앙아시아국가들만의 생활 이슬람이라고 할 때, 어느 국가가 어느 축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각 지역의 그러한 역학 구도에 따라 국제정세의 축 또한 달라질 수 있을 만큼 21세기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와 지명도가 급부상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국제적 정세 및 정책 기조에 대한 예측 또한 쉽지 않은 바, 이들 5개국에 대한 추이 변화에 더욱 빠르고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21) 우즈베키스탄의 타지크 내전, 주마 나마가니가 이끄는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IMU)' 이라는 우즈베키스탄 내 반정부 과격 세력이 야기하는 위협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특 집

환경문제

중앙아시아의 환경문제

- 환경적 위협요소와 수자원 관리의 난제

박 창 규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 연구위원)
slav@korea.ac.kr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아랄해의 축소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은 오늘날 환경문제를 이야기할 때 20세기의 대표적인 환경위협의 예로 자주 언급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오염과 환경문제를 논할 경우 공업이 발달된 산업지역이거나 또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을 연상할 수 있지만 아랄해는 공업지대나 대도시가 위치한 지역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 교역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물류중심의 항구도시를 갖고 있는 지역도 아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에 위치한 중앙아시아 지역이 이러한 심각한 환경문제의 핵심지역으로써 세계의 관심지역으로 인식되었을까? 그 해답은 이러한 환경문제를 야기한 일차적인 원인은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과거 소련시기 역사의 결과물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문제의 해결점을 현재 이 지역 국가들이 새롭게 모색하고 있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현실적으로 정치 · 경제적으로 체제 이행기 과정에 있으며 국가정책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은 부

차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한계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글은 아랄해의 환경위협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환경오염의 다양한 양상과 그 배경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아랄해의 축소를 야기한 근원적인 문제인 동시에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의 과제인 아무다리야강과 시르다리야강을 중심으로 한 수자원의 관리를 둘러싼 국가간의 협력과정과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중앙아시아의 자연환경과 인간 그리고 사회주의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인간 사회를 인간과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행위자와 주변 요소라는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사회를 파악한다면 크게 2가지의 사회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유목 사회와 오아시스 사회이다.

유목 사회는 중앙아시아 북부지역에 위치한 광대한 스텝 초원지대에 형성된 사회이고, 양, 염소, 소 등과 같은 군집성 가축 동물을 가구의 기본 재산으로 인식하는 반면, 오아시스 사회는 중앙아시아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로 강이나 하천을 이용하며 형성된 사막 한가운데 자리한 정주 공간의 형태로 존재했다. 오아시스 도시는 지역적 특성이 다른 북방 유목민으로부터 자신의 도시를 지키기 위한 성벽을 쌓았으며, 관계수로망을 중심으로 농경을 위한 물관리가 오아시스 도시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유목 사회나 오아시스 사회의 유형은 어느 쪽이나 국가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형성 · 유지하는데 취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유목 경제는 기본적으로 단순 재생산 경제이며, 안정된 국가 형성에 필요한 잉여의 축적물이 부족했다. 또 오아시스 사회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하거나 높은 산들에 의해 고립되어 점재한다고 하는 자연 조건 때문에 오아시스 도시를 통솔하는 강력한 정치적 통일체를 형성 ·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어느 쪽의 사회라도 전통적으로 형성된 자연관리 기술을 받아 이어서 지역의 공유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지속 가능한 관계로 유지시켜왔다.

그러나 20세기 초의 소련 성립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인간과 자연 환경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중앙아시아 경제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전 소련적인 계획경제 시스템에 맞춰졌다. 이 지역의 생산력 배치에 따른 기본적인 방향을 대략적으로 말하면 북부 스텝 지대의 공업화 · 군사화와 남부 오아시스 지대의 면화 단일경작화이다. 스텝 지대인 카자흐스탄 지역에서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한 중공업 개발과 핵개발 · 핵실험이 이뤄졌

〈지도-1〉 중앙아시아와 주변 국가들 [1)]

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에서는 아랄해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계화 · 화학화 · 토지 개량의 슬로건아래, 대규모 관개시설건설과 화학비료 · 농약의 대량 투입을 통해 면화 생산의 확대를 시켜나갔다.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소련에 의한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통하여, 국가 이데올로기와 근대적인 생산기술체계가 도입되었다. 그것이 중앙아시아의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발전을 가져왔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20세기 최대의 환경파괴로 일컬어지는 아랄해의 소멸 문제가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듯이, 지역 생태계를 무시함으로써 지속 불가능한 경제구조가 내부에서 만들어진 과정이기도 했다. 계획경제 하의 비효율적인 생산관리, 자원 의존 경제가 낳아 온 핵폐기물을 포함한 방대한 환경오염 폐기물, 그리고 대규모 관개수로망은 자연 환경에 큰 부하로 작용하여 현재의 중앙아시아국가들은 이러한 부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구소련 해체 후 현재 중앙아시아국가들은 독립을 찾아 홀로서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체로 이행하는 여정에 있다. 체제 이행이란 시장경제화, 국민국가의 형성, 그리고 새로운 국제 정치 · 경제 관계의 구축을 포함한 다면

1) http://tajikistan.ive.org/dushanbe/images/central-asia.gif

적 과제이다. 이러한 체제 이행의 다면적 과제를 안고 있는 중앙아시아국가들은 어떻게 시장 경제화와 세계화의 움직임 속에서, 소련 시대의 만들어진 잔재를 해소하면서, 국가간의 지역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를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사회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인간 사회를 파악한다면 크게 2가지의 사회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유목 사회와 오아시스 사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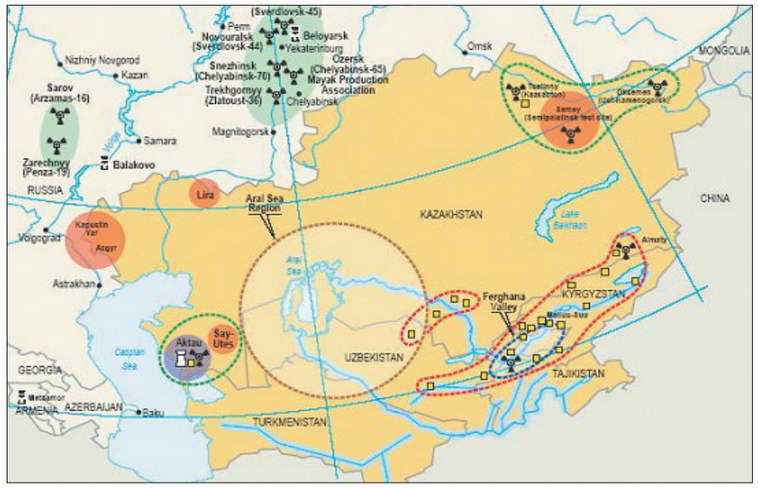
중앙아시아의 환경오염실태 2)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산업 폐기물, 물의 부족과 오염, 방사능 오염이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이다. 카자흐스탄은 소련시대 중앙아시아 제1의 공업국이었다. 특히 동카자흐스탄주, 파브로달주, 카라간다주를 중심으로 하는 동부지역의 여러 주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발달된 공업지역이며, 비철금속 · 제철 · 에너지 관련의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공업지역에 있어서의 중요한 환경문제는 산업 폐기물, 대기오염, 삼림 파괴 등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산업 폐기물이 가져오는 환경오염이다. 소련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유해 산업폐기물의 축적량은 200억 톤이라고도 추정되고 있지만, 그 중 80%가 이 동부지역 주에서 생성된 것이다. 현재도 총 폐기물의 80%가 동카자흐스탄주와 카라간다 양쪽 주에서 생성되고 있어 이 지역의 연간 폐기물 생성량은 약 5,000만 톤이며, 그 중 90%가 지하자원을 채취할 때와 금속을 정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폐기물이 축적됨에 따라 우려되는 점은 동 지역의 주요 수원인 이르티슈강, 누라강, 이심강, 그리고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이다. 누라강에서는 과거 25년 동안에 걸쳐 150톤의 수은이 투기되어 카라간다시에서는 누라강으로부터 취수를 중단시켰다.

방사능 오염도 심각하다. 구소련 시대 카자흐스탄은 핵개발의 중심지역의 하나였으며, 우라늄 채굴과 핵연료 제조가 전 국토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다.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약 25%가 카자흐스탄에 존재하고 있어, 남부의 잠불주, 남카자흐스탄주, 크즐오르다주나, 카스피해 연안의 만기스타우주를 중심으로 14개 주 중 8개주에 대략 100개의 우라늄 광산이 있다. 채굴된 우라늄 광석은 국내 각지의 공장이나, 키르기즈스탄,

2) Addressing Environmental Risks in Central Asia, UNDP, 2003;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Kazakhstan, UNECE 2000; http://www.nti.org를 참조.

〈지도-2〉 중앙아시아 지역과 러시아 남부지역의 핵물질 관련 시설[3]



타지키스탄의 공장으로 옮겨져 핵연료로 제조되었다. 이러한 집중적인 핵개발은 방대한 핵폐기물의 축적을 가져왔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2억 3000만 톤 이상의 방사성 폐기물이 존재한다고 추정되고 있어 이러한 방대한 방사성 폐기물이 국내 529개 지역에 보관되어 있다.

1949년부터 90년까지 소련 전 국토에서 평화적 핵폭발[4]을 포함한 715회의 핵실험을 했지만, 그 중 489회가 카자흐스탄의 영토 내에서 실시되었으며, 그 면적은 15만 ㎢, 영토의 대략 6%에 달한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지도-2>의 오른쪽 상단의 둥글게 표시된 폴리곤이라고 불린 세미파라친스크 핵 실험장이다. 폴리곤은 동카자흐스탄주, 카라간다주, 파블로달주에 걸치는 면적 1만 8,500㎢의 지역이며, 북부지역에 이르티슈강이 흐르는 비교적 평탄한 스텝 지대이다. 폴리곤에서는 1949년부터 89년까지 전체 456회의 핵실험이 실시되었고[5] 카자흐스탄 인구 10명 당 1명에 해당되는 150만 명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후반, 환경시민그룹을 중심으로서 세

3) UNEP/GRID-Arendal library of graphics resources 참조; 소련 시기 카자흐스탄 동부지역의 핵관련 시설 세미파라친스크 지역을 포함한 서부지역에 핵실험장이 위치하고 있었다. 지도 상 카자흐스탄 동쪽과 서쪽의 둥근 표시. http://maps.grida.no/go/graphic/central_asia_political_transition_and_environmental_risks

4) 평화적 핵폭발이란, 인공지진에 의한 지하자원 탐사, 지질 조사, 가스 응축물을 지하 보관하기 위한 공동 건설, 운하 · 저수지 건설 등, 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행해진 핵폭발로, 카자흐스탄 전체에 39회, 세미파라친스크에서는 7회 실시 되었다.

5) 그 중 공중 핵실험 86회, 지표 핵실험 30회, 지하핵실험 340회.

미파라친스크 핵 실험장의 핵실험에 반대하는 '네바다 · 세미파라친스크 운동'이 고양되어, 1991년의 대통령령에 의해 폴리곤은 폐쇄되었지만, 핵폐기물과 방사능 오염은 카자흐스탄의 최대 피해부분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가장 큰 환경 위험 요소는 환경오염과 환경문제로 야기되는 농업 경작의 어려움과 물 문제이다. 특히 아랄해 문제에 관해서는 최대의 연안 국가로서 환경을 파괴한 점과 또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정도가 가장 큰 국가이기도 하다.[6] 아랄해는 일찍이 세계 제4위의 면적을 가지고 있던 호수였지만,[7] 방대한 취수 때문에 면적은 1960년대 이후 계속해 감소되어, 지금은 당시의 3분의 1의 크기로 줄어들었으며, 이대로 가면 2015년에서 2020년의 사이에 아랄해는 소멸된다고 한다.[8] 유입 수량의 감소로 인해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아랄해 평균 염분농도는 1960년 10g/l에서 2000년에는 7배나 높은 65~70g/l로 염분 농도가 상승했으며, 이전의 풍부한 생태계를 형성했던 하구지역의 습지대의 축소로 인해 30년 전 연간 4만 톤의 어획량이었던 아랄해 어업은 1980년대에 벌써 괴멸되었다.[9]

아랄해의 고갈에 의한 사막의 확대는 한난 기온 차이의 확대로 지역의 기상에 큰 영향을 주어 여름에는 상승 기류에 의해 대규모 모래바람이 발생하게 되어, 대량의 염분을 주변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또한 염해에 의한 경지의 약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428만 ha의 관개지 중 214만 ha가 고도로 염화되고 있다. 음료수의 수질 악화, 특히 염분 농도의 상승은 심각하고, 관개농업으로 이용된 화학비료, 농약에 의한 지표수 · 지하수 오염도 염려되고 있다. 사실상 국내의 거의 모든 수원이 오염되고 있다고 하지만, 특히 아무르강 하류에 위치하는 카라칼파크스탄은 상류의 주민은 물을 마시지만, 하류의 주민은 독을 마신다고 하듯이, 염류나 농약으로 오염된 상류로부터의 하천수를 음료수로 의존 하지 않을 수 없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키르기즈스탄은 중금속 · 우라늄 등의 지하자원 채취와 폐기물, 그리고 농업의 환경 폐단이 주요한 환경문제이다. 핵폐기물은 키르기즈스탄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는 49개의 방사성 폐기물 보관소가 있고, 마일스시(쟈랄라바드주)에는 23개의 보관소가 존재하지만, 2002년 이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사태 때문에 마일

6) 20세기 최대의 환경파괴로 일컬어지고 있는 아랄해 문제는 계획된 개발정책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대표적 사례로 지칭되고 있다.
7) 아랄해는 중앙아시아 사막지대에 위치한 염도가 높은 호수이며, 유출하천을 갖고 있지 않는 폐쇄호수이다. 주요 수원은 파미르 고원, 천산산맥에서 시작되는 아무다리야강과 시르다리야강이다.
8) 아랄해 중간에 위치했었던 보주로쥬체니에 섬은 소련 시대에 생화학병기연구소였는데, 1992년 폐쇄될 때까지 탄저균, 페스트균 등 생물무기 연구를 진행했었다. 현재 2000년 6월에서 2001년 6월 사이에 아랄해의 축소로 이 섬이 육지와 연결이 되면서 보균한 쥐들을 매개체로 세균을 대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된 사항은 다음의 사이트: http://maps.grida.no/go/graphic/aral_sea_trends_and_scenarios 를 참고.
9) Hafeez Malik ed. *Central Asia its Strategic Importance and Future Prospects* (N.Y.: St. Marthin' s Press 1994). p. 171.

▲아랄해 축소로 과거 고기잡던 선박이 육지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10]

스 강이 범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방사성 폐기물이 위험하게도 홍수 때문에 유출되는 경우였지만, 많은 국민은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키르기즈스탄 국내에 있어서의 방사성 폐기물의 존재를 알았다고 한다. 이러한 폐기물에 의한 방사능 오염이나 중금속 오염은 키르기즈스탄 뿐만 아니라 하류지역의 국가에도 큰 환경 위협을 가져오고 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산악 지역에 있어서의 지나친 방목과 에너지 부족에 의한 위법적인 벌채, 삼림 감소와 토양 약화가 있다.[12]

〈표-1〉 아랄해역의 축소와 수위하락[11]

년 도	평균수위(m)	평균면적(㎢)	평균수량(㎢)	평균염분농도(g/l)
1960	53.4	66,900	1,090	10
1971	51.1	60,200	925	11
1976	48.3	55,700	763	14
1980	45.1	-	602	-
1985	41.4	-	418	-
1988	40.1	-	358	-
1990초		36,500	330	
대아랄해	38.6	33,500	310	~30
소아랄해	39.6	3,000	20	~30
1993초	37.1	33,642	300	
대아랄해	36.9	30,953	279	~37
소아랄해	39.9	2,683	21	~30
2000초		24,155	183	
대아랄해	32.4	21,003	159	65~70
소아랄해	41.0	3,152	24	~25

10) http://maps.grida.no/go/graphic/central_asia_political_transition_and_environmental_risks 에서 위의 사진을 참조: http://www.google.co.kr 검색.
11) Max Spoor, "The Aral Sea Basin Crisis: Transition and Environment in Former Soviet Central Asia," *Development and Change*, Vol. 29, p. 417.

타지키스탄의 경우는 깨끗한 음료수의 부족과 토양 약화가 주요한 문제이다. 시르다리야강의 발원지가 가까운 산악국가로서 충분한 수자원을 가지고는 있지만, 불충분한 배수 처리와 쓰레기의 불법투기, 토지염화, 농약 사용, 광산 배수 등이 음료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그 때문에 주민의 약 50%가 양질의 음료수를 이용하지 못하다보니까, 수인성 전염병인 티푸스나 콜레라 등의 감염이 1990년대에 급증하고 있다. 1995년과 96년의 티푸스가 유행할 때에는 내전 희생자보다 많은 6,000명이 사망했다. 또 산악지대의 농 · 공업 이용에 의해 토양 침식과 염해가 발생하고 있다. 관개지의 약 98%가 토양 약화 현상이 생기고 있어 매년 5만 ha의 경작지가 사막화되고 있고 목초지나 삼림의 감소도 현저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관개농업에 의한 토양 침식 · 염해 · 물 부족, 비료 · 농약에 의한 물 · 토양오염이 주요한 환경 문제이다. 주로 불충분한 수리 기술 때문에 염해가 진행되고 있어 아랄해 유역에서는 관개지 174만 ha 중 65만 ha가 고도로 염화되고 있다. 농업 배수에 의한 하천수 · 지하수 오염이 진행되어, 특히 하류지역에 있어서의 하천수의 염분이나 농약 그 외 화학물질의 농도가 상승하고 있어, 국내의 많은 지역에서 음료수의 질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랄해 남부의 다슈오그즈(타샤우즈)주 주민의 사이에서는, 오염된 음료수 때문에 간염이나 장염이 퍼지고 있어 동지역은 대통령령에 의해 환경 재해지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국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수자원 문제이다. 수원지 상류지역 국가들은 수원이 풍부하지만, 불충분한 폐수처리시설과 지하자원 개발로 인해 폐기물 유출에 따른 상수 오염 때문에 양질의 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는 반면, 하류지역 국가들은 상류지역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이용하여 관개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오염도가 높아지는 수질 오염을 포함한 환경오염이 야기되면서 수자원 문제가 환경문제의 핵심사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물 오염을 포함한 수자원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면서 이 지역 농업용수와 음료수를 제공하는 아무다리야강과 시르다리야강의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그 관건이다. 단순한 관리의 차원이 아니라 과거 소련의 계획경제를 통한 지역개발의 복합적 후유증이기도한 환경문제를 치유하면서 동시에 종합적이고 효율적 수자원 관리를 위한 중앙아시아국가들의 수자원 관리에 대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12) <지도-2> 하단에 위치한 눈금 내부는 키르기즈스탄 지역의 핵폐기물 관련 지역이 표시되어 있음.

개발의 중심을 이루는 대 페르가나 운하(249km)건설은페르가나 분지의 18개 지구 2,140개의 집단농장으로부터 16만 명이 동원되어 건설되었다.

관개시설 개발 과정과 수자원관리

소련에 의한 아랄해 역의 관개건설이 본격화된 것은 1930년대, 시르다리야강의 중 · 상류 유역의 페르가나 분지 개발이다. 거기에는 면화 생산의 확대와 함께 집단화의 추진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전통적인 오아시스 사회가 소련의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로 나타나고 변화하고, 또 유목민의 정주 농업화의 진행을 통해 농산물의 잉여 생산물의 확보와 농민들에 대한 집권적 통제가 동시에 이뤄졌던 것이다. 개발의 중심을 이루는 대 페르가나 운하(249km)건설은 1939년 여름, 페르가나 분지의 18개 지구 2,140개의 집단농장으로부터 16만 명이 동원되어 건설되었으며 이로써 페르가나 분지에 있는 여러 오아시스를 잇는 통일된 관개시스템의 기반이 형성되었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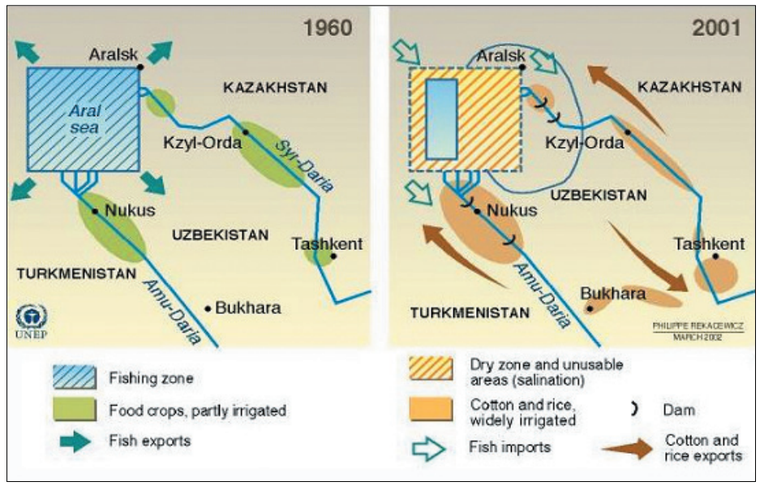
관개건설은 제 2 차 세계대전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1950년대에 재개되게 되지만 이 시기에 소련 정부가 추진했던 것은 대규모 스텝 · 사막 지대의 개척이다. 시르다리야강 유역에서는 타시켄트와 사마르칸트 사이에 퍼져있는 불모지대인 고로드나야 스텝의 개척이 이뤄지고, 또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아무다리야강에 의한 관개경지 확대를 위해 전체 길이 1,300 ㎞에 도달하는 세계 최장의 카라쿰 운하가 1959년에 완공되었다. 소련시기 이전의 관개시스템이 어느 특정 수원과 결합된 지방적 제도인 반면, 소련에 의한 개발정책은 다른 유역과 다른 수리용자를 결합하여 고도로 통합된 유역 관개시스템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14)]

이들 대규모 관개망의 확대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유역에서 취수량 증대를 가져왔다. 지금의 아랄 해역은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전 영토, 투르크메니스탄의 대부분, 키르기즈탄의 세 주(오슈, 잘랄라바드, 나룬), 카자흐스탄 남부의 두 주(크즐오르다, 남 카자흐스탄)외, 아프가니스탄까지 걸치는 대 경제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개망의 확대는 지역 생태가 붕괴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확대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 전형이 아랄해의 축소 문제이다. 아랄해 문제의 현상은 앞서 언급했지만, 중앙아시아국가의 독립과 시르다리야강, 아무다리야강의 국제 하천화가, 아랄해

13) 윤칠석, "중앙아시아의 환경파괴와 지역개발정책,"「새마을 · 지역개발연구」Vol. 24, 76-77쪽. 원료공급지로써 중앙아시아 면화재배의 역사와 관개농지의 확대와 단일경작인 면화의 생산특화에 대해서 참고.

14) Erika Weinthal, *State Making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Linking Demestic and Interntional Politics in Central Asia* (Cambridge, MIT Press. 2002), pp. 84-87.

〈그림-2〉 아랄해의 축소의 원인과 주변 환경[15]



축소 문제의 긴장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시르다리야강의 경우 상류지역인 키르기즈스탄에서는 소련 시대에 건설된 몇 개의 저수지 · 수력 발전소가 있다. 그 중 최대의 것이 토쿠토굴 저수지이며 기본적으로 이 저수지의 방수량에 따라 하류지역의 수량을 결정하게 되었다. 소련 시대에는 주로 연방 수리성의 물 배분 계획에 근거하는 중앙집권적인 수관리가 행해졌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화되기 시작한 물 부족에 의해, 유역별 수준에 의한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한 조직으로써 1987년에 설립되었던 것이, 2개의 유역별 수자원 관리기관 (бассейнновое водное отъединение: BVO)이다. 'BVO 아무다리야'는 본부를 우르겐치에 두었으며, 'BVO시르다리아'의 본부는 타슈켄트에 두었다.

소련 시대 BVO의 업무 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선 기상대의 예보에 근거하여 BVO는 1년에 2회, 사전에 각 공화국의 동의를 얻어 연간 배분 계획을 연방 수리성에 제출한다. 이 계획에 따라 저수지의 방수량과 각 수자원 관리지역의 수량이 정해

15) http://maps.grida.no/go/graphic/shrinking_of_the_aral_sea_socio_economic_impacts 본격적으로 면화 단일 재배를 하기전과 이후의 관계를 통한 아무다리야강과 시르다르야강을 중심으로 관개시설의 확충은 결국 아랄해의 축소를 야기시키는 원인을 재공하고 있다. 아랄해 축소와 관련된 중앙아시아의 환경문제 관련된 자료는; W.D. Williams and N.V. Aladin, The Aral Sea: Recent Limnological Change and Their Conservation Significance, *Aquatic Conservation: Marine and Freshwater Ecosystems*, Vol. 1, 1991, p 7.; The Carl Beck Papers, No. 905, 1991. p. 92.; Tatyana Saiko and Ignor Sonn, Deserting a Dying Sea, *Geographical*, July 1994. p. 14 참조.

진다. 각 공화국의 수자원의 할당 분배는 수자원 배분의 원칙에 따라 설정되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관개면적에 비례하고 있으며 연방국가계획위원회(GOSPLAN)에 의해 승인되었다. BVO는 각 국가에 배분할 수 있는 수량의 10%까지 증감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질 관리는 실시되지 않고, 각 국가들이 어떻게 수자원을 이용하는 것에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16)]

상류 · 하류지역 국가에는 존재하는 물과 에너지 자원의 큰 불균형이 있다. 상류지역 국가인 키르기즈스탄은 수자원은 풍부하지만 석유 · 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이 결여되고 있어, 중 · 하류 유역국가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수자원을 상류지역 국가에 의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소련 시대에는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하류지역에 적기의 관개용수를 확보하면서, 하류지역 국가의 가스 자원을 상류지역 국가에 판매하고, 상류지역 국가는 하기 수력 발전으로부터의 잉여 전력을 하류지역 국가에 판매하는 등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아무다리야강 상류의 타지키스탄과 하류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러한 관계를 찾을 수 있다. 즉 소련의 중앙아시아 수리 시스템은 하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하류지역 관개수의 충분한 확보라고 하는 단일의 목적을 위해서, 중앙아시아 5개국에 걸쳐 농업 · 수리 · 에너지 부문을 결합한 것이다.[17)] 이와 같이 과거 소련 시대의 수자원의 관리는 중앙집권적 시스템에 따른 연방국가계획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수자원을 배분하는 것뿐이었으며, 실제 중앙아시아의 환경문제가 동반된 수자원 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없었다. 단지 수자원 할당 분배에 따른 면화 생산을 독려하고, 그 목표량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공동으로 이용해야하는 수자원을 공평하게 이용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지만 지역별 자원의 희소가치에 따른 불균형이 존재했다. 상류지역 국가들과 하류지역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물과 에너지 자원의 큰 불균형이다. 상류지역 국가인 키르기즈스탄은 수자원은 풍부하지만 석유 · 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중 · 하류 유역국가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수자원을 상류지역 국가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 소련 시대에는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하류지역에 적기의 관개용수를 확보하면서, 하류지역 국가의 가스자원을 상류지역 국가에 판매하고, 상류지역 국가는 여름에 수력발전의 잉여전력을 하류지역 국가에 판매하는 것으로 그 불균형적인 이해관계를 중앙정부가 조정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아무다리야강 상류의 타지키스탄과 하류의 우즈베키스탄, 투르

16) Victor A. Dukhovny and Vadim I. Sokolov,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n the Aral Sea Bain," (http://www.grida.no/aral/wb/water.pdf 2000. pp. 12-13).
17) Erika Weinthal, *op. cit.*, p. 175.

크메니스탄에서 찾을 수 있다. 소련의 중앙아시아 수리 시스템은 농번기 여름철에 발생하는 하류지역 관개수의 충분한 확보라고 하는 단일한 목적을 위해서, 중앙에서 관리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에 걸쳐 농업 · 수리 · 에너지 부문을 결합한 형태이다.[18]

그러나 중앙아시아국가들은 독립함에 따라 과거 정부가 주도한 중앙관리하의 상호의존 관계는 붕괴되었다. 시르다리야강에서는 수력 발전을 진행시키고 싶은 키르기즈탄과 관개용수를 확보하고 싶은 하류지역 국가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경제화의 과정에서 하류지역 국가는 상류지역 국가에 에너지 수출에 대해 외화 지불

〈표-2〉 중앙아시아의 수자원관리의 잠재적 갈등[19]

유 역	유역을 공유한 국가	잠재적 갈등	갈등 양상
시르다리야강	키르기스스탄(상류) 우즈베키스탄(중류) 타지키스탄(중류) 카자흐스탄(하류)	토크토굴 저수지 방류에 따른 키르키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의 갈등	에너지와 관개용수
		페르가나분지, 고르노스텝지역의 상류농업이용자와 카자흐스탄의 하류이용자	수량과 수질 농업과 음료수
아무다리야강	타지키스탄(상류) 우즈베키스탄(중류) 트르크메니스탄(중류) 카라칼파크스탄(하류)	카라쿰 운하의 취수와 관련해서 투르크메니스탄 과 우즈베키스탄의 갈등	수량농업과 농업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강 하류 지역의 물 배분	수량농업과 농업
		타지키스탄의 상류 이용자와 쿠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파크스탄의 하류이용자	수량과 수질에너지와 관개용수의 장기적 잠재적 갈등
자랍샨강	타지키스탄(상류) 우즈베키스탄(하류)	타지키스탄 상류 이용자와 우즈베키스탄 하류 이용자	수량

18) *Ibid.*, p. 175.
19) *Ibid.*, p. 120.

을 요구하게 되고, 그 때문에 외화 부족에 고민하는 키르기즈스탄은 전력 특히 겨울철의 전력 수요를 조달하기 위해서 수력 발전을 행하여, 다음해 여름철의 하류지역 국가에 올 수 있는 관개용수 부족을 가져오게 되었다. 게다가 농지의 사유화를 동반하는 급진적 농업 개혁을 실시한 키르기즈스탄에서는 1990년대에 가축수가 감소하는 한편 면화, 밀, 쌀, 야채 등의 재배 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물수요 증대를 부르고 있다. 또 중 · 하류 유역 가운데 페르가나 분지나 고로드나야 스텝 등 중류지역(주로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용수 이용과 카자흐스탄의 슘켄트, 크즐오르다의 수리용자 사이에도 이해가 서로 맞지 않았다. 중류지역의 주된 물 수요는 농업이지만, 하류 이용자에게는 아랄해의 축소 방지와 양질의 음료수 확보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아무다리야강유역의 경우 상류지역인 타지키스탄의 내전 때문에, 상류 · 하류의 대립은 지금까지 시르다리야강 만큼 표면화 되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의 중심적 대립은 중 · 하류 유역의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관계이다. 양국의 이해는 함께 면화 생산을 위한 물 확보이며, 아무다리야강의 물을 소련 시대에는 면화 생산 실적에 근거하여 배분하였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은 현재 카라쿰 운하의 연장을 계획하고 있어, 거기에 동반되는 관개지 확대는 종래의 배분에 대한 논쟁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한층 더 나아가 아무다리야강 하류지역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다슈오구주주, 우즈베키스탄의 호라즘주, 카라칼파크스탄 자치 공화국이 중요한 농업 지역으로서 물을 서로 나누고 있다.

<표-2>에 중앙아시아의 수자원과 관련된 갈등양상을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자원의 용도는 각각 다르며 쌍방이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내세운다면 수자원 이용을 둘러싼 갈등은 언제든지 상존하고 있고,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아시아국가들은 지역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현실적인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수자원 관리의 협력과 한계점

독립국가로 출범하자마자 중앙아시아국가들은 수자원 관리의 협력을 둘러싼 합의를 하게 된다. 그 합의 과정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독립 직후인 1992년 2월 18일에 중앙아시아 5개국들만이 참여하고 합의를 한 '국가간 수자원의 관리 · 이용 · 보호를 위한 협력에 대하여' 이다. 이 합의를 통해서 지역의 수자원이 공유되거나 또는 통합적인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유역 관리의 새로운 조직으로써 '수리조정 국가간위원회' (Interstate Commission for Water Coordination: ICWC)가 설립되었다. ICWC

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수자원 관리 각료 5명으로 구성하여 분기마다 1회 회합을 갖고, 지역에 따른 수자원 관리정책을 결정하고, 각 공화국 및 지역 전체의 물 소비량의 작성 · 승인을 한다. 과거 조직인 BVO는 ICWC의 하위 기관으로써 수자원 관리 구조물 · 설비의 운영에 관한 집행 기능을 담당한다. 독립과 함께 지역의 수자원 관리 관련 자산은 그 지역에 위치한 국가의 소유로 포함되었지만, 본 합의에 따라서 그것을 일시적인 이용을 위해서 BVO에 이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련 시대의 수자원 배분의 원칙도 계속 유지시켰다.[20)]

소련 해체 후의 이러한 조속한 합의는 중앙아시아국가들이 아랄해를 둘러싼 정치적 협조에 따른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그 내용은 지극히 불충분했다. 첫째, 관개용수의 양적 확보를 중시하고 관개수의 수질이나 환경오염을 고려하지 않은 소련 시대의 물 배분 원칙을 그래도 답습한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에너지가 필요한 수력발전을 원하는 상류지역 국가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류지역의 수질오염에 따른 환경문제에도 충분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았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합의는 유역국가의 중요한 이해대립 문제를 재고하고 있었고 잠재적 갈등의 양상을 상존시켰다. 둘째, 집행조직과 관련된 수자원 관리 · 집행체제의 문제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ICWC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으로 과거의 연방 수리성의 기능을 계승하는 조직이었으며, 소련 시대와 같이 ICWC-BVO라는 이 두개의 조직에 의한 집권적 · 통합적인 유역 관리가 구상되었다. 그러나 소련 해체라고 하는 상황 하에서 유역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집권적 관리를 진행시켜 나간다고 하는 이 구상은 곧바로 기능 부재에 빠지게 되었다. BVO로 이관해야 할 수력발전 저수지의 대부분이 계속해서 각 국의 전력관련 행정부서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각 국의 지켜야할 엄격한 재정적 의무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인프라의 재건 ·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이 각 국가의 재정당국의 반대로 이어지는 등, BVO의 업무의 대부분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국가들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지역협력 구상은 참여 국가들이 조직한 제도적, 행정 · 집행적 상황에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상기의 중앙아시아국가들만 참여한 수자원 관리의 협력적 관계수립 뿐만 아니라, 1992년부터는 다국간의 협력 형태를 띤 유엔환경계획(UNEP)과 같은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금융의 지원을 받아 준비된 1994년에 개시된 '아랄해역 프로그램' 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랄해역의 환경 안정화, 주변 재해지역의 재생과

20) Victor A. Dukhovny and Vadim I Sokolov. *op. cit.*, pp. 13-15.

관련된 사회복귀요법(rehabilitation), 아랄해역에 있는 토지 · 수자원 관리의 개선, 프로그램의 계획 · 실시를 위한 환경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수자원 관리 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다. 1994년 1월에 카라칼파크스탄의 누크스에서 5개국 수뇌가 이 프로그램을 승인했으며, 6월에는 파리에서 국제 금융계가 아랄해역프로그램의 지원에 합의했다. 한편 중앙아시아 5개국은 이 프로그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3개의 새로운 기관을 설립했다. 본부를 타슈켄트에 두고 프로그램의 종합적 조정을 하는 '아랄해국가간회의' (Interstate Council of the Aral Sea: ICAS)를 구성하고, 알마아타에 본부를 두고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자금의 수입 · 관리를 위해서 '아랄해국제기금' (International Fund of the Aral Sea: IFAS)을 만든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아슈하바트에 본부를 둔 지역 환경의 재생에 임하는 '지속적 발전 위원회'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SDC)와 같은 새로운 기관을 두었다. 독자적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유역 5개국은 매년 GDP의 1%를 IFAS에 각출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 1995년 9월에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 하에서, 5개국 대통령이 경제 · 토지 · 수관리의 발전적 개혁과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누크스 선언' 에 서명했다.

이 프로그램이 개시됨으로 한 때 과거 소련을 축으로 하는 이해조정의 구조 틀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국제기관 · 국제자금을 매개로 하는 새로운 이해조정의 장치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또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조직의 역할에 있어서 ICWC와 ICAS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조직상에서 일관성이 결여하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이 합의된 IFAS에 대한 자금 각출을 거부하고, 타지키스탄은 내전으로 인해 자금 지불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도 1995년부터 1998년에 걸쳐 지불해야할 의무액의 약 26% 밖에 지불하지 않고 있는 등, 독자적인 재정 시스템 만드는 것에도 난항을 겪어, 많은 필요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지체되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만든 것이 1997년에 ICAS와 IFAS를 합병해 신IFAS를 설립했다. 이 신 IFAS의 대표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대통령이 2년씩 돌아가면서 맡고, 프로그램의 재정 자금 각출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지역 경제상황을 반영한 안으로 하류지역 3개국은 국가재정 수입의 0.3%, 상류지역 2개국은 0.1%로 개정되는 등, 이러한 개혁이 추진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21)]

이들 다국간 협력의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랄해를 지역의 공유 자원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국제적인 조직 · 체제를 만드는데 난항을 겪는 큰 원인의 하나는 소련시대에 지역적 경제 특화 중에 형성된 물과 에너지의 독특한 상호의존 관계가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것에 있다.

결 론

과거 소련 시대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의 개념은 무시되었고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목표 달성이 우선시 된 결과로환경파괴의 부작용이 동반되었다.

전통적으로 오아시스와 유목 사회인 중앙아시아 사회는 20세기 소련의 성립으로 근대적 지역개발에 착수했다. 중앙계획시스템에 의한 지역개발은 빠른 시간 내에 근대적 형태의 산업화를 달성했다. 중앙아시아 북부지역은 공업화, 군사화를 바탕으로 공업화가 이뤄졌고, 남부 아랄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계화, 화학화, 토지개량의 슬로건 아래 대규모 관개시설 건설과 화학비료, 농양의 대량투입을 통해서 면화 단일경작화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화, 단일 경작화를 통한 대량생산과 그 목표의 달성이라는 이면에는 환경파괴의 부작용이 동반되었다. 그것은 과거 소련 시대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의 개념은 무시되었고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목표 달성이 우선시 된 결과였다. 이렇게 70여년 사회주의 건설시기가 지난 지금, 20세기 최대의 환경파괴의 대표적 사례로 일컬어지는 아랄해 문제와 비효율적 생산관리와 자원의존 경제가 낳은 핵폐기물을 포함한 환경오염은 중앙아시아국가들 사이에 협력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특히 중앙아시아국가들이 공통으로 고민하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아랄해 문제를 중심으로 수자원 관리와 환경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목이다. 그렇지만 현재 중앙아시아국가들은 구소련 해체와 더불어 독립을 맞이하고 있고 체제이행 과정에 놓여있다. 정치적 미성숙과 와해된 경제상황의 극복이 일차적인 과제인 이들 국가들은 환경문제 해결을 병행한 협력관계는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사항이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중앙아시아국가 국민들의 기본적 생존의 필수조건을 보장받기 위한 수자원 관리의 협력이 독립된 직후에 바로 이뤄졌다. 이러한 조속한 합의는 중앙아시아국가들이 독립과 동시에 주요하천인 시르다리야강과 아무다리야강이 국제 하천화에 따른 국가간 및 지역간 긴장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적 협조에 따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색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5개 국가만이 참여한 '수리조정 국가위원회(ICWC)' 가 1992년에 설립되었다. 과거 조직이기도 한 BVO를 포함한 소련의 중앙집권적 수자원 관리형식을

21) *Ibid.*, pp. 18-20.

그대로 유지했다는 한계점과 그로 인해 이 조직이 곧 바로 기능부재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국가만 참여한 독자적 지역협력 구상은 제도적, 행정 · 집행적 상황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노출시켰다.

뿐만 아니라 '유엔환경계획(UNEP)' 와 세계은행(World Bank)의 지원을 받은 다국가간 협력형태를 띤 '아랄해역프로그램' 을 통한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 'ICAS' , 'IFAS' , 'SDC' 등 이 3가지 기구를 보조형태로 설립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시와 더불어 과거의 이행조정의 구조 틀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이해조정의 장치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또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조직의 역할에 있어서 'ICWC' 와 'ICAS' 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조직상에서 일관성이 결여한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IFAS' 에 대한 자금 각출의 실행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독자적인 재정시스템의 구축도 난황을 겪게 되고, 필요한 프로그램의 실시도 지체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만든 것이 ' 신IFAS '로 1997년에 새롭게 설립했으며, 보다 완화된 프로그램의 재정자금 각출에 합의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수자원 관리를 위한 협력의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 아랄해 지역의 수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협력을 위한 조직과 참여자는 존재하고 있지만, 중앙아시아국가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듯이 자발적 자금의 납부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언제든지 중앙아시아국가들의 경제상황에 따라 재정적 참여가 없어지며, 이러한 협력은 형식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History of Central Asia

정리: 정려정·김재원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원)
wazzak@hanmail.net, kjwoo28@hanmail.net

1910 년대

1917년

(타)1917년 1월 소비에트 정권 수립.
1917년 2월 혁명으로 짜르정권 붕괴.
(카)1917년 5월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정권 수립.
(카)1917년 7월 보수 민족주의 정당 알라쉬(Alash)당 결성.
(우)1917년 우즈벡의 부하라, 바스마치 운동의 중심지가 됨.
1917년 여름 튀르크 민족주의 정당인 튀르크 연방당(Turk adam-i) 설립.
1917년 10월 혁명으로 사회주의 체제 수립.

(우)1917년 11월 타슈켄트에서 소비에트 정권이 성립.
(투)1917년 11월 볼셰비키 혁명에 저항해 자카스피 반볼셰비키 지역 정부 형성.
(카)1917년 11월 코사크 부족장 두토프(Dutov) 반볼셰비키 세력을 등에 업고 봉기.
(키)1917년 11월 소비에트 정권 수립.

1918년

1918년 1월 소비에트 정권, 헌법 제정 회의를 해산하고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창립 선언.
(투)1918년 2월 투르키스탄 자치정부, 타슈켄트의 소비에트 정권에 의해서 해산됨.
(키)1918년 2월 러시아 군인들의 키르기스 무슬림 대학살 사건 발발. 30%에 달하는 키르기스인들의 해외 이주.
1918년 2월 범 투르크 반 소련 운동인 비스마치(Basmachi) 운동이 시작됨.
(키)1918년 5월 키르기스스탄 전역을 소비에트 정권이 지배. 키르기스스탄, 투르키스탄 자치공화국의 일부로 편입.
1918년 5월 레닌, 대기업의 재산 국유화 시행.
1918년 7월 부하라에서 영국군의 지원으로 민족주의 독립정부 수립.

1920년대

1920년

(우)1920년 9월 적군 사령관 프룬제(Frunze), 부하라 장악.
(카)1920년 10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자치공화국의 일부로 편입, 소비에트 정권 수립.
(우)1920년 10월 우즈베키스탄을 영토로 하는 부하라 인민 사회주의 공화국 선포.

1922년

1922년 8월 바스마치 지도자 엔베르 파샤 전사, 비스마치 저항운동 쇠퇴.
1922년 12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성립.

1924년

1924년 1월 러시아공화국 소비에트의회, 공화국헌법 초안 마련, 중앙아시아 소비에트 공화국들을 민족거주지역에 따라 민족 단위 국가로 재편성 결정.
(우)1924년 10월 우즈베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창설.
(투)1924년 10월 투르크메니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타)1924년 10월 투르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과 부하라 인민 소비에트 공화국이 통합되어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 성립, 타지크 자치공화국은 행정적으로는 우즈베키스탄에 속함.
(키)1924년 10월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공화국의 카라키스 자치주로 편입.

1925년

(카)1925년 4월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으로 승격.
(키)1925년 5월 카라키스 자치주, 키르기스 자치주로 명칭 변경.

1926년

(키)1926년 2월 키르기스 자치주, 키르기스스탄 자치공화국으로 승격.

1929년

(카)1929년 5월 수도를 알마티(Almaty)로 이전.
(타)1929년 6월 타지키스탄, 행정적으로도 독립하여 소비에트 연방의 한 공화국으로 선포됨.

1930 년대

1936년

(카)1936년 12월 카자흐스탄, 소련 구성 공화국의 하나로 승격.
(우)1938년~1939년 당 · 정에서 우즈벡 민족주의 지도자 대숙청.
(키)1936년 12월 러시아공화국으로부터 분리,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으로 승격.

1980 년대

1986년

(카)1986년 12월 카자흐스탄인인 카자흐스탄 공산당 제 1서기 코나예프 해임. 러시아인 겐나디 콜빈(Gennady Kolbin)의 취임. 이에 대한 반대시위와 민족주의 운동 격화.

1989년

(카)1989년 3월 카자흐스탄인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공산당 제 1서기 취임.
(타)1989년 3월 타지키스탄 지식인 그룹, 고르바초프에게 우즈베크령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를

타지키스탄으로 편입하도록 요구, 묵살됨.
(투)1989년 5월 수도인 아슈하바트에서 아르메니아인 상점과 공장에 습격 발생.
(우)1989년 6월 페르가나에서 우즈베크인과 메스헤트-투르크인 사이 민족분규.

(카)1989년 6월 노비 우제니에서 카자흐인과 북카프카스 출신자 간의 충돌.
(카)1989년 9월 정치 및 행정 개혁, 공산당 제 1서기 직무의 최고회의 의장으로의 이양. 최고회의에서 대통령 간접선거제 도입.

1990 년대

1990년

(카)1990년 2월 나자르바예프, 최고회의 의장으로 선출.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타)1990년 2월 수도 듀샨베에서 민족폭동 발생.
(우)1990년 3월 대통령제 도입. 카리모프 대통령 선출.
(카)1990년 4월 나자르바예프, 최고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
(키)1990년 6월 오슈에서 키르기스인과 우즈베크인 민족분규.
(우)1990년 6월 우즈베키스탄 주권 선언.
(투)1990년 8월 투르크메니스탄 주권 선언.
(타)1990년 8월 타지키스탄 주권국가 선언.
(키)1990년 10월 아스카르 아카예프(Askar Akaye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취임.
(카)1990년 10월 카자흐스탄 주권 선언.
(키)1990년 12월 키르기스스탄 주권 선언.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1991년

1991년 8월 소련의 공산당 쿠데타 실패. 공산당 활동 금지.
(우)1991년 8월 우즈베키스탄 독립선언.

타지키스탄
라흐마노프 대통령.

(키)1991년 8월 키르기스스탄 독립선언.
(타)1991년 9월 타지키스탄 독립선언. 타지키스탄 공산당 제 1 서기장 나비예프(R. Nabiev), 대통령 당선, 이슬람 반군, 정부의 공산체제 복귀와 이슬람 탄압을 비난하며 무장 항쟁 전개.
(투)1991년 10월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선언, 사프르무라트 니야조프(Saparmurat Niyazov) 대통령 98.8% 득표율로 당선.
(카)1991년 12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으로 선출 라흐마노프 타지키스탄 대통령.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 해체.
(카)1991년 12월 카자흐스탄 독립선언.
1991년 12월 알마티(Almaty)회담으로 독립국가 연합 창설. 구소련 15개 공화국 중 발트 3국과 그루지야를 제외한 국가들 모두 가입.
(우)1991년 12월 대통령 선거 실시,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86% 지지율로 당선.

1992년

(우)1992년 1월 최고회의 임시총회, 지방행정 기관장 임명권 대통령 부여.
(우)1992년 1월 부통령직 폐지, 대통령에의 권력집중 심화.
(우)1992년 1월 개방적인 정치 표명, 정치 단체들의 등록을 허용.
1992년 1월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우즈베키스탄 · 타지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몰도바 · 우크라이나 · 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 가입.
(우)1992년 2월 이슬람정당 활동 전면 금지.
1992년 2월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아제르바이잔 ·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이란 · 터키 · 파키스탄의 정부간 기구인 경제협력기구(ECO)에 가입.
1992년 3월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UN에 가입.
(타)1992년 5월 타지키스탄,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 체결.
(투)1992년 5월 직접선거에 의한 5년 임기 대통령제, 인민위원회와 최고회의 구성을 골자로 하는 신헌법 제정. 니야조프 99.5% 득표율로 재선.
1992년 5월 독립국가연합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발족. 러시아,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루지야, 아제르바이잔 9개국이 가입.

(타)1992년 9월 구 공산세력 지도자 나비예프 대통령 이슬람 세력에 의해 강제사임, 이슬람 과도정부 수립. 이란, 타지키스탄 이슬람 정부에 지지표명.
(타)1992년 10월 타지키스탄에 독립국가연합 평화유지군으로 러시아군, 우즈베키스탄군, 카자흐군 파병.
(타)1992년 11월 이슬람 과도정부 붕괴, 대통령제 폐지. 에모말리 라흐마노프(Emomali Rakhmonov), 공산당 세력과 러시아의 지원에 힘입어 최고의회의장에 당선.
(우)1992년 12월 의회 최고회의, 연임가능 대통령 중심제 현행 헌법 채택. 대통령 임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국민투표 실시, 통과.

1993년

1993년 1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개국, 타슈켄트 회담으로 연대 모색, 다섯 국가의 지역을 "첸트랄리나야 아지아(중앙아시아)"라는 명칭으로 부를 것을 제안.
(타)1993년 1월 이슬람 반군 세력, 아프가니스탄 북부로 이동.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국경지역 비상사태 선포.
(투)1993년 1월 투르크메니스탄, 전 주민에 가스 · 전기 · 용수 무료공급 시작.
(카)1993년 1월 헌법 채택. 대통령은 반드시 카자흐어 사용자여야 한다고 규정.
(키)1993년 5월 신헌법 채택. 루블권 탈퇴, 자국화폐 솜(Som) 발권.
(타)1993년 8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5개국 정상,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에 병력증강 합의.
(카)1993년 11월 카자흐스탄 루블권 탈퇴, 텡게(Tenge)화 도입.
(우)1993년 11월 우즈베키스탄 루블권 탈퇴, 솜(Som)화 도입.
(투)1993년 11월 투르크메니스탄 루블권 탈퇴, 마나트(Manat)화 도입.
(타)1993년 12월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우호조약 체결.

1994년

1994년 1월 카자흐스탄 ·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동맹인 중앙아시아지역연합(CARU) 결성.
(타)1994년 1월 타지키스탄 이슬람 반군, 러시아군과 교전. 러시아군, 아프가니스탄 내 타지키스탄 반군 기지 폭격.
(키)1994년 1월 아카예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직접신임투표 실시, 96.2% 지지획득.
(키)1994년 10월 헌법개정 국민투표. 최고의회의 비협조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2원제의회 성립.

1994년 10월 터키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6개국 정상의 상호협력을 다지자는 이스탄불 선언.
(타)1994년 11월 대통령 중심제의 신헌법 채택, 라흐모노프 대통령 60% 득표율로 선거 승리. 타지키스탄 내전, 3개월간의 정전에 합의.

1995년

(타)1995년 3월 타지키스탄 무력 충돌 재발.
(우)1995년 3월 카리모프 대통령의 임기를 2000년까지 연장하는 국민투표안 99% 지지로 통과.
(카)1995년 4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 부여와 2000년까지 대통령임기 연장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통과.
(타)1995년 5월 러시아 루블을 대신해 타지키스탄 루블 도입.
(우)1995년 5월 솜(Som)화를 대신해 숨(Sum)화 도입.
(카)1995년 8월 5년 임기의 대통령 직접선거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투)1995년 10월 UN총회에서 영세중립국으로 승인됨.
(키)1995년 12월 아카예프 대통령 재선.

1996년

(키)1996년 2월 총리지명권 및 예산집행권을 대통령에게 집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94.5% 찬성으로 통과.
1996년 3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와 벨로루시와 함께 관세동맹 구성.
(타)1996년 6월 이란, 타지키스탄 반군의 원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표.
(우)1996년 11월 외환부족으로 환전통제 및 인위적인 환율 조작 시작.
(우)1996년 12월 정당법 개정, 민족 혹은 종교에 기반을 둔 정당의 창립 금지, 정당의 외화 계좌 사용 금지, 정치 기부금 일부 금지.

1997년

(타)1997년 1월 타지키스탄 내전 당사자 간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 개최.
(카)1997년 2월 모든 공공문서 및 공무원 사용언어를 카자흐어로 해야 한다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됨.
(타)1997년 4월 라흐마노프 대통령, 수류탄에 의한 암살 기도로 부상.
(타)1997년 6월 유엔과 러시아의 중재로 모스크바에서 평화정착 및 국민화합을 위한 제반 협정 체결.
(타)1997년 8월 평화협정에 불만을 품은 정부군의 육군 대령 마흐무드 후도베르디예프

(Makhmud Hudoberdiyev), 북부도시 후잔드를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됨.
(카)1997년 12월 수도를 알마티에서 북부의 아크몰라(Akmola)로 이전.

1998년

1998년 3월 중앙아시아 지역연합(CARU), 타지키스탄이 가입하면서 중앙아시아 경제공동체(CAEC)로 개칭.
(타)1998년 4월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러시아 · 벨로루시의 관세동맹에 가담.
(타)1998년 5월 정부군, 타지키스탄 반군과 일주일간 교전 30명 사살.
(카)1998년 5월 수도 아크몰라를 아스타나(Astana)로 개명.
(타)1998년 7월 UN옵서버 4명 피살.
(키)1998년 10월 국민투표를 통해 토지사유화, 의회정원 조정 개헌.
(타)1998년 11월 마흐무드 후도베르디예프의 반란군 잔당 타지키스탄 급습, 100여 명 사망, 격퇴.
(키)1998년 12월 키르기스스탄, CIS 국가 중 최초로 WTO에 가입.

1999년

(카)1999년 1월 나자르바예프 79% 득표율로 대선 승리.
(타)1999년 2월 라흐모노프 타지키스탄 대통령, 휴전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명령.
(우)1999년 2월 이슬람반군 세력, 카리모프 대통령을 겨냥한 연쇄 폭탄 테러, 실패.
(타)1999년 4월 타지키스탄, 영내에 러시아군 기지 구축 허용.
(우)1999년 4월 우즈베키스탄, 그루지야와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집단안보조약 기구(CSTO) 탈퇴, 친서방 반러시아 성향의 그루지야 · 우크라이나 · 몰도바 · 아제르바이잔 4개국 의 모임인 '구암(GUUAM)' 에 가입.
(카)1999년 4월 카자흐스탄, 변동환율제 채택.
(우)1999년 7월 이슬람 반군, 키르기스스탄 국경을 통해 침입, 격퇴.
(키)1999년 8월 키르기스 남서부지역에서 타지키스탄 이슬람반군에 의한 일본인 지질학자 4명 인질사태 발생.
(타)1999년 9월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임기연장(4년에서 7년으로), 양원제 국회 구성, 종교에 기초한 정당 구성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 확정.
1999년 9월 타지키스탄군 · 키르기스스탄군 · 우즈베키스탄군 · 카자흐스탄군,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인질극을 벌이는 이슬람 무장세력 캠프 폭격, 교전.
(타)1999년 11월 라흐모노프 현 대통령 97% 득표율로 임기 7년의 대통령으로 재선. 야당 쪽

경쟁자, 부정선거 의혹 제기.
1999년 11월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등의 이슬람 반군의 대부분인 수천 명,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
(투)1999년 12월 종신대통령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니야조프 종신대통령에 취임.
1999년 12월 러시아 · 중국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상하이에서 테러리스트에 대한 공동 대응 및 불법 무기 공급 금지 합의.

카르기스탄
아카예프 전 대통령.

2000 년대

2000년

(우)2000년 1월 러시아와 새로이 확대된 군사협력협정 체결.
(우)2000년 1월 카리모프 대통령 92% 득표율로 재집권.
(타)2000년 2월 총선거 실시. 타지키스탄 부총리 암살위기 모면. 테러로 버스 승객 7명 폭사. 테러로 국회의원 후보 유세 중에 폭사.
(우)2000년 4월 카리모프 대통령 92% 득표로 재선. 유일한 대선 경쟁후보, 선거 전에 카리모프 지지의사를 밝힘.
(타)2000년 5월 유엔평화감시단(UNMOT) 임무 기간 만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유엔평화건설단(UNTOPB) 설치.
(키)2000년 5월 러시아어 공용화법 채택.
(카)2000년 7월 카자흐스탄, CIS 국가 중 최초로 IMF 채무 모두 상환.
(우)2000년 8월 이슬람 반군,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으로 월경, 우즈베키스탄군과 교전.
(타)2000년 10월 타지키스탄 루블을 대신해 소모니(Somoni) 도입.
(키)2000년 10월 아카예프 대통령 75% 지지율로 대선승리, 재집권.

2001년

(투)2001년 2월 니야조프 종신대통령, 2010년에 대통령 선거가 열릴 수도 있음을 시사, 자신의 재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2001년 5월 러시아 ·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4개국,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대비한 신속대응군 창설.

2001년 5월 러시아 · 벨로루시 · 카자흐스탄 · 타지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5개국, 기존의 관세 동맹을 기반으로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출범.
2001년 6월 러시아, 중국과 함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6개국 "상하이 협력기구(SCO)" 결성, 새로운 세력 축 모색.
(투)2001년 6월 니야조프 대통령, 외국인이 자국국민과 결혼하려면 정부에 5만 달러를 내야 한다는 법령 발표.
(키)2001년 8월 CIS 안보조약기구 신속 대응군 사령부를 수도인 비쉬켁에 설치.
(카)2001년 11월 정·관재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민주 선택(Democratic Choice)"이라는 시민운동 연대 결성, 민주발전과 국정개혁 요구 선언문 채택.
2001년 12월 타지키스탄 · 키르기스스탄 · 우즈베키스탄, 미국주도의 반테러 국제연대 다국적군 주둔 허용.

2002년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

2002년 1월 이슬람 반군 및 테러조직 등 안보 협력 필요성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경제공동체(CAEC)"를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로 개편.
(우)2002년 1월 카리모프 대통령, 국민투표로 임기를 5년에서 7년으로 늘림. 2007년까지 임기를 연장.
(카)2002년 7월 미공군기의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 사용 허가.
(투)2002년 11월 니야조프 대통령 암살기도 실패. 니야조프, 정적과 그 가족 등 사십여 명을 투옥시킴.

2003년

(투)2003년 1월 니야조프 대통령, 자신이 "점지된 알라의 예언자"라는 글을 한 일간지에 게재.
(키)2003년 2월 헌법개정 및 아카예프 대통령의 2005년 12월까지의 대통령직 수행 신임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 실시, 각각 지지율 75.5%, 78%로 통과.
(투)2003년 3월 외국인 감시와 장기 비자 취득 통제를 위해 외국인 관리청 신설.
(투)2003년 4월 유엔 인권위,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권침해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타)2003년 6월 대통령 7년 중임제 개헌.
(카)2003년 9월 카자흐스탄-미국 "군사협력 5개년 계획"에 서명, 카스피해 지역 카자흐스탄 국경 경비대 장비 현대화와 해군 창설의 지원 약속받음.
(키)2003년 10월 러시아군에 키르기스스탄 영내 기지 건설 허용.
(우)2003년 10월 외화자유화 조치 시행.

2004년

(우)2004년 3월 잇따른 자살폭탄테러로 19명 사망, 26명 부상.
(투)2004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 투르크메니스탄 인권 결의안 채택.
2004년 6월 상하이협력기구(SCO) 공동테러대책기구 설립.
(투)2004년 6월 니야조프 대통령, 외국에서 받은 모든 학위 무효화, 이로 인한 의사, 간호사의 공석에 의료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직업군인 투입.
(투)2004년 7월 니야조프 대통령, 자신이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하는 구세주"라고 자화자찬.
(우)2004년 8월 이슬람 반군, 미국대사관과 이스라엘 대사관에 폭탄테러, 8명 사망, 9명 부상.
(카)2004년 9월 나자르바예프 지지세력, 77석 중 69석 석권으로 총선 승리. 부정선거 의혹으로 OECD 등 서방의 비판.
2004년 10월 러시아, 중앙아시아 협력기구(CACO)에 가입.
(타)2004년 10월 타지키스탄 영내에 러시아 군 기지 설치.
(카)2004년 10월 카자흐스탄, CIS 국가 중 최초로 모든 국제신용평가기관에 투자적격 판정을 받음.

2005년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

(카)2005년 1월 야당인 '민주선택당', 정부 전복 기도 혐의로 강제 해산.
(타)2005년 1월 이슬람근본주의 그룹인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IMU) 수도 두산베에서 차량 폭탄테러 1명 사망 6명 사상, 6월에도 폭탄테러로 4명 부상.
(키)2005년 2월 여당, 총선 압승, 부정선거 의혹 제기됨.
(키)2005년 3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로 아카예프 대통령 하야, 레몬(튤립)혁명 성공. 아카예프, 미국이 혁명의 배후에 있다고 비난.
(투)2005년 3월 수도에 좋은 병원이 있으며 지방주민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도를 제외한 전국의 병원과 도서관을 폐쇄하라고 명령.
(우)2005년 5월 13일 안디잔에서의 반정부시위 무차별 총격으로 진압. 700여 명 사상, 카리모프 대통령, "시민은 한명도 안 죽었다"고 주장.
2005년 7월 상하이협력기구(SCO) 6개국, 미군의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의 철수 일정을 밝히라고 촉구, 미국 반발.
(키)2005년 7월 쿠르만벡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대통령에 당선.

(카)2005년 7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안디잔 학살이 정당했다고 옹호. 자국 내 혁명기도에 대비해 군대의 총기류를 경찰에 이관.
(키)2005년 7월 키르기스스탄, 2억 무이자 차관의 대가 미군의 계속 주둔 허용.
(카)2005년 8월 카자흐스탄 대법원, 당초 2006년 대선을 2005년 12월로 앞당겨 치룰 수 있냐는 의회의 의뢰에 가능하다고 판결.
(우)2005년 11월 미군,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철수.
(우)2005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자국 내 러시아군 주둔 승인 협정 체결.
(카)2005년 12월 나자르바예프 91% 득표율로 대선 승리. 3선 역임. 대선 전 주요야당 지도자 사르센바이울리, 누르카딜로프, 권총에 맞아 암살됨. 국제선거감시위원단, 선거 과정에서 반대파 위협 ·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

2006년

투르크메니스탄 니야조프 대통령.

2006년 3월 러시아,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집단안보조약 기구(CSTO) 내의 공동의 평화유지부대 창설 합의.
(투)2006년 3월 니야조프 대통령, '루흐나마' (the Rukhnama)라는 자신의 저서를 세 번 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며 의무적으로 읽을 것을 명령.
(타)2006년 3월 국제통화기금(IMF), 2004년 이전 타지키스탄의 부채 9천 9백만 달러 탕감.
(키) 2006년 3월 세계은행, 키르기스스탄에 5년간 1,500만 달러의 보조금 지원안 확정.
(키)2006년 4월 수도 비쉬켁에서 조속한 개혁과 바키예프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1만 5천명 대규모 반정부 시위.
(우)2006년 6월 우즈베키스탄, 구암 탈퇴, 친 러시아 안보기구인 집단안보조약 기구(CSTO) 재가입.

_____ 밑줄 친 글씨: 공통적인 사건
(카): 카자흐스탄/ (키): 키르기스스탄/ (우): 우즈베키스탄/
(타): 타지키스탄/ (투):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5개 국가 현황

1. 카 자 흐 스 탄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 의회: 양원제(상원, 하원)
수도	아스타나(Astana · 인구 : 약51만 명) ※ 1997.12 以前 수도 : 알마티(Almaty · 인구 : 약120만 명)
행정구역	2개 특별시(Astana · Almaty) · 14개주
면적(㎢)	2,717,300(동서 3,000㎞, 남북 2,000㎞) ※ 면적 세계9위, 한반도의 12배, 한국의 27배
기후 및 지형	半사막성 기후
인구(명)(2005.7 기준)	15,185,844
민족	카자흐인(855만,57.2%) · 러시아인(407만,27.2%) · 우크라이나인(47만,3.1%) · 우즈벡인(40만,2.7%) · 독일인(24만,1.6%) · 타타르인(23만,1.6%) · 위구르인(22만, 1.5%) 등 ※ 한민족(고려인)은 10만으로서 0.7%(8번째)
종교	이슬람교 47%, 러시아정교 44%, 개신교 2%, 기타 7% 등
언어	카작어(국가어) 64.4%, 러시아어(공용어 및 종족 간 소통 언어) 95%(2001년)
GDP(달러, 2004기준)	301억불(2004.1-9월간) - 2004년도 GDP 성장률(잠정) : 9.1% · 2003년도 1인당 GDP : $1,970 · 2003년도 GDP : 294억불
화폐단위	텡게(2005.3 현재 $1=130텡게)
분야별 노동인구	공업 30%, 농업 20%, 서비스업 50%(2001년)
주요 산업	석유, 석탄(중부의 카라간다 탄전은 구소련 제3위의 산출량을 자랑하였음.), 철광석(구소련 전체의 14.2%), 망간, 크롬, 납, zinc, 구리, 타이타니움, bauxite, 금, 은, phosphates, sulfur, 트랙터, 모터, 건축자재
농업 생산품	곡물(밀: 밀경작지는 구소련CIS 지역의 1/3), 면화, 모직물, 가축
주요 자원	원유(세계 7위, 가채 매장량 : 322억배럴, 추정매장량 : 966억배럴/ 석유 매장량 약 250억 배럴로 쿠웨이트보다 많음. 구소련 전체 생산량의 39.1%에 해당), 아연, 텅스텐(매장량 세계1위) · 우라늄, 銀, 鉛, 크롬(세계2위) · 구리, 망간(세계3위) 등 다수 광물자원 보유
수출 품목	석유 및 석유 제품 52.8%, ferrous metals 12.9%, 기계, 화학, 곡물, 모직물, 육류, 석탄(2000년)
수입 품목	기계 및 부속 29.5%, 에너지 오일 11.3%, 전자제품 8.8%, 자동차 8.7%, ferrous metals 6.4%(2000년)

1) 최한우, 『중앙아시아 연구』 (서울: 펴내기, 2004), 참조.
중앙아시아 각 대사관 싸이트.

카자흐스탄 (Kazakstan)

2. 우 즈 베 키 스 탄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수도	타쉬켄트(인구 : 250만명)
행정조직	12개 지방 및 1개 자치 공화국(Karakalpakstan)
면적(㎢)	447,400(한반도의 2배 : 스웨덴과 유사한 크기)
기후 및 지형	고온 건조한 대륙성 기후, 사막 기후(최근 들어 아랄해 건조 심각)
인구(명)(2005.7 기준)	26,851,195 연 인구증가율 : 3.6%
민족	우즈베크인 71.4%, 러시아인 6.3%, 타지크인 4.7%, 카자크인 3.9%, 타타르인 2.4%, 고려인 0.8%(약 20만), 유태인 0.3%
종교	이슬람교 88%(대다수 수니파), 러시아정교 9%, 기타 3% 등
언어	우즈벡어 74.3%, 러시아어 14.2%, 타직어 4.4%, 기타 7.1%
GDP(달러, 2004기준)	97억 2천만 / 1인당 375
분야별 노동인구	농업 44%, 공업 20%, 서비스업 36%(1995년)
주요 산업	직물, 식품, 기계제조, metallurgy, 천연가스, 화학
농업 생산품	면화, 채소류, 과일, 곡물, 가축
수출 품목	면화 41.5%, 금 9.6%(구소련 제2의 금 생산국. 구소련 전체 금 생산량의 25.2% 차지), 에너지 9.6%, 광물, ferrous metals, textiles, 식료품, 자동차(1998년)
수입 품목	기계 장비 49.8%, 식료품 16.4%, 화학 및 금속(1998년)

우즈베키스탄 (Uzbekistan)

3. 투 르 크 메 니 스 탄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수도	아스하바트 (Ashkhabad)
면적(㎢)	488,100
기후 및 지형	심한 대륙성 기후 / 90%이상이 카라쿰(검은 사막 지대)
인구(명)(2005.7 기준)	4,952,081
민족	투르크멘인 85%, 우즈벡인 5%, 러시아인 4%, 기타6%(2003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한 구소련 내의 투르크멘 사람들의 문화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등 외국에 살고 있는 투르크멘의 두 종류의 문화로 나뉨.)
종교	이슬람교 89%, 러시아정교 9%, 기타 2%
언어	투르크멘어 72%, 러시아어 12%, 우즈벡어 9%, 기타 7%
GDP(달러, 2004기준)	9122억 800만 / 1인당 2,468
분야별 노동인구	농업 48%, 공업 15%, 서비스업 37%(1998년)
주요 산업	천연가스, 석유, 석유제품, 섬유, 식료품
농업 생산품	면화, 곡물, 가축
수출 품목	가스 33%, 석유 30%, 면직물 18%, 섬유 8%(1999년)
수입 품목	기계 장비 60%, 식료품 15% (1999년)

4. 키 르 기 스 스 탄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수도	비쉬켁(Bishkek, 인구 : 60만)
면적(㎢)	198,500
기후 및 지형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건조. 국토의 80%이상이 해발 1500m 이상이며, 그중 40%이상은 3000m이상인 바, "중앙아시아의 스위스" 라는 별칭 보유. 농지는 전국토의 7%.
인구(명)(2005.7 기준)	5,146,281
민족	키르기즈인 64.9%, 우즈베크인 13.8%, 러시아인 12.5%, 둔간인 1.1%, 우크라이나인 1%,위구르인 1%,기타5.7%(99년 인구조사)
종교	이슬람교 75%, 러시아정교 20%, 기타 5%

언어	키르기스어-공용어, 러시아어-공용어(2001년 12월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채택)
GDP(달러, 2004기준)	21억 6,700만 / 1인당 424
분야별 노동인구	농업 55%, 공업 15%, 서비스업 30%(2000년)
주요 산업	경공업, 섬유, 식료품, 시멘트, 신발, 냉장고, 가구, 전기 모터, 금, 귀금속, sawn logs (농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구소련이 해체되기 이전까지 산업 물자 대부분을 구소련으로부터 공급 받아오다, 해체 이후 교역체제 붕괴로 산업물자 공급이 거의 중단되어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
농업 생산품	담배, 면화, 감자, 채소, 과일(포도 外)/양(구소련에서의 양모 생산율은 제 5위), 염소, 가축/모직
수출 품목	면화, 모직, 육류, 담배, 금, mercury, 우라늄, 수력전기(포장 수력은 구소련의 제3위), 기계, 신발
수입 품목	석유, 가스, 기계 장비, 식료품
	 키르기스스탄 (Kyrgyzstan)

5. 타 지 키 스 탄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수도	두샨베(Dushanbe, 80만 명)
면적(㎢)	143,100
기후 및 지형	대륙성 기후
인구(명)(2005.7 기준)	7,163,506
민족	타지크인64.9%,우즈베크인25%,러시아인3.5%,기타6.6%
종교	이슬람교(수니파 85%, 시아파 5%), 기타 10%(2003년 추정치)
언어	우즈벡어 74.3%, 러시아어 14.2%, 타직어 4.4%, 기타 7.1%
GDP(달러, 2004기준)	20억 7,300만 / 1인당 328
분야별 노동인구	농업 67%, 공업 8%, 서비스업 25%(2000년)
주요 산업	알루미늄, zinc, 납, 화학, 시멘트, 식용류, 석유, 금속절단기, 냉장고
농업 생산품	면화, 과일, 곡물, 포도, 채소, 가축, 양, 염소
수출 품목	알루미늄, 전기, 면화, 과일, 식용류, 섬유
수입 품목	전기, 석유제품, aluminum oxide, 기계장비, 식료품

타지키스탄 (Tajikistan)

도서안내

사상과 혁명

역사의 한 장면으로서
러시아와 중국혁명이 갖고 있는
진면목과 혁명의 뒤에 존재하고 있었던
마르크스주의와 마르크스의 사상적 맥락

주요 목차

제1부 프랑스 혁명사상과 유토피아
제2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애
제3부 러시아혁명
제4부 중국혁명

교양사회
조정남 편역 / 값 10,000원

논 단

실크로드의 생성과 발전 및 쇠퇴 - 박주식

역대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 최종호

연 재 – 민족과 문학 3

언어에 대한 자각과 민족의 발견 - 여태천

논 단

실크로드의 생성과 발전 및 쇠퇴*

박 주 식

고려대학
평화연구소 연구부교수
jusik88@hanmail.net

실크로드의 역사적 의의 및 경로

실크로드는 이미 기원전에 동서 교류의 통로로 출발하여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물자와 문화가 전파, 교환되고 교류하는 공간의 역할을 해왔다. 멕닐(McNeill,1963)에 의하면 세계사는 토인비나 슈펭글러가 상정하는 것처럼 몇몇의 서로 유리된 개별 문명권이 독자적으로 성장, 발전, 경쟁, 충돌한 역사가 아니라 각 지역의 여러 문화가 전파, 확산되고 상호 교류하고 융화가 반복된 역사이다. 그는 세계 4대 문명이 출범한 이후 역사의 각 단계에서 끊임없이 여러 문화가 지리적 경계를 넘어 서로 교류,공존하였으며 이런 교류,공존공간을 에큐민(ecumene)이라 칭하여 인류 문화사를 에큐민의 역사로 재구성하였다. 여기서 멕닐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에큐민으로 실크로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

같은 맥락으로, 크리스티안은 아프리카, 유라시아 역사의 단일성(unity of Afro-Eurasian history)을 주장하고 이런 단일성을 형성, 유지하는데 실크로드가 핵심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하였다.[2)] 프랭크와 길스 역시 그들의 세계체제론에서 아

* "이 논문은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2-072-BS2071)

1) W. H. McNeill, *The Rise of the West Chicago*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63).

프리카-유라시아를 하나의 단일 세계체제(world system)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그 시점을 이미 BC 2000년으로 소급하고 있다.[3] 또한 정수일은 실크로드의 역사적 의의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문명가교의 역할, 세계사 전개의 중추적 역할, 주요 문명의 산파 역할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4]

명칭이 실크로드이나 교역 품목은 비단 외에 금, 은, 옥을 위시한 보석제품, 종이와 인쇄술, 나침반, 향료, 양모, 소금, 농산물, 심지어는 운반하기 불편한 자기, 유리제품, 그리고 말과 소를 위시한 가축 등 다양한 품목들이 교역되었다

그러나 실크로드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관심의 대상이 되어 탐사, 연구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야 본격화되었다. 특히 중동과 인도 북부 및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을 둘러싸고 영국과 러시아가 벌인 경쟁인 대경기(Great Game)가 치열해지면서 실크로드 지역에 관한 연구는 지역 진출과 경략의 목적과 더불어 가속되었다. 아울러, 실크로드 탐사는 동양학적 관심으로도 많이 수행되었으며 고고학적, 문화사적으로 중요 과제로 등장하여 특히 신장지역은 20세기초에 본격적으로 탐험이 시작되었고 슈타인(Aurel Stein)이나 헤딘(Sven Hedin)의 기념비적 연구들이 뒤이어 계속되었다.

실크로드(die Seidenstrassen)란 단어는 독일 지리학자 페르디난드 폰 리흐트호펜(Ferdinand von Richthofen:1833-1905)이 19세기에 처음 사용하였는데 중국과 중앙아시아, 인도 그리고 지중해를 연결하는 일련의 긴 무역 루트를 지칭하였다. 명칭이 실크로드이나 교역 품목은 비단 외에 금,은,옥을 위시한 보석제품, 종이와 인쇄술, 나침반, 향료, 양모, 소금, 농산물, 심지어는 운반하기 불편한 자기, 유리제품, 그리고 말과 소를 위시한 가축 등 다양한 품목들이 교역되었다.[5]

실크로드의 경로와 지리적 범위는 단순명료하지 않고 복잡하며 명확히 규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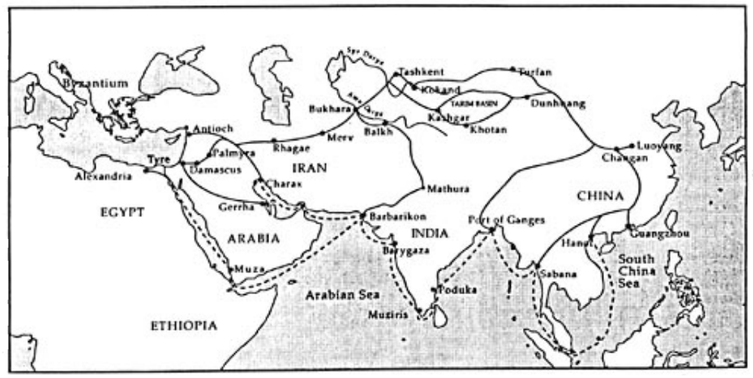
2) D. Christian, "Silk Roads or Steppe Roads? The Silk Roads in World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Vol. 2, No. 1, pp. 1-26.
3) 프랭크는 이미 BC 2000년 경부터 중앙아시아와 중국사이에 상당한 규모의 교역이 행하여졌다고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A. G. Frank and B. K. Gills, *World System* (NewYork: Routledge, 1992).
4) 정수일「씰크로드학」(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40-41쪽.
5) 실크로드를 통한 물자의 교류는 앞의 책, 제 3장 참조.

어려워 개념규정과 분류 방식이 다양하다. 첫째로, 실크로드를 초원로까지 포함하여 크게 초원로, 오아시스로, 해로로 3 가지로 나누어 광의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다.[6] 둘째로,동서 교류로를 크게 3대별 하여 초원로, 실크로드, 그리고 해양로로 나누어 실크로드를 첫째 분류 방식의 오아시스로에 대응시키고 해양로를 제외하는 접근이다. 셋째는 절충으로 실크로드를 오아시스로 중심으로 파악하면서 해양로까지 포함시키는 연구 방식이다.

위의 3가지 접근 방식은 각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어느 분류 방식이 보다 우월하거나 타당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나 본고는 해양로를 제외하고 오아시스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왜냐하면 광의의 분류 방식을 제시한 정수일도 지적하였듯이 오아시르로가 실크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이며[7] 초원로나 해로와는 달리 오랜 역사를 거쳐 지속적으로 이용되어왔기 때문이다. 동쪽으로는 중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앙아시아를 거쳐 서아시아를 지나 동부 지중해와 로마까지 연결되는 실크로드는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오아시스를 지나쳐 일명 오아시스로라 칭한다고 본다면 앞서 지적한 둘째 분류는 별 무리가 없다 하겠다.

그런데, 실크로드 경로는 동서로 뻗은 간선로 외에 유라시아 대륙 곳곳에서 남북으로 물자와 문화를 전파, 교류 시키는 통로도[8] 실크로드 연구에서 소홀히 취급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범위를 압축하기 위해 본고는 남북을 관통하는 5대 지선은 제외하고 동서 오아시스로를 중심으로 실크로드의 경로를 크게 다음과 같이 3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실크로드 동부 지역으로 파미



6) 앞의 책, 35-41쪽.
7) 앞의 책, 46쪽.
8) 앞의 책, 78-80쪽.

르(Pamir Mountains) 고원을 지나 카스가르를 통과하여 동쪽의 타클라마칸 사막(Taklamakan Desert)의 남부 또는 북부 루트를 경유하여 중국의 둔황을 거쳐 장안(서안:Xian)에[9] 이르는 험준하고 머나먼 길이다. 실크로드 동부루트는 중국 통로인데 이를 시안을 출발점으로 하는 서부방향 경로로 설명하면, 시안을 출발하여 둔황을 거쳐 남북으로 실크로드는 나뉘어져 신장 지역내의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 카스가르에서 다시 합류한다.

둘째로, 중앙아시아 지역인데 파미르 고원을 경계로 서쪽에 해당한다. 카스피해 남부까지의 중앙아시아 동부 실크로드는 단일 통로이나 그 서쪽은 남북으로 두 개의 통로로 나뉘는데 북방 통로는 사마르칸드(Samarkand)에 도달하고 남방 통로는 옥서스강(Oxus:지금의 아무다르바강)에 이른다. 특히 박트리아(Bactria:오늘날 아프카니스탄 지역)와 사마르칸드(Samarkand)[10]는 대표적인 중간 집결지로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어 동서 각지에서 모인 여러 인종의 상인들이 상거래를 하였으며 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이 교환되었다.

셋째로, 실크로드 서부지역으로 페르시아를 거쳐 지중해에 도달하여 로마까지 연결되는 동서 교역로이다. 물론 서부 실크로드는 대체로 직접 교역이 아니고 중계무역이나 통과무역 형태의 간접교역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상의 육상통로 외에 지중해와 인도 남부해안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해상 무역로도 넓은 의미의 실크로드에 포함되나[11] 앞서 언급한대로 본고는 육상 실크로드에 국한한다.

실크로드의 형성과 출발

실크로드의 역사는 기원전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나 본격적으로 개척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진나라와 로마 시대로 알려져 있다. 진과 한 왕조(BC 221-AD 220) 기간 중국을 위협하는 외부 민족은 터키어를 사용하는 유목민인 흉노족[12]이었다. 당시 흉노족은 아랄해부터 동몽고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본거지로 하고 수시로 중국을 침략하였으며 진시황은 이에 대비하여 만리장성의 축조를 시작하였다.

진 이후 들어선 한의 우티왕(한무제:BC 140-87)은 흉노에 대항하는 동맹을 추구하여 둔황 지역에 살다 흉노에 쫓겨 서쪽으로 이주해 있던 유목민 월지(越氏:대월지국)와 연합을 시도하였다. 한편 BC 138년에 한무제는 흉노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제의하기 위하여 장첸(장건)을 월지에 사절로 파

9) 장안의 명칭이 시안(西安)으로 변경된 것은 1368년임.
10) 현재 우즈베키스탄 제2의 도시이며 중앙아시아 최고(最古) 도시의 하나이다. 고대 그리스시대에는 마라칸다로 알려졌으며 중국 남북조 시대부터 수 · 당 시대에 걸쳐 강국(康國)이라고 불렸다. 1220년 칭기즈칸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실크로드의 교역기지로 번창하였고 14세기에는 티무르 왕조의 수도가 되었다.
11) 정수일, 위의 책, 52-78쪽.
12) 흉노족의 인종, 언어, 문화적 기원과 특성은 여러 설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나(정수일:181) 대체로 기원전 4세기경 몽골고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마천의 사서(BC 90년) 이래 중국은 흉노를 주변 오랑캐로 폄하하고 있으나 사실, 흉노는 한동안 중국을 위협하는 강대한 세력이었으며 BC 198년 양국 강화조약에서 중국이 황금과 비단을 조공품으로 보낼 것을 약속한 적도 있다.

견하여 실크로드의 개척이 시작되었다. 장건 일행은 둔황에 도달하기전 깐슈성(감숙성)에서 흉노에 사로잡혀 10년 이상 환대 속의 포로 생활을 하였다. 장건은 사명 완수를 위하여 탈출하여 다시 북부 경로를 따라 계속 서진하여 텐산 남부와 카스가르(Kashgar)를 지나 파미르 고원을 넘어 페르가나(Ferghana)에 도달하였다.

장건 일행이 천신 만고 끝에 페르가나에 도착하였으나 월지는 현재의 옥서스(Oxus) 지역인 아무달야(Amu Dar' ya)로 이주하여 유목생활을 청산하고 박트리아를 새 생활터로 만족한 생활을 하면서 흉노에 대한 복수심도 잊고 있었다. 따라서 동맹은 성사되지 못하고 장건은 유에에 1년간 머문 후 중국 귀환의 험난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는 같은 길인 북부 통로를 지나면 흉노의 포로가 될 우려가 있어 남방 루트를 개척하여 파미르 고원을 지나 쿠샤와 체르첸을 지났다. 그러나 타림분지에 도달하기 전 그는 다시 흉노에 잡혀 그들과 1년을 보내다가 탈출하여 BC 126년에야 13년의 탐험을 마치고 한 수도인 장안에 도착했는데 100명 넘는 일행중 자신과 부하 한 명만 돌아왔다.

장건은 실크로드 1차 개척기간 동안(BC138-126) 중앙아시아(페르가나, 부하라, 사마르칸드 등)의 교역, 지리, 문화 등 다방면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알게 되었고 또한 페르시아, 아랍, 로마제국에 관한 이야기도 전해 들어 이에 관한 많은 지식들을 중국에 전파하였다. 또한 한무제는 흉노에 대항하는 동맹 파트너를 다시 물색하기 위해 장건을 다시 한번 서역으로 파견하여 2차 실크로드 탐험이 시작되고(BC 119-115) 장건이 쿠차 서부 지역의 우순(Wusun) 왕국에 도달하였으나 동맹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장건은 다른 사절을 파르티아와 인도를 위시한 여러 왕국에 파견하였다.

파르티아는[13] 중국 사절을 환대하였으며 답례로 후한에 사신을 파견하여 이후 양국은 상업 교역외에 정규적인 외교사절의 왕래가 시작되었다. 이후 중국은 서부 지역과 교역을 활발히 지속하였는데 중국의 비단, 약초, 사치품과 중앙아시아의 소, 가축, 모피, 가죽 등이 교역되고 양배추, 호박, 참깨, 포도 등 농산물이 중국에 유입되었다. 특히 중국은 페르가나의 천마(Ferghana Celestial Horse)[14]라 불리는 뛰어난 말에 큰 관심을 보여 수입하였으며 상업적 목적 외에 동맹 제휴를 위한 서역 정보 수집 목적으로 서역 루트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한대에 들어 중국은 로마와도 간접교역 방식으로 무역을 증대하였으나 서로 직접 교류는 없었으며 후한(AD 25-220)에 들어

13) 파르티아는 고대 이란 왕국(BC247- AD226)으로 카스피해의 남동지방을 본거지로 출발하였으나, 북동 이란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중국과 로마가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중국과 파르티아 사이의 교역로는 실크로드가 되었다. 서아시아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로마와 벌인 전투(BC 53)에서 중국의 비단 옷을 입고 출전한 파르티아 병사를 목격한 로마군이 비단 옷에 놀라 달아났다 전해지고 있다.

14) 장첸이 페르가나에서 경이롭게 본 말로 몸집이 크면서도 빨라 장첸의 보고를 받은 한무제는 흉노에 대항할 기마병 양성을 위해 페르가나에 사절단이나 원정군을 파견하여 구하려 애썼다. 멸종되었지만 실크로드 발굴 그림이나 조각품에 전해지고 있으며 신라의 천마총과도 비교되고 있다.

중동 상인이 해상 루트를 통해 중국에 들어와 로마 황제 마커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의 사절을 사칭한 기록이 남아 있다.[15] 후한 멸망 이후 중국이 수와 당으로 재통일 될 때까지 중국은 외부 민족과 문화에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 실크로드와 교역의 발전을 촉진하였으며 수, 당 대에는 더욱 번창하였다.

실크로드의 발전과 쇠퇴

실크로드는 2,500년을 넘게 동서 문물 교류와 역사전개의 공간 역할을 하여왔는데 크게 개척기, 번영기, 그리고 쇠퇴기의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개척기는 앞서 본대로 기원전 8-7세기에 스키타이가 초원로를 개척한 이후부터 장건이 기원전후 본격적으로 서역로를 개척하고 로마인들이 동방 진출이 시작된 시기이다. 번영기는 중국 비단의 서방 교역이 활발해지고 당나라와 이슬람 제국간의 동서교류가 가속되었으며 이후 일시 축소되다가 몽골제국의 서방 경략으로 재흥하고 16세기 지리상 발견 이후 해상교역의 비중이 증대하기 시작할 때까지이다.[16]

그러나 이러한 시기 구분은 해양로를 비중있게 다룬 관점에서이며 실제로 오아시스로를 중심으로 보면 중국 명왕조 등장 이후 이미 쇠퇴 징후를 보였으며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은 육상로의 쇠퇴를 가속시켰다.

실크로드의 발전

실크로드의 1차 전성기는 한나라가 BC 1세기에 흉노를 격퇴하고 교역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시작되었다. 한나라는 BC 121년 간쑤 회랑(둔황 동부의 작은 분지들)에서 흉노를 몰아내고 서쪽으로 더 나가 타림 분지와 파미르 고원을 넘어 페르가나까지 장악하여 실크로드의 기반을 다졌으며 후한(AD25-220) 이후 남북조 시대에 들어 실크로드는 더욱 번성하였다. 또한 기원후 후한에 쫓겨 초원로를 따라 서방으로 진출한 흉노는 4세기 후반에는 유럽까지 서진하여 발칸 동유럽 지역의 민족대이동을 유

실크로드의 개척기는 앞서 본대로 기원전 8~7세기에 스키타이가 초원로를 개척한 이후부터 장건이 기원전후 본격적으로 서역로를 개척하고 로마인들이 동방 진출이 시작된 시기이다.

15) 후한서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와 중국(한)의 교섭은 베트남을 통해 AD 166년에 시작되었는데 공식 외교사절은 아니고 로마 상인일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정수일, 위의 책, 149쪽.
16) 앞의 책, 37쪽.

발하여 세계사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17] 이 시기는 상품 교역 뿐 아니라 불교 유입(AD 67)을 위시하여 외래 문화가 실크로드를 통해 유입되어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융화, 교류하는 시기였다. 당시 실크로드 주변에는 여러 국가의 군대와 상인 그리고 선교인들로 넘치는 국제도시들이 자치를 행하였으며, 특히 불교의 여러 종파와 조로아스타교, 네스토리안이 사마르칸드와 중국에까지 전파되었다.

실크로드 제 2 전성기는 수(586-618)와 당(618-906)대에 들어 최고조에 달하였다. 당나라 수도 장안(이후 왕조의 서안: Xian)은 여러 지역에서 모인 수 많은 외국인들로 번창하였다. 투르크인, 페르시아인, 인도인, 아랍인, 중앙아시아인 등이 장안의 서부시장 지역에 모여 대규모 장터(bazaar)를 이루어 다양한 품목의 다량 교역이 이루어지고 상당한 수익을 보았다. 당은 세력을 중앙아시아 내부 깊숙이 확장하여 파미르 고원까지 이르렀고 실크로드의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상품 교역 외에 의상, 음악, 오락, 가구 등의 일상 생활문화를 터키와 페르샤 지역과 상호 교류하였다. 상품교역도 품목이 확대되어 상아, 화약, 철물, 및 금속도료, 청동상 등이 100-1000마리의 낙타부대가 이끄는 대상(caravan)에 의하여 이동하였다.

그러나 당의 세력 확장은 751년 트랜스옥사나 북부의 탈라스강 전투에서 이슬람에 패배한 이후 제동이 걸리고 안록산의 난(755-763)으로[18] 내부적 불안이 증대하면서 실크로드도 점차 위축되기 시작하였으며 실크로드는 지형적, 기후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 방치되면 모래 바람과 혹독한 기후로[19] 폐허화 되기 쉬웠다. 당 멸망 이후 송대(960-1279)에는 중국 영토가 대폭 축소되고 주변 여러 민족이 세력을 떨쳤으며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은 약화되어 실크로드 교역도 위축되었다.

몽골과 원(1279-1368) 왕조 시대에 실크로드는 제 3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원 왕조의 정식 출범 이전 몽골 세력이 중국 북서부, 중앙아시아, 중동과 인도 북부 그리고 유럽까지 진출하는 동안 비단 생산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실크로드는 타림분지를 지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번성하였다. 당시 몽골인은 상업을 장려하고 심지어는 잠재적 적대 세력인 인도 지역에 많은 병마들이 카자흐스탄이나, 아프카니스탄을 거쳐 유출되는 것도 묵인하였다.

중국 비단은 이태리까지 도달하였으며 이 기간에 이태리의 마르코 폴로 부자가 몽

17) 유럽에서 게르만족 민족이동을 촉진한 이들은 훈족으로 불리었는데 흑해 연안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인 서고트인이 훈족에 밀려나서 당시 로마 영역이던 발칸 지역을 경유하여 서진하였다. 동유럽 발칸 국가 헝가리의 명칭도 Hun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훈족과 흉노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설도 있다. 앞의 책, 183쪽.

18) 대식국(大食國)으로 불리던 아랍국들은 7세기 중엽부터 중국에 사절을 파견하였으며 양 제국은 우호관계를 지속하였다. 비록 탈라스 전투가 있었으나 양국 관계는 유지되었고 당나라 포로 특히 제지공이나, 장인 화가들은 문화의 서방 전파에 기여하였다. 또한 안록산난 당시 757년 압바스 왕조는 원군을 당에 파견하였으며 일부 잔류 아랍원군은 중국 무슬림의 원조가 되었다. 앞의 책, 156쪽.

19) 대표적인 예로, 실크로드의 타클라마칸(Takalmakan) 사막은 위구르어로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사막으로 겨울 혹한, 여름 혹서 그리고 극심한 모래 바람으로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구간이다.

고를 여행하였으며(1260-70년대)[20] 몽골 왕조는 통상로의 안전 확보와 이슬람 상인 조합까지 후원하는 대대적인 실크로드 교역 지원으로[21] 실크로드는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으며 징기스칸 손자 원 세조는 사마르칸드에 수도를 건설하였다. 이기간에는 생활용품은 주로 단거리 교역으로 이루어졌으나 고가의 사치품은 원거리 무역도 성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실크로드 재흥은 단명한 몽골왕조 기간에 그쳤으며 이후 실크로드는 회복의 길을 다시 들어서지 못하게 되었다. 반면, 초원로는 이후 16세기 후반들어 러시아의 시베리아 진출로 활기를 띄고 모피교역이 활발해져 모피로라 불리기도 하였다.

몽골왕조의 후예인 티무르(재위:1369-1405)[22]는 중앙아시아에 영토를 확장하여 티무르 제국을(1369-1508) 건설하여 일시 실크로드를 부활시켰다. 그는 사마르칸드를 수도로 정하고 사방으로 원정하여 모스크바 부근까지 진군하였고 1398년에는 인도의 델리를 점령하였으며 여세를 몰아 명나라를 정벌하려고 떠났으나 도중 병사하였다.

실크로드의 중요 무대인 중앙아시아가 서양과 접촉한 것은 오래 전으로 추론되고 있으나 문헌 기록에 남기 시작한 것은 BC 5세기의 헤로도토스의 스키타이인에 관한 언급이 최초이다. 중국에 비하여 전래하는 관련 문헌이 희소하여 실크로드 역사 기술이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원전 1500년의 박트리아 지역에서 중국산 비단 유적이 발굴되고 있으며 그밖에 농업, 광업, 야금술의 발전과 교역로와 도시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

실크로드의 쇠퇴와 재발굴

원의 멸망과 명 등장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정치적 혼란과 이슬람의 강성으로 실크로드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명의 고립주의 정책과 해상 무역 치중은 실크로드의 활용 가치를 떨어뜨렸다. 명은 원에 대하여 온건한 유화 정책을 펴고 주변 유목민족에 대해서도 공세적인 정책을 피하고 육상 팽창정책을 자제하였다. 대신, 해상 진출과 경략에 적극 관심을 보여 대형 선단의 항해에 의한 시위 정책을 전개하였다. 명은 1405-33 기간에 경제적 동기나 통상 무역의 용도가 아닌 국력 과시의 수단으로 인도와 아프리카 동부 해안까지 대대적인 함대 순양을 행하였다.[23]

해상루트 개발은 교역 비용이 육상 실크로드보다 싸고 위험도도 낮아 이점이 있

20) 마르코 폴로 부친과 삼촌의 1차 몽골 여행은 외교 목적이었다. 당시 프랑스와 로마 교황청은 이슬람에 대항하기 위한 제휴의 목적으로 몽고에 사절을 파견하였으나 몽골은 제휴를 거절하였다.
21) 실크로드 교역비용이 가장 저렴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인 비용내역은 M. Rossabi, "The Decline of the Central Asian Caravan Trade," in J. Tracy, *The Rise of Merchant Empires* (Cambrid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356-7.
22) 원정 전투에서 오른발을 다쳤기 때문에 '절름발이 티무르' 라고도 하며 유럽인은 Tamerlane이라 불렀다. 사마르칸트에 있는 그의 무덤이 1941년 발굴되어 절름발이를 확인하였다.
23) 중국 항해술과 해상 실크로드의 발전에 관해서는 S. Guangqi, "The Development of Chinese Navigation Technology and of the Maritime Silk Route," in V. Elisseeff. *The Silk Roads?* (New York: Berghahn Books, 2000).

었다. 이에 따라 16세기에 들어서 유라시아 동서 무역은 해상 무역 위주로 재편되었고 유럽이 주도한 일련의 지리상 발견은 이를 더욱 재촉하였다. 기존의 실크로드는 해상 실크로드로 대체되기 시작하였고 해상 교역로는 육상 루트보다 그 공간을 확대하여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부터 동남아, 인도양, 아프리카해, 지중해, 그리고 다뉴브강을 북상해 북부유럽까지 포함하였다.

게다가, 기존의 실크로드는 주변 도시를 유지하는데 척박한 지형과 기후 환경으로 많은 비용이 들었다(특히 타클라마칸 사막과 고비 사막 지역). 또한, 서유럽의 실크 제조 기술의 향상으로[24] 중국 비단의 수요가 감소하여 실크로드 교역은 더욱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실크로드의 쇠퇴는 해상무역로의 등장과 육상통로의 고비용 외에 실크로드 주변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에도 연유하는데[25] 특히 16세기 이후의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쇠퇴는 그 영향이 컸다.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교역에서 핵심지역은 위구르스탄으로 불리기도하는 텐산 산맥 지역, 트랜스옥시나(Transoxiana), 페르시아 도시, 그리고 터키의 상업 중심지역들을 들 수 있는데 16세기 이후 계속된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정치 세력의 불안정은 실크로드의 위축을 가져왔다. 15세기까지 각 지역은 지역 패권세력의 안정적인 관할 하에 있었다. 티무르제국은 투르판(Turfan) 하미(Hami) 그리고 텐산 남부의 실크로드을 안전하게 관리하였으며 트랜스옥시나, 사마르칸드 그리고 페르사아의 도시들을 장악하여 지역 교역의 안전이 유지되었다. 또한 이들은 중국과 통상관계를 지속하여 사마르칸드는 2-3년마다 명 나라에 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 멕카 출신 아랍 상인이 육로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6세기 들어 지역간 패권 다툼이 치열해져 이 지역의 안정적인 정치 질서는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우즈벡 연합 세력은 페르시아 동부를 위협했으며 위그르스탄의 생활거점도 카자흐인의 공세로 불안해지고 카자흐인은 텐산 남부의 실크로드를 약탈하고 투르판을 지배하던 티무르 왕국도 분열, 멸망하였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주변의 정치, 군사 정세가 혼란에 빠져 실크로드 교역은 타격을 받게 되며 중앙아시아와 중국 사이의 대상인과 사절의 왕래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중앙아시아의 불안정과 더불어 중국도 정치, 사회적 혼란을 보여 실크로드의 쇠퇴를 촉진하였다. 이미 명조 말기 1630년대 중국 서북 지역에는 여러 차례 농민 반란이 일어났으며 명을 이은 청(1644-1912)의 등장 이후에도 서북 반란 세력들은 서북지역의 실크로드 요충지인 란주를 압박하였다. 특히 무슬림 반도들은

24) 중국으로부터 6세기 중엽에 비단 제조 기술을 습득한 비잔틴 제국이 10세기 이전부터 이미 비단 생산 능력을 향상시켰다. McNeill, *op.cit.*, p. 419. 일설에 의하면 당시 네스토리우스 사제가 나무 지팡이 속에 누에고치를 비잔티움에 밀반출 하였다 한다. P. Hopkirk, *Foreign Devils on the Silk Roa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 39.

25) 로사비는 명 등장이후 실크로드의 쇠퇴 원인을 해상무역의 발달에서 찾는 종래의 통상 학설을 비판하고 유라시아 실크로드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이 주원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위그르스탄이나 투르판, 하미의 지원을 받아 청을 괴롭혔으며 이에 청 중앙정부는 1650년대에 대대적인 토벌을 단행하였으며 이들 간의 대립 반목으로 교역은 위축되었다.

물론 그런 와중에서도 부분적으로 실크로드 교역은 재개되었고 청의 적극적인 대륙정책으로 실크로드가 부활될 기회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청은 폐쇄적 대외정책을 지속하고 대외 교역의 확대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중앙아시아는 청이 카스카르를 통해 비취옥을 수입하지 않으면 중국은 황폐해질 것이라 생각하여 무역이 절실히 필요한 측은 중국이라 판단하였다. 당시 중앙아시아와 청은 서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청은 오히려 러시아 영토 내로 실크로드를 확장하여 러시아 대상로의 발달이 시작되었다.

실크로드 쇠퇴는 교역 분야만 아니라 불교 유적이나 예술도 크게 훼손되고 쇠퇴하였다. 이는 특히 15세기 이후 이슬람 세력의 실크로드 지역 진출로 가속화되었는데 15세기에 이미 타클라마칸은 전역이 이슬람 지배 하에 들어갔고 지역 주민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였고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무슬림은 많은 사원, 벽화, 조각을 파손하거나 방치하여 많은 문화 유산들이 모래 속에 사라지거나 잠들어 버렸다.

이처럼 실크로드는 과거의 역사로 묻히기 시작하였으나, 20세기에 들어와 유럽의 탐험가들이 연이어 실크로드의 잊혀진 역사를 발굴하였다. 영국 탐험가 오렐 스타인(Aurel Stein) 프랑스 학자 뽈 뻬리오(Paul Pelliot) 스웨덴 고고학자 스벤 헤딘(Sven Hedin)을 위시한 여러 사람들이 둔황(Dunhuang)의 불교석굴과 투르판(Turfan)과 룰란(Loulan)의 대상로(caravan route)를 발굴하였다. 또한 많은 불교 문자와 미술품을 위시한 찬란한 문화유적들이 드러나 실크로드의 문화사적 의의가 부각되었다.

1895년 헤딘은 쿤룬(Kun Lun:崑崙)[26]과 타클라마칸 지역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묻혀있던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를 발굴하였으며 그가 작성한 지도를 보고 스타인은 보다 체계적으로 탐험을 계속하여 둔황 지역에서 마가오 석굴(Magao Grotto)을 찾아내었다. 이 석굴은 1000여개의 불상 석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불교 문화유산이다. 여기에는 불교문자, 실크페인팅, 벽화 등 다양한 예술품들이 보전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량을 대영박불관에 소장하였는데 868년에 제작된 세계 최고의 인쇄 서적인 다아몬드수트라(Diamond Sutra)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품펠리는(Pumpelly) 1904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아나우(Anau)[27]에서 대대적인 발굴을 하여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고고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동투

26) 중국 티베트고원 북쪽과 타림분지 남부에서 동서로 뻗어있는 산맥으로 5,000m를 넘는 높은 봉우리가 많아 극도로 건조하며 추위가 심하다. 중국의 주요 산맥은 대부분이 쿤룬산계에 포함되어 있다.

27) 오아시스 도시인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스하바트(Ashkhabad)에 있는 유적지로 신석기부터 청동기 유물이 모두 출토되어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중앙아시아 전파를 알 수 있는 유적이기도 하다.

르키스탄에 파견한 유적조사반에 의해 위구르[28]의 각종 고문서와 벽화 등이 발굴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구르가 고유 문화를 지니면서 아리아계 원주민의 문화와 동서 문화를 수용하여 복합적이고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위구르(Uighurs)는 동 돌궐의 지배를 받다가 744년 동 돌궐을 멸망시키고 위구르제국을 건설하였으며 당나라 안사의 난을 진압하는 데 협력한 뒤 당나라에 과도한 요구를 내세우면서 그 내정에 간섭하였으며 동투르키스탄으로 진출해온 키르기스의 공격을 받고 840년 제국은 붕괴하였다. 붕괴된 뒤 남쪽으로 내려온 위구르족은 당나라 군대에 의해 토벌되어 쇠퇴하였으며 서쪽으로 패주한 세력 일부는 간저우(甘州), 쑤저우(肅州)에 정착하였다. 서쪽으로 이동한 뒤에는 소그드 문자를 기초로 한 위구르 문자를 갖게 되고, 불교와 네스토리우스교를 믿었으며, 이슬람교 세력의 동진에 따라 이슬람화하였다. 중심세력은 톈산산맥 북쪽과 남쪽을 거점으로 삼아 위구르왕국을 건설하고 동투르키스탄을 지배하였으나 1209년 칭기즈칸 밑에 복속되었다.

실크로드의 교역과 문화교류

실크로드의 형성과 발전은 고대 유라시아 문명권의 교역의 출발과 융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교역로를 둘러싼 도시의 형성 발전 그리고 이에 파생하는 경제, 행정의 발전 그리고 문화교류의 성과를 낳았다. 우선 비단 교역이 중국과 파르티아 사이에 시작되었고 파르티아를 중계지로 하여 중국 비단이 로마에 수출되었다.[29] 실크외에 자기, 모피, 향료, 보석 등 기타 사치품들이 교역품목에 추가되기 시작하였으며 나중에는 중국이 발명한 화약, 종이가 전파되고 중국은 유럽, 아랍,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로부터 금, 은, 화장품, 향수, 상아, 양탄자, 유리제품 등을 수입하였다. 물품 뿐 아니라 시리아의 마술사나 체조 경기인들도 교류하였다.

서역인의 당나라 진출과 문화 교류는 종교 외에 음악, 무용, 미술, 건축 그리고 복식 및 음식 등 생활 문화 더나아가 행정 및 상역업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실크로드는 단순히 상품과 기능인의 교

28) 위구르가 서방으로 이동하자 중앙아시아가 투르크화하였으며 중앙아시아는 투르키스탄(투르크人의 땅이라는 이란어)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동서로 나뉜다. 동투르키스탄은 중국의 신장웨이우얼 자치구를 구성하고, 서투르키스탄은 카자흐스탄 · 키르기스스탄 · 타지키스탄 · 우즈베키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아프가니스탄 등이 포함된다.

29) 중국의 비단 생산은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마가 비단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앞서 언급한 파르티아와의 전투에서 였으며 이후 비단은 로마인이 가장 선호되는 사치품이 되었다. 로마인들의 맹목적인 비단 열풍에 대해 AD 14년 티베리우스 황제(AD 14-37)는 로마 남자가 더 이상 '이런 퇴폐적인 옷' 을 입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으며 플리니우스는(AD 23-79) 자신이 저술한 37권의 백과사전 '박물지' 에서 반라의 비단옷을 걸친 로마 여성이 국가경제를 해치고 있음을 개탄하였다. 초기에는 비단이 일부 특권층에 국한되었으나 점차로 일반 대중과 하층민도 착용하였다.

환 공간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전파 및 교류의 장으로 큰 역할을 하였다. 순례자와 승려들이 이 길을 통과해서 종교를 전파하고, 여러 왕조의 사절들이 행차하고 상인들이 이동하며 교역하면서 각 지역의 문화와 생활 풍습과 이야기를 전달하였으며 간다라 미술의 중국 전래도 실크로드를 통한 것이었다.[30]

불교와 이슬람, 기독교 그리고 마니교, 네스토리우스교, 조로아스타교, 유대교 등이 실크로드를 통해 전파되었으며 철학, 사상, 예술이 실크로드에 따라 흩어져 있는 각 지역들 사이에 교류되었다. 대표적인 지역들은 안티옥(터키와 시리아 국경), 바빌론, 에르제룸(Erzurum:터키 동부), 하마든(Hamadn:이란), 부하라(Bukhara: 우즈벡), 사마르칸드(Samarkand:우즈벡), 카스가르(Kashgar:중국 신장지역)[31] 그리고 장안(Xian) 등이었다.

사마르칸드와 장안에는 마니교 사원이 세워졌으며,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여 유럽에서 이단시된 네스토리우스교는 중앙아시아로 건너와 7세기에 박트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투르크인들을 개종시키고 638년 장안에 교구가 설치되었다. 사산조 페르시아의 국교이던 조로아스타교도[32] 6세기에 사마르칸드에 보급되고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전해져 7세기 초에는 장안에 사원도 세워졌다.

또한, 5세기 중엽이후 사산조 페르시아의 박해를 피해 동부로 이동한 유대교도들은 사마르칸드와 인도에 유대교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이후 8-9세기에는 카스피해 북부와 중국까지 진출하였다. 당나라의 현장법사(602-664)는 인도 불상을 가지러 타클라마칸 북로 실크로드를 통과하였고 641년 많은 경전과 불상을 가지고 돌아올 때는 타클라마칸 남쪽 길을 경유하여 힌두쿠시와 파미르의 두 험로를 넘어 645년 장안으로 돌아왔으며 인도 여행기인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 12권을 저술하였다.

서역인의 당나라 진출과 문화 교류는 종교 외에 음악, 무용, 미술, 건축 그리고 복식 및 음식 등 생활 문화 더나가 행정 및 상역업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33] 631년 동돌궐이 당에 복속된 이후 이주한 서역인 중 강, 안, 조, 미(康,安,曺,米) 서역국 출신은 악기와 무용, 회화에 기량을 보였으며 또한 그들은 한족의 전통문화에 동화되고 성씨도 그대로 출신국명을 따라 강,안,조,미 씨들을 사용하였다. 또한 여러 민족들간의 교류와 혼혈이 성행하였고 문화의 융화는 더욱 촉진되었다. 이백(李白)도 중앙아시아인의 후예이며 당시 가무는 서역풍 일색이었다. 더구나 서역인을 통하여 비잔틴의 무용과 건축양식까지 도

30) McNeill, *op. cit.*, p. 332.
31) 둔황 서부 실크로드는 둔황에서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신장의 카스가르에서 합류한다. 카스가르는파미르고원의 북동쪽 기슭 타림분지 서쪽에 위치하는 오아시스 도시로 톈산남로와 북로가 합류하는 실크로드의 요지이다. BC 2세기부터 실크로드 도시로 출발하여 당의 지배를 거쳐 티무르 왕조의 지배를 받았다. 청대에는 반청 독립운동을 일으켰으며 위구르족을 비롯하여 총 17개의 소수민족 중 웨이우얼족이 76%을 차지한다.
32) 페르시아어로 '자라투스트라' 인 조로아스타가 BC 6세기에 이란의 고대 종교인 마기교(Magi)를 개혁해 창시한 종교로 같은 시기에 출발한 유대교와 교리가 유사하다(메시아, 부활, 최후의 심판, 천국 등).
33) 정수일, 위의 책, 175-178쪽.

입되었으며 의복과 음식, 포도주 등은 페르시아식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그림에서는 특히 중앙아시아식 요철화법이 도입되었으며 건축양식 뿐 아니라 자재도 서역산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서역인의 활동은 당제국 이후 송, 원대에도 지속되었으며 특히 몽골의 서정과 4대 칸국의 건설로 이들의 동방 진출은 더욱 활기를 띄웠다. 원조는 이들과 유럽인을 통틀어 색목인(色目人)이라 통칭하였는데 이에는 24 종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원대에는 대체로 몽골인 다음가는, 따라서 한인(漢人)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으며 특히 중앙아시아 출신의 무슬림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8세기에 이미 사마르칸드와 장안은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 큰 대도시였으며 그 융성은 실크로드의 교역에서 나온 것으로 상업과 문화의 관점에서 실크로드는 세계의 중심이었다. 또한, 실크로드는 물품 교역과 문화 교류 외에 조세행정 그리고 상역 활동 및 금융업무와 기법의 발달을 가져왔다. 또한 종교활동 관리와 형사업무를 위시한 일반 행정까지 담당하는 번방(蕃坊)이 당대부터 시작되어 송,원대에 이르러 더욱 번성하였다. 번방은 당대에는 행정관리 조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송대에서는 대외무역 장려 기능이 우선하였고 아라비아 대식국 상인들이 육로와 해로를 통해 대거 이주하였다.

실크로드 교역은 수익성이 높은 반면 오랜 기간의 길고도 험난한 여정으로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고수익 고위험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과 출발에 앞서 면밀한 비용 계산이(여기에는 수송비, 세금, 보관비, 도적의 공격 대비한 안전 확보 비용 등 제반 경비가 포함) 선행되었다. 그리고 일단 사업 추진의 수익성과 타당성이 평가되면 여행 경비 자금의 조달을 위한 금융업(이자 계산)의 발전을 가져왔다. 또한, 실크로드를 관할하는 지역 정부들은 수비대 운영 비용과 통과료나 관세 형태의 재정 수입의 증대를 도모하였다. 예로 신장의 지아오에와 가오챵은 실크로드를 보호하는 거점 오아시스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통과하는 상인에게 조세를 부과하였다.

동서문화교류에서 천문, 지리, 의학 분야도 빠질 수 없다.[34] 천문과 점성, 역술은 중국, 인도, 아랍 지역에서 발전하였는데 이들은 서로 교류하였다. 특히 인도 점성술이 중앙아시아 소그디아나를 경유하여 동진하였으며 원, 명대에 이르러 중국과 아랍-이슬람 간에 천문학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명초에는 원조에 봉직하던 무슬림 천문학자들을 기용하여 역법의 개편과 이슬람 역서의 번역을 완료하였다. 중세 전반에 걸쳐 중국의 지도제작 기술은 가장 앞서 아랍과 유럽에 영향을 미쳤으며 마테오 리치도 이를 참조하여 중국 지도를 완성하였다. 고대 인도 의학은 중국 당대에 들어 7세기 중엽에 본격 소개되었으며 당태종은 인도의 장생술사에 장생불로의 약을 제조하

34) 앞의 책, 331-345쪽.

도록 명하였다. 또한 서역제국은 당나라에 약초들을 진공하였고 이슬람 의학과 약품들도 중국에 전파되었다. 10세기초 중국 의학자가 바그다드에 가서 이슬람 의학을 연수하고 그리스 의서 16권을 베껴서 중국에 가져왔다고 전해지고 있다.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교류에서 주목되고 거론되어야 할 것은 중앙아시아 투르크족의 이슬람 수용 과정이다.[35]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투르크족은 7세기 중엽부터 동진하는 이슬람 문명에 접하기 시작하여 10세기에 이르러 수용하는데 그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이슬람군의 동점에서 시작되는데 부하라(709), 페르가나(713)의 공략을 위시하여 715년 트란스오사냐 전역까지 장악하였는데 당시 토착 투르크인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그러나 압바스왕조 이슬람 제국은 적극적인 교역사업을 추진하여 투르크인들 사이에 8세기 중엽부터 이슬람은 전파되기 시작하였다(제 2단계). 압바스조는 개종 투르크인들에게 과세상의 특혜를 주고 요직에 기용하기도 하였다. 이슬람 전파와 문물 교역은 동시에 상호 영향을 미치며 진행되었으며 압바스조의 옷감, 곡물, 금속공예품과 투르크족의 가축, 모피, 노예들이 교역되었다.

이슬람이 중앙아 전역에 확산되는 제 3단계는 10-14세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기마민족이던 투르크인은 오아시스 농경지를 점령하면 집단 이주 정착하여 국가 행정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를 투르크화 이슬람화하였다. 10세기에는 발칸반도의 투르크족인 불가르 왕국도 이슬람을 수용하였으며 1299년 출범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이슬람의 수호자이자 동시에 강력한 전파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발칸 지역을 장악하고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하였다.

실크로드 관련지역이나 국가들의 경제교류와 개발 및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철도, 도로망 건설과 가스-석유 파이프라인 건설이 제2의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맺는말: 실크로드의 재조명

실크로드는 동서 문화가 교류하는 통로였으며 유라시아 지역의 고대,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온 세계화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실크로드의 위상과 의의는 현재 중동,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에 걸쳐 새롭게 재조명되고 부흥의 프로젝트들이 추진되

35) 앞의 책, 179-181쪽.

고 있다. 우선, 문화 유적지의 발굴이 계속되고 있으며 동서양을 잇는 문화교류의 이벤트나 학술행사가 실크로드라는 이름아래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19세기말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실크로드 유적 탐사는 현재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받고 있다. 1992년 중국정부는 외국 고고학자의 중국 방문 탐사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과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새로운 유적들을 발굴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신장 지역 발굴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며 아직도 많은 유물들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 도서관은 '국제둔황 프로젝트(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 을 기획하여 실크로드 유물의 최대 보고인 둔황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웹사이트(http://idp.bl.uk)를 운영하고 있다. 유네스코도 '문화간 대화' 라는 주제에 주안점을 두어 실크로드 종합연구 10년 프로젝트를 1988년부터 착수하여 3권의 '중앙아시아 문화사' 를 발간하였다.[36] 유물 발굴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며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것은 도굴과 밀매로부터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고 위조,모작을 가려내는 전문기술의 확보이다.[37]

또한 실크로드 관련지역이나 국가들의 경제교류와 개발 및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철도, 도로망 건설과 가스-석유 파이프라인 건설이 제2의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카스가르까지 카라코럼(Karakoram) 고속도로를 건설했으며[38] 카스가르에서 1999년에 쿠하철도도 개통되었다. 또한 내륙국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파키스탄이나 이란 등을 통하는 해양루트나 다른 철도망을 정비하여 터키나 중국 등 인접국가로의 수송로를 확보할 필요에 따라 제2실크로드라 불리는 유라시아 간선철도가 이스탄불에서 북경까지의 1만 5천km가 계획되어 있으며 1992년 중앙아시아 경제협력기구 ECO 정상회의에서 철도계획이 승인되었다. 또한 이 회의에서 이란 경유 가스 석유 파이프라인 건설등 역내 경제 현안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아타와 중국 신장[39] 수도 우루무치를 연결하는 1300km 철도건설에 합의하였으며 그 중 460km가 건설되어 1992년 6월부터 철도 운행이 시작되었다. 또한, 리펑 중국 총리는 1994년 4월 중앙아시아 4국을 방문하여 투르크메니스탄과 신 철도 건설을 협의하였고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을 연결하는 200억 달러 소요 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

36) Elisseeff, *op. cit.*, pp. 14-15.

37) 위조 기술도 판별 기술 못지않게 발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열 루미네센스 측정법에 맞서 고대 도기 파편을 갈아 만든 가루로 도자기를 위조하고 있다.

38) 험준한 800km를 완공하는데 20년(1959~78) 걸렸다. 줍고 가파른 이 길을 따라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정복에 나섰고, 당나라 현장법사와 통일신라 혜초 스님이 인도를 가던 실크로드이다. 카라코럼은 타림분지로 흘러드는 내륙 하천과 인도양으로 흐르는 강 유역들을 나누는 분수령이며 카라코럼 고개는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 지역이기도 하다.

39) 신장은 실크로드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알라스카와 비슷한 면적으로 중국 영토의 1/6을 차지하고 상당량의 금, 석탄, 주석 등 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석유 탐사도 진행 중이다.

〈참고 문헌〉

정수일, 「씰크로드학」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1).

L. Boulnois, (1966) *The Silk Road* (New York: E.P.Dutton, 1996).

D. Christian, "Silk Roads or Steppe Roads? The Silk Roads in World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Vol. 2, No. 1.

B. De Cordier, "The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towards a new silk road on the ruins of the Cold War?" *Central Asian Survey*, Vol. 15.

V. Elisseeff, *The Silk Roads?: Highways of Culture and Commerce.*(New York: Berghahn Books, 2000).

A. G. Frank, *The Centrality of Central Asia* (Amsterdam: VU University Press, 1992).

A. G. Frank, and B. K. Gills, *World System* (New York: Routledge, 1992).

Franck I. Brownstone, *Silk Road : A History* (New York: Facts on File, 1986).

R. Frye, *The Heritage of Central Asia*(Princeton: Markus Wiener Publishers, 1996).

S. Guangqi, "The Development of Chinese Navigation Technology and of the Maritime Silk Route," in Elisseeff, *The Silk Road?: Highways of Culture and Commerce* (New York: Berghahn Books, 2000).

R. Hayashi, *The Silk Road and The Shoso-in* (New York: Weatherhill, 1975).

P. Hopkirk, *Foreign Devils on the Silk Roa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J. Larsen, *Silk Road* (New York: H. Holt, 1989).

W. H. McNeill, *The Rise of the West* (Chicago: University Chicago Press, 1963).

_____(1998) "World History and the Rise and Fall of the West," *Journal of World History,* Vol. 9.

J. Tracy, *The Rise of Merchant Empir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Whitfield,S.(1999). Life along the Silk Road. 김석희(역), 실크로드 이야기. 서울:이산,2001.

website

Gonzales, R. "The Geography of the Silk Road" http://www.humboldt.edu/~geog309i/ideas/raysilk.html

Nordbye, M. "The Oriental Silk Road" http://www.worldandi.com/public/2002/april/silkroad.html

Waugh,D.C. "A Sven Hedin Bibliography" http://www.silk-road.com/bibliography/hedinb3.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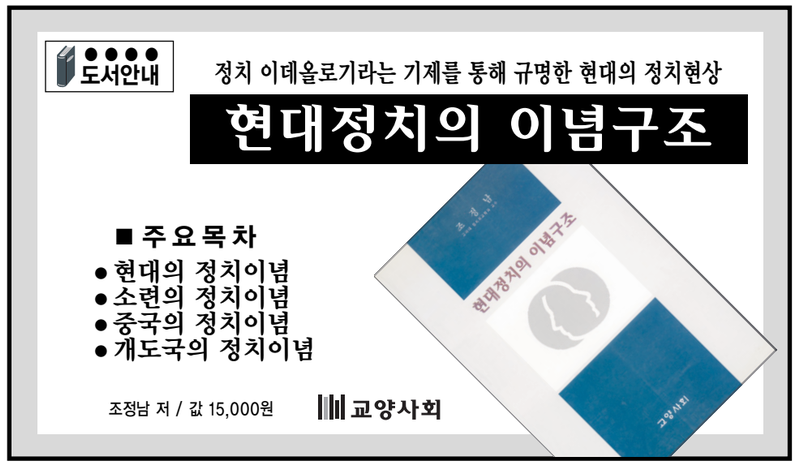
Wild, O. "The Silk Road" http://sunsite.nus.edu.sg/mw/iss04/silk.html

"The 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 http://idp.bl.uk

"The Silk Road-A Brief History" http://www.theorientalcaravan.com/pages/Silk_Road_History.ht

m“Silk Road Chronology” http://www.ama.pp.fi/silk_road_chronology.htm
http://www.silk-road.com/
http://score.rims.k12.ca.us/activity/silkroad/
http://www.worldandi.com/public/2002/april/silkroad.html
http://www.askasia.org/teachers/Instructional_Resources/FEATURES/SilkRoad/Intro.htm
http://www.newton.mec.edu/Angier/DimSum/Silk%20Road%20Lesson.html
http://www.ancientroute.com/SilkRoad.htm
http://www.askasia.org/teachers/Instructional_Resources/FEATURES/SilkRoad/HistoryESSAY.htm

* 투고일: 2006. 6. 24. / 심사일: 2006.7. 21. / 심사완료일: 2006. 8. 11.



논 단

역대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그 대안

최 종 호

고려대학 정치학

choipdll@naver.com

서론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에 있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국가경쟁력의 한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특히 세계화 시대, 21세기를 맞이한 현재, 재외동포의 역할, 권리등이 한국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세계화에 물결 속에서 재외동포 및 디아스포라 (diaspora)[1] 문제는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수가 남북한 통합인구의 9%에 달하는 660만 명인 한국의 경우는 이 이슈가 매우 중대한 목표가 되고 있다.[2]

전 세계 각국은 적극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능동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화교자본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폈으며 일본 역시 외국적 동포(日係人)들과 그 직계 비속들

1) 디아스포라(diaspora)는 민족분산, 민족이산으로 번역된다. Korean Diaspora는 "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 세계여러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한민족 분산"으로 정의될 수 있다.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4-8쪽.

2)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이주과 통계자료 (www.mofat.go.kr).

의 국내입국과 체류활동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서 전 세계 일본인들의 네트워크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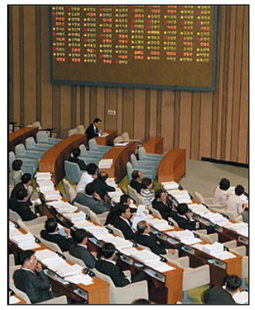
한국도 90년대 들어 탈냉전과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재외동포가 한국의 국익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자각이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적을 더욱더 뚜렷하게 하고 있다.

을 수립하라는 것이고, 대내적 측면에서는 한반도의 좁은 틀을 벗어나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는 재외동포들을 우리의 잠재적 국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정치와 경제영역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 4대 강국에 재외동포가 절대 다수가 진출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적주의를 채택해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로 나누고 또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재외동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너무나도 근래의 일이고 현재에도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 속에서 실제로 한국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세계화가 야기한 민족환경의 변화와 대내적으로는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인해 재외동포 정책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특히 한국이 대외적인 측면에서 요구받는 것은 세계화가 수반하는 민족환경의 변화가 한국정부에게 자국으로 이주한 타민족 및 해외로 이주한 자국 동포들에 대한 더 깊은 관심과 변화에 알맞는 새로운 정책

만큼 한국은 민족 생존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각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법무부와 외교부의 주도로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이후 재외동포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최근에야 시작된 재외동포 정책의 올바른 정립 움직임은 정부의 재외동포사업이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

3) 황신용,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 분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2005, 1쪽.
4) 한명숙, "재외동포 정책 이대로 좋은가," 2004 한명숙 의원실 정책자료집.

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 수립 조정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4)]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한국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이 한국의 성장 동력 확보와 전 세계 재외동포들 간의 민족적 유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재외동포와 관련된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들을 살펴보고 이들의 문제점을 중국, 일본등과 비교하면서 제시하면서 한국 재외동포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외동포의 개념 및 현황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정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내릴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혈족에 대한 정의를 해외동포, 재외동포, 재외교포, 재외국민, 교민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개념이 법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재외동포를 호칭하는 것이 제각기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에 따르면 헌법의 재외국민이란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간 외국에서 체류하며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반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적주의를 채택해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로 나누고 있다. 또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혈통주의를 채택하여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자들을 모두 재외동포로 포함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외동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재외동포 재단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혈통주의에 기반한 재외동포라는 용어가 적합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유는 앞으로의 재외동포정책이 남북한과 전 세계 재외동포를 포함한 민족통합을 추구하고자 할 때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재외동포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5)]

본 논문에서도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와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우리민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개념에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의 한인, 무국적의 한인 등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

한국의 재외동포 현황

한국은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이태리 다음으로 많은 재외동포를 가지고 있는 나라

5) 재외동포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광규 「재외동포 정책의 새로운 모색」 (서울: 재외동포재단, 2004), 황신용, 앞의 논문; 장태한, "해외동포정책과 재미한인사회의 역할," 「교포정책자료」 제65집을 참조하였다.

〈표-1〉 한국의 재외동포 현황

지역별	시민권자	영주권자	체류별		총계
			일반	유학생	
아주지역	2,471,850	554,787	473,621	90,423	3,590,411
일본	① 284,840	515,570	82,666	18,208	901,284
중국	2,153,198 ② (1,923,800)	2,466	253,212	30,519	2,439,395
기타	33,542	36,751	137,743	41,696	249,732
미주지역	776,559	1,132,569	376,135	107,565	2,392,828
미국	679,212	986,240	335,135	86,288	2,087,496
캐나다	86,084	72,077	19,271	20,738	198,170
중남미	11,263	74,252	21,108	539	107,162
구주지역	534,522	20,153	45,309	40,292	640,276
독립국가연합	523,729	258	6,459	2,251	532,697
유럽	10,793	19,895	38,850	38,041	107,579
중동지역	39	169	6,559	156	6,923
아프리카지역	73	532	6,604	691	7,900
총계	3,782,773	1,708,210	908,228	239,127	6,638,338

* ① 재일동포 귀화자 총수(1952~2004년, 조선족 포함) : 일본 법무성 통계.
② 2000년도 중국 전국 인구조사상의 조선족(중국 국적) 총수.

이다. 한국의 재외동포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1월 1일 현재 세계 175개국에 6,638,338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2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하여 중국 29만 4천여명, 캐나다 2만 8천여명, 호주 2만 4천여명, 베트남 1만 여명, 필리핀 8천 9백 여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 인구는 남북한 총 인구 7천만명의 9%의 해당하는 큰 규모인데 지역적인 분포를 살펴보면 중국(243만명), 미국(208만명), 일본(90만명), 독립국가연합(53만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재외 동포 인구의 90%가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6]

역대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재외동포가 무려 남북한 총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지만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배려는 매우 미약했다. 대부분의 학자나 재외동포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다. 장태한은 1990년대 이전까지의 역대 한국정부는 재외동포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으며, 독재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필요시에만 사용하는 존재로만 여겨졌기

6)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이주과 통계자료 (www.mofat.go.kr).

때문에 구체적인 재외동포 정책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고 다만 탄압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주장하고 있다.[7)]

장태한에 따르면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이유로 첫째, 단일민족의 우수한을 중요하게 가르쳐온 한국의 폐쇄적 민족주의 관은 재외동포를 1960-1970년대 한국이 가난과 빈곤인 상황일 때 자신들만 잘살아 보겠다고 떠난 사람들로서 '반 애국자' 로 낙인을 찍었다는 것이며,

둘째, 한국의 국내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외동포 문제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고성장 정책을 추구하면서 온 국민에게 절약과 저출을 장려했고 한국인들의 해외 이주를 억제한 1970년대 상황에서 재외동포정책이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광규도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무관심, 몰이해, 무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정부는 동포를 불신하고 비관적으로 봐왔고 동포 역시 한국에 대하여 불신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왔다고 설명하고 있다.[8)] 특히 이광규는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기민정책 시기, 현지화정책 시기로 나누면서 역대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광규의 시기분류를 좀더 세밀화 하여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정책으로 각각의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겠다.

이승만 정부–기민정책의 시작

제2차 세계 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미국과 소련간에 형성된 냉전의 영향으로 한반도 남쪽에 단독정부가 수립되었고,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소련과 중국의 동포들의 귀국은 더욱 힘들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형성초기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일동포의 문제로 국한되어지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당시 재일동포 문제의 경우 해방 후 국내정세 혼란 및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급급한 나머지 재외동포 문제는 거의 신경을 쓸 수 없었던 상황에서 재일동포의 모국방문을 상당기간 봉쇄했다. 1955년 일본에서 친북단체로 총련이 설립되자 당분간 전체 재일동포의 한국방문을 금지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한국은 건국 초기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특히 초대대통령인 이승만은 반공과 반일을 국시로 하여 일본을 증오하였으며, 일본에 거주하는 동포도 증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민정책(棄民政策)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7) 장태한, 위의 글, 9쪽.
8) 이광규, 위의 책, 13쪽.

박정희 정부–기민정책의 심화와 해외진출 장려정책

1961년 출범한 박정희 정부는 "해외이주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해외 진출 장려정책을 전개했다. 이 정책은 국내의 과잉인구와 실업문제를 해외이민으로 해결하고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주자 송출에 주력했다. 한편, 박정희 정부는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집행을 위한 외자가 필요했고 일본과 조속히 국교를 수립하여 자립경제를 수립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듯 국내에 있는 국민을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해외이주를 장려한 것이 바로 해외진출 장려정책이다.

반면 재일동포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민정책이 취해졌다. 결정적으로 1965년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한일조약에서 재일동포에 법적 지위에 대한 사항이 정해졌는데 이를 협정영주권 제도라고 한다. 재일동포가 소정의 양식에 따라 등록을 하면 일본은 엄밀한 심사를 통하여 협정영주권을 주는 것이다. 이 조항이 한일조약 이전에 일본정부가 취한 재일동포 정책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일협정 당시 재일동포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재일동포들은 한일조약에서 5억불의 유상, 무상의 원조금을 받고 재일동포를 일본에 판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전두환 정부–현지화 정책

1981년 출범한 전두환 정부는 경제성장을 통해 북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재외동포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 재외동포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자 적극적인 재외동포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에 재외동포에 관해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재외국민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어 노태우 정부가 들어설 무렵인 1987년 개헌시기에는 이 재외국민조항을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 시기 교민정책은 현지화 정책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것은 해외로 이주한 한인들이 가능한 한 빠른시일내에 현지에 적응하고 나아가 거주국의 모범적인 시민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정책을 말한다.[9] 그러나 현지화 정책에는 현지화를 돕는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으나 한편 이민간 사람이 본국에 관심을 갖지 말고 빨리 조국을 잊어버리라는 부정적 의미[10]도 포함되어 있다. 말하자면, 재외동포를 부담스러운 짐으로 생각하여 현지화를 추구하는 것이 현지화 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이다.

정부가 현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해

9) 이광규, 위의 책, 14-15쪽.

외로 이주하는 이주자에게 이주비용을 극소화하는 것이나 이주 후 한국에서의 법적 지위가 없는 것이며 현지에서 재외동포들이 한국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불필요한 간섭으로 여기는 것 등이 모두 현지화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요소이다.

김영삼 정부–신교포정책으로 가려진 현지화 정책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우리의 국제위상 제고와 탈냉전 추세에 부응한 '신교포정책'을 발표하였고, 이는 본격적인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정책은 교포들이 본국에 정신적 뿌리를 두면서도 거주국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교포의 세계시민화'를 추구하는 한편 본국과 거주국간 교류증진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는데 기본 목표를 두었다.

김영삼 정부는 교민청 신설, 이중국적 허용, 재외동포의 국내재산권 행사, 재외동포재단 등의 설립 등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부분적으로 실현시키는 등 과거 정부와 달리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동포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제도적으로 청와대에 교민담당 비서관을 두고 재회동포사회 활성화 지원방안을 세계화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재외동포정책의 기조를 명문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1997년에는 재외동포재단법을 제정하고 1997년 10월에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였다. 김영삼 정부에 와서 비로소 재외동포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는 이후 현재 재외동포법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에서는 현지화 정책을 고수하고자 했고 이는 법과 제도만을 부분손질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신교포 정책이란 과거 군사정권 시절 현지화 정책을 가리려는 것과 같았다.

임시여행증명서 신청과정에서 한국공관 관계자들이 '한국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요구하거나 무국적 유지 사유서를 제출케 함으로서 한국 입국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재외동포법의 제정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재외동포 정책에서는 이전 김영삼 정부와 비슷한 재외동포정책을 표명하였다. 김

10) 현지화 정책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부정적인 측면은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구홍 소장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구홍 소장은 2001년에 열린 해외동포문제 전문가 대토론회에서 김영삼 정부 초기 외무부에서 재외국민정책 심의 위원회를 소집하여 당시 외무부차관이던 홍순영 위원장이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는 정부의 정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포들을 정권 안보적인 차원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 불필요한 간섭, 지나친 관심을 폈다 문민정부에서는 그러한 정통성 시비가 없기 때문에 교포에 대한 새정책은 관심을 안두는 정책, 관계를 안 갖는 정책으로 가져가야 겠다"고 발언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정확한 현지화 정책의 본질이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황신용, 위의 논문, 68쪽.

대중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는 첫째, 거주국내의 안정적 생활영위와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둘째, 한민족으로서 정체성 유지와 모국과의 유대강화를 지원하며, 국가 발전에의 재외동포 역량 활용을 내세웠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재외동포 특례법"을 통해 외국국적 소지의 재외동포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출입국과 체류 국내정치 경제활동에서 차별이 없게 하는 전향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법안은 국내 노동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와 중국과 CIS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는 외교통상부의 반대에 부딪혀 적용대상이 축소되었다.[11] 김대중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재외동포에 대한 의식 함양속에서 새로운 재외동포 상의 정립을 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으나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 정부의 우려는 여전히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에 혼선을 주었다.

노무현 정부-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한 재외동포정책

노무현 정부는 국정이념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족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로 내세웠다. 하지만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2004년 11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한상 네트워크등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 구체화 되지는 않고 있지만 구상 자체로는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교민청의 신설 등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이 정부부처, 국회간의 의견대립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건국초기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기민정책, 현지화 정책, 신교포 정책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여전히 재외동포를 포용하기에는 모자란 점이 많이 발견된다.

특히 전두환 정권 이후부터 비록 현지화 정책을 실현하고 재외동포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려는 법을 제정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왔으나 현재까지 한국의 통치자나 정치인들이 재외동포를 만나 약속한 교민정책을 실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심지어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교민우대정책이나 교민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실현되지 못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교민청 신설을 대선후보시절 공양으로 내걸었으나 교민청에 못 미치는 재외동포 재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교민청을 약속하고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11) 한명숙, 위의 글, 4쪽.

〈표-2〉 노무현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본목표 및 방향 설정 [12)]

	내 용
기본 목표	○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 신장과 역량강화. ○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 재외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사회간 호혜적 발전.
정책 방향	○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조노력 지원. ○ 거주국 내에서의 법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보호 지원. ○ 모국과의 유대증진을 위한 국내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 한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한 문화교류지원. ○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 모국과 거주국간 우호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
재외동포정책의 지역별 특화 및 전문화	○ 국가 이념과 체제, 이민형성과정, 소수민족 정책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특수성에 맞는 재외동포 정책 운용 필요. - 미국: 현지사회 안정적 정착 및 지역사회기여 확대. - 일본 : 법적지위 향상 및 민족교육 강화. - 중국: 비정치 분야(경제, 교육, 문화 분야)교류증진. - 러시아: 한국어보급, 전통문화 및 민족교륙을 통한 동질성 회복 .

지위에 관한 법" 뿐이다.

재외동포법은 1948년 이전에 출국한 재중동포와 독립국가연합 동포를 동포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과오를 범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결을 받아 2004년 16대 국회가 끝나는 순간에 1948년 이전에 한국을 떠난 동포도 겨우 동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조문 한 줄만을 수정하고 끝냈다. 이런 가운데 재외동포들과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재외동포법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이를 다음 장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

1999년 국민의 정부시절 법무부와 외교부의 주도로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외국국적 동포들을 재외동포 정의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2001년 헌법재판소는 이를 평등권 침해로 보고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즉 재외 한민족 동포의 범위를 1948년 이후의 국외 이주자로 보려고 했던 정부당국의 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만 재중동포와 55만 CIS 동포의 역사적 실체를 부정했다고 평가를 내린 것이다. 2004년 3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라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재외동포정의 규정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여부를 동포분류의 기준으로

12) 외교통상부, 국회제출자료, 2005년 5월 18일.

〈표-3〉 2004년 3월 개정된 재외동포법의 정의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재외국민).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회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외국국적동포).

삼는 과거국적주의를 유지함으로서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에 국외로 이주하였지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를 동포로 인정한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13)]

이러한 '과거 국적주의'에 대해 정부당국은 일제시대의 호적 등 입증 가능한 기록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는 194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948년 정부수립 이전까지 소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재외동포법 제2조의 문제점은 러시아와 중국으로의 한인이주가 18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조선족과 CIS 동포의 상당수는 호적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설령 1992년 호적제도 실시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로 이주한 한인들의 경우라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 일제시대의 호적등재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 이주 동포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상위법인 재외 통포법이 대다수 중국 조선족과 CIS에 있는 재외동포를 명목상으로만 포함시켰고 또한 개정된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범위를 직계비속 2대로 한정함으로써 재외동포 범위의 포함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1860년대부터 시작된 러시아 중국으로의 이주사를 감안할 때, 3세대부터 5세대 후손들을 정책대상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두 번째로 개정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은 재외국민 이외의 재외동포의 기준을 외국국적 취득 여부에 둠으로써 해방 이전 일본으로 이주하여 아직까지 귀화를 거부하고 있는 최대 20만명에 달하는 조선적 재일동포를 배제하고 있다. 외국국적 취득 여부를 재외동포의 정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조선적 동포를 비롯한 무국적 동포들을 정책대상에서 배제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무국적 동포들에 대해 거주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이들의 국내입국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이런 설명과는 달리 조선적 동포사회에서는 임시여행증명서 신청과정에서

13) 한명숙, 위의 글, 6쪽.

한국공관 관계자들이 '한국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요구하거나 무국적 유지 사유서를 제출케 함으로서 한국입국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재외동포 정책의 법적 제도적 기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경우가 유력하게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1990년 귀교교권권익보호법(歸僑僑眷權益保護法)을 제정하여 귀국화교에 대해 특별한 우대조치를 취하여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화교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고 이들의 전문성과 자본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펴왔다.

중국은 화교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무원에 교무판공실(僑務辦公室)에 두고 그 밖에 중화 전국화교연합회, 전국인민대표대회 화교위원회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화교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며 민주당파의 일원으로 중국치공당(中國致公黨)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제화교협회, 세계화상대회, 아시아화교네트워크 등 해외 화교 단체를 통해 중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통일을 위해 화교세력을 동원하였다.

1990년대에는 중화경제권이 급부상하게 되고 중국 국무원은 1990년 8월 화교와 홍콩 마카오 동포투자를 격려하기 위한 규정을 반포 실시하여 해외화교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해외화인들에게 각종혜택과 투자 보호규정을 두고 화교 및 해외 화인의 해외관계를 적극 이용하였다. 90년대에 걸쳐 중국의 전체 외자도입 중 홍콩 및 마카오의 자본이 7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14)]

일본의 재외동포정책

일본 정부는 모든 일계인(日係人)을 외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들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특별한 법적, 제도적 특혜를 부여하기보다는 외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원칙 하에 다소간 편의를 봐주거나 비공식적 특혜를 주었다. 사업추진도 공식적인 정부의 채널을 통해 실행하기보다는 대부분 민간단체와 같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추진하였다.

일본정부가 국내의 일계인에 대해 제공하는 비공식적인 특혜는 첫째, 외국국적을 소유한 일계인의 경우 모두 외국인과 같이 출입국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일계 3세까지는 일본 내에 거주할 때 자유롭게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 편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들이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경우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체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둘째, 일본정부는 일계인의 경우 일본 국내 재산 보유권과 행사권에 있어서 외국인과 동일

14) 최우길 "재중동포정책 어떻게 잘 펼 것인가: 조선족사회의 현황, 중국의 민족정책, 우리의 선택," 국회 재외동포연구회,「21세기 재외동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서울: 국회 재외동포연구회, 2004), 18-19쪽.

한 취급을 받지만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외국인보다 우선적인 편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일본국내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나 미국, 브라질 등 속지주의의 국가에서 태어나 자연적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되는 일본인일 경우 만 20-22세 사이에 어느 한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일본정부는 일계인과 일본의 지나친 유대강화로 빚어질 수도 있는 현지국가와의 외교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계인 관련 교류와 지원업무를 되도록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것을 묵시적인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15)]

언어를 통하여 민족 정체성을 갖는 것이며 다민족 국가에서는 자기의 모국에 대한 긍정적인 민족정체성을 갖는 사람이 거주국의 적극적인 국민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바람직한 재외동포 정책 방향

포용정책의 실시

일부학자들은 이런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한국은 해외 동포의 수도 증가하였으며 모든 나라가 자기의 해외동포를 보호하고 이들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현지화 정책이라는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안되고 재외동포를 한민족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포용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포용정책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데 하나는 이주 초기부터 적극 지원하는 이민정책이고, 둘째는 현지화한 동포를 보호하는 정책이며, 셋째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한민족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활용하는 정책을 말한다.

포용정책은 동포의 이주 초기부터 이민업무를 담당하여 적극적으로 이주자를 후원하는 정책 등 해외거주 한민족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포용정책은 현지화 정책보다 적극적으로 동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이 거주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이를 보호하고, 인권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대변하여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지화 정책과 포용정책이 다른 점은 보다많은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지화 정책에서는 2세 이하의 동포후손은 배제되게 되고, 특히 국제결혼한 여자와 그의 자녀 그리고 입양인은 현지화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15) 앞의 글, 19쪽.

보호정책에서는 동포 2세 이하 수대가 지나도 한국계 사람이라면 동포로서 보호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포용정책이 포함하고 있는 두 번째 대상은 국제결혼한 사람의 가족과 입양인 가족이다. 국제 결혼한 여자를 한인들은 도외시하고 그들의 가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국제 결혼한 남편과 그의 자녀는 한국인의 혈통을 이은 사람이기에 한인동포로 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에서 포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한국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를 당연시한다면 한국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자도 한국인으로 포용하여야 하고 이들의 자녀는 더욱이 한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포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세번째 대상은 한국 어린이를 입양한 부모들이다. 이들은 국제결혼한 사람과 달리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이들 입양아 부모들을 친한파 인사로 포용하는 작업도 필요하다.[16]

포용정책은 한민족의 일원으로 한민족 전체를 위하여 그들의 능력과 재력 등을 활용한다는 뜻이다. 이런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들에게 민족교육을 장려해야 한다고 한다. 언어를 통하여 민족 정체성을 갖는 것이며 다민족 국가에서는 자기의 모국에 대한 긍정적인 민족정체성을 갖는 사람이 거주국의 적극적인 국민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재외동포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2005년 9월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외국국적 동포를 국내법으로 포용하는 것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며 외국국적 동포와 여타 외국 국적자 간의 차별적 대우로 인하여 국제 인권협약에 위배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를 국내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국제법상 위반이라는 법원칙이 없으며 실제로 많은 나라(중국, 이스라엘, 독일, 그리스,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러시아, 헝가리)가 국내법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여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있다.

21세기의 재외동포 정책

참여정부 들어 재외동포에 대한 내외적 관심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지 및 대안모색들의 논의들이 활발해 지고 있다.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2003년 개정에 이르기까지 한동안 재외동포의 법적 근거 마련에 몰입하였던 일련의 시기들을 둘러싼 논쟁들은 그동안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었던 재외동포들이 우리사회의 주요분야에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17]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정책은 현지사회의 안정적 정착과 민족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보존, 제고하기 위한 모국 동포 사회간 유대관계 강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참여정부는 재외동포의 주요 정책방향을 이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16) 이광규, 위의 책, 16-18쪽.

첫째,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권익신장과 역량강화로서,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사회내에서 법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법과 국내법 및 거주국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재외동포들 스스로의 자조 노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되, 거주국에서 차별받지 않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권익을 보호 신장하는 제반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외교적 측면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하는 것인데 동포들이 자신들의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또 하나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재외동포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한민족으로의 정체성을 유지, 회복할 수 있도록 언어, 전통,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활동을 지원코자 하며, 그러한 지원이 안정적 틀 속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강화를 도모할 것이다.

셋째, 동포간 화합 및 모국과 동포 사회간 호혜적 발전인데 이는 재외동포 경제 단체의 결속강화와 재외동포 기업인들의 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설립하고 현재 추진하는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계획 추진과정에서도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적극 포용해 나간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정책의 나아갈 방향

중국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과 활용을 보다 폭넓게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폭넓게 재외동포를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로 하고 세계화 전략에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재외동포를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대우하고 그들의 경험과 관계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 화교나 화인들에게 실질적인 행적적 배려를 해줌으로서 이들이 국내경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재외동포들이 민족문화와 전통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모국은 물론 재외동포들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하여 충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하다. 특히 우리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염두에 두고 재외동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철학과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외동포를 우리의 역사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기본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의 재외동포정책 및

17) 장철균,「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과 재외공관의 기능변화」(서울: 외교통상부, 2004).

인적자원 활용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립 분석하여 그들의 장점을 우리의 사정에 맞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18)]

결론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의 재외동포사회는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많은 재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요국가들에서의 재외 동포사회는 거주국 사회문화로의 수용과 동화의 길로 접어들어 민족공동체는 해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 한국정부에 대한 정책요청사항에 대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한민족의 정체성 유지와 재외동포의 발전을 위해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재외동포사회 내부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그들 재외동포 사회들은 전세계를 연결해 주는 왕성한 민족네트워크를 통해 자국의 발전과 번영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인 민족 네트워크는 각국의 재외동포들이 자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긍심을 높임으로서 민족 공동체 의식을 유지, 고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재외동포사회는 현재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민족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한국정부는 재외동포들간의 민족적 협력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법적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재외동포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관장할 일반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법에 재외동포를 규정하고 있는 법들은 "재외동포법" 이외에도 "재외국민 등록법", "재외동포재단법", "재외국민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특례법"등이 있지만 재외동포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재외동포정책을 집행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된 재외동포 정책 집행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재외동포 정책의 주무부처는 외교통상부이지만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논란을 비롯한 재외동포 정책의 표류에서 드러나듯 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정책을 주관하는데 한계에 도달한 것이 사실이다.

세번째로 정부는 재외동포의 경제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만 높았지 정작 정치적인 위상을 높여주지 못하고 있다. 미국내 유대인의 경우처럼 재외동포의 정치력 제고를 위해서 정치분야에 진출한 기성정치인들의 지원뿐만 아니라 차세대 정치지도자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장기적 투자에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이중국적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2005년 5월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병역회피를 위한 미성년 이중국적자들의 한국국적 포기의 강요는 병

18) 황신용, 위의 논문, 81-82쪽.

역기피라는 것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직시한다면 해외 출생자나 국제결혼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거주국 내에서 점차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동화되어 가는 재외동포사회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국적의 문제는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민족에게 민족이산의 시작은 고난의 역자이지만 이제 170여개 국가의 660만명의 집단으로 성장해 있다. 한국에 짐스러운 존재로만 각인되어 온 재외동포가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제는 우리의 잠재적 국력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세계화는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재외동포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엇고 한국도 김대중 정부이후 많은 부분에서 재외동포의 정체성의 확보에 대한 많은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 아직까지는 고민으로만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 한민족 정체성으로 묶어낼 수 있는 튼튼한 네트워크는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이들을 한민족 정체성으로 묶어 낼수 잇는 정부 기업 재외동포, 국내거주민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한명숙, "재외동포 정책 이대로 좋은가," 2004 한명숙 의원실 정책자료집.

황신용,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 분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2005.

장태한, "해외동포정책과 재미한인사회의 역할," 「교포정책자료」 제65집

이광규, 「재외동포정책의 새로운 모색」 (서울:재외동포재단 2004).

최우길 "재중동포정책 어떻게 잘 펼 것인가; 조선족사회의 현황, 중국의 민족정책, 우리의 선택," 국회 재외동포연구회, 「21세기 재외동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서울: 국회 재외동포연구회, 2004).

장철균, 「참여정부의 재외동포정책과 재외공관의 기능변화」 (서울: 외교통상부, 2004).

외교통상부 재외국민 이주과 통계자료 (www.mofat.go.kr)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www.okf.or.kr)

코리안 닷넷(www.korean.net)

* 투고일: 2006. 6. 30. / 심사일: 2006.7. 24. / 심사완료일: 2006. 8. 15.

기획연재 ③ 민족과 문학

언어에 대한 자각과 민족의 발견

여 태 천

시인. 고려대학교 국문과 및 동 대학원 졸업. 고려대 강사.
계간 『서정시학』 편집위원.

언어와 민족

인간이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 개의 낱말이나 어휘를 사용하게 된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대체로 언어의 음성적인 측면은 쉽게 습득된다. 반면에 오랜 세월 동안 그 언어에 축적되어 온 복잡한 의미를 한 개인이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언어의 습득 과정에서 한 개인은 언어 공동체의 오랜 규범과 정신을 체화한다는 사실이다. 이때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닌 문화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그가 속한 공동체의 언어 규범과 정신에 의해 지배받는다. 물론 인간은 이 과정 동안 모국어의 보존과 형성에 대해서도 일종의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문화재로서의 언어 습득 과정은 곧 한 개인의 정신 형성과정이기도 하다. 민족어는 그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설명해줄 수 있는 유의미한 것이다.

> 모국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언어 공동체의 사유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언어를 통해 선조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사유 행위의 토대를 얻는 것이다.[1)]

모국어 습득이 공동체의 사유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참조한다면 우리는 식민지 시대 시인들의 모국어 체험과 정신 형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민족과 국가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족의 정체성이 소멸의 위기에 있었던 식민지 시대에 모국어로서의 조선어의 가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식민지 시대 문인들에게 조선어는 민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열정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에네르기였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그 언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민족을 구성하는 다양하고 이질적이며 예외적인 것들을 훼손하지 않은 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유한 민족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모국어의 위기

1930년대 현대문학사에 기록된 특징적인 사건은 카프(KAPF: 1924~1935)의 검거 · 해산에 따른 프로 문학의 퇴조와 시문학파를 중심으로 한 순수문학의 약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구의 모더니즘이 감각과 기교를 앞세워 문학 전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1930년대는 현대문학사에서 언어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던 시기다.

> 조선어의 수호는 우리 나라의 작가가 조선어로 자기의 사상, 감정을 표현할 자유가 위험에 빈(瀕)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추세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어의 수호를 통하여 민족문학 유지의 유일한 방편을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2)]

일제의 식민화가 점점 노골화되기 시작하는 1930년대에 모국어(조선어)를 수호하는 것은 민족 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의 유일한 방편이었다. 민족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에서도 언어의 수호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

1) J. Leo Weisgerber, 『모국어와 정신형성』, 허발 역, 문예출판사, 1993, 165~178쪽.
2) 임화, 「조선 민족문학 건설의 기본과제에 대한 일반보고」, 『건설기의 조선문학』, 백양당, 1946.8(『임화 전집』 2, 김외곤 엮음, 박이정, 2001, 414쪽 재인용).

러나 식민지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일제의 식민지 탄압은 정치 · 경제 · 사회뿐만 아니라 문화에서도 점점 더 그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한시적으로 문화적 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되기는 했으나 그것은 근대성으로 위장한 일본의 치밀한 전략에 불과했다. 실제로 조선의 모든 사람은 모국어로서의 말과 글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모국어를 쓸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가장 예민하게 감지했던 이들은 다름 아닌 문인들이었다.

식민지 조선은 지배자의 언어인 일본어와 식민지 언어인 조선어가 공존하는 이중 언어 상황이었다. 당시 '국어'의 개념은 공식어인 일본어였으며, 대개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해야만 했다. "나면서부터 말도 모르고 라임도 모르는 이 몸"이라는 김억의 고백은 일본어가 국어인 시대에 모국어로 시를 써야 했던 시인의 고민을 직핍하게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한문의 영향력이

우리의 근대문학은 무엇보다 모국어의 활성화라는 문화 작용에 힘입은 바 크다. 근대적인 의식과 함께 민족적인 것으로서의 민족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어느 때보다 강렬했던 시기가 바로 193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조선어 못지않게 강력했던 시기였으므로 조선어의 위상은 더없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위기감은 문인의 내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순조선언어문학에 대한 문인들의 열정은 일종의 민족주의라는 외적인 강압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들에게는 새로운 문명과 그 언어에 대한 경도가 숨어 있었다. 당시 일본어는 근대문명의 상징적 도구와 같았다.

근대적 질서와 지식의 습득은 물론 근대문학의 전수까지도 일본어를 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학자들은 문학이 조선어의 유일한 보루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어로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1930년대 일반 독자들이 일본어로 된 시와 소설을 읽었다는 사실은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었다.

1930년대 일본어가 국어이며 공용어인 현실적 상황에서 조선어로 문자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문인들의 자의식은 매우 컸다. 가령, 염상섭이나 안수길, 백석 등은 조선어를 통한 문자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던 만주를 향해 떠나기도 했다. ≪매일신보≫의 기자였던 염상섭이 만주의 ≪滿鮮日報≫의 편집국장으로 초빙되어 떠난 것은 1936년이었다. 당시 염상섭이 만주로 이주한 근본적인 동기는 소설가로서, 직업적인 글쟁이로서의 도덕감과 의무감이었다.

> 우리 世代 사람은 우리 조선말에 한하여서는 말답게 배우지 못하고 다른 말을 배우는 데만 全力을 다한다.[3)]

식민지 시대 조선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소한 모국어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모국어를 "말답게" 배울 수 없었다. 인용문에서 "다른 말"이란 다름 아닌 일본어다. 그들은 조선어를 배우지 못하는 대신에 일본어를 배워야만 했다. 문인들이 가졌던 이와 같은 언어 위기감은 관공서나 학교와 같은 제도권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모두 일본어였으며, 조선어는 아예 금지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소학교나 중학교에서 조선말을 배울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조선문학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어가 문학의 장래이며 민족의 장래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1930년대 우리 문학과 우리 말이 처했던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우리의 근대문학은 무엇보다 모국어의 활성화라는 문화 작용에 힘입은 바 크다. 근대적인 의식과 함께 민족적인 것으로서의 민족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어느 때보다 강렬했던 시기가 바로 1930년대라고 할 수 있다.

시어에 대한 자각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시에서 언어에 대한 자각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었다. 김소월, 한용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시어는 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에 머물거나 전통적인 서정을 재현하는 도구였다. 뿐만 아니라 1920년대의 시어는 한때 풍미했던 서구 상징주의 문학에서 빌려온 포즈에 불과한 것이 많았다.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김영랑, 정지용, 백석 등 몇몇의 시인들이 시어에 대해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일제의 문화적 탄압이 극도로 심해지고 있을 때 서투른 외국시의 모방이 아닌 조선어의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미적으로 다듬는 것이 시인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시어란 근대 서구의 언어도 아니며, 식민 본국의 언어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적 제도화의 중심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한 표준어도 아니었다. 그것은 고유한 생활의 언어이며 소외된 고향의 언어로서의 민족어였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단지 형식적인

3) 이양하, 「조선어의 수련과 조선문학의 장래」, ≪조선일보≫, 1935.7.6.

차원에서 민족어와 고향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가 지향하는 세계가 그들이 사용했던 시어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민족어는 시인으로서 그들이 당연히 품었던 의식적, 정신적 핵자였던 셈이다.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치중했던 계몽주의 시대에 시의 언어 미학적 측면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미를 드러내는 것보다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고민했던 1930년대 시인들에게는 시의 언어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언어 순결주의

≪시문학≫ 창간호(1930.3)

≪시문학≫(1930.3), ≪문예월간≫(1931), ≪문학≫(1934) 등을 통해 박용철, 김영랑, 정지용, 변영로, 이하윤 신석정 등이 정제되고 순화된 언어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조선어는 미학적 차원에서 한 단계 상승하게 된다. 조선어 탄압을 통해 일제가 민족혼 말살 정책을 추진하던 1930년대에 시문학파들은 이데올로기나 현실 의식을 배제한 순수 서정시로서의 심미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시의 자율성과 순수 시론으로 미적 근대성을 정립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그들의 활동은 민족어 수호와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1930년대 초반 '시문학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시어'에 대한 관심은 단지 형식적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시어를 통해 새로운 시의 경지를 개척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근대적 자아의 발견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 한 민족의 언어가 발달의 어느 정도에 이르면 國語로서의 존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文學의 형태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문학의 성립은 그 민족의 언어를 완성시키는 길이다.[4)]

인용한 글은 박용철이 ≪시문학≫ 창간호에 쓴 「편집후기」의 일부다. 박용

4) 박용철, 「편집후기」, ≪시문학≫ 창간호, 1930.3.

김영랑

철(1907~1938)은 김영랑과 함께 시문학파를 주도하며 계급주의 문학에 대항하여 시의 심미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문학파의 시적 지향은 순수문학과 민족 언어의 완성에 있었다. 문학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민족어를 완성하는 일이 바로 그들의 목표였다. 국어를 통해서 시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통해서 국어(민족어)를 완성하겠다는 생각은 193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매우 근대적인 것이다. 그들은 현대시문학사에서 민족혼과 정신의 표현으로서의 언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1903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보통학교를 마친 후 휘문의숙을 졸업하고 일본의 청산학원에서 수학한 뒤 귀국하여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고향에서 보낸 김영랑(본명 金允植: 1903~1950)은 박용철과 함께 ≪시문학≫을 간행했다. 김영랑은 예술성과 순수성을 지향했던 시문학파의 시적 지향을 언어적 측면에 가장 뛰어나게 재현한 시인이었다. 특히 시어와 리듬, 형태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보여준 그는 조선어의 가치를 음악적 차원에서 보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고향 강진에서 작품활동을 했지만 체득한 자신의 지역어에 매몰되지 않고 중앙어(표준어)를 기저로 삼으면서 시어의 미학적인 면에 힘썼다. 김영랑의 도저한 언어의식과 미적 감각은 1920년대 한국시의 애상과 감탄의 시어를 한 단계 승화시켰다.

'오 — 매 단풍 들것네'
장광에 골불은 감잎 날어오아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 — 매 단풍 들것네'

추석이 내일모레 기둘리리
바람이 자지어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영랑 시집』(1935)

'오 — 매 단풍 들것네'

— 김영랑, 「오 — 매 단풍 들것네」(≪시문학≫, 1930.3) 전문[5]

"오 — 매 단풍 들것네"와 "기둘리리"라는 전라도 방언은 시의 화자와 누이의 복잡한 심회를 잘 보여준다. "오 — 매 단풍 들것네"라는 구절에서 가을이 급작스럽게 찾아왔다는 사실에 대해 놀라는 감탄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단풍이 들면 이제 추운 겨울이 올 것이고, 궁핍한 시골 살림살이가 걱정스러울 수밖에

국어를 통해서 시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통해서 국어(민족어)를 완성하겠다는 생각은 193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매우 근대적인 것이다.

없는 누이의 내면 심리를 이처럼 맛깔스럽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영랑은 시어를 매우 주의 깊게 선택했으며 오랫동안 시어에 대해 고민했다. 그가 전라도 방언 중에서도 체언이 아닌 접미어나 부사어를 집중적으로 활용한 것은 섬세한 언어감각으로 시어의 심미적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위의 시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전통적 가락을 유지하면서도 시어에 대한 현대적 인식을 잃지 않았다. 시어에 대한 김영랑의 이러한 수공업적 태도는 예술적 완성의 순간에 얻게 되는 미 그 자체에 대한 매료 때문이다. 그의 전라도 방언 사용은 백석의 북도방언 사용과 함께 식민지 후기의 시어 확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지적[6]은 김영랑의 탐미의식이 민족의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는 소재면에서도 전통적인 우리 민족의 보편정서와 관련된 대상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다. '두견' '춘향' '가야금' '거문고' 등은 시어 그 자체가 전통적인 것이었다. 특히 '가야금'과 '거문고'는 조선예술의 장인적 세계를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대상들이었으며, 그는 그것들로 대변되는 전통적 미를 더 이상 누릴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표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독을 차고」「춘향」 등과 같은 시에서 저항적이며 독기어린 목소리를 견지하고 있었다

5) ≪시문학≫ 창간호(1930.3)에 처음 실릴 당시의 제목은「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였으며, 『영랑시집』(1935)에서는 '5'로 되었다가 『新選 詩人集』(1940)에서「오—매 단풍 들것네」로 수정되었다.
6) 김윤식 ·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217쪽.

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말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시를 지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시 「춘향」은 한국인의 보편정서를 잘 보여주는 판소리 <춘향전>을 원용하여 비극적인 현실과 상실감을 노래했다.

> 큰 칼 쓰고 獄에 든 춘향이는
> 제 마음이 그리도 독했든가 놀래었다
> 성문이 부서져도 이 악물고
> 사또를 노려보든 교만한 눈
> 그는 옛날 성학사 박팽년이
> 불지짐에도 태연하였음을 알었었니라
> 오! 一片丹心
> — 김영랑, 「춘향」(≪문장≫, 1940. 9) 부분

춘향은 극한 고통 속에서 오직 '도련님' 이 오기만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비탄의 어조는 매연마다 반복되는 "오! 一片丹心" 이라는 감탄어를 통해 고조된다. 이 '一片丹心' 이야말로 김영랑이 경외로운 상태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미' 의 최고 경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 감탄사 '오!' 가 현실적 좌절에 대한 비탄의 울음이라면 '一片丹心' 은 멸해가는 세계 속에서도 자존을 굽히고 싶지 않았던 시인의 고집스런 태도다. 단적으로 말해 김영랑의 시는 1930년 이후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적 세계를 향한 비가(悲歌)다. 그가 정교한 언어의 조탁에 힘을 쓰고 고유한 민족 정서를 환기하는 대상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실은 언어를 통해 민족의 정서를 보존하려는 그의 욕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시는 1930년대 몰락해가는 전통의 세계를 지켜보면서 정교하게 언어를 갈고 닦는 일을 통해 자기 존재를 각인해 가는 역경의 과정이다.

고어의 발견

1930년대 시어의 혁신과 우리 시의 현대적 성숙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는 정지용이다. 김기림은 그를 한국 현대시에 '현대적 호흡과 맥박' 을 불어넣은 최초의 시인이며, 시가 언어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언어에 주의를 기울

7) 김기림, 「1933년 시단의 회고」, ≪조선일보≫, 1933.12.7~13(『김기림 전집』 2, 심설당, 1988, 62쪽 재인용).

인 최초의 시인이라고 평가했다.[7] 시작 초기에 새로운 감수성과 감각적 지성을 보여주었던 정지용은 고어와 방언을 발굴하고 그것을 시적으로 변형시켜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였다. 특히 그는 후기시에서 옛글을 닮은 시 형식을 통해 독특한 산수시의 경지를 창조하였다. 일본의 파시즘이 점차 강화되는 시점에서 등장한 '전통'의 복원을 단순한 복고주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정지용(1902~?)은 1930년대 말 이병기, 이태준 등과 함께 ≪문장≫을 통해 시조와 내간체류의 발굴과 창작을 주도한 바 있다. 그들은 조선의 '전통'과 '조선정조'를 찾으려 했다. 물론 그들은 민족이라는 추상적 명사 너머에 있는 구체적 민족 현실을 간과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조선적인 것의 향토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고전적인 것의 구체적인 표상들을 전통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었다. 특히, 사대부의 정신적 전통과 문화를 숭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 민족의 귀족적 정신주의와 선비주의를 되찾으려고 했다는 점은 가볍게 보아 넘길 대목이 아니다.

『백록담』(1941)

정지용은 초기에 고유어와 방언, 한자어와 외래어를 다채롭게 구사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고어를 발굴하여 시어로 적극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시어의 변화는 시인의 의식의 변화를 반영한다. 정지용은 민족어 사수의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옛말의 묘미를 살려 시를 썼다. 정지용이 의고적 문체를 선택한 것은 시의 제재와 주제의 호응을 배려해서다.

白樺수풀 앙당한 속에
季節이 쪼그리고 있다

이곳은 肉體없는 寥寂한 饗宴場
이마에 스며드는 香料로운 滋養!

海拔 五千 피이트 卷雲層 우에
그싯는 성냥불!

東海는 푸른 揷畵처럼 움직 않고
누뤼 알이 참벌처럼 옮겨 간다.

戀情은 그림자 마자 벗쟈
산드랗게 얼어라! 귀뜨람이 처럼.
— 정지용, 「毘盧峯 1」(≪가톨릭청년≫ 1호, 1933. 6) 부분

정지용

'앙당한' '시며드는' '그싯는' '누뤼알' '산드랗게' 등의 고유어는 비로봉이라는 공간의 고전적인 분위기를 형상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들이다. 정지용은 국토의 토착적 정감을 드러내기 위해 방언과 고어를 과감하게 채용했다. 이러한 사례는 「향수」를 비롯한 초기작에서부터 여러 차례 확인된다. 중요한 사실은 정지용의 이러한 언어 감각이 시의 내용과 형식을 빛나게 한다는 점이다. 시 「장수산 1」「장수산 2」「삽사리」「온정」 등의 작품은 언어의 형식미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전통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정지용이 시어의 문제에 고심했던 까닭은 시의 내용을 언어와 형식을 통해 새롭게 구현하고자했기 때문이다.

> 言語는 詩의 素材 以上 거진 唯一의 方法이랄 수밖에 없다. 언어를 떠나서 시는 제작되지 않는다. 〔…〕 詩의 神秘는 言語다. 詩는 言語와 Incarnation的 一致다. 그러므로 詩의 精神的 深度는 必然으로 言語의 精靈을 잡지 않고서는 表現 · 製作에 오를 수 없다.[8]

인용한 글은 정지용의 언어관을 잘 보여준다. 정지용에게 언어는 시의 단순한 소재가 아니다. 그것은 시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모호하고 불투명한 시어를 극복하기 위해 정지용은 詩와 言語가 "Incarnation的 一致"에 이르도록 노력했다. 그는 언어가 시의 소재의 차원을 넘어서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시인이었다.

8) 정지용, 『시와 언어』, ≪문장≫ 11호, 1939.12(『정지용 전집』 2, 김학동 엮음, 민음사, 1988, 252~253쪽 재인용).

언어를 통한 민족 원형의 재현

청산학원 3학년 시절의 백석

평북 정주 출생인 백석(본명 白夔行: 1912~1995)은 오산학교를 나와 일본 청산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으며 ≪조선일보≫와 ≪여성≫에서 편집기자 생활을 했다. 그는 신교육을 그 누구보다 먼저 받았으며 언어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지닌 모던한 인물이었다. 시집『사슴』(1936)의 발간으로 그는 우리 현대시사에서 중요하고 문제적인 시인으로 기록되고 있다. 백석은 문명어, 제도어로서의 일본어나 선비적 유교정신으로서의 조선어도 아닌 지방어인 정주 방언을 의도적으로 시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언어민족주의를 펼쳤다. 이 지방어는 표준어(언문일치)로 문학창작을 하거나 일본어로 창작행위를 한 문인들에게 너무나 낯선 타자의 언어

백석은 문명어, 제도어로서의 일본어나 선비적 유교정신으로서의 조선어도 아닌 지방어인 정주 방언을 의도적으로 시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언어민족주의를 펼쳤다.

였다. 사실성과 구체성, 그리고 현장성과 직접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방어는 제도화 · 교육화 되기 이전의 유년의 언어라는 점에서 민족성의 훌륭한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백석에게 시어는 자기 존재를 깊이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반성하는 하나의 도구였다. 백석은 모국어의 심각한 위기를 우려하면서 모국어의 질서가 그나마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궁벽한 시골을 시의 배경으로 삼았다. 그가 정주 지방어를 통해 성취하고자 한 것은 고향의 공동체와 그 속에서 정서적 친화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사물들이다.

>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섶 발마당에 달린 배나무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굴막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놀음 말 타고 장가가는 놀음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
>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은 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 굴리고 바리깨돌

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등에 심지를 멫번이나 돋구고 홍게닭이 멫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릇목싸움 자리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 잠이 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츰 시누이 동세들이 욱적하니 홍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게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 백석, 「여우난골族」(≪조광≫, 1935.12) 부분

이 시에서 우리는 친밀감 있는 언어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정서적 공동체가 이루는 광경을 확인할 수 있다.

명절날 어김없이 '큰집'으로 모여드는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과 풍속을 세밀하게 묘사한 이 시는 지극히 한국적인 공동체의 삶을 재현한다.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명절날 어미 품을 찾아오는 새끼처럼 옹기종기 모여들어 삶의 고단함과 서글픔을 치유한다.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백석이 근대 도시적 삶에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점차 사라져가는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것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삶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다. '新里 고무' '土山 고무' '큰골 고무' '삼춘' 등과 같은 다양한 인물, '배나무접' '토방돌' '오리치' 등과 같은 생활 관습, '반디젓' '송구떡' '콩가루차떡' '뽂은잔디' '무이징게국' 등과 같은 음식, '쥐잡이' '숨굼막질' '꼬리잡이' '조아질' '쌈방이굴리기' '바리깨돌림' '호박떼기' '제비손이구손이' 등과 같은 놀이는 정주 지방의 풍물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이것들은 단순한 소재차원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비록 이 풍속들이 낯선 것이지만 생활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들이고 민족 구성원이면 누구나 체험했을 만한 것들이다. 그 점에서 낯선 풍속의 체험은 일반 독자들에게 보편적인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여 민족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한다.

일제의 핍박을 받던 시기에 그는 물질적 · 정신적 궁핍 속에도 다채롭고 풍요한 민족문화가 존재하였음을 언어로 보여주었다. 특히, 수많은 음식과 놀이들은 풍요로운 민족문화를 대변한다. 삶의 기본 조건인 먹는 것과 노는 것은 인간의 근본 욕망이다.

식민지 현실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민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들의 심층에 자리한 문화의 원형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기에 충분하다. 사라져가는 대상들을 그들의 언어로 꼼꼼하게 되살려내는 작업은 자기 존재를 언어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일에 비견할 수 있다. 인물과 놀이와 생활과 음식에 관계된 모든 언어들

은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시인의 시의식을 표상하는 강력한 객관적 상관물인 셈이다.

> 아배는 타관 가서 오지 않고 山비탈 외따른 집에 엄매와 나와 단둘이서 누가 죽이는 듯이 무서운 밤 집뒤로는 어늬 山골짜기에서 소를 잡어먹는 노라리꾼들이 도적놈들같이 쿵쿵거리며 다닌다
>
> 날기멍석을 져간다는 닭보는 할미를 차 굴린다는 땅아래 고래 같은 기와집에는 언제나 니차떡에 청밀에 은금보화가 그득하다는 외발 가진 조마구 뒷山 어늬메도 조마구네 나라가 있어서 오줌누러 깨는 재밤 머리맡의 문살에 대인 유리창으로 조마구 군병의 새까만 눈알이 들여다보는 때 나는 이불속에 자즈러붙어 숨도 쉬지 못한다
>
> — 백석, 「古夜」(≪조광≫, 1936.1) 부분

말에는 어떤 위대한 힘이 깃들어 있다. 구술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름이 사물에 힘을 불어 넣는다고 생각했다.[9] 백석이 그의 시에서 호명하는 사람과 사물들의 이름들은 말 그자체로 민족의 명맥을 이어온 것들에 속한다. 그것들은 관념적인 민족성과는 다른 민족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체계로서의 언어(표준어) 이전에 존재한 것들이다. 특히, 구어가 지니는 음성의 현전성은 문어와는 달리 현실을 투명하게 반영한다. 백석의 시어는 표준어가 지닐 수 없는 구체적 삶의 직접성을 확보하고 있다. 말하자면 백석은 방언의 기록을 통해 구어가 지니는 날것으로서의 현실과 민족적 삶의 원형성을 보여주었다.

백석의 언어는 언문일치에서 배제된 것으로 표준화의 제도에서 밀려난 소수어다. 그는 이 낯설고 폄하된 언어를 새롭게 문학의 중심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와 같은 방언주의를 통해 그는 민족주체성을 확보하고 모든 동족과 사물들 사이의 관계가 합일에 이르도록 하였다. 백석이 지방어를 추구한 까닭은 모국어에 대한 깊은 애착에서 비롯되었다. 나라를 잃고 언어를 잃고 만주까지 떠나온 민족의 현실을 보았을 때, 백석은 모국어가 곧 혼이자 정신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9) Walter J. Ong,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 · 임명진 역, 문예출판사, 1995, 55쪽.

아득한 녯날에 나는 떠났다
夫餘를 肅愼을 渤海를 女眞을 遼를 金을
興安嶺을 陰山을 아무우르를 숭가리를
범과 사슴과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야 또 한 아득한 새 녯날이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녯 한울로 땅으로—나의 胎盤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늘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도는데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 백석, 「北方에서 — 鄭玄雄에게」(≪문장≫, 1940.7) 부분

이 시는 삶의 근원적 고독과 절망이 잘 표현되어 있다. 동시에 떠나온 옛 땅과 전통에 대한 회한과 자기성찰이 돋보인다. 구체적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현재의 경험적 자아이지만, 기억의 과정 속에서 화자는 반성적 자아와 끊임없이 소통한다.

"아득한 녯날"이나 "녯 한울" 그리고 "나의 태반"은 원형적 삶의 세계다. 만주 체험 이후 백석의 시들은 우리의 역사와 민족혼이 깃든 언어를 통해 전통과 근원의 문제를 제기한다.

백석의 시가 지니는 중요한 또 하나의 가치는 문자로서 기록되지 않고 목소리로만 전승되는 민중의 풍속과 역사를 시 속에 복원했다는 점이다. 일제 강점기에 소멸되어 가는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은 곧 언어를 통한 민족의 발견이다. 한국적인 공동체의 삶을 공동체의 언어와 방법으로 표현했던 백석의 태도는 1930년대 한국문학사에서 독특하게 기록될 것이다.

민족어의 가치

1920년대 초기시에서 언어는 모방의 대상이었으며 동시에 그 결과였다. 1920년대 문청(文靑)으로서 문학적 소양을 닦기 시작한 이들은 많은 동인지와 잡지들을 보고 모작을 하고, 습작을 하고, 투고를 했다.[10] 이 과정에서 김억의 번역 시집 『오뇌의 무도』(1921. 3)는 문학이라는 양식에 대한 전범(典範)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이광수는 이러한 현상을 "懊惱의 舞蹈化"[11]라고 했다. 1930년대 시인들은 시어의 혁신을 통해 비로소 한문이나 외국어 직역투의 문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감정과 사유를 표현하게 된다. 언어에 대한 고민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지각과 사유의 공간을 창출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시어는 단순히 언어의 정련이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김영랑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소리의 언어는 그가 이상적 가치를 두고 있는 조선예술의 장인적 세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정지용의 고어와 고어투의 세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고유의 언어와 전통적 세계에 대한 애착을 새롭게 개척한 사례다. 백석의 정주 방언과 그가 호명하는 이름들은 한국적 공동체의 삶과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정서적 친화의 세계를 복원한다.

이들은 우리말을 우리말의 특성에 맞게 정련하고 우리말 표현에 맞는 고유한 시 형식을 창조했다. 우리말을 선택하고 정련하는 일은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시인의 자기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들이 발견한 고유한 세계는 전통적일뿐만 아니라 근대적 자아가 낯선 타자와 만남으로써 자기의 고유한 내면을 되돌아보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장인적 세계와 동양적 자연, 그리고 한국적 공동체의 삶은 우리의 언어로 재현한 값진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언어를 통해 우리의 현대시를 한층 성숙시켰으며 우리 민족의 원형을 보존하였다.

언어는 이데올로기적 선택이다. 우리는 시의 언어를 통해 민족시학의 여러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1930년대 문학은 언어 문제와 분리하여 논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민족이란 그 민족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신화적 상상력을 모태로 한다. 이때 민족의 신화적 상상력은 그 민족의 민족어가 지니고 있는 숨결에서 찾아진다. 민족어를 소홀히 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불가능하다.

---

10) 박괄양, 「나는 시를 이렇게 배웠다」, 『나의 인간수업, 문학 수업』, 인동, 1990, 122쪽 참조.
11) 이광수, 「文藝瑣談」, ≪동아일보≫, 1925(『이광수 전집』 10권, 우신사, 1979, 415쪽에서 재인용).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언어로 시화해내는 일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살아 있는 신화를 되살리는 일이다. 시의 정서적 심미적 기능이 인간 내부의 저 깊은 심연에서 작동하게 되는 것은 언어가 일으키는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측면이다. 언어가 한 민족의 혼과 정신 형성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bstract

Politics and Ethnic Problem in Central Asia

Lee, Tae Wook (Researcher in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Key words: Central Asia, Ethnic Conflict, Ethnic Composition, Minority, Authoritarian Regime

Ethnic conflict, originated ethnic compositions, is an important factor to examine Central Asia. Four countries are composed of Turkish ethnic except for Tajikistan which is an Iranian ethnic.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s, Central Asia countries have suffered from several factors as follows; Firstly, there is the exclusion of small Russian groups and minorities from official and professional occupations due to the publicity of native language. Secondly, the reemergence of Islam fundamentalism in the region resulted in ethnic conflicts like the civil war in Tajikistan. Thirdly, authoritarian regimes and corrupted governments, controlled by a few political elite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Central Asia failed to concentrate on the solution of ethnic conflicts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Nationalist Movement in Central Asia

Oh, Jae Wan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in Institute for Peace Studies, Korea University)

Key words: Nationalism, Central Asia, Nationalist Movement, the Cold War, Islam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ternal and international contexts of nationalist movements in Central Asia and to examine the role and character of major nationalist group. After the Cold War, there have been the reemergence of nationalism and the deepening of ethnic conflicts in Central Asia. Before the collapse of the Soviet regime, there were already various nationalist movements as follows; the Andijan Resistance against Russia' colonial policy, the Jadid Movement for Islam reformation and the Basmachi Movement against the Soviet government. Central Asia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achieve the establishment of political structure, economic independence and national identity as independent nation-states, but the countries also experienced troubles in social, 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areas. In these circumstances, nationalism has made an important role. Nationalism in Central Asia is able to function as the "Pandora' s Box" that is unclear to result in negative or positive impact on various spheres, so the research of nationalism in Central Asia can provide prospects of Central Asia.

Political System in Central Asia

Kim, In Sung (Lecturer, Korea University)

Key Words: Political System, Central Asia, President, Parliament, Authoritarianism

Although each state in Central Asia has its own particularity, they show commonly super-presidentialism and authoritarianism in their political systems. There are several causes. Firstly, the political systems in Central Asia countries were formed by the influence of USSR political system that had weak representative institution and strong centralized presidential power. In regional countries, a series of constitutional revisions and referendums weakened the Parliaments and strengthened personal dictatorship. Secondly, political leaders succeeded in excluding nationalism groups from political arena, while they applied actively the rhetoric of nationalism for popular mobilization. Thirdly, with the growth of energy industry as the only productive industry in Central Asia countries, a few elites in relation to energy industry monopolized core positions including president in political system. Fourthly, most political groups kept neutral stance in political affairs in the early days of independence, so presidents acquired the control power of parliament and could minimize the influence of opposition parties. Fifthly, there have been quite a few opponent groups in Central Asia for a revolution and there will not be able to be occurred a revolution like "tulip revolution" in Kyrgyzstan due to

concerns of political instability.

Ethnic Conflict in Uzbekistan

Sung, Dong-Ki (Foreign Language University in Pusan)

Key Words: Uzbekistan, Ethnic Conflict, Multinational Society, Nationalism, Many-Sided Analysi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many-sided analysis of ethnic conflict in Uzbekistan. She has been two contradictory circumstances in relation to ethnic issue as follows; multinational society and nationalism. After the breakup of the Soviet Union political scientist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ethnic and border conflicts in Central Asia because of above factors.Basically, they paid attention to Uzbekistan, but a bloody clash had never been in Uzbekistan so far. Now we can understand the status of minorities who have lived in Uzbekistan to depend on existing materials, but can' t the specific causes and influences of the Uzbek Nationalism. So, this research analyzes the realistic status between the ethnic conflict and the complicated social problems and applies the many-sided analysis for objective review. In this research, ethnic conflicts are analyzed by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oints of view.

Ethnic Consciousness in Kazakhstan

Raushanbek Absattarov (Professor, Kazakhstan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Ethnic, Ethnic Consciousness, Kazakhstan, USSR' s Policy, Ethnic Language

The ethnic consciousness in Kazakhstan is dynamic and changeable. The reform of society and the revolution of scientific technology have accelerated internal integration and stimulate the development of ethnic consciousness in Kazakhstan. Lack of self-criticism and logical consideration, however, can cause inter-ethnic conflicts through the overemphasis of ethnic identity like the Alma-Ata case in December 1986. Those also can distort differences and intensify frictions between ethnic groups through internationalization like USSR' s policy on Kazakhstan. The reemergence of ethnic consciousness in Kazakhstan needs to be paid attentions, not simply regarded as chauvinism. Therefore, researchers need to examine various factors including ethnic language for analysis about the formation and change of ethnic consciousness in Kazakhstan.

Religious Conflict in Central Asia

Kim, Hye Lim (Researcher in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Key Words: Religious Conflict, Central Asia, Islam, Great Powers, Diplomatic Relationship

In general, Central Asia means the area of five new states formed after the collapse of USSR as follows; Kazakhstan, Uzbekistan, Kyrgyzstan, Turkmenistan, and Tajikistan. This region has great economic and geopolitical importance, so there have been conflicts between great powers,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for the acquirement of dominant influence over Central Asia. The characteristic of Islam in the region is different from that in the Middle East and is also far from Islamic radicalism. Therefore, there will not be extreme conflicts in regard to the religion of regional countries. Because the strengthening of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certain great power can influence the emergence of religious troubles in regional countries, the stability in the perspective of religious conflict will depend on the United State or Russia' s influence the region on the basis of Christianity or Orthodoxy.

Environmental Problems in Central Asia

Pak, Chang gyu (Researcher in Institute for study on Russia and CIS, Korea University)

Key Words: Environmental Problems, Central Asia,, Industrialization, The Aral Sea, Water Resour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mechanism of environmental destructions in Central Asia and difficulties in controlling of water resources.

Traditionally Central Asia society was a nomadic community and oasis community in the past, but started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rough forming of Soviet Union. The goal of Central Asia' s development was to get involved in as a part of USSR by central planned economic system. Therefore, Central Asia was divided in two parts geographically. 1) North of Central Asia was developed by industrialization and munition industry, 2) South of Central Asia cultivated cotton monoculture through large irrigation equipment construction and synthesized fertilizer. These industrialization and cotton monoculture resulted in mass production and the success of economic system in socialism. In the other hand, the soviet government pursued its goal that neglected the negative effect of environmental pollution.

It is the 1970s that socialism made a fundamental environmental crisis in Central Asia. Especially, the demise of the Aral Sea was caused primarily by the diversion of

inflowing Amu Dar' ya and Syr Dar' ya rivers to provide irrigation water for local croplands where produce massive amount of cottons. After the collapse of USSR, the Aral Sea' s Crisis made Central Asia countries cooperated for the stabilize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But each countries in Central Asia presented the several selfish opinions.

Now there are no a central power as past USSR. There are in the process of making a new organization to resolve these environmental crisis.

Overseas Korea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s

Choi, Jong Ho (Korea University)

Key Words: Overseas Korean, the Korean Government, Overseas Korean Policy, Overseas Korean Law, Korean Network

Overseas Koreans mean Korean people who have Korean identity and live in foreign countries in no relation to their nationalities. Nowadays, oversea Koreans are living in 175 states and their number is about 6.6 millions. Overseas Korea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s has been developed, but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of the policy. Especially, it is a great problem that Overseas Korean Law, enacted in 1999, did not include consider overseas Koreans in China and CIS and overseas Koreans not having Korean nationality in Japan in the category of overseas Korean. In these circumstances,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establish comprehensive policy that protects Korean ethnic identities and supports overseas Korean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through various aids. On the basis of the policy, Korean network can be formed to maintain Korean identity and enhance governmental supports for overseas Koreans.

The Silk Road' s Formation, Development and Declination

Park, Joo Sik (Associate Research Professor in Institute for Peace Studies, Korea University)

Key words: Silk Road, Central Asia, Trade Route, Oasis Route, East and West countr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Silk Road' s history in regard to formation, development and declination. In this study, the Silk Road means an oasis route, not a sea route and a steppe route. The reason is that the oasis route only was most important route unlike other roads and had been used continuously from past. The Silk Road included routes between Xian in China and Rome via Central Asia. The golden age of the Silk Road had continued from the Han dynasty' s establishment of trade routes in B.C. 1st century to A.D. 14th century. Xian in the Tang dynasty was prospered as a departure city of the Silk Road and Mongolian extended the area of the Silk Road to Central Asia, the Middle East, and Europe with the growth of silk trade and production. However, the Silk Road had been declined due to the emergence of the Ming dynasty,

emphasized trade by a sea route and a policy of isolation, and instability in Central Asia with Islamizati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ilk Road resulted in prosperous trade and cultural exchange in Eurasia and was a space of globalization that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exchange between East and West civilization and developmen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areas in many countries. At recent times, the importance of the Silk Road has newly been paid attention to various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Central Asia and China, so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 projects and cultural events in relation to the Silk Road.

The Awakening against a Language and Discovery of the Nation

Yeo, tae-chon (Lecturer, Korea University)

Key words : language, nation-language, poem, nation,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Language is the problem of ideological selection. We could observe the multi-actual condition of the nation poetry by the help of the language of the poems. Specially, the 1930s literature in Korea was connected with language. It couldn' t be separated by language. The nation inherently keeps mythical imagination. The mythical imagination of the nation, living in our unconsciousness, comes to find in which nation-language. Korean poets such as Beck, Seok and Joung, Ji-yong and Kim, Young-rang couldn' t leave behind the problem of language, which was the main concern of the Korean

intellectua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It is impossible to find the nation' s identity with neglecting nation-language. It is returns to the life of myth that expresses our life with language. Thanks to language, we got through the emotional aesthetic function of poem. Nation-language does a govern role in soul and spirit formation of one nation.

『민족연구』 논문투고와 집필요령 및 심사과정

한국민족연구원이 연 4회 계간으로 발간하는 『민족연구』는 세계의 민족과 민족문제를 중심적인 연구과제로 설정, 현대세계의 제반 민족문제의 근원적 실체와 이의 발전적 해결을 모색하는 연구의 장입니다. 본 연구원은 관련학계와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투고를 환영합니다.

Ⅰ.논문투고

1. 편집대상: 민족주의 이론, 각 지역과 개별국가의 민족문제와 민족정책, 소수민족 현황 등과 관련된 논문.
2.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예정의 논문은 편집대상에서 제외함.
3. 원고는 '한글' 혹은 'MS워드' 파일로 작성하여 출력본 1부와 디스켓을 아래주소로 우송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기 바람.
4. 연락처
   한국민족연구원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82-10
   전화번호: 010-4716-3616
   Fax: 925-3906
   Email: goodsociety123@hanmail.net

Ⅱ.논문집필요령

1.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80-120매 혹은 A4용지 15-20매 내외.
2. 한자와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 첫 번째의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넣어 표기.
3. 각주 및 참고문헌 작성요령.

1) 각주 작성 요령

(1) 저서의 경우

- 조정남, 『러시아민족주의 연구』(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6), 292쪽.
-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986), p. 95.

(2) 논문의 경우

- 조정남, "중국의 화교정책 분석," 『민족연구』 제5호, 150-151쪽.
- Alejandro Portes, "Immigration Theory for a New Century: Some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 4, pp. 799-801.

2) 참고문헌 작성요령

(1) 저서의 경우

- 조정남, 『러시아민족주의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6).
- Anthony D. Smith,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Oxford: Blackwell, 1986).

(2) 논문의 경우

- 조정남, "중국의 화교정책 분석" 『민족연구』 제5호.
- Alejandro Portes, "Immigration Theory for a New Century: Some Problem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1, 4.

Ⅲ.논문심사

1. 본 연구지의 편집의도와 무관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불가를 결정할 수 있음.
2. 편집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투고논문의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위촉함.
3. 심사위원 3인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지며 개별 심사위원의 "가, 수정, 불가"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최종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재심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게재여부가 결정됨.
4. 심사 판정 기준표 (심사위원 3인 기준)

가, 가, 가 가, 가, 수정	가,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가, 수정, 불가	가, 불가, 불가 수정, 수정, 불가 수정,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5. 수정과정에서 논문 필자는 수정한 부분을 별도의 양식을 통해 명확히 밝혀야함.

Ⅳ.『민족연구』 발행일 및 논문투고 마감일

민족연구 발행일	논문 마감일
2006년 3월 1일	2005년 12월 31일
2006년 6월 1일	2006년 3월 31일
2006년 9월 1일	2006년 6월 31일
2006년 12월 1일	2006년 9월 31일

한국민족연구원

한국민족연구원은 새로운 시대환경의 도래와 더불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종과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 문제 등에 대한 학문적이며 실제적인 연구 조사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연구원은 민족문제에 관한 전문 연구지인 『민족연구』를 연간 4회 발행·보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cncho.pe.kr/krce)를 통해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인적구성

원　　장 : 趙政男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위원 : 葛振家 (중국 북경대학교 교수), 金炳鎬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교수)
金秀雄 (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 Dmitry V. MYONG(국립 알마티사범대학교 교수)
保坂祐二 (세종대학교 교수), 洪敏植 (강원대학교 교수)
우평균, 김인성, 조화성, 김용찬
연 구 원 : 고병국, 김태영, 강권찬, 박지원, 이용승, 김혜림
유정석, 안 석, 이태욱, 송종호, 정려정, 김재원, 김병학

발 행 처

민 족 연 구
27

〈계 간〉

ISSN 1229-2796

〈저널 편집부〉

편집인 : 조 정 남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4동 282-10
우/142-881 (☎ 010-4716-3616)
Email : goodsociery123@hanmail.net
T E L : 010-4716-3616 / F A X : 02-907-3617
발행일 : 2006년 9월 1일(연 4회 간)

발행처 : 교양사회
Homepage : http://www.goodsociety.co.kr

편집위원

김경숙 (공주대학교 교수)
金炳鎬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교수)
김인성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김용찬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위원)
이기완 (창원대학교 교수)
조정남 (고려대학교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
Dmitry V. MYONG(국립 알마티사범대학 교수)

www.goodsociety.co.kr

시대와 민족연구

정기구독 안내

<교양사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시대와 민족연구의 정기구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시대와 민족연구」는 모두 정기구독제입니다.
- 정기구독자들에게 한해 직접 개별 주소로 우송되며 서점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 과월 호는 재고가 있을 때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절차

1. 아래 〈정기구독 신청서〉를 작성.
2. 해당하는 구독료를 〈우체국 012187-01-002824〉 (예금주 : 교양사회)로 입금.
3. 아래의 〈정기구독신청서〉를 〈교양사회〉로 우송하거나 E-mail로 보내 주십시오.

연 락 처

〈저널 출판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4동 282-10(우편번호:142-881)
Email : goodsociety123@hanmail.net
T E L : 010-4716-3616 / F A X : 02-907-3617
● Homepage : http://www.goodsociety.co.kr

교양사회

---------- 〈절취선〉 ----------

정기구독 신청서

교양사회

저 널 명		간별	구독 권수	금 액	구독희망	기타
시대와 민족연구		계간	4권(1년분)	₩ 60,000	~	
			8권(2년분)	₩ 100,000	~	
구독자	구독자명(기관)				전화	
	주 소		우편번호		E-mail	